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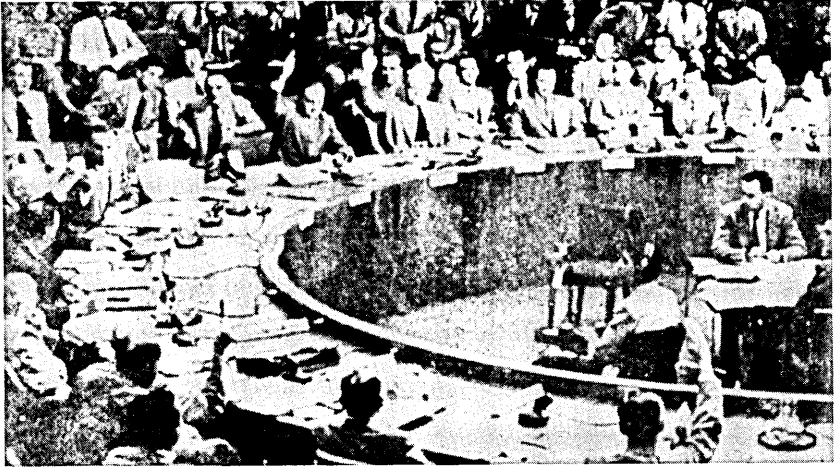
국통조 89-11-91

獨立·統一運動 史料集(Ⅱ)

- 6·25 戰爭以後 7·4 南北共同聲明까지 -

對談 李炫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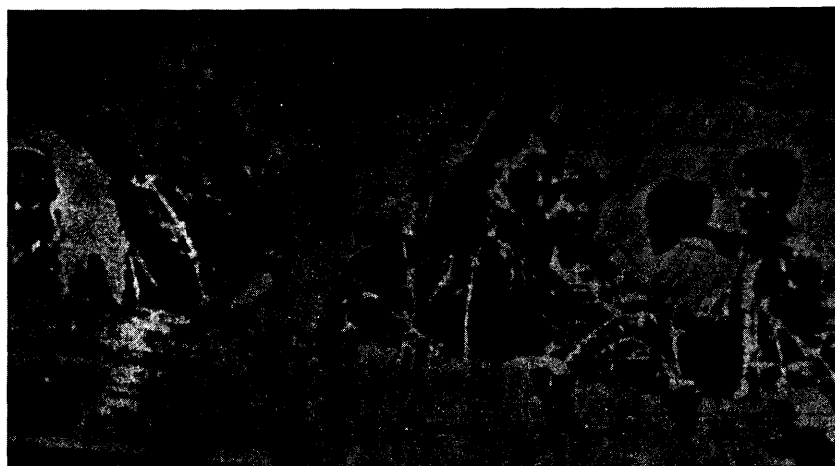
國 土 統 一 院



유엔軍 參戰決議-유엔은 긴급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불법남침을 응징키 위해 유엔군 파병을 의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됐다.(1950. 6.27)



學徒義勇軍의 出征-6.25 당시 학생들도 의용군을 지원, 자진하여 전선으로 출정하고 있다.



反共포로석방-휴전자체를 반대해 오던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반대
를 무릅쓰고 반공애국포로들을 석방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53.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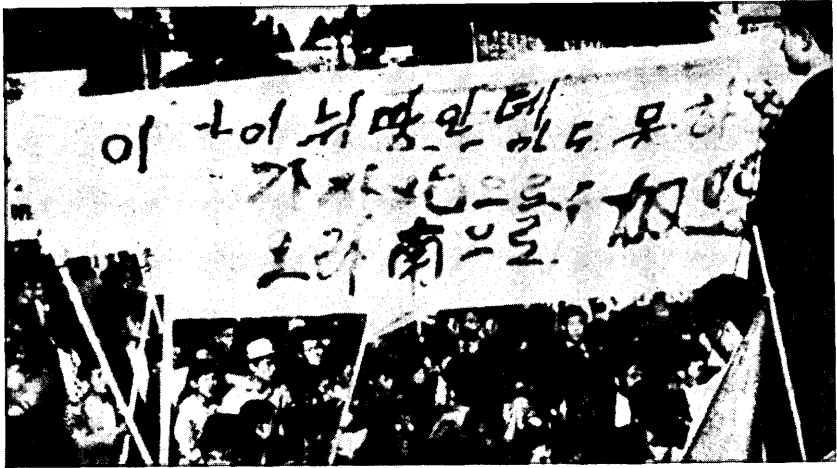
휴전협정문서에 署名-조인된 휴전협정 문서에 서명하는 마크·W·클
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중앙)



포로교환 시작-휴전협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행을 거부하고 자유를 선택, 중립국위원단의 인도아래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오고 있는 반공애국포로들 (1953. 8.5)



進歩黨사건 公判-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 간부들이 공판정에서 재판 받고 있는 모습 (좌로부터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가자 北으로! 오라 南으로! - 4·19의 열기는 통일논의에로 확산, 학생들이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7·4 南北共同聲明 발표 -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目 次

解 題 1

1. 6·25 南侵戰爭과 統一運動 7

<證 言 者>

- 金南植 • 李命英 • 金在鴻 • 하클리

2. 巨濟島 捕虜收容所 事件과 反共捕虜 釋放 113

<證 言 者>

- 田德範 • 金光鎬 • 鄭勝道 • 金仕斌
- 李成運

3. 休戰協商과 제네바 政治會談 139

<證 言 者>

- 韓豹瑛

4. 學徒義勇軍의 活動 249

<證言者>

- 韓榮煥

5. 革新系의 統一論爭 271

<證言者>

- 李東華 • 安新奎 • 安俊杓

6. 反共青年團斗 統一論議 405

<證言者>

- 辛道煥

7. 7·4 南北共同聲明斗 統一論議 423

<證言者>

- 李厚洛 • 徐大肅 • 申榮錫

<解題> 獨立·統一運動 史料集(Ⅱ)

李 炫 熙

(성신여대교수, 한국사)

1

本書는 1988년에 간행한 獨立·統一運動史料集(I)에 이은 그 두 번째의 증언 사료집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6.25 남침전쟁으로부터 7.4 남북공동성명과 북한의 실상등에 이르는 한국현대사에서의 통일운동과 그 의지를 이 운동에 직접 관련을 맺었던 역사의 主役을 찾아 생생하게 증언으로 남겨놓게 되었다. 이미 출간된 資料에도 없는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6.25 남침전쟁 이후 7.4 남북공동성명과 북한의 실상 등에 이르는 격동기의 현대사를 이끌어 왔거나 목격하였던 인물들을 찾아 다니면서 숨김없이, 그리고 객관성 있게 그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다각적인 질문을 던졌다. 역사적인 인물을 編者 나름대로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면서 미처 생각치 못하였던 부분까지도 끈질기게 검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같은 시도는 다행히도 대담에 응해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가능할 수 있었다.

6.25 남침전쟁과 통일논의를 비롯하여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와 석방문제, 제베바 정치회담, 학도의용군의 활동을 먼저 6.25와 함께 다루어 보았다. 이어 혁신계의 통일논의를 세갈래로 나누어 취급하였다. 끝으로 7.4 남북공동성명과 통일논의를 대담을 통해 정리하여 독립·통일운동사료집(Ⅱ)로 남겨놓게 되었다.

2

6.25 남침 전쟁과 통일운동의 첫 번째로는 김남식선생의 증언을 들었다. 6.25 南侵戰爭 開戰 前後의 남로당이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영향이 통일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라 문답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성과를 토대로 해서 나온 낱말들은 모두 귀담아 들어야 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남로당의 실체와 대남적화공작의 공포적인 사실들이 김남식선생의 증언을 통해 새롭게 접근되고 조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상 6.25 南侵戰爭에 관해서는 관련 증언자가 거의 기피하고 있어 가장 고심했던 마지막 분야이기도 하였다. 6.25 때 실전경험이 있었던 몇분의 장성출신과 대담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막상 녹음기를 들이대는 순간에 회피하여 낭패를 맛보는 등 편자로서의 애로가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해 둔다. 따라서 그당시 육군본부 심리과장이었던 김재홍선생(육군중령)을 만났다. 6.25 당시 수도 서울 방어전의 여러가지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심리전의 이론과 실재를 담았다. 왜 공산군이 전면전쟁을 도발하였는가와 쌍방간의 밀고 밀리는 전투상황까지도 상세히 녹음기에 담아 이번 에 수록하였다. 심리전 속에서의 애로와 민족적 비극을 직접 참전했던 예비역 육군중령 출신의 김재홍선생으로부터 들었다. 또 한분의 증언은 前 나토부사령관인 하클리 장군이었다. 그분과의 면담은 매우 유익한 6.25 전쟁 이해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중에 일어났던 갖가지 비극적 사태 하나 하나를 매우 예리하고도 장군다운 평가로 풀어나간 것이다. 경청할만한 외국인의 6.25 남침 전쟁목격담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명영선생은 조선노동당의 실체에 관해서 학자적인 해박한 지식

을 동원하여 상세히 증언해 주었다. 그는 조선노동당 결성의 배경, 성격, 인적구성, 강령, 정책활동 등과 김일성의 한국근대사 날조에 관해 체험적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었기에 정리해 놓았다.

3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과 반공포로석방문제는 반공포로로 활동하였던 천도교인 이성운선생등 5명과 의 경험, 목격, 실전을 통한 가장 절실했던 한계 상황을 대담으로 수록, 정리할 수 있어 펴다 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천도교인으로서의 종교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았으나 종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담자가 객관성을 면반공, 통일문제를 유도해서 해답을 들으려 고심하였던 것이다.

휴전협상과 제네바 정치회담은 원로 외교관인 한표옥선생을 만나 휴전문제의 제기와 제네바 정치회담의 裏面史까지를 생동감, 박진감있게 들었다. 駐美 한국대사관을 개설하는데 기여하였던 미국통한표옥대사의 증언은 1950년대 당시의 한미관계를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해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제네바회담의 개막 경위, 내용, 성격, 의미, 北韓代表와의 관계, 位相등을 상세히 증언해 준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학도의용군의 활동에 관해서는 한영환선생이 상세히 심층적으로 증언해 주었다. 6.25 남침전쟁 직후 각지에서 집결한 학도병들의 진선참여의 동기, 전후 상황, 복진 경로와 흥남 철수등에 관한 증언을 死線을 왕래하던 학도병 출신 한선생으로부터 들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황을 알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 학도들의 통일의식을 파악해 보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4

혁신계의 통일논쟁은 세분의 증언을 수록하였다. 안준표선생은 진보당 핵심요원으로 그의 결성배경, 자금문제, 인적구성, 통일정책, 黨綱, 黨策, 黨義 등을 분석 검토해서 상세히 증언해 주었다.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선생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기에 그를 이해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이동화선생은 평생을 혁신계 정객으로 활동한 본인테 그의 통일관과 민주사회주의자로서의 조국통일의 방법, 理念, 방향, 정책 등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증언하여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줌에 좋은 계기가 될것이다. 안신규선생은 민족일보사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였다. 그는 민족일보창간의 배경, 자금조달 문제, 인적구성과 지상통일논쟁에 관하여 상황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그간 민족일보에 관해 오해가 없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그 내부 실상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5

7.4 남북공동성명과 통일논의에 관해서는 세분의 증언을 수록하였다. 7.4 성명의 막후 장본인인 이후락선생의 증언을 그 16 주년에 기하여 비로소 진실되게 들을 수 있었다.

7.4 성명을 위해 극비리에 北行을 했던 前後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민족통일의 의지를 박정희 前대통령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진실되게 증언하겠다 함을 전제로하고 있다. 7.4 성명의 배경은 물론 경과, 대담자간의 의견조정, 역사적 의미, 통일전망 등에 관해 체험을 앞세우면서 야인의 입장에서 담담히 증언해 주어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된 통일 논의나 北韓問題에 관해서는 두분의 귀한 말씀들을 수록할 수 있었다. 北韓의 實情과 統一政策에 관해서는 전문

가 徐大肅, 申榮錫 두분의 증언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기도하였다. 하와이대 교수인 서대숙선생은 직접 북한을 방문했었던 경험에다가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분이기엔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에 합당하리라 믿고·대담을 청하였던 것이다. 과연 매우 현실접근적인 민족통일의 정책을 제시해 주었다고 믿는다. 신영석선생은 오랫동안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으로서 통일문제를 신앙으로 알고 있는 분이였다. 따라서 그의 현실적인 통일정책은 관념론적으로만 흐르거나 이상론에 머문 것이 아닌 매우 시사성있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고시켜 주었다고 믿는다. 한분은 북한을 그 밑바닥부터 훑었고 다른 한분은 직접 실무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었던 풍부한 경험이 이 문제를 주목케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사료집이 우리나라의 독립·통일운동사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1.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 증 언 자 >

- 김남식 ○ 이명영
- 김재홍 ○ 하클리

◇ 김남식(金南植)

1. 생년월일 : 1925.4.23
2. 출생지 : 충남 논산
3. 주요경력 :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65 ~ '75)
 - 국토통일원 상임연구위원 ('77 ~ '80)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80 ~ '88)
 - 사단법인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89)

이현희 : 김남식선생과의 남로당 관계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조직배경서부터 인적구성, 목표, 정책활동, 북로당과의 관계, 결과, 경과, 영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언제든지 다른 많은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남로당관계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관계에 제일 정밀하시고 업적도 내시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연구하신 김선생님께 귀한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현대사를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빚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로당의 조직배경, 시기라든지 그 시대상황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식 : 남로당이 대개 대중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로 들어가고 북쪽에서 먼저 북조선 공산당하고 연안독립동맹이 숙의를 해서 만들어졌던 신민당하고 합동해서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쪽에서 북조선 노동당이 대중 정당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과정이 남쪽에서 그것이 대

10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중정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역시 조선 공산당이 해방후 9월달에 서울에서 조직이 됐는데 조선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중도좌파라 할까 여운형계열의 조선인민당과 그 다음 독립동맹이 처음에는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서울의 지부를 조직한게 있었습니다 - 그것이 북조선에서 당시 신민당으로 독립동맹이 정당으로 바꾸어지니까 남쪽에서도 남조선 신민당이라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데 연합성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남조선 신민당 이렇게 3당이 합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3당 합당문제가 정식으로 거론이 되면서 처음에는 여운형씨가 각당에 제의하는 형식으로써 대중정당으로 각당 사업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조선공산당이 대중정당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지만 형식적으로 여운형씨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형식을 취했는데 3당합당 문제가 나오자 각당에서는 두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공산당은 3당합당과 같은 대중정당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현재 지도부의 능력가지고는 곤란하니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서 합당을 주도적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당대회를 열자는 대회파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간부파들은, 중앙실권파들은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인데 언제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것을 설정하느냐, 현재 지도부 가지고 당대회를, 3당합당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공산당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인민당내에서도 여운형씨를 중심으로 해서 신중파가 있고 무조건 공산당으로 합쳐야 된다는 합당파가 갈라졌죠. 크게 그것이……

이현희 : 그 당내에서도 분열이 좀 있는 셈이네요?

김남식 : 그렇죠. 중앙확대위원회를 여는데 48:31로 48이라는 무

조건 합당파가, 그것은 좀 좌파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파가 있었죠. 또 신민당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신민당에 백남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간부파하고 그다음 백남운을 제외한 중앙의 간부파하고 그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3개당이 6개그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공산당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간부파하고 인민당의 48 인파, 그러니까 좌파죠.

신민당은 백남운씨를 제외한 중앙간부파가 합해서 남로당이 조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3 파가 사회노동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북쪽에서는 사회노동당을 해체하고 남로당으로 흡수되라고 그런 결정이 있었읍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일부는 합쳤다가 결국은 사회노동당으로 해체해 가지고 근로인민당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여운형씨를 추대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남로당으로, 그대로 이러한 내분을 거쳐서 남로당이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적했던 3개당이 무조건 합당하는 그와 같은 결과는 구체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대중정당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것처럼 됐지만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당의 간부파에 의해서 당만 이름바꾸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대중정당으로서의 성격전환을 제대로 못한거죠. 그것이 46년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남로당 창당일, 지도부 위원장은 신민당 이름을 가지고 합당했던 허헌이 남로당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박헌영이 공산당대표로 추대가 되고, 또 인민당의 이기석이가 부위원장으로, 그래서 3당은 이렇게 분배한 셈이 됐죠. 허헌씨를 남로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는 것은 대중정당의 성격을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으나 역시 합당과정이 그렇게 섹트적이고 종파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정당으로 탈바꿈이 되지 못하고 공산당의 간판을 바꾼 그

12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는가 합니다. 좌익세력내에 파쟁은 여전히 심해지는 그와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현희 : 그러시면 남로당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직이 됐는데 각파의 이해가 걸려있고 주도문제가 복잡해 집니다만, 그들이 내건 주요 목표는 있겠지요?

김남식 : 목표는 오히려 공산당 강령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운 강령을 내건거죠. 그래서 토지개혁,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제시했고 8시간 노동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진보적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든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권력에서 제외한다든가 교육제를 의무교육으로 한다든가 남녀평등을 한다든가 이와같은 비교적 노동당으로서의, 2차대전후에 표방했던 후진국에서의 노동당으로 탈바꿈해 가지고 표방했던 그러한 공산당의 투쟁강령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운, 그러한 정도로 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남로당이라면 그 당시는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을 합치면서 당시에 근로대중들을 포섭해 가지고 대중정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합당이 이루어졌으면 공산당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강령을 그렇게 부드럽게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자체를 하나의 공산당시 하는 것으로 되고 만 것입니다.

이현희 : 지금 우리 인상이 바로 그런것 아닙니까? 완전히 공산당인데 지금 말씀하신 강령에 나타난 목표라든가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김남식 : 그당시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에서는 대개 그러한 정도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이현희 : 새로 건국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한 그런 목표는 매우 바람직 한거죠. 더구나 친일파 숙청같은 것은 그야말로 우익진영에서는 거의 못하고 오늘날까지 온 셈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상당히 중

요한 의미를 가졌죠. 그다음으로는 인적구성이라 할까 하부조직이 궁극합니다.

김남식 : 대개 남로당 조직부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3 당에 안배가 됐고, 위원들을 보면 공산당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 인민당, 신민당순으로 되죠.

지방에 내려가면 남로당하에 입당한 사람들은 대개 농촌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당시만 하더라도 농촌구성이 사회구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개 도시 소시민들 보다는 농촌청년들이 가입이 되었죠.

이현희 :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지구당 같은 것이 있었나요?

김남식 : 그런것은 각 도에 도당, 시도에 면단위까지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세포가 조직이 되고 그래서 47년도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직전까지의 당세는 6-70 만정도 된 것 아닌가……

이현희 : 거기에 입당할 때 자격은?

김남식 : 그렇죠. 거기에 세포를 통해서 심사해서 입당하게 되는데 중앙에서 입당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세포조직을 통해서……

이현희 : 중앙당에서 인준하는 것입니까?

김남식 : 대개 군에서 인준하죠. 군단위에서 인준권한을, 입당심사 권한을 갖는 거죠. 당시 조직뿐만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해서 남로당의 외곽조직 그것이 컸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그것이 전평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조직되어서 철도산별 노조들이 다 조직이 됐고 농민조직으로서는 농민조합, 전국농민조합연맹같은 것은 전농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부총, 부녀총동맹, 그다음 민청, 민주청년동맹, 민청은 나중에 해체됐다자 47년도에 들어가면서 민주애국청년동맹, 그래서 민애청으

14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로 이름을……

이런 조직들이 흔히 당의 외곽조직이고 그런데 상당히 숫자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로당에는 기본 핵심세력으로 외곽조직까지 합칠 것 같으면 그당시에 적어도 미·소 2차 공동위원회에서 각 정당·사회단체 협의대상문제가 논의됐을 적에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의 핵심세력이고 외곽조직까지 합하면 더 많죠.

이현희 : 윤곽이 많이 드러났는데 어느 당이건 정책이 있게 마련인데 정책과 실제, 이론과 실제는 어떠했는지요?

김남식 : 그런데 대개 그당시는 그와같은 당의 정강은 기록을 보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강들을 주장했습니다만, 워낙 중앙으로부터 내려 닦치는 당면한 정치투쟁, 다시 말해서 미·소 공동위원회, 모스크바 3상결정을 지지 해 가지고 임시정부 수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한 투쟁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산별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자기 독자적인 투쟁을 제대로, 경제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지지 못하고 노동자 투쟁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큰 것이 40년도 9월 24일에 있었던 철도파업……

이현희 : 그 파업은 전국적이라고 해도 될까요?

김남식 : 컸죠. 4-5만명이 했으니까 전국철도는 스톱이 됐죠. 그 여파로 해서 항만이라든가 선박, 채신노조, 심지어 출판계층까지도……

그것이 대구에서는 10일 폭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9월의 철도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이 대구의 10일 폭동, 대구 시내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대구, 경상북도 전역에 파급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해방후에 엄청난 희생들이 생기게 되고 그 투쟁의 결과는 역시 좌익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줄 수 있었고 또 좌

익이 불법화되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박헌영으로서는 어떠한 투쟁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한 투쟁을 저렇게 모범적인 좌경, 모범적인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남로당을 비롯한 외곽조직에 대한 도움이라는 것을 준 것이 없고 오히려 과격하다, 오히려 국민으로 부터 멀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깨지니까 그다음에는 소련에서 주장한 양군철폐, 그다음에 남북총선거를 해서 정부수립하자 그렇게 나가고 미국이 유엔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9월달에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한편으로 북쪽과 내통하면서 48년도 4월달에 남북협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깨진 다음부터는 양군철폐와 남북 총선거를 자주적으로 하자는 그러한 슬로건 투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정권수립을 위한 투쟁이 가장 중요시 됐기 때문에 남로당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정강을 실현하는 정책투쟁, 여성들로 하여금 남녀평등권 투쟁을 한다든가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이라든가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이라든가 그 당시 군정에 반영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없었죠.

중앙에서 벌어지는 정치투쟁에 복종해 가지고 지방에서 까지 전체가 총 쫓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가져왔죠.

이현희 : 그당시에 여성당원도 있었습니까?

김남식 : 여성당원이 많이 있었죠.

내가 보기에는 남로당 중앙에도 일제때 부터 공산주의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몇사람 있었는데, 전철성이라든가 고명자라든가 유

16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영준이라든가.

이현희 : 주세죽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김남식 : 주세죽은 죽었죠. 박헌영의 부인인 주세죽은 그전에 죽고 그대신 김명시, 동국동맹에, 김태진씨 부인의 박 누가 있었는데 중앙에도 그런 여자들이 있었죠.

이현희 : 황신덕씨는 어떠했어요?

김남식 : 황신덕씨는 관여하지 않았습시다.

이현희 : 그때 전향을 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정도 이름만 해도 상당히 지도적인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김남식 : 결국은 중앙에서 벌어지는 정치투쟁 이외에는 별로 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곽단체를 무엇을 했는데 다만 한가지 46년 2월 15일날에 좌익정당 또는 좌익에 동조하는 사회단체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했죠. 민전이라고 하는데 민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일전선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전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도에도 민전이 조직이 되고 군까지 민전은 지방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전을 조직한 것은 상당히 하나의 활동에서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통일전선체를 만들었으면 그 통일전선체를 좀 옹기 활용을 했으면 극좌적인 좌경적인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또는 박헌영과 일부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희생만 가져왔는데 특히 48년에 들어 서면서 2.7구국투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와 같은 5.10 선거를 단독 선거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폭력성 면 그러한 투쟁으로 넘어갑니다. 2.7투쟁이

벌어진 후 부분적으로 무장조직인 야산대 같은 그런 것들이 조직이 되고 그래서 5.10 선거전인 4월3일 제주도에서 4.3 제주 폭동이 난 것이죠. 그것은 역시 5.10 선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파피시켜라,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좌절시켜라 라는 중앙당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격했고, 5.10 선거는 결국 파피시키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만 성공 안됐고 나머지는 예상외의 많은 투표자와 지지율에 의해서 됐죠. 이렇게 되니까 북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당시 4월19일날 남북협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양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남한의 좌익 간부들은 거의 다 올라간 편이 되는데 일부는 내려오고 많은 사람이 거기 주저앉게 됐죠. 그 이유는 어차피 5.10 선거가 실패하게 됐고 파피가 실패하게 됐으니 정부수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정부수립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남았던 거죠. 그와 같이 7월달에 결정을 보죠.

정부수립을 위해서 북쪽은 선거를 합법적으로 하고 남쪽은 간접 선거를 하자, 그래서 남쪽에서는 각 군단위로 7-8명씩 지도자들을, 좌익지도자들을 해주로 다 집합시켰죠.

김남식 : 해주에서는 1천 몇명이 모여가지고 남쪽은 인구가 많으니까 3백16명인가 그렇게 최고인민대의원을 뽑습니다.

북쪽에서는 2백 몇명인가 뽑고 5백 몇명으로서 최고 인민공화국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9월달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이현희 : 9월 9일.

김남식 : 예, 창건하는 겁니다.

헌법을 채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걷게 되는데 9월 9일날 정부가 수립되니까, 남쪽은 벌써 8.15에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 그렇지요

18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김남식 :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북쪽은 남쪽대표도 했기 때문에 유일 합법정부다, 합법적인 정부이다.

이현희 : 유엔의 지지 찬성도 받고 결의를 했으니까.

김남식 : 남쪽은 유엔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남쪽이 합법정부다. 북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남쪽 대표까지 해주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조선을 대표하는 정부다.

이현희 : 인정하지 못한다.

김남식 : 서로 괴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양정부의 수립과정이라는 것이 서로 양해가 있어 가지고 너희쪽은 너희들끼리 정부 만들라, 그렇게 해서 했으면 모르지만 서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수립 후에 이것은 더욱 적대정책이 심화되는 거죠.

이현희 : 그렇죠.

김남식 : 이때부터 남로당은 5.10 선거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정부수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정부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투쟁,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투쟁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현희 : 상회하여 나가네요

김남식 : 예, 그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한다는 것은 점점 폭력투쟁밖에 없는 거죠.

이현희 : 그렇죠.

김남식 : 그래서 48년후 부터 벌어지는 남로당의 투쟁 전술은 전적으로 폭력투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현희 : 48년 8.15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죠.

김남식 : 네, 이것은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 다마는 여순반란사건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고, 여순 반란사건으로서 무장부대가 산으로 은거할 수가 있었고 하나의 게릴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그전부터 야산대라는 무장부대가 있었습 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확대되는 거죠.

합법적인 당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조직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투쟁을 할려고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밑에와의 연계속에서 벌어지고, 이때부터는 무장투쟁 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특히 여순반란사건에서 반란 일으킨 부대들이 남쪽의 지리산 같은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몇군데 전구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태백산 지역에서도 전구가 생기고 지리산 전구도 생기고 제주도도 전구가 생기고 제주도는 그다음에 호남 전투전구가 있고 49년도에 들어서면서는 양상이 달라지죠. 3월달에 북쪽에서 김일성,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모스크바 방문해서 스탈린도 만나고,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이런 것들을 약속받고 일부 중국에서 팔로군, 신사군에서 활동하던 군인들이 일부 북쪽으로 인제가 되구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49년 6월달에는 남쪽에 조직됐던 통일전선체 하고 북쪽에 조직됐던 통일전선체가 합쳐가지고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조국전선이라고 그러죠.

이현희 : 조국전선인가요?

김남식 : 그것이 오늘날에도 저쪽에서는 통일기구의 하나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국전선에서 49년 6월달 대회에서 강경분자 세력으로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선언문은 남쪽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9월달에 정부를 수립하자, 그때부터 9월공세라고 그러는데, 9월공세가 그당시에 남쪽에서 벌어집니다. 9월공세는 무장투쟁으로 전개되는데 엄청난 무장봉기들이 일어났죠.

20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이현희 : 파괴, 살상.

김남식 :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약화시켜야 되니까, 군청소재지라든가 공공기관, 경찰서를 습격도 하고……

이현희 : 민심소란도 시킬 것이고.

김남식 : 북쪽에서 그 무렵에 내려오지요. 열차레에 걸쳐서 여기서 올라갔던 사람을 훈련시켜서 내려보냅니다.

열차레에 걸쳐서 ……

이현희 : 특별교육을 시킨 다든가.

김남식 : 그렇죠, 무장투쟁이죠. 무장투쟁하기 위해서 지휘관 양성 ……

이현희 : 무장투쟁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령 같은게 있었겠죠.

김남식 : 열차레에 걸쳐서 내려 옵니다.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병단이 생기고, 지리산에는 인민유격대 제 2 병단, 오대산 쪽에서는 제 1 병단, 경남북 산악지대에는 3 개 병단이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것이 49 년 50 년에 거의 전멸됩니다.

이현희 : 그때 토벌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김남식 : 많이 했지요.

이현희 : 군·경 이렇게 해가지고.

김남식 : 거의 전멸되고 또 50 년대 들어서서는 거의 산에 남은 숫자는 극소수이고, 그다음에 50 년 3 월달에는 남로당을 총체적으로 지휘해오고 있었던 김삼용이 하고 이주하가 체포되는 거죠. 3 월달입니다.

김삼용, 이주하가 체포되는 것은 남로당 총 붕괴를 뜻하는 거죠. 사실은 북쪽에서는 구출공작을 할려고 조만식 가족과 교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 평화통일 공세가 나오는 거죠.

이현희 : 표면적으로는 무장하면서 미소작전, 평화작전 그런거죠!

김남식 : 그때 그렇게 나왔죠.

6월 19일까지도 통일방안까지 내세우고 하는 이렇게 되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6.25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될만한 것이, 6.25 전까지 희생이 컸죠. 그 희생이라는 것은 정권장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에 의한 희생인데,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싸움이었다 하더라도 한나라에서 그만한 희생이 나왔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한 10만명이 넘었으니까, 제주도사건 등등 해가지고.

이현희 : 엄청난 숫자입니다.

김남식 : 그렇게 때문에 그것이 미군정하에서 정부수립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권싸움을 통해서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민족사에서 그만한 전쟁없이 10만정도가 희생이 되었다는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결과를 놓고 본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죠. 민족사적으로 봐서 6.25라는 것은 이와같은 전쟁도 아닌 상태에서 정치투쟁에서 10만정도가 희생이 됐는데, 차 형무소에다 좌익지도자들이 수천명씩 감금된 상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데올로기 6.25를 봐야지 6.25를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봤다가는 6.25 평가는 잘못되는게 아닌가?

이현희 : 네, 맞습니다.

6.25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전제과정이 남로당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김남식 :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고찰을 해야죠.

이현희 : 네, 그렇습니다.

김남식 : 예를 들어서 한 10여만이 죽는데다가 좌익 간부들이 거의 수감된 상태고 또 일부 약간의 좌익운동했던 사람들은 보도연맹으로 한 20만명이 묶여져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결이 된 것이 6.25란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외적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

22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겠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미·소의 냉전구조가 47년부터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하나의 동서 냉전이라든가 여러가지 외적요인도 봐야 되겠지만은 스탈린의 팽창주의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내부적으로는 이와같은 과정을 전제로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은 6.25에 대한 성격문제가 곤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현희 : 그 당시에 미군정에서는 남로당을 어떻게 봤습니까? 정보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남식 : 당연하죠. 미군정으로서는 제일 처음에는 공산당을 불법화할 수 없는거죠. 불법화 할 수 없는 것이 일제하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좌익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현희 : 많았죠.

김남식 : 그분들이 해방후에 공산당 조직을 했기 때문에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기전에 반일 투쟁을 한 세력이다, 이런 뜻에서……

이현희 : 항일투쟁.

김남식 : 이런 뜻에서도 오히려 존경했으면 존경했지 반대할 만한 것이 못됐죠.

그러니까 미군도 그럴 수가 없었죠. 한가지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된것이, 해방후에 공산당이 조직되면서 부터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민공화국을 여운형, 박헌영, 허헌 이런 몇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회의에서 만들었는데, 이승만을 주석으로 해서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사실 대표대회라는 것은 몇백명 모여가지고 해야되는데 이들은 비상한 시대는 비상한 방법으로 할수도 있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때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은 군정실시 할려고 했는데 인민공화국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체하라 이렇게 나오고, 한편에서는 한민당이니 뭐니해서 상해임시정부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세력들도 나오고, 상해임시 정부는 정부로서 들어 올 수가 없었고 개별적인 인사로 들어왔지마는 들어와서는 또 임시정부 행세를 할려고 했습니다.

이현희 : 활동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김남식 : 그렇죠!

이현희 : 김구선생이라든지, 조소앙씨니 뭐니해서 했죠.

김남식 :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측에서는 미군정도 인정하지 않고 해체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상해임시정부는 정부행세를 하지 않지만은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정부행세 할려고 했고, 서로 양쪽을 합치든가 해산하자 이런 교섭에 들어갔지요. 인민공화국 측에서 임시정부에다가.

그러나 김구선생은 절대로 안중에도 없다 이래가지고 김구선생은 다시 비상국민회의니 새로운 조직으로 하다가 모스크바 삼상결정이 나와 가지고 반탁운동을 했지요.

이현희 : 반탁운동으로 나왔지요?

김남식 :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조직된 정권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그당시 너무 급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거의 다 조직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중앙에서 인민공화국 만든 것은 나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급조해서 너는 장관하고 너는 부주석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비상시라고 하지만은. 차라리 중앙인민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인

24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민위원회 협의체를 만들면 모르지마는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주석까지 나온다는 것은 나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아무리 그당시 좌익세력에 의해서 조직됐다하지마는 좌익세력이 일제때 반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위원장이 됐습니다. 지주속에서 인민위원장이 있었고 지식인 속에서 인민위원장이 된 사람이 많아요. 인민위원회가 자연발생적으로 나왔고, 일제 통치기구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통치기구로 돼야되지 않겠느냐가 그당시의 절대 민중의 요구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인민위원회가 나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무시하고 과거의 통치기구 그대로 했다. 말이예요. 미군은 과거 통치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통치하게 되면 아주 쉽겠지요. 관료들도 그대로 하고.

이현희 : 그렇지요.

김남식 : 이런 것들이 역시 미군정을 불가피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사정에 대해서 몰랐고, 또 하지 사령부가 들어와서, 사병들은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들어와서, 집에가고 싶은데 말이지요. 이런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분단의 몇가지 원인과 우리의 주체적 정책이 일제를 무시 못해서 그와 같은 외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밟았는데, 역시 책임을 미군한테 씌울수도 없는 것이고 역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제를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요?

이현희 : 그렇지요.

그리고 북로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령이 많이 있었겠지요?

김남식 : 사실은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조직됐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몇 사람들이 만든 공산당이고, 북쪽에서 10 월달에 분국형식으로 공산당 조직이 됐지마는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중앙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파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여기서 분파가 깨지는 거고, 남로당 조직도 저쪽에서 지령을 받았던거고, 그러나 형식상으로 보면 여기가 중앙당이었고, 남로당하고 북로당은 별개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8년도 7 월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일조직을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남로당 중앙위원회와 북로당 중앙위원회가 연합해 가지고 연합 중앙위원회가 조직됩니다. 남북노동당 연합 중앙위원회가……

이현희 : 연합?

김남식 : 네. 한나라에 두개의 정당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서 연합중앙위원회가 조직이 됐다가 49년도에 민주주의민족전선하고 북조선의 민전하고 합쳐서 조국전선을 만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희 : 네. 있었죠.

김남식 : 끝나자마자 남로당, 북로당이 합당해서 조선노동당으로 재발족하는 거죠. 박헌영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정당으로만 남게되는거죠. 그때부터는 남쪽에도 조선노동당 서울지부라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정을 밟았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남로당 간부가 노동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제거되죠.

이현희 : 네! 제거해서 숙청당한 셈인가요?

김남식 :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제거되는 거지요. 그러는 과정을 밟

26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고 그래서 사실은 또 제거되고, 남쪽에서 산에 남아있던 빨치산 세력들이 그것도 54년, 55년경 가면 거의 전멸됩니다.

이현희 : 완전소탕이 되는 거죠.

김남식 : 그렇죠. 산에 있는 남로당 간부들도.

이현희 : 전향하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김남식 : 예. 많이 있지요.

그런데 50년도 이전에 보도연맹이라는게 있어가지고 한 20만정도가 보도연맹에 가입한걸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전향한 거지요.

이현희 : 전향?

김남식 : 6.25가 발발하자마자 인민군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숙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게 일반 공개들을 별로 하지않고 있는데 보도연맹을 맡는 사람들이 평택 이남에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예비검색에 걸려가지고

이현희 : 괴뢰군한테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나요?

김남식 : 여기서 죽지요.

이현희 : 여기서?

김남식 : 네. 여기서 죽었지요.

이현희 : 여기서? 그 숫자가 꽤 되지요.

김남식 : 아! 그렇지요. 엄청나지요.

이현희 : 2중3중 비극을 당한 셈입니다, 우리는.

김남식 :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본래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전향서를 쓰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인민부대가 내려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또 일부 서울보니까 보도연맹했던 사람들도 다시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안 되겠다-그야말로 그 숫자가 어마어마 합니다-인민군 대치하에 들

어가게 돼서 왜 우리를 어떻게 죽였느냐? 이래가지고 또 우리 인
사 남은 사람, 별로 위 활동 그다지 하지 않은 사람들도 감정이 있
으니까 그 사람들도 죽이는 거지요.

이현희 : 일종의 보복같은 거지요?

김남식 : 네. 그러다가 인민군들이 또 후퇴하니까 국군치하에서 또
또 ……

이현희 : 이래 저래 수난만 당하는건데.

김남식 : 결국은 우리 민족 밖에 없어요.

이현희 : 글썽 말입니다.

김남식 :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역사는 불가피 했는지
모르지마는 오늘날 가만히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우리 분단때문에 그래요.

이현희 : 그래요 맞습니다.

김남식 : 일제통치를 받은 것이 하나의 근원이 되는 거지요.

이현희 : 분단의 일차 책임이 일본의 폭력으로부터 연계된 것이 아
닌가 이렇게 보는데 ……

6.25 직전에 박헌영은 평양에 있었지요?

김남식 : 박헌영, 평양에 있었죠.

이현희 : 그때 김일성하고 그때는 서로 같은 동지 사이고 그랬는
데, 아닙니까?

김남식 : 그렇지요. 그런데 박헌영하고 김일성의 관계는 지금 사학
자들 또는 전문가 등에 따라서 조금 견해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박헌영은 김일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북쪽에 가서는 처음부터 김일성한테 복종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입
니다.

그런데 박헌영이 북쪽에 가서는 전적으로 북쪽 일을 제대로 안

28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보고 남쪽일을 봤습니다. 박헌영하고 이승엽하고

이현희 : 이승엽이요 ?

김남식 : 네. 남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박헌영이 하고 이승엽이 지령을 내린거예요. 전쟁때도 마찬가지고.

이현희 : 6.25 일으키는데 역할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박헌영이도.

김남식 :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박헌영이가 지역 담당하고 있는 곳이 남쪽인데 남쪽에서 10만 정도 죽고 또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형무소에 다 갈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하고 현상타파를 누가 원했는가? 현상타파를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삼일이 나홀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 정규군이 부산까지 안 내려가고. 이런 것도 6.25 전쟁에 대한 성격중의 하나이고 처음부터 부산까지 물고 가려고 했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이현희 : 글쓰신 것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박헌영을 결국은 6.25 전쟁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숙청을 한 상황인데.

김남식 : 책임이 아니지요. 책임이라고 하면 김일성이도 책임을 져야될 문제이니까 확실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현희 :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김남식 : 아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되고 일제때도 봐야되고, 또 이승엽이라는 사람을 봐야 되겠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을 다시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봤을 적에 저쪽에서 재판을 한 기록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걸로 봅니다. 단순히 파벌싸움이다, 권력싸움이다, 6.25 전쟁 회피

다, 이렇게만 보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주는 뜻에서 경과나 결과, 영향 이런 것을 현대사적 민족사적 관점에서……

김남식 : 식민지 국가였었고 또 반봉건적 국가였던 나라가 처음에 자체의 힘에 의해서 해방을 가져오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역시 그 독립국가로서 민족사를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민중들의 요구는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제하에서 부터 민족운동을 끈질기게 이렇게 또 민족속에 뿌리박은 그러한 그 지도세력들이 없었지요.

이현희 : 네!

김남식 : 민중속에 뿌리박은 항일운동 세력이라고 그럴까 독립운동 세력이 지지받는 세력이 사실 없었던거죠. 상해임시정부 하나가 상징적으로 있었습시다마는 역시 국내의 뿌리라는 것이 깊이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양국이 들어와 가지고 당당시 스탈린 체제이기 때문에 북쪽은 자기 군대들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소비에트화하려고 한 것은 사실인 거고 미군정도 초기에는 별로 몰랐지만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지역을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거고 거기에다가 국내 지도자들은 여러가지 단합이 안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우익으로 갈라지고 했습시다마는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식민지, 반봉건국가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대개가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시설이라는 것을 국유화하게 되면은, 순수한 자본주의 형식은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데 일제탄압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사회주

30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의적인 사상의 파급이 쉬웠고, 경제구조가 일제에 국유화하게 되며는 경제 구조라는 것은 사회화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성향을 띄고 항일을 하고, 민족 독립이라는 것을 굉장치 염원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항일을 잘 했건 못했건 일제때 항거한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체제는 역시 말씀드렸지만은 민족적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그당시의 사회 경제 상황이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순리인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적발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강대국들과 또 일부 국내세력들이 그에 영합해서 상부구조가 생겨가지고 그대로 하부구조에다가 상부를 뜯어 맞출려고 하는, 내적 발전을 무시하고 이렇게 돼서 무리한 정책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져 가지고 희생도 크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무엇보다 일제 3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그 효과가 해방후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또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싸움들이 벌어지고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6.25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남로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을 지은다면 나올 수 있는 정당이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해방후 사회, 경제적인 성격으로 봐서 또 일제와의 투쟁적 연결선상으로 보아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일제때도 항일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당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왜 저렇게 붕괴의 과정까지 밟았느냐 하는 문제는 남로당 지도부에 나는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현희 : 네, 지도부에.

김남식 : 거기에 속해서 활동한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비교적 주장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별로 나쁜 것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지도부가 잘못 지도를 해가지고 그 많은 희생과 총 붕괴라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로당은 지도부와 거기에 망라된 당원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현희 :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로당 하면 일종의 공산당 파 피분자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았는데.

김남식 : 지도부가 그렇게 만들었지요.

이현희 :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한계라 할까, 흐름을 저희가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사를 써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잘 들어옵니다. 남로당에 대한 성격 규명을 하는데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식 : 네, 감사합니다.

◇ 이명영 (李命英)

1. 생년월일 : 1928.3.31
2. 출생지 : 함북 북청
3. 주요경력 :
 - 서울대 정치과 졸업 ('53)
 - 서울대 대학원 정치과 졸업 ('57)
 - 정치학박사 ('74)
 - 성균관대 교수 ('66 ~ '89)
 - 경향신문 논설위원 ('63 ~ '70)
 - 중앙일보 논설위원 ('71 ~ '75)

이현희 : 우리나라 근대사와 현대사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조선노동당, 남로당 관계 이런 분야는 기존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거나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김일성 열전」을 비롯해서 「재만한인 공산주의운동 연구」 「권력의 역사」 등의 많은 저술을 남기시고,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조선노동당 혁명역사 등 많은 업적을 쌓으신 이명영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당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어봄으로써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선노동당이 조직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명영 : 8.15 해방되던 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동안 평양에서 서북5도당 열성자 대회란 것이 열렸습니다. 그때가지고 거기서 당을 만드는데 그때 김일성 등등 소련군대와 같이 나온 사

람들은 아예…… 남한에 조선공산당은 이미 그 해 9월말에 박헌영 등이 조선공산당을 재건했거든요. 조선공산당이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1925년 지하에서 만들어 졌다가 1928년에 사실상 와해상태에 들어간 것을 그후에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해서 숭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려고 애썼지만도 번번히 모두 붙잡히고 해서 8.15해방때까지 조선 공산당을 재건을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것이 해방후, 정치적인 자유가 온 시점에서 박헌영 등등이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했지요. 그것이 그 해 9월이었는데, 남북한에 깔려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전부 조선공산당 그 세력에 포함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평양의 경우는 소련에서 군대가 올 때에 김일성, 최영근, 최 현 등등 일단의 한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당을 조직하게 되는데 일제때 국내에서 항일투쟁하던 국내파 이지요. 그리고 김일성 등 소련군대가 데려온, 그 사람들은 엄격히 말하면 일제때 30년대 후반 만주 땅에서 소위 항일빨치산 활동하던 사람들을 소련파라고 그랬지요. 그 사람들의 소속이 중국 공산당 만주 조직인 중국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 산하에서 만들어진 동북항일연군이거든요.

김일성, 최용건 등등 말하자면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실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근원은 중국 공산당 만주동북항일연군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동북항일 연군 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은 소련 군대가 북한에다가 군정을 실시하고 앞으로 북한을 공산주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을 소련에서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등 동북항일연군 계열의 사람들하고는 별도의 사람들입니다. 일찌기 서로 안면도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일

34.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제시대 혹은 이조말기에 시베리아 방면으로 이주해 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의 2세대, 3세대인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소련에서 교육 받고, 각급 당기관 혹은 직장에서 정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한 2백여명을 소련에서 불러들여 왔거든요. 이것을 저는 소련 2세파라 부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40년째 전반기를 화북 연안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산하에서 조직되었던 조선독립동맹, 또 그 조선독립동맹의 무장세력인 조선의용군 출신의 무정 장군이라든가, 최창익이라든가, 김두봉이라든가 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연안파 공산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은 8.15 해방 시점에 있어서 네 종류가 있었던 것이 되지요.

국내파 공산주의자들, 이것은 서울에도 있었고 평양에도 있었지요. 그리고 동북항일연군계, 소련 2세파, 연안파 그렇게 되지요.

45년 10월 10일에 당을 조직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는 아직도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소련 2세파가 아직 도착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국내파하고 동북항일연군파, 김일성, 최용진 등 이들이 모여서 당을 만든 것이죠. 그 때에 김일성 등은 소련군 당국의 지령에 의해서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조선 공산당과는 별도의 독립된 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컨대 주영하라든가 오기석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골수 공산주의자로서 일제시대부터 코민테른의 지령하에 코민테른으로부터 내려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고 또 오기섭, 주영하만 하더라도 일제때에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대학을 다니고 하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때에 다시 파견되서 들어와 가지고 붙잡혀서 형무소 생활을 하는 등

고생한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코민테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원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기섭이 같은 사람들은 무슨소리냐, 조선은 같은 조선인데 서울에 조선공산당이 있는데 따로 당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토론이 벌어 졌을 때…… 그 때에는 국내파가 숫자가 많았을 때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희 : 인적인 면에서는 국내파가 상당히 많았지요 ?

이명영 : 늘 압도적이었지요. 공산주의 열성자 대회를 열었다 하면 그 모임에는 다 일제시대때부터 활동했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이지요.

이현희 : 25년 이후에 조직되었던 하나의 맥이죠 ?

이명영 : 그렇지요. 25년 이후서 해방까지의 20년 동안에 피차에 서로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세력이 크지요. 소련에서 같이 온 김일성 일행은 한 5-60 명이 따라왔을 정도니까 숫자가 얼마되지 않지요. 그래서 만든 것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란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서울에 있는 조선공산당의 북조선 지부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의를 해요. 서울에 있는 중앙당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중앙당 박헌영이 한테로 평양에다가 지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조직보고를 합니다. 박헌영이는 여기서 보고서를 접수해가지고, 『좋다, 너희들을 조선공산당의 북조선 공식조직으로 임명을 한다』하는 지령서가 내려 갑니다. 지령서가 내려 간 것이 그해 10월 23일 이었으니까 박헌영에 의해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스탈린의 지령에 어긋난 지시거든요. 스탈린의 지령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학자들 국내의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도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 사실입니다.

36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새로 바뀌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1945년 8월 24일에 북한에 주둔한 소련 군대가 평양을 점령합니다. 북한점령이 완료되지요.

이현희 : 해방 바로 몇일후네요.

이명영 : 8월 24일이거든요. 그러자 스탈린은 북한점령이 무사히 끝났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해 9월 20일자에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관 치차코프 대장한테로 북조선을 점령하는데 있어서 소련군대가 해야될 기본 행동방침을 지령합니다. 그것이 9월 20일자입니다.

붉은 군대 총 사령관 스탈린 대원수가 붉은 군대의 총 참모장 안토노프 원수 그사람 명의로서 북한에 있는 치차코프 대장한테로 명령서가 하달된 겁니다. 그 명령서 첫째 조항이 북조선에 독립된 공산당을 조직해라. 전조선에 걸친 공산당을 만들 생각을 하지말고 점령한 지역…… 이것은 분단국가 얘기입니다. 분단국가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탈린의 9월 20일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표했는데도 세상에서 모두 몰라주고 있으니깐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부루스커밍스에 이젠 다 나옵니다. 소련세상을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북한에다가 공산당을 하나 독자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북한에다가 빨리 공산주의 정권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북한을 민주 기지로 만들라—공산주의자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 하니까. 북한을 민주주의로 만들라 하는 것은 북한을 독립된 주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한까지 다 흡수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공산통일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분단 노선이지요.

먼저 북한에다가 독립된 당을 만들었다 하는 자체가 이미 분단화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지령서가 9월 20일자에 떨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련군대의 모든 행동과 기본노선이 거기서 부터 풀어서 나옵니다. 해방후의 우리의 현대사를 논하는데 있어서 우리 분단의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우리 통일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되는 9월 20일자 스탈린의 지령서 이걸 간과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이 지령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1960년대 이래 주체노선이다, 주체외교다 하면서 소련의 말을 안듣고 시작했거든요.

중소분쟁이 일어난 틈바구니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었겠지요. 이쪽에도 붙을 수 없고 저쪽에도 붙을 수 없으니까 중립 노선으로 나갈 수 밖에 없지요. 중립이란 용어 자체가 피동적인 용어지요.

능동적인 주체적인 용어가 안되니까 주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김일성이가 어디까지 망발을 했냐하면 8.15 해방도 자기가 한 것으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해서 됐다 하던 김일성이가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역사책 자체도 전부 변조했거든요. 우리가 주동적 역할을 하고 거기에 소련군의 협력을 얻어서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가면 스탈린 거리로 이름 붙였던 도로를 스탈린 자는 빼버리고 금수로인가 하는 것으로 고치고 또 모택동로라는 것이 있어요. 스탈린 거리라 하는 것은 소련군대가 평양에 진주할때 처음에 8.15 때 걸어 들어온 길이고, 또 모택동 거리는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 우의와 동맹관계를 자랑했던 김일성이가 60년대 후반부터 그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에서 노발대발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서 북한에

다가 경고장을 내는 첫 시작이 1975 년입니다. 경고장은 1975 년 소련 아카데미에서 조선해방이라는 책을 냈는데, 조선의 해방이라는 책은 8.15 해방때 북조선에 진주한 장군들, 고급장교들을 모아 놓고 북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던 때의 회고담을 모아 좌담회 식으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경고지요. 그랬는데도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한테 후계를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에 대해 소련은 더욱 긴장을 하지요. 김일성 사후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일테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체노선이라는 것은 반소 노선이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낸 책이 이것이지요.

바로 다음 해인 81년에 낸 「인민조선과 소련과의 관계」 「1945년에서부터 1980년」이라고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기간에 양쪽에서 오고 간 각종 인사장, 감사장, 조약, 주요한 지령서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소련에서 발행합니다.

그것을 내가 통일원에 건의해서 러시아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해서 그 번역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해방이라는 책이고, 또 이것은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책을 들어보임) 이걸 제목을 잘못 붙였습니다. 원제목은 「인민조선과 소련과의 관계」거든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9월 20일자 지령서가 나와요.

이현희 : 그럼 그 지령서가 나온다면 분단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겠습니까.

이명영 : 그런데 그 지령서는 공교롭게도 제1항, 제2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 5, 6항 해놓고 저 사람들이 공개하면 서도—소련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 수 있습니다— 공개하면 서도 1항, 2항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또 6항 이하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내 놓고 있어요. 이것으로 1항, 2항의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도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후 북한이 소련군대와 한 행동을 추적해보면 추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들어맞아요. 그 분석은 1항은 평양측이 독자적인 공산당을 만들라는 조항이고 2항은 독자적인 정권을 빨리 만들라는 조항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동경 대학에 소련문제 전문가로 있다가 이 근자에는 조·소문제 분야까지 하는 와따하루끼라는 젊은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진보파 동대교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항이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라는 지령이고 2항이 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해줬죠. 공산당은, 공산주의자는 당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정권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1항은 당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10월 10일 당을 만들때 김일성 등등은 독자적인 당을 만들려 했던 것이 스탈린 지령대로 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파는 1국1당원칙을 주장했고, 동북항일연군파는 숫자가 적으니까 일단 양보를 해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으로 출발을 했지요. 그러가지고 12월달에 가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또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북조선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북조선 공산당이라는게 서울에 있는 조선공산당하고 별개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아니고 북조선 공산당이 됩니다. 이러니까 스탈린 지령대로 별개의 당을 만든 것이죠. 결국 10월부터 12월사이에 국내파인 현준영 같은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북조선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유명한 민주기지 노선이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스탈린 지령속에 들어가 있던 취지를 그

대로 민주기지노선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당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정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은 해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지요. 북조선의 임시위원회라는 것은 이름은 임시위원회이니까 자치기관 비슷하게 되지만 이것은 정부입니다. 왜 중앙정부냐 하면 그해 8.15 1주년 기념식장에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장인 김일성이가 이것은 중앙주권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헌법을 봐도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주권 기관이라고 그러고 중앙정부는 중앙주권기관이라고 그렇게 연고가 되어 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정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북한의 땅, 인민이 있으니 독립된 국가입니다.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독립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소련군대의 지휘하에 있었지만 하나의 독립된 정권을 만듭니다. 어쨌서 그들은 그래야 하나 하면 튼튼한 민주기지를 만들어서 남반부를 빨리 해방,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안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무시 못할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소련 군대가 연안파에게 너희들 당을 만들어라 해서 나온 것이 조선 신민당이라는 정당입니다. 이 공작이 무슨 공작이나하면 결국은 박헌영과 김일성을 동등한 위치로 만들고 결국엔 박헌영을 김일성의 밑에 넣기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보고 논문을 발표했지요. 만약에 북한이 독립된 주체라면 일국 일당 원칙이어야 하는데 이 북조선 공산당이 있는데 또 공산주의자로 하여금 대동소이한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조선신민당을 평양에만 만든것이 아니라 남조선 서울에도 한 명이 와가지고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었습니다. 46년에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백남운씨가 위원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김두봉씨를 위원장으로 한

조선 신민당이 생겨, 남과 북에 각 2개의 공산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가 합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개를 만들어 놓고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북에서는 통합합니다. 통합 할때 김두봉씨가 연장자니까 당 최고 위원장으로 하고 김일성은 둘째 책임자로 됩니다. 그리고 남조선에 대해서도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북조선에서 합한 것이 북조선 노동당이고 남조선에서 합한 것이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남조선의 위원장은 박헌영이 됩니다. 북조선 노동당이 발족한 것은 1946년 8월이고, 11월에 남조선 노동당이 발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대등하게 되어서 김일성은 분국산하에서 일거에 대등한 위치가 되지요.

그러나 남조선 노동당이 여러가지 위법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박헌영등이 북한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 단일화 됩니다. 쪼갤때는 언제고 합칠때는 일국 일당이거든요?

그리고 남조선 노동당이 비록 간부들은 평양에 있지만 정치적 기반은 전부 남한에 있으니까 북조선 노동당하고 합하는 것은 국토통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침전쟁을 하기 위한 역적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때가 1949년 6월 2일입니다. 1949년 6월 30일 평양에서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이 통합해서 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질 때 - 남한에서는 미군들이 철수한 그 다음 날입니다. 철수가 완료된 그 다음날 통일의지가 담긴 당의 통합…… 당의 모든 혁명 참모부가 당이나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북한을 통합시킨다는 얘기지요. 결국 다음해 6.25가 일어난 거지요. 조선노동당이 그렇게 발족한 것입니다.

이현희 : 조직 당시에 강령이 있다고 했지요. 그 강령과 정책이 명분과 실리가 있을 텐데요.

42.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이명영 : 북조선노동당의 강령은 북한 통합 공산권 통감, 북한진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통일원에서 나와 있는 북한을 소개하는 책에서도 조선노동당 강령이 나와있습니다.

이현희 : 정책이 별도로 문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이명영 : 그들의 강령, 규약, 정강,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데 1972년에 헌법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으로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 했는데,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가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전단계이고,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지는 인민민주주의 혁명기라고 헌법이 되어 있고, 1972년부터는 헌법을 대폭 개정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되어있어요. 그 헌법은 당의 강령, 규약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모든 법조문들이지요. 북조선 노동당의 정책은 그들의 강령, 규약에 나타나 있는 거고 그 성격은 궁극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지금은 주체사상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현희 : 조직당시의 인적구성은 아까 말한 4가지 흐름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4파가 다 조선노동당에 합류됩니까?

이명영 : 1949년 6월 30일 조선노동당이 출발할때는 서열이 바뀌어서 김일성이 당수고 박헌영이 부당수로서 결국 김일성이 박헌영의 위에 오르게 되죠.

8.15 해방된 시점에서의 공산주의자들 사회에서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서 투쟁경력에 따라서 위 아래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이론가나 하는데 있어요. 투쟁경력에 박헌영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조선 공산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김일성은 아득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팔로군 유격대 대원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약

탈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제대로 정치교육을 못 받았어요. 제대로 교육받은 것은 8·15 해방때 소련 당국이 써준 연설문으로 대중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면서 그 연설문을 통해서 교육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어느모로 봐도 박헌영의 위에 선다는 것은 만화같은 애깁니다. 어쨌든 김일성은 권력의 배경이 있으니까 1949년 조선노동당 당수로서 남조선 노동당에까지 조직명령을 하달할 수 있게 됐어요. 소수 본부와 합했으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김일성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6.25가 다음해에 시작되지요. 이 조선 노동당이 발족한 그 시점에서 아까 그 4파가 원만하게 당 속에 들어갑니다.

이현희 : 그 동안에 갈등이 없었어요? 파벌 같은……

이명영 : 크게 외부에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비밀주의니까 잘 알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4파가 하나가 된 것은 6.25 전쟁을 기화로 해서…… 6.25 전쟁에서 잘못된 것은 김일성이 일으켜놓고 스탈린 지령대로 김일성이 이루어놓은 전쟁을 가지고서 책임을 다른 파들한테 전가시켜서 다 숙청하지요. 제일 먼저 어느쪽이 다쳤느냐 하면 남로당파, 그 다음에 노동파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 또 소련서 온 소련 2세파, 그 다음에 연안파, 다 숙청당하죠.

이현희 : 김일성의 동북파만 남는 거지요?

이명영 : 그렇습니다. 자기파만 남겨 놓았죠. 그 속에서도 또 숙청합니다. 그 중에서 극적인 것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풍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국내형무소에 갇혀있다 8.15 해방을 맞은 두사람이 있었는데, 조직계보로 봐서 동북항일 연군파에 속한 박달과 박금철입니다. 박금철이란 사람은 함경남도 갑산문 보천면 보존리 그 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압록강 근처에서 만주땅하고 연결이 되어서 만주에 있는 동북항일 연군파들이 갑산땅에 지하조직을 만들 때가 담당한 사람이죠. 박달과 박금철이가 해방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44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나왔던 10월 달에 평양에서 김일성이 등장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평양에 가보니 옛날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박달과 박금철은 옛날에
만주의 장백현에서 김일성을 만나서 그의 소개로 중국공산당에 가
입했지요. 중국공산당 국내조직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이라는 단체에 박
달과 박금철이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을 잘 아는데 평양에 가
보니 딴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해 실망하지만 전부 그 사람이 김
일성이라고 믿는데 그 당시의 김일성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알기 쉽
게 진짜 김일성의 얘기를 하면 1937년 6월 4일 밤에 보천보 습
격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해 11월 전사했
는데 그 사람이 내가 김일성이라고 경력을 위조하고 해방후에 등
장한 거거든요. 박달은 일제때 받은 고문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내
내 앓다 죽고, 박금철은 건강해서 당 활동을 많이 하다가 당 부
위원장까지 하게 되는데 나중에 숙청당하죠. 그래서 그 당시를 연
구하는 전문가들은 그 당시부터 조직연계가 있으니 부위원장까지 하
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박금철이를 굳이 숙청해야 될 이
유가 뭐냐? 박금철이 뿐만아니라 그 조직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다
숙청됩니다. 김일성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사람들 밖에 없었거
든요. 그래놓고 195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의 일당체제가 구축되는
거지요.

김일성의 혁명역사, 소위 공산주의 혁명 투쟁의 역사, 민족 해방
사를 자기가 다 한걸로 뜯어 고치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
이 타종파들 타세력들을 타도하는 그 프로세스하고 병행합니다. 이
것을 다 숙청시킨 뒤에 모든걸 다 내가 한 것으로 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제일이라고 못하고 조금씩 하다가 결
국은 다 해버렸는데 아까 말한 그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현희: 그것 저 좀 꼭 보게 해주십시오.

이명영 : 그렇게 하지요.

이현희 : 그러면 또 관심이 되는 것이 “전 노동당의 근대사 날조” 선생의 “권리의 역사”에도 자세히 쓰셨는데 그것을 대체로 요약해서 골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근대사 날조의 이유는 자기 가게 미화도 있고-독재를 계속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명영 : 근대사 날조라는 것은……

북조선의 근대사라는 것은 1860년대부터 8.15 해방때까지를 저 사람들이 근대사라고 구분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 남한 학자들의 시대 구분하고 별로 차가 없죠. 그런데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대구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대는 18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25년까지로 됩니다. 26년부터 현대사로 되지요.

이현희 : 25년은 공산당 창당이 돼서 그런 겁니까?

이명영 : 26년에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 하는 비밀 혁명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조선에 새로운 연원을 가져와 현대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현희 : 근대였던 질서나 의식을 청산하고 현대의식으로 가는게 바로 그때부터다 해서 그렇게 한 모양이지요.

이명영 : 김일성이 그 특위라는걸 조직했던 그것으로 부터 현대사가 개막이 된다, 이렇게……

이현희 : 26년 이후서부터 거기서는 현대사로 잡는군요.

이명영 :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게 되면 1980년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내놓은 조선전사에서부터 시대구분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926년에 특위라 하는 조직은 그건 거짓말 이거든요. 100% 날조된 사건인데 1926년에는 김일성이 14살입니다. 14살때 무슨 혁명 조직을 만들고 말아야. 그런데 어째서 하필이면 그런식의 날조를 1926년도에 한걸로 만들었느냐 하는 이유는 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현희 : 선생님이 쓰신 「김일성 열전」에도 나와 있겠네요.

이명영 : 「김일성 열전」에도 있고 「권력의 역사」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지.

그런데 근대사라하는것이 저 사람들의 근대사는 과거의 근대사 이전의 중세사까지로 될 수 있는 유물사관에 입각해 가지고서 역사를 서술하는 교조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유물사관에다가 억지로 우리 민족의 걸어온 역사를 뜯어 맞추는 방식으로 전개되다가 근대에서부터 유물사관을 떠나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되어요. 근대의 개막은 누가 개막했느냐 하면 김일성의 증조부가 한 겁니다. 1886년에 미제놈들의 침략 해적선을 까부시고 때려부시고 했던 그 위대한 투쟁. 우리 민족의 근대사라 하는 것은 분명히 외래 제국주의 세력의 침입의 역사거든요. 그거하고 정확하게 싸운 역사는 틀림없다 말입니다. 그 싸움의 시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제베탈 셔어먼호에다 두는거죠. 거기에다 자기 아버지를 등장시키고 할아버지, 증조부를 등장시켜 그들이 한 걸로 했다 이말이죠. 그리고 근대는 외래의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우리 민족과 우리 인민과의 투쟁과정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민들이 무참하게도 실패합니다. 제베탈 셔어먼호 때에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결국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느냐 말이야. 근대사의 후반전은 일제한테 나라를 뺏긴 데 들어 가거든요 일제에 나라를 뺏긴 장면에 있어서는 일제하구의 투쟁은 또 인민이 해야 되는데 그 투쟁은 또 누가 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모두 맡아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이 1926년이거든요 그리고 그해에 애가 특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대가 시작한거죠. 그러니까 자기 증조부, 자기 아버지, 자기로서 거룩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사대구분을 자기의 가족 3사람으로 하게 되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체적 이론에 입각한 사회의 역사관이라는게 있으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인민대중이 다 역사주도의 원동력이 되느냐 하면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야 인민대중을 움직일줄 알지 인민대중을 못 움직인다. 결국 위대한 지도자가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했다.

자기 대대의 집안에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평양 제일 훌륭한 건물이라 하는 조선혁명 박물관에 가 보게 되면 조선혁명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방이 제네랄 셔먼호의 그의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둘째방에 가게되면 그의 아버지 근대의 역사 중반전 후반전에 일제에 투쟁했다는 김형직 얘기, 세번째 방은 김일성 얘기가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이현희 : 자신의 항일투쟁 경력을 날조해서 전시한 것이죠.

이명영 : 김일성의 증조부가 제네랄셔먼호의 어찌고 저찌고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1946년 49년대부터 북한에서 여러가지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은 전기물로, 혹은 역사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제 없다가 1969년부터 그런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현희 : 그전에는 없었군요? 68년 전에는.

이명영 :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가 항일투쟁했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왔다 갔다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현희 : 일관성이 없이,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거니까!

이명영 : 그럼요. 저사람들의 역사책을 보면 최신판에 올수록 날짜까지 나오고 옛날로 올라가면 막연한 숫자가 나오고.

이현희 : 자신이 없을 수록 얼버무리는 것이겠지요?

이명영 : 그러다가는 근자에 와서는 대담하게 날짜까지 나오고 심지어 김일성이 아버지, 어머니 죽음에 관한 얘기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김일성의 학력, 청년시대의 공산주의 청년동맹과의 관계, 공산당 입당관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현희 : 나이도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영 : 김일성의 나이는 1912년 이란게 정해져 있어요.

김일성이 사상운동때문에 투옥했다 하는 얘기도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일성이 항일무장부대를 창설해 가지고 항일 투쟁했다는 무장투쟁얘기도 책에 나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현희 : 소위 빨치산 그런 겁니까? 빨치산 항일투쟁.

이명영 : 전부 다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죠. 일람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현희 : 그렇게 일람표를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허위라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명영 : 완전히 날조된 것이죠. 이 책은 전부 북한에서 나온 책이지 대한민국에서 나온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책을 몇개를 등장시켰냐 하면 10군데, 조선전사까지 10개 나와 있어요.

이현희 : 10개 책가운데 일관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명영 : 일관된 것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달라졌죠.

이현희 : 그러니까 책이 나올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명영 : 그렇죠. 김일성이가 조국광복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김일성이가 보천보 습격도 자기가 했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느냐, 김일성이가 일제시대때 투쟁할 때부터 여러가지 논

문을 통해 발표했다, 그래야 자기 사상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논문을 발표했던 것이 언제부터 그런소리가 나왔느냐, 언제부터 그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그 일람표도 나와 있죠. 이것만 보게되면.

이현희 : 날조역사는 금방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명영 : 그래서 북한도 이 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서울대학 학생들한테 부탁을 할 때에 남한을 쪼개서 나간 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은 안나올 것이니까. 남한의 교수들도 나오테니까 너희들도 좀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현희 : 그렇죠. 그래야 공개석상에서 말문을 달아 놓게 되지. 모르는 사람이 가게 되면 안됩니다. 저런 저렇게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틀림이 없죠.

근대사의 날조는 결국은 문중역사보다가 하고, 김일성이가 김정일 통치세습에 왕조를 하는 것이 그 날조 역사가 탈로날까 그러는 것도 믿지 않을까요?

이명영 :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세습을 해야 되느냐? 저사람은 갈거든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모택동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들어 섰다가…… 스탈린한테 본시 정적이 있었나, 없었거든요. 전부가 스탈린의 동지였고 모택동의 동지였고 그러니까 제 2인자 3인자 4인자 쪽 자리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어 진다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더구나 죽은 스탈린보다도 모택동보다도 일언반구 반론할 수 없는 위대한 죄를 진 것이 있거든요. 혁명의 역사는, 당연히 고결한 성품의 공산주의자 같으면 혁명의 역사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싸운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한

것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 한가지도 사실이 아닌 것, 이름조차도 사실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딱 하나 사실이 있다면 그사람이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라는 동네에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아들로서 태어난 사실, 그 어머니가 사실이라는 것, 태어난 나이가 사실이라는 것, 그것만 맞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투쟁경력, 학력, 전부가 거짓말 이니까 갈수록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도덕적으로 자꾸 픽션, 픽션, 픽션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북한의 당 역사가들은 머리를 더 잘 썼어요. 객관적인 역사하고 어떻게 맞춰 가면서 만들거든요. 예컨대 중일전쟁이 일어난 것이 1937년 7월 7일이다. 이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때 김일성이가 어디서 무엇을 했나, 이런 전쟁이 일어 날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술가들이죠.

이현희 : 우리 근대사의 날조를 아주 멋있게 한 셈입니다.

이명영 : 그렇습니다.

북한의 근대사는 예술작품이라고 봅니다. 거짓말 치고는 예술적 경지에 들어간 거짓말이에요.

이현희 : 묘한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명영 : 어쨌서 그러냐하면 남한의 학자들마저도, 역사하는 학자들마저도 북한의 저렇게 엉터리 같은 역사를 사실의 역사인 줄 알고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이현희 :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이명영 : 예술아닙니까? 예술이니까 도취되거든요.

이현희 : 여기서 거기에 동조한다 할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술감각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명영 : 소설이니까 재미있으니까 심취돼 버렸단 말이에요. 소설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현희 : 예술에 심취되면 자기도 모르게 웃거나 박수를 치거나 이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거기에 동조한다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수부대 노릇도 해주는 것이죠. 분단된 이후에도 조선노동당의 김일성이는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늘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통일한다라는 얘기는 통일정책의 허구성,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명영 : 그 사람들의 통일정책에는 허구성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시종일관 되어있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통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현희 : 적화통일한다는 얘기죠.

이명영 : 공산주의 통일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 저사람들이 일보의 변동이 있을리도 없고, 양보한 일이 없고, 후회한 일도 없고.

이현희 : 전적으로 평화통일 아닙니까?

이명영 : 그 사람들의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현희 : 물론 말로는

이명영 : 그 사람들의 민주라는 것은 독재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유라는 것은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왜 평화통일이냐? 남조선에서 북한과 같은 정권이 들어서면 전쟁이 없이 합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조선에서 북한과 같은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느냐? 이것은 혁명에 의해서 들어섭니다. 혁명은 폭력없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북한에서 나온 정치사전, 여기에 다 적혀있어요. 혁명이라는 것이 폭력없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선거놀음가지고 남조선 인민대중들이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것은 어렵는 수작이다.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 혁명을 해야 된다. 평화가 아니죠. 남조선에서 폭력으로서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북에서 자동적으로 막아버린다, 이런 것을 저사람들이 평화라고 그러는데 남조선의 혁명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사람들의 평화는 폭력입니다.

이현희 : 완전히 용어자체 개념도 다른것이군요.

이명영 : 그 사람들의 통일에는 용어자체가 우리와 다르고 저사람들의 통일은 공산통일을 통일하는 것으로, 그냥 「공산」자가 생략된 것뿐이지 저 사람들의 통일이 다른 형태의 통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현희 : 공산통일부터 평화통일도 하는 데 그것 지난번에 남북국회 예비회담에서 이 녹음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평화통일 해야 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공산통일, 적화통일 그런 혁명통일이 아니겠어요?

이명영 : 저사람들이 1975년에 저자가 허종호인데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통일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가 아닙니까? 7.4 공동성명에서 대원칙으로 내세우는 자주적 원칙에 의한 통일, 평화적인 통일, 민족적 대단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말을 우리 쪽에서는 그말이 의미하는 고유의 의미로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북한에서는 자주라는말, 평화라는말,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말이 문자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 관점에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각각 부여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먼저 그 원칙을 3개 꺼냈습니다. 이후락이가 들어보니까 꽤찮은 얘기이니까 우리측 감각으로, 단어의 지식으로 좋습니다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7.4 공동성명은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승리라고 오늘날까지 떠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원칙대로 합의했으니까 자기들이 내세웠을 때 우리는 상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평화가 오직 좋으나, 자주가 좋지 않느

냐, 민족적으로 단결을 해야 되지, 우리는 다 옳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석이 다릅니다.

저 사람들의 자주관이 무엇이나? 우리 민족은 본래 자주적인 민족이 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대주의를 했고 5백년동안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겼는데 우리 민족이 자주라는 용어를 써서 잘 할 수 있는 것, 또 자주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이 등장한 이래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가지고 수령님이 하라고만 하면 자주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주통일이라는 원칙은, 첫째 자주는 김일성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주라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자면 김일성의 교시를 남한 인민들이 받아들이면 평화통일이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에서 김일성을 지지하는 정치를 만들라 이것입니다. 민족 대단결이란 김일성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그 지도밑에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것이다.

이현희 : 민족대단결의 뜻이 전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영 : 이 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 그러니 이후락 그 사람이 잘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명영 :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통일 이론, 허종호란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조선 노동당에서 나온 책인데, 김일성의 말 뿐이지 이 사람의 주관적인 말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말을 전부 엮어서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허종호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죠.

여기서 요즘 자주통일이란 말은 북한에서 온 구호인데 우리들의 감각으로 해석하는 용어 말고 저긴 별개의 개념의 용어들이 있다 그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현희 :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저쪽 용어에 상당히 매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준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명영 : 우리 말로 할 때는 다 좋은 말이니까.

이현희 :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자유니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명영 : 또 주체사상만 하더라도 그런데 주체사상이란 궁극적으로 무슨 사상이냐 하면 김일성이를 절대 신격화 하는 사상을 말하고, 둘째는 세습체제를 합리화 하는 사상이고, 셋째는 남조선에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사상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쫓아 버리고 혁명을 일으켜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사상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애들이 주체사상이 좋다고 하게 되면 남조선혁명을 일으켜도 좋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세습체제가 좋다는 말이 김일성이를 존경하겠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학교에서 대학교수들이 우리의 대학생들에게 옳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우리 애들은 주체라는 말이 오죽 좋습니까? 자주란 말이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3대 특징인데 그 3대 특징이라는 것을 옳게 가르쳐주면 좋는데 우리가 지난날에 북한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현희 : 그것은 절실하게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젊은층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산주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반공교육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반공교육을 하게 되면 저쪽을 나쁘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쪽하

고 통일하려면 저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 교육같은 것은—여긴 어떤지 모르겠어요—국민윤리 같은데에서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정치과 말고도 일반 학생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분단국가로서의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명영 : 그래서 나는 요사이 아이들이 분단의 책임이 미국하고 이승만이하고 대한민국 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현희 : 소련애기를 안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겠죠.

이명영 :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디서 대 심포지움, 세미나라도 해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스탈린 지령서 같은것을 말이지…… 참 답답하다.

이현희 : 지금 말씀하신 스탈린 지령서, 전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 같은데요.

이명영 :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헌정연구서설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해방후 40년의 입헌정치를 분석한 그것에 스탈린 지령서가……

이현희 : 스탈린 지령서 내용이 나오니까?

이명영 : 거기에 명백히 나옵니다.

이현희 : 저는 이제 현대사 쓰는데 절대로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책임있는 것으로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분단배경과 책임문제가 참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미제, 이승만 한테만 떠맡기면 되겠어요?

이명영 : 내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엔 학생운동, 우리의 오늘날 학생운동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냐, 이것은 조선 노동당의 지하당이 남한에서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현희 : 저쪽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지하조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영 : 지하조직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헌정사 연구서적입니다.

이현희 : 그것이 여유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헌정사 연구서설.

이명영 : 이것은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

이현희 : 그래서 현대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해방이후에 대한 것을 기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전에 해방 이후에 현대사에 관계되는 논문들을 많이 조사하면서 필자의 전공이 무엇이나 이렇게 했는데 순수역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연구비를 저에게 지원하는데 그래가지고 사학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이후의 역사를 제대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이런 분들만 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이라든가 역사에서 이런 것이 기본이 잡혀지고 해야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지 못하고 쓰면 소용이 없죠.

이명영 : 이것은 정치사적인 각도에서 쓴 것이고, 이것은 정치사상적인 각도에서 쓴 것이고.

이현희 : 스탈린 지령도 나오죠?

이명영 : 분단의 이유도 다 들어가 있지요.

이현희 : 이 알타협정이니 테헤란 회담이니 그런 것을 분석했었는데 스탈린 지령서 문제는 잘 몰랐었거든요.

이명영 : 우리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사학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런데 들락달락 안하기 때문에 내가 뉴스에 어두워서 누가 정치사학회에 꼭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입회원서를 써서 보냈어요.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현희 : 86년에 발표하신거네요. 요것은 이제 해방전후에 연안파

쪽 나오는군요. 국내 연안파, 동부항일 연군파,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헌정사니까 주로 개헌문제를 다루신 겁니까?

이명영 : 일단 정치의 전개과정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동기부터 설명하면 바로 해방때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또 나라의 정통성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를 논할 수가 없지않나.

이현희 : 임시정부 헌법도 다루어졌나요? 그래야 되겠죠.

이명영 : 우리나라의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건립하여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후에 1963년 박정희시대에 그 헌법전문이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고 내가 사방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통성 의식이 마비됐다고, 그래서 나라가 안된다.

이현희 : 이번에 다시 찾은 셈입니다. 이번이 9차헌법개정이 돼죠. 비로소 하게되는데 거기에는 임시정부 연구한 사람들의 공로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승만박사가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면서도 그분은 임정을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정에서 탄핵도 받고 면직도 당한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불쾌한게 있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지요.

이명영 : 사실은 정치학을 하는 사람, 역사하신 분들이, 한국사하신 분들이 민족정통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한해는 외도를 했어요. 논문도 하나 만들었어요. 역사하신 분들한테 자극을 줄려고 했는데.

이현희 : 여기에 임시정부가 나와서 정말 반가운 것입니다. 제가 그런줄 알았으면 제가 쓴 임시정부관계 한권 갖다 드릴것을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해야 우리의 뼈대가 살고 흐름이 사는 것입니다.

이명영 : 임시정부하고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연결될 것이 없어요. 서독하고 동독말입니다. 정통성 시비가 있지요.

이현희 : 서독, 동독간에도?

이명영 : 그런데 그것은 1948년 4월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독일의 역사에는 동독, 서독이 서로가 같이 그것을 정통성의 기점으로 삼아요.

그런데 서독에서는 48년 혁명이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행한 인권과 자유를 향한 민주주의 혁명의 시발점을 놓고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 서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독에서는 그 혁명은 노동자 계급들이 들고 일어난 계급혁명이다……

이현희 :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군요. 그래서 정통성을 찾아가서 정통중의 정통이다 하는 것이예요.

이명영 : 그런데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을 달리하는 것 뿐이고 우리의 남북한은 별개의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현희 : 우리는 이쪽만 넣지 저쪽은 아예 입정은 조선편사에도 보면 아예 언급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명영 :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이라는 것은 일체 역사책에도 넣지를 않고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이 자기들의 정통이라고 그러더군요.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이라면, 무력화의 운동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파는 다 잘라 버리고……

이현희 : 저희 파중에서도 또 빼는 것이 아닙니까?

이명영 : 김일성 이것만 내용이 있단 말예요. 김일성의 것 중에서 사실에 있었던 역사는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가 되는데 날조된 역사이니까 북한은 정통성이 전혀 없는 거짓의 정통성이다 그말이죠. 남한은 3.1 운동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항일투쟁이 맥이 있었지요. 우리는 그 귀중한 역사를, 망각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위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자기 상실이거든요. 이렇게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정치는 썩었고 돈벌어서 외국으로 도망치게 되었던 말이에요. 역사하신 분들의 책임이 커요.

이현희 : 단단히 책임의 통감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근대사 서술에 있어서의 정치적 의도의 분석, 학술대회의 정치학회는 87년에 했었군요.

이명영 : 인간 운명에 관한 4대연구라 해가지고 ……

이현희 :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명영 : 목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머리말에 대한 제국의 말로, 왕상일족의 허위, 우당 1년에 부부세월, 이렇게 왕상선생 가문하고 우당선생 가문 두개를 일제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싸웠느냐, 그리고 조국이 해방된 이후에 그들은 어떤 팔자신세를 졌겠느냐 ……

이현희 : 이것은 정확하게 아주 똑똑히 나옵니다.

이명영 : 이것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현희 : 이게 여유가 없어요. 참 좋은데.

이명영 : 우리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

이현희 :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면 ……

이명영 : 이것만 적어 가게되면 됩니다.

이현희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26집 86년 국운과 인간 운명에 관한,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운명에 관한 4대연구가 있어요.

이명영 : 그리고 지금 4대연구를 할 것 같으면 몇개 더 있어요. 소완선생 가문 등등 많이 있는데 내가 역사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한 사람들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것도 많이 있는데 ……

60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나는 학술논문을 1년에 2편씩 발표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세대가 죽어가면 그 후에는 없다고 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남겨야 된다. 그래서 1년에 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지쳐요.

이현희: 그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연구하고 계시니까 가능하죠.

그게 어렵습니다.

이현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활동과정을 일컬어서 혁명투쟁사, 해방투쟁사라고 부르는데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사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공산주의란 혁명의 성공을 보장하는 과학적 이론, 혁명의 과학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론에 투철한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명영: 예. 맞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했건 간에 공산정권에 집권자가 된 사람은 혁명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되고 한치의 오류도 범하지 않았던 투철한 공산주의자로 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탈락된 사람은 물론이지만 최후까지 남았다 하더라도 집권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면 그들은 의당 투철하지 못한 공산주의자, 과오투성이의 자유로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로 되죠.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매장이 되고 맙니다.

공산주의는 승리의 보장이고, 승리한 자는 바로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모든 공산정권에 집권자로서 그들의 투쟁사를 성공과 승리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죠. 중국의 공산통일을 성취시킨 모택동, 유고의 해방과 공산정권의 수립에 성공했던 티토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사는 사실대로만 한다면 분명히 성공의 역

사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공산주의자도 많고, 집권자들도 많지만 성공과 승리의 역사를 자랑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해서 공산집권자들도 자기네들은 성공과 승리의 역사의 창조자였다고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력을 나라와 역사에 위대한 결정적인 임무를 했던 것 같이 과장, 변조한 방법을 쓰게 되었죠. 이것은 자연히 그들 나라의 역사자체를 왜곡 변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현희 : 이러한 관계로 해서 세계에 대해서 공산정권의 역사는 정확한 성공과 승리의 영광된 역사로 꾸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승리의 영광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공과 승리의 영광이 차면 찰수록 그만큼 사실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선생님께서 역사의 사실이, 과장, 왜곡, 변조, 날조되는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 : 역사적 사실을 과장되고 왜곡, 변조, 날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철저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본노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경력만을 날조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가 별로 문제삼지 않지마는 우리 민족근대사 전체를 날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날조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들의 근대사, 조선노동당이 근대사 전체를 날조하지 않고서는 김일성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 노동당만이 그들의 역사를 날조했던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문제이지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것이라 한다면 저들이 만들어 내는 근대사의 진부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연구가의 사사로운 흥미밖에는 안 되겠죠. 하지

62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만 두가지 관점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느 개인의 사적인 관심사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민족 전체의 적극적인 공동관심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저들의 근대사가 우리나라 공산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저들 집단의 정신과 의지의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조선노동당이 날조된 근대사를 근거로 해서 가증스럽게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의 계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조된 근대사가 사실대로의 역사인양 국내외에 통용하게 된다면 남북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증인은 저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은 저들의 공산통일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의 근대사가 허위날조임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역사적 증인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의 평화와 민주통일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들의 근대사의 전부를 가리는 작업은 막중한 의의를 지닌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현희: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선노동당 40년동안 저들이 온갖 기교와 힘을 다 받쳐서 근대사 날조에 전력을 투구했고 또 날조된 근대사를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재력과 인력을 아끼지 않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근대사 날조가 됐는지요.

이명영: 네, 저들이 해외각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신문에 전면광고난을 사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모두 날조된 근대사로 집철이 되어 있는데 우리사회는 이에 대처할 강력한, 정확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대책

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틈을 타고 저들의 근대사는 활기를 치며 온 세계로 선전돼서 그것이 마치 한민족에게 있어서 사실대로의 정통적인 근대사 같이 이렇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첫째는 김일성의 증조부가 제네럴 셔먼호를 격침했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날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시대 구분을 할 때에는 1860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를 흔히 근대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근대사는 우리 민족의 가장 격심한 격동기에 이를 때면 도전과 응전의 시기인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한 8-90년 정도가 기한의 범위로 맞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1860년대가 근대사의 초점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19세기들어 오면서 부터 서양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상을 하자고 요구해 오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는 인도양을 거쳐서 동진해에서 북상하고,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서진하고,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남하하면서 남침을 하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침투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찾아오기에 앞서서 중국으로 침투해 가지고 1860년대에 영·불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는 사건은 유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후 북경조약을 맺게되죠. 그때 우리나라는 고종이 대원군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서 1860년 12월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의 서양 여러 선박들이 소위 이양선이라는 것이 내항을 해 가지고 통상 요구를 하게 되었죠. 이때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내걸고 청나라를 제외한 일체의 외국과의 교섭을 금지하고 대외정책의 하나로써 1860년초 천주교에 대한 탄압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9명의

64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프랑스인 신부가 살해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 신부의 살해는 그 가을에 프랑스 극동 함대의 침공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해 같은 무렵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어먼호 등은 깊이 침입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소동이 벌어집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요?

이명영 : 1860년 우리가 외세의 침략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1870년대에 들어가면 제네랄 셔어먼호 사건으로 인한 미국 함대의 침공이 있죠.

1880년대에 가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등 여러나라와 외교 관계를 성립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전이 집요하게 벌어지다가 많은 문제를 던집니다만 1910년에 우리나라를 뺏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1860년이 우리나라의 한분수령이고 근대사 기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현희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근대사를 이렇게 잡을때에 근대사는 외세의 침입과 주권의 상실이란 하나의 흐름으로 연관되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치욕이라고 보겠는데 이때 한민족의 마땅한 대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 주권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고 보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밀어 닥치는 외세와 싸워서 나라의 독립과 위험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와 싸워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는 고귀한 공헌을 한 많은 애국지도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근·현대사는 그것을 정중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되는 데요. 그런 면에서 김일성 문중의 역사가 어떻게 날조되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 : 네, 하지만 하여튼 우리 한민족의 근대사인데 불구하고 북

한의 근대사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빠져 버리고, 이를 대면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가 그 옛날에 제네랄 서번호를 격첩했다는, 이때부터 근대 역사, 현대역사가 모두 김씨 문중 중심으로 날조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들의 근대사에 등장하는 애국지사는 모두 집안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교묘하게 변조해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사건의 주인공을 자기의 몇몇 집안사람들로 갖다 앉히는 이러한 날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근대사가 바로 날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한 애국투사로서의, 김일성의 집안 사람들 문중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왜곡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외세가 침입해 오던 근대의 첫 새벽에 있어서 가장 투철했던 애국투사는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였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자료나 외국자료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배는 우리나라의 금, 홍삼, 호랑이 가죽들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양의 유리그릇, 천리경, 자명종등 잡화와 바뀌블 생각으로 우리나라로 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해 7월 1일 중국의 싘똥을 출발해 가지고 우리 해안에 도착하는 데 우리나라 관료가 나가서 우리나라는 국법으로 외국과 교역을 안하게 됐다, 말하자면 해금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오만불손하게 이 배는 7월 11일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 부근까지 침입해 온 것입니다. 평양감영의 관리가 또 나서서 국법을 설명하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말을 안듣잖아요. 뿐만 아니라 행패까지 부리니까 여기서 우리측도 응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서번호는 부근을 왕래하는 우리 배들을 약탈하고 살상자 12명을 내는 만행까지 저지르는데 우리측은 해군폭약작전을 폈어요. 서번호는

까닭없이 25일까지 버텼는데 이번에는 화선공격으로 작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쪽배에 장작을 가득싣고 불을 질러 상류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이 작전이 드디어 들어맞게 되는 것이지요. 여울에 자초되서 움직일 수 없었던 서면호에 불이 그만 붙었습니다. 무서운 불길에 활활타서 서면호는 완전히 가라앉고 그배에 탔던 사람들도 타죽었지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십여일에 걸쳐 평양일대를 긴장과 소란속으로 휘몰았던 침략살인선 서면호는 사실상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만 것인데 근대사의 첫 새벽에 있어서 서면호 사건의 성격은 우리 근대사 전체의 성격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의 투쟁과 그 투쟁을 조직 지도한 그 지도자의 문제는 특기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현희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은 이 사건에 편승해서 김일성의 증조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영 :저들은 이 서면호 사건에 있어서 민중을 조직 동원해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한 지도자는 김응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역사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역사의 기록에는 평양감수가 박규수, 철산부사 백나경과 함께 민간인으로서의 퇴역장교 박충건의 이름을 특기하고 있을 뿐 김응우는 도대체 없는 것입니다. 박충건과 그들의 임무는 압도적으로 크지요. 그래서 그는 조정으로부터 큰 상을 받습니다.

서면호에 대한 전투가 계속중이던 25일에 벌써 왕명은 현역으로 복귀되고 평양병사의 다음 자리에 임명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측이 주장하는 김응우의

지도자설은 기록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사책에 의해서도 그것은 그때에 날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현희 : 김응우를 서면호사건에 등장시킨 것은 1968년 이후부터죠.

이명영 : 그전에 책들에서 저들은 서면호 사건에 결정적 공로자는 박충건이라 보는데 박충건 이름대신 김응우를 그자리에 갖다가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현희 :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다 명백하겠지만 조선 노동당의 그러한 선전술을 분석해 보면 두가지 원칙을 분석해 보잖아요. 하나는 거짓말을 만들어 낼때에 아주 엉뚱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마 그럴 수가 있겠나 믿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전함으로써 거짓말을 백번하면 정말이 된다는 이러한 현상으로 몰고가서 거짓말로 부터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명영 : 네. 서면호사건의 영웅적 지도자로 등장된 김응우에 관한 거짓말은 대형 거짓말이죠. 백번이고 천번이고 되풀이 해서 선전할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 책은 물론이고, 여러가지에서 동원되는데 그중에서 조선 혁명박물관이라는 것이 꼭두각시 역할로서는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평양 시내 제일 높은 언덕에 있는 만수대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이 박물관은 북한천지에서는 제일 잘 만들어진 건물로 이름이 있고 선전자료로 많이 활용되는데 이 건물은 1972년 김일성이 60 회갑을 맞이했을 때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속에는 김일성과 그 일가의 혁명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고 합니다. 5만평방미터의 박물관에 들어서면 90전시실에 첫번째 방 가득히 한쪽의 유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서면호사건에서 김응우가 결정적인 임무를 했던 것 같은 모습의 인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면호를

격침하는 싸움에서 선두에서 김일성 장군의 증조부, 김응우 선생을 써 놓은 것이 있죠.

이현희 : 네, 알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1894년 동학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1907년 1909년 항일 의병투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몇개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의 우리민족의 수난의 역사가 김응우의 애국적 투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영 : 네, 우리나라의 역사는 외국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물론이지만, 북한주민들도 반복되는 선전으로 날조된 선전을 정말로 믿고 있거든요. 또 서면호가 미국배였다는 사실을 100%를 활용하는 셈입니다. 서면호는 계획적으로 보낸 배는 아니지요. 탐욕과, 모험심에 가득찬 한 미국상인의 배로서 미국인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북한은 이 배가 마치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선두로 왔다, 즉 무슨 어떤 사명을 떠었다고 이렇게 꾸며 가지고 이른바 반제 투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현희 : 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의문이 있는데 잘 풀려갑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오늘날 조선노동당이 말하고 있는 미제와의 투쟁이라는 것에 뿌리가 아득히 근대사의 첫 새벽부터 있었던 패망적인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의 증조부에 파시된 그런 뿌리라고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명영 : 네. 저들은 역사를 날조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특성과 그 가계의 영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당면 정치적 목적과 궁극 목표달성을 위해서 역사적 성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현희 :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번째 되겠죠?

김일성의 아버지 최초의 반일 혁명가로 날조된 김형직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명영 : 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를 소위 최초의 반제 애국투사로 날조해 놓습니다. 김응우를 그 후에 있어서 외세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항투쟁의 선구자로 모범을 만들어 놓았던 똑같은 수법으로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 김형직을 소위 최초의 반일 혁명가로 날조해 놓거든요. 그래서 김형직으로 하여금 항일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모범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는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전기 단계는 서면호사건이 주는 외세침입과 그 선두주자에는 러시아, 일본 두 나라의 각축전에 일본이 결정적으로 우세해지던 시기이고, 후기단계는 일본에 의해 우리의 주권이 빼앗긴 일제 강점 35년이 아니겠습니까?

이현희 : 네, 아주 좋은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 35년간의 시기는 항일투쟁을 옮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일제하에 있어서 항일투쟁이라하면, 아무래도 1919년의 3.1혁명을 꼽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명영 : 네. 맞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바로 3.1 독립운동때 김형직이 대단한 활동을 했던 것 같이 날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형직이 마치 3.1혁명때에 시위군중을 조직동원해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시위운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떤 감옥에 있었느냐하는 구체적인 것에는 침묵입니다.

이런 선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2년 4월19일입니다. 이날 저들은 그들의 기관지 노동신문에 김일성장군 약천이란 기사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난데 없이 김형직의 경력에 대해서 발표했거든요.

김일성의 경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보는데 그때까지 저들은 김일성의 경력에 대해서 정식으로 한번도 발표한 일이 없을 때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때에 비로소 공식발표 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4월 15일이 김일성의 만 40세 생일이거든요. 여기에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에 한국 남침전쟁이 일진일퇴의 격전과 휴전회담의 동시 진행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때를 맞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희 : 그러면 그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때에도 장본인인 김일성은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유엔군이 참전하고 중공군이 참전하고, 그래도 승패를 가리기가 어렵게 되면서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프의 제안으로 휴전회담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명영 : 예. 소련은 바로 한반도 전쟁에 불을 붙이고 끄는 임무를 한 셈입니다. 휴전회담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격전과 설전이 거듭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일성이란 과연 어떤 자인가 궁금증이 그 결정에 달한 때가 1952년 봄 바로 남침전쟁 중입니다. 이때를 포착해서 공식발표된 김일성의 경력은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는데요, 만약 변경된다면 처음 발표한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력서를 쓸때마다 이력이 달리 적힌다면 이력서는 모두 가짜라고 입증될 것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경력은 물론 그의 증조부, 아버지 경력을 그것을 기초로해서 만들어진 북한의 근대사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왜곡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희 :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보니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

됐던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우리의 근대사 및 북한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재홍 (金在鴻)

1. 생년월일 : 1927. 9.15.
2. 출생지 : 충남 천원군 목천
3. 주요경력 :
 - 육군사관학교 졸업 ('49)
 - 6.25 참전 ('50 ~ '53)
 - 국방부 병무국 병무과장 ('53 ~ '54)
 - 육본심리전 계획과장 ('56)
 -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70)
 -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장 ('75)
 - 이동녕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78)
 - 전통문화사상연구소장 ('79)
 - 전통과시론 발행인 ('88)
 - 효창공원 순국선열추모위원회 위원장 ('88)

이현희 : 김재홍선생님과의 인터뷰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재홍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입대하셨던 것이 1951년, 그러니까 6.25 다음해가 되겠습니까?

김재홍 : 전에 했죠, 전에.

이현희 : 아, 전에 하셨다고 했죠. 1949년 10월달에 입대하셨군요. 그럼 그때 입대하실 당시에 뭐 주변정세랄까, 왜 입대하셨는지, 계급이라든지 이런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 전 뭐 그때 당시 사관학교 바로 나와서 얼마안됐고 또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미국식 보충교육제도로써 지금 한국에 있는 고등군사반에 보병학교가 있었어요. 초등군사의 1기입니다. 초등군사반 1기를 마치고.....

이현희 : 초등군사반 ?

김재홍 : 대전에 있는 사단으로 배속이 됐는데 그 사단 산하에 대전에 있던 5연대가 있었죠. 이 5연대는 6.25사변전에 태백산, 지리산 이쪽에서의 공비토벌 부대로서 정말 참 우리나라의 국군으로서는 고참인데, 그러한 격전도 겪고 그래서 대전에 주둔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배속을 받고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서울 올라왔던 날 그날 6.25가 터진거예요.

이현희 : 아, 6월 25일 날이겠네요.

김재홍 : 그렇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올라왔지. 그러니까 일요일날 25일날 밖에서 마이크 소리가 나고 요란해서 나가보니까 국군장병들은 전부 복귀를 하라.....

이현희 : 소속부대로 와라!

김재홍 : 국군장병들이 그래서 인제 부랴부랴 짐을 챙겨가지고 용산까지 갔었죠. 그대 인제 차를 탔지만 서울역에서는 도저히 탈 수가 없고 그래서 용산에 가니까 벌써 우리부대가 대전에서 모든 장비를 쓰고 용산에 와있어요.

이현희 : 전투태세 때문에 온 모양이죠?

김재홍 : 그렇죠. 38선으로 집결 명령을 받고.

이현희 : 38선으로 집결하라는 모양이구만요.

김재홍 : 7사단이 의정부에 있는데 7사단 전부 지휘를 2사단도 같이 거기 가서 하도록 작전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군 부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용산역에서 그때는 보라에 곤색 정복을 입은채; 여름이니까 장화 신은 그대로 그냥 기차를 타고 전방으로 들

어가는 거야. 그래 들어와 가지고 창동 그 앞까지 열차가 들어왔는데 선이 딱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때 그 무렵에 있으니까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거기 독전차 온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신문이랑 모든걸 후일에 보니까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에 가서 증언하기를 지금 중부전선에는 북진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 타임을 맞춰보니까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와서하는 말이 서쪽도 그렇고 동쪽도 그렇고 전진하고 있는데 왜 이 중부만 밀리느냐 하고 이렇게 독전을 하니깐 공백 상태속에서 이제 올라가는 척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중부전선에서는 전진중이다 라는 얘기죠. 나중에 안일이지만 그러고나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밤을 새우다시피 주먹밥을 한그릇씩 얻어 먹고 그날도 그렇게 밀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앞에 가서 7사단이 의정부에 있었죠. 그때 당시 사단장이 유재휴장군……

이현희 : 광복군 출신이죠.?

김재홍 :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6사단이 바로 의정부쪽에 배치가 돼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6사단병력과 7사단병력이 전부가 거기서 뒤형클어져서 지휘에 무슨 계통도 없고 문란하기 짝이 없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제 헌병대들이 독재를 하는거야. 전진 안하면 쏜다 이런식으로 그런데 그게 대세가 물밀리듯 밀리니까 아 그거 몇 사람이 한다고해서 되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도로는 좁은 데다가 야포를 먼저 빼려고 밀려오니, 후퇴를 하니깐 야포먼저 빼고 보급자동차 빼고 차는 또 밀리고 그러니까 그냥 뭐 차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라장이 됐지. 그래서 이제 27일날 저녁 때가 되서 황혼무렵이 되어서 지금 미아리, 옛날에 공동묘지 있던 거기에 도착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병력을 거기서 ……

이현희 : 그만큼 계속 후퇴하는 거죠?

김재홍 : 그럼 전부 후퇴요. 근데 거기를 내려와서 보니까……

이현희 : 그런데 그당시 조금도 올라가질 못하고 막 내려온 거예요?

김재홍 : 막 내려왔어요. 중간에 올라갔다 어쨌다 하는 얘기, 내가 아까 한대로 채병덕 참모총장이 왜 후퇴하느냐 하니까 올라가는 걸 가지고 중부전선에서 지금 현재 밀고있었다한 얘기가 나중에 타임하고 신문에 난거예요. 그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현희 : 그건 얘기가 안되는군요. 막 쫓기는데.

김재홍 : 이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창동앞에 고지에 갔는데 우리 깔적에 난 그저 기차안에서 작업복을 하나 얻어 입었어요. 얻어 입고 강화신은채 또 헬멧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증모쓰는채 그리고나서 빈총을 하나 얻었는데, 칼빈총 실탄이 있어야지.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방에 가면은 실탄이 있다, 현재 놓여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해요. 그런데 칼빈총만 빼고 실탄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현희 : 전쟁에 나간 사람이 그러니 글썄 …

김재홍 : 그렇지. 그러니까 M-1 실탄은 많이 있어도 칼빈총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칼빈총을 하나 받았는데 총탄이 있어야 쏘지. 그래서 인제 거기서 총을 집어 내던져버리고 의반총을 하나 바꾸어 매고 그리고 미아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급조적인 부대편성을 하였고. 그런데 각사단 몇개 사단에서 온 병정들을 모아 가지고 숫자를 헤아려보니까 백한 칠십명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단 공병부관을 하던 조소령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인제 급조직을 해가지고 대대장이 되고 내가 중대장이 됐죠. 그러다보니 중대도 그냥 주어 모았고, 또 작전명령을 받기를 미명, 그러니까 27일날까지만……

76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이현희 : 27 일.

김재홍 : 27 일 미명까지만 미아리고개를 지키면 유엔군이 병력을 투입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엔군한테 고지를 뺏길 수가 있고 사수하면 된다, 그 작전명령이 아주 간단하여 미명까지만 이걸 지켜라, 그러면 유엔군이 출두를 하고 맥아더 사령부가 서울시에 설치되고 동시에 그때서부터는 우리하고 합작을 하게 되니까 수도는 방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지켜라……

이현희 : 그러니까 지원군이 오게되면은 다 무찌를 수 있다…

김재홍 :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뺏기지 말고 미명까지만 지키면 그건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이현희 : 서울 사수해야 된다 했겠죠?

김재홍 : 그렇지 그렇지. 그게 특명이야, 작전명령이야. 그걸 받고 이제 그 위에 미아리고개에 올라갔어요. 미아리 공동묘지가 최전방이죠. 우리로서는 그래 올라가보니까 누가 파났는지 몰라도 호를 꽤 파났어요. 여기저기다 묘 중간중간.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가지고 허리춤까지 닿는 호에 앉아서 이제 작전지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니까 총탄알을 있는대로 쏘는거야, 목표도 없고. 그리고 있는데 그 저녁에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하여튼 호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허리까지 물이 고일 정도예요.

이현희 : 그때 비 많이 온 것은 그때 저도 중학교 1학년때에 기억합니다. 뭐 대단했어요.

김재홍 : 굉장히 쏟아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무슨일이 있었는데 피아간에 기관총을 쏘고 하다보니까 다섯발중에 한발이 예 광탄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뭐 번쩍번쩍하니까 대개 사물을 관찰할 수가 있지, 그 불빛에. 아 그런데 뒤에 와서 어떤 놈이 딱 서

있는데, 우리 뒤에. 그게 오밤중이야. 그런데 망또를 딱 입고 우비를 입고서 이렇게 우비를 입고 딱 하나 서있단말이야. 그런데 우리 무전사는 그 공동묘가 있는 묘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은폐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대대하고 연락을 시켰지요. 근데 대대하고 연락을 초저녁까지 하니까 연락도 끊어버렸어. 그래서 병력도 보내주고 실탄이 떨어져서 실탄보내달라고 하니까 무전이 통해야지.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아. 근데 이제 주위를 보니까 그 예광탄 빛에 불빛에 번쩍번쩍하는데 보니까 아 그저 망또를 턱 입은 사람이 내뒤에 서있단 말이야. 거기서 거리가 아마 한 5~6미터 될까?

이현희 : 상당히 가까운 곳이에요.

김재홍 : 예. 근데 그때 머리에 딱스쳐 오는것이 이상한 예감이 확 들더라고. 우리 국군이라고 하면 말이야 이렇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출동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언제 비오는 장비인 망또를 입고 그렬사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스치는 것이 아 정말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때 이제보니 그래선 도저히 안되겠어.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제 주위를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머리에 스쳐오는 것이 아 이게 인민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우리 국군이라면 우비같은 장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출동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총을 쏘서 죽이면 아군을 잘못해서 내가 죽이는 날이면 이전 문제가 큰거다, 이 생각이 드니까 주위를 한번 살폈어. 그리고는 총을 거기다 대고 쏘버렸어. 그러니까 확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아군을 쏜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겁이나서 얼른 쫓아가 가지고 말이지 이 망또를 확제니까 아 인민군 견장이 딱 벌겍게 달려있더라고, 그 밤중에.

이현희 : 굉장히 위험했겠네요, 그러니까.

김재홍 : 그러니깐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게 아니지.

이현희 : 거기서 5~6미터 거리인데 금방 쏠 수도 있는게 아니예요.

김재홍 : 그놈들이 벌써 들어온거야. 그런데 내가 ……

이현희 : 뒤로서도 일단 포위된 셈이네요?

김재홍 : 그렇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거기서 무전이 안 통할 때는 우리 대대장이야 출세해 버리고 없어진거고 그러니깐 우리만 거기 멍청하게 있었던거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아 머리끝이 쭈뼛하고 올라가는게 이걸 큰일났더구먼. 주위를 살펴보니까 벌써 우리 애들도 거기 다 달아나고 없어요, 찾아도. 그래서 거기 하나 기관총 하나를 내옆에서 쏜 아이가 있어. 기관총을 쏘고 나면요 전연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멍멍해서 누구 얘기도 안들려요. 그래 그 애 보고서 빨리가자고 일어나라고 기관포의 다리를 내가 둘러메고 빨리가자고 그러니 포신만 이놈이 메고서 들어서 넘어서 오는 거야. 그래 지금 오는것을 보면은 어디냐면 저 정릉 올라가는 야산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하여튼 전부가 패전한 우리 사병들인데 서로가 우왕좌왕 하는데 이제 물기를 내가 어디 출신이다, 누구냐, 이러니깐 가만히 말없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가니까 쪽따라 오는 것이 순식간에 수백명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정릉계곡으로 다 쪽 올라갔어. 그래서 좌로 해가지고 거기오니깐 과거에 다녀보고 했던 지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올라간 것이 소위 아리랑고개 뒷산이야.

아리랑고개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길을 그렇게 막고나니까 여름이지만 굉장히 추워요. 아주 입이 딱딱 막힐정도로 이렇게 냉기가 돌고 춥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산위에 보니까 판자집들을 전부 지어놓고 했는데 그 불을 지핀채 전부들 그대로 달아났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병들 따뜻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옷이나 말리고 가자 했지요. 그때는 비가 멎었어. 그때 들어와서들 앉아서 따뜻한데 앉아 있다보니까 전부가 골아 떨어져 버렸어.

이현희 : 얼마나 고단 했겠어요.

김재홍 : 그러니깐 거기 앉아 있다가 거기서 골아 떨어져서 얼마를 잤는지 난 시간도 잘 모르고서 눈을 떠보니까 흰하게 날이 새더라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위에 산기슭에다가 기관총이고 뭐 난잡하게 기관총, 소총할 것없이 그냥 그렇게 놓고서 총알도 전부 갖다 쌓아논채 그대로 다 달아나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한사람 두사람 모이는 것이 상당한 수가 모였어. 그것이 아마 모르긴몰라도 아마 1~2백명 되는 거 같애. 그래 여기 좀 있어라, 그러고서 그밑으로 바로 내려오니깐 바로 거기가 아리랑 고개야. 아리랑고개에 내려오니깐 대전차포가 하나 딱 있는데 남학수 그사람이 5연대 아마 대전차포 소대장인가 중대장인가, 하여튼 중대장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 일이냐고 반갑게 하니깐 이사람 얘기가 아 지금 어떡하고 있느냐 해서 우리 지금 후퇴해가지고 뒤에 우리 병사들하고 전부 뭐 각사단 병사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고 해서 한 이백여명 될거같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됐다, 하여튼 보병병력이 들어오는거 억울하다, 대전차포 여기 있으니까 저 지금 다리를 안꿨으니까 이놈들이 거기서 건너올테니 건너오면은 거기다 대고서 하나 둘만 갖다가 폭파를 하면 그놈들이 저기를 못올라올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작전명령을 받을때 미명까지만 미아리고개 지켜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든지 사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별의별 대치를 해서, 하여

튼 보병들 들어오는거 엄호사격을 해라 했어요. 그리고 대전차포 중대장있는데 내려가 가지고 박소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탱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이야 하나 건너오면 하나, 둘 건너오면 둘, 셋이면 셋 이려고 사병들이 세고 있는데 연신 이쪽에서도 뻘히 탱크에다가 썩봐야 효과가 있을리가 없지만, 그러나 인제 사람 심리가 실탄 많고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집중사격을 하는거예요, 탱크에다 대고, 그럼 탱크가 맞은걸 뭘로 확인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다섯발에 하나씩 예광탄이 들어있어요. 그게 맞으면 팍 올라갑니다. 뒤에서 빨간불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여덟 탱크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아홉째가 기억을 하는데 그가운데서 아주 중심지역이 주저앉았던 말이야. 그때 박소위하고 나하고는 얼떨결에 끌어앉고서 「똥다」했어요. 케도가 맞아 가지고 덜씩 주저앉은 것이죠.

이현희 :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김재홍 : 순간적으로는 다리위서 그랬으니까 저쪽에서 후속이 안될 일이지, 때문에 오지만, 그랬는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그 무너진 탱크를 위에서 집중사격을 하는데도 한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집중사격을 하는데 그놈이 안맞더라고. 나오더니 위로 설설기어서 건너오던 저쪽으로 도망하더니 한참 있으니까 탱크가 다 나와 오더니 그것이 쭉와 가지고 그 탱크가 왔다갔다 무언가 로프를 걸치는 모양이야. 그런데 뒤에서 끌으니까 순식간에 끌려가더라고. 그리고서 그때 탱크들이 여덟개나 아홉개나 들어올때까지는 한놈이 다리를 건너야 또 한놈이 건너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건너고 나더니 그대로 말이야 탱크가 연속이에요. 그러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현희 : 그때 탱크가 몇백대 왔던거죠? 150대정도.

김재홍 : 200 여대 있었다는 거죠. 보유하고 있었던게.

이현희 : 그게 다 소련제죠? 완전히 이북에서 만든건 아니고.

김재홍 : 그렇죠, 그때야. 그래서 이제는 도리가 없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박소위하고 할 수 없이 작별을 하고서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능선을 따라서 쪽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지금의 성북동 그 산꼭대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쌍안경을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서울시는 점령이 돼가지고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인민군들 싸이카부대 이놈들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현희 : 그때 탈취한 트럭이나 막 타고 다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재홍 : 그때는 우리가 서울시내를 보니까 아마 거의 자동차라는 건 안다니고 인민군들이 탄 싸이카부대하고 탱크만 돌아다닙니다. 종로로 을지로로 거기서 쌍안경으로 내려다 보니까 그것만 여기저기 잔잔히 잘 돌아다니고 전연 없어요. 그래서 큰일났다고 생각돼서 성북동 위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물었지. 주변을 살펴보니까 2~300 명이 되는거 같애. 그래서 여기 장교가 있느냐고 물어보고서 누가 지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계급높은 장교 있으면 장교한테 지휘를 맡기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작전계획을 꾸며야 살아나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니까 하나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소위인데 그때 하나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중에 이건 나만 장교고 나만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후일에 생각했지만은 설사 거기 누가 있었어도 있다고 얘기를 안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그럼 내가 지휘할테니 내 지휘하는 대로 따라와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도 못들어요, 아주 손발짓을 하기 전에는. 많이 총을 쏘고 나

니까 양쪽귀가 멍멍해서 무슨 얘기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손
깃발깃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에 물었어.

여기서 우리가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데 탈출하는 방법 즉 여기서 아
주 정면을 돌파해서 한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북
으로 다시 역행해 올라간다 이말이야,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동해안쪽으로 빠져가지고 태백산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방법이 하
나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남아서 싸우든지 여기 남는 길이있다, 어느
걸 택하는게 좋겠느냐 하니까 모두 막다른 골목에 달하니까 좋습
니다 하면서 빨리 조금하게 전면 돌파해서 나가자 이거야, 가다
죽어도 좋으니까. 역행해서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뭐 거
의 몇사람 없고, 그리고 남는다는 사람들은 별로 얘기를 안하고 대
부분이 넘어가자, 그렇게 하자 ……

이현희 : 한강 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모양이죠?

김재홍 : 돌파해서 한강넘자. 내가 거기서 생각해 넌게 신분증이고
뭐고 있으면은 전부 찢고 너희들 거기 목에건 군번 그것도 전
부 여기서 뜯어서 거기다 그대로 넣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에 명령을 내릴테니 날 따라와라.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비원 골목
으로다가 지금 현대건설이 있는 바로 그 골목이예요. 뻐히 보여요.
그리 쪽 내려가가지고 종로3가 뒷골목 그 골목으로다 쪽 내려가
가지고 종로3가를 지나서 제1차 집결지를 장충동으로 해서 장충
공원에 가가지고 딱 모여서 여러분들 시간을 맞춰라. 그런데 그때
는 잊어도 안버려요. 딱 오후 3시에, 오후 3시 정각으로 시계
를 맞춰라고 해서 다 오후 3시로 시계가진 사람들은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집결하는데 3시에서 3시 40분까지 거기에 집
결해라, 제1차로 거기에서 그저 그 주변에 집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시간에 못달려오면은 그대로 갈테니까 방향은 거기서 넘어서 광

나무다리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광나무를 건너자. 그때 다리 끊어진 것을 캄캄히 모르는거야, 용산교 다리진 한강다리 끊어진 것도. 한강다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날 끊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날이 28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날이.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자연히 조그만 골목을 나가다 보니까 제일 앞에서 총을 들고 여기다가 실탄을 있는대로 막 묶어서 짊어지고 그러면서 제일 앞에 가니까 뒤따라 오는 것이 상당한 장행렬이야. 수백명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현재 비원 바로 옆에까지 왔어요. 거기 큰 길이 있잖아요? 비원 네거리 지나가서.

이현희 : 시내는 지금 인민군이 꼭 찼잖아요?

김재홍 : 그때는 그렇게 꼭 찼을때도 아니야. 얘기한대로 싸йка부대들 왔다갔다하고 수색대들만 뒤따라 다니고 그리고 탱크는 그때는 상당히 왔다갔다 함디다.

이현희 : 그거 피해서 이리저리 갈 수는 있었네요?

김재홍 : 그러니까 상황이 상면하자 그러는거지. 그때 거기 길을 건너야 되는거야. 지원해서 안국동을 거기까지 내려왔어. 거기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이 싸йка부대들이 종로3가 쪽에서 비원쪽으로 오토바이가 오더니 거기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보고서 서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예요. 소위 앉아서 쏘는놈, 서서 쏘는놈, 옆드려 쏘는놈. 우리 병사들이 말이야 그냥 대놓고 사격을 하는거야. 뛰어넘어 오는거야. 그길을 막 뛰고 난 다음에 그냥 쏘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데 뒷골목으로 쪽

이현희 : 완전히 사선을 넘어가는군요.

김재홍 : 봉익동 골목이라, 거기. 저쪽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단성사 있는데까지 왔어요. 단성사까지 와서 그때 우리

가 거기 내려오는 병력 파악을 한거야. 애네들 그러니까 10차 포위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울지로 쪽에서 탱크로 종로 3가 쪽에 겨냥하고 있고 종로쪽에서 겨냥하고 있어요. 동남쪽에서 겨냥하고 있고 비원쪽에서 겨냥하고 있는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죽어도 횡단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뛰어서 횡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단성사 앞에 거리에 나오니까 이진 도저히 한발짝도 못가겠어. 뭐 그냥 핑핑 날아오는데 뭐 애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리고 더. 군다나 총탄은 눈에 안보이지만은 사거리에 있는 집들이 막 총탄에 맞아가지고 파편 튀는게 아주 우박 쏟아지듯 하니까 도저히 안돼요. 얼떨결에 뛰어들어 간것이 단성사앞에 중국집이었어요.

이층까지 올라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국집이에요. 야 여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려왔지. 내려와가지고는 그때는 무작정이야. 총들고 어디로 가는건지 방향설정도 못하고 그대로 뚫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 뛰어온 곳이 지금 내려온데를 이렇게 역도를 해가지고 쪽 올라가서 다시 아까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도망가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 곳은 청와대 주위야. 청와대 어디냐면 팔각정 있는데 거기쯤 간거야.

이현희 : 다시 또 후퇴한 셈이네요.

김재홍 : 정신없이 거기까지 간거지. 거길 갔는데 목은 말라 죽었고 이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고서도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힌데 사람 숫자를 세니까 스물일곱 명이야, 거기까지 따라온게.

이현희 : 낙오됐거나 죽었거나 그리됐겠네요?

김재홍 : 그러니깐 뭐 어떻게 됐는지 죽은 사람은 죽었고 그냥 거기서 낙오되고 스물일곱이었어. 거기서 또 장교계급 하나 있어야 되니깐, 그때 내가 기억을 해요. 그때 박중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액센트가 일본에서 많이 사는 사람인거 같애. 그래서 그 일

본사람 비슷한 발음을 한 박중위한테 지휘를 해달라고 했지요. 스물일곱이 그러니깐 거기서 쉬고 있는데 세상에 목이 말라 설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배가 고파서 첫째 못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그랬는데 박중위가 거기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계곡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느 마을인지 잘 분간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쌍안경으로 보니까 마을 가운데에 마당이 하나 있어 뻥히 보이는데, 너희들 거기 내려 가가지고 이상없다고 하거든 손을 이렇게 원을 거기서 그려, 나 여기서 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밥을 줌 얻고 또 물통에다가 물을 줌 넣어가지고 올라와라, 그래 갔는데 전부가 간다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안간다는게 아니라 전부가 간다는 거야. 그렇게해선 안되니까 다섯만 내려가라. 그래 이제 다섯 내려가는데 산을 타고서 쪽 내려가서 그위에서 쌍안경을 보고 있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깐 그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섯이 가가지고 왔어요.왔는데 그때 무슨 보리쌀이 마을에 있었는데 요새로 말하면 이장네집인 모양이야. 동네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들 그걸 나눠가져 가더라는 거야. 가져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국군인데 사실은 배가 고프니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때 인심이 싹 바뀌더라는 거야. 제각기 그냥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 멍석에 조금 남은거 이거나 가져갈려면 가져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가지에다가 메가지고 가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급하니까, 그때는 마음이 초초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깐 애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삶은거야. 솥에다 넣고서 보리쌀을 푹 삶아가지고, 삶아지니깐 그걸 바가지에다 넣어가지고 올라온거야. 그냥 밥을 한끼 아니라 보리쌀만

이현희 : 물하고 ?

김재홍 : 물하고, 그리고 고추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릇에다가 못가지고 오고 호박잎에다가 이걸 떠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올라왔는데 나누다 보니까, 스물일곱이 나누다보니까 두손을 이렇게 대고 하니깐 한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만이 나뉘지더라고, 그걸 입에다 대고 훌훌 마시니까 코에도 묻고 그걸 먹고 물을 나눠먹고 그게 고작이야.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아군 정찰기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기서 흰기를 흔들고 해 봐야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게. 거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여튼 도리가 없다. 밤이 되면은 우리가 저기 내려가가지고 한강을 각자 넘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낮에는 거기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소나무 껍데기를 베깁니다. 껍데기를 인제 베끼고 속껍데기를 씹어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서 조금 씹어먹고 그러니까 달콤한게 그것도 팬찮데요. 그리고서 밤이돼서 그 밑으로다가, 지금 그 밑이라는게 지금 아마 거기에 호텔이 있지 않아요? 거기인거 같은데……

이현희 : 거기가 세검정 거기 되니까 스카이라이프호텔 그 주변일겁니다.

김재홍 :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들어가니까 죽다 살듯이 물을 실컷 먹을 수 있어요. 계곡에 ……

이현희 : 계곡에 물은 꽤 있었겠지요?

김재홍 : 전날까지 비는 왔으니까 그러니까 물로 배 채우는 거야. 절으니까 출렁출렁할 정도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동네 내려가서 밥을 얻어와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사람 셋이 내려갔어요. 셋이 내려가서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그 동안에 그 애들 밥을 하러 내려간 동안에 우리가 습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은 지방 빨갱이들 인민군이 하나 둘 거기 들어왔던가봐. 이래가지고 무기는 국군이 내버린거 수북하게 있

고 그래서 거기서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밤중에 지리를 못찾아가
지고 나는 나대로 단신이 돼 버렸어요.

이현희 : 다 흩어졌군요, 그러니까.

김재홍 : 칠후같은 밤이에요. 그래 그쪽에서 동대문내려가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지역을 후에 내가가서 살펴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박종하선생님네 집이 하나 있지요. 그 골목이야. 거기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느티나무옆에 초가집이 있는데 불을 켜놨
습니다. 그래 가서 문을 활짝 열고 보니까 부인 한분이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딱 들어가서, 복장 보면 군인인거 뻔히 알지
않겠어요. 총가지고 있겠다. 아 국방군인데 그때는 국방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국방군인데 이렇게 부득이 낙오를 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니 나에게 중의적삼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인네가 농
을 열고서 골라서 주는데 보니까 일제시대에 보국대감하는 징용가
고 하면은 입는 옷이 있어요. 떨어진 그 옷과 그 위에 적삼하고, 이러
게 나는 내옷은 거기 다 벗어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내 주머니
에 돈이 얼마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 소위 봉급이 2천백원인가
얼만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봉급탄거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었거든
요. 그 돈이 주머니에 그대로 있어요. 그걸 그사람들한테 다주고
서 제발 나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얻어서 저 당인리 발전
소 있는 쪽으로 나가는 강가에까지만 나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
까 그 남편되는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어디서 바깥에 자다가 올
라와서 두런두런 하니까 첫번째 남편은 거절을 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마라, 부인이 있다가 뭐라고 하나면은 아니 당신
동생이 군대에 가 있지 않느냐고, 동생 생각을 해서라도 거
기까지 데려다 주면 어떠냐고 그 얘기를 부인이 하더라고요. 그래
서 중의적삼을 입고 그 아래 밑에는 징용갔던 반쓰봉 같은걸 입

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3천여원 가까이 돼 그것을 거기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쪽내려오니까 지금의 홍제동 개천옆에 해장국 파는 집이 있어. 그사람이 해장국 한 그릇 먹고가자고 날 거기 데리고 가더니 해장국을 한그릇 사줘서 같이 먹고서 거기를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당인리에 와가지고 당인리에 발전소 있는, 지금 거기 지나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깔자리를 깔아놓고 명석을 깔아놓고 이만큼한 토마토하고 뽕 팝디다, 길옆에다가. 그게 어떻게 먹고 싶은지 지금도 웃지요. 보니까 요새 낚시질하는 한강다리를 왔다갔다 하는데 한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저쪽 영등포쪽에서, 거기가 여의도쪽이죠. 저쪽에 여의도까지 데려다 줘서 오는데 몇사람이 오고 몇사람이 여기서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는 인민군이 싸이카를 하나 갖다 놓고서 몇놈이 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있으면은 거기를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게 생겼어요. 거기 앉아서 그 사람은 자기는 가겠다고 하고 나는 아이고 아저씨 아무소리 말고 나 한강 건너는거나 보고가쇼. 그리고서 거기 있다보니까 점심때가 가까이 되니까 싸이카 타고 온 놈들이, 인민군들이 배는 거기다 매놓고 가데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무작정 내려갔어요. 가니깐 한강에 낚시질 하는 배예요. 그거를 내가 타고서 이거 타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떡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글썄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게 하겠느냐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사람이 교섭을 하더군요. 이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태워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빨갱이가 있어서 그런지 세상이 박해서 그런지 안된다고 거절을 해요. 안되겠어. 초조하게 그시간 넘기면 넘어갈수도 없고. 내가 원래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깐 안되겠어. 이제 안되겠길래, 딱 내가 갔지. 아저씨 태워다 준답니까 하고 물으니 안된다고 그래서 악은 바

짝 오르고 내가 허세를 부린거예요. 딱 손을 뒤에다 집어넣고서 사실은 나 국방군이다. 국방군인데 우리집이 대전이요. 난 대전까지 가야되겠소. 그러니까 태워달라고 사정을 해도 도저히 안돼. 노인네들이 넷이 거기앉아 있길래. 그래서 나 사실 국방군인데 지금 나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안해주면 다 쏘죽이고 말겠다고 위협을 한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노인네들 몇이서 아 자네 태워다 주라고 겁에 질려서 배를 풀어서 놓더라고. 그러니깐 내가 올라타기도 전에 애기 업은 부인네 하나하고 남자 하나하고 벌써 탔어. 이 사람들 함께 같이 가자고 배를 젓고서 거길 넘어가는 거야. 배젓는 사람보고 우리 무사히 데려다 줘야지 안그러면 당신 죽을 줄 알라.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이렇게 왔어요. 겨우 와가지고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깐 돈 안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엘진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를 강을 건너기전에 나 데려다준 사람에게 줬어요. 내 이거 정말 고맙다고 평생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나중에 살아나오면 내 당신 한번 찾아간다. 그리고서 그 시계를 풀어 주고 넘어 갔단 말이야. 넘어가서 여의도에 가니까 거기는 국군이 있는 거야. 김원식씨가 아직도 거기 마지막 배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 보니까 벌써 주병력은 벌써 다 철수를 했어요. 부평 그쪽에 탄약 병기창이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실고 민간차 다 동원을 해가지고 빠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가니깐 콩밭이 여기 굉장히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국군 둘인가 셋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누구냐해서 묻고 손들으라고 해서 손들고 부인네하고 또 한사람하고 갔어요. 거기서 안 일인데 그 부인과 또 한사람 탄 사람은 사찰형사야. 그리고 그 부인이 거기서 빠져나간거야. 요행히 나하고 배를 같이 탔는데. 그래 내가 거기 있다가 난 국군이다 그러니깐 그 애기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막 주먹이 날라오고 패는

데 정신을 잃었죠, 머칠을 꿇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간첩이 넘어 오는거다 이거지. 이제 나중에 쓰러져 가지고 있다보니까, 정신을 잃었다보니까 그 부인네가 물을 갖다 이룬데 붓고 먹이고 그래서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려고 서있으니까, 눈을 버끔 뜨니까 소속 다시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내 소속을 얘기를 하고 그에게 당신계급이 뭐냐니까 장교라 그래요. 중재하는 장교인데 9기생이라고. 그런데 9기생이면 우리보다 아래 사람이지요, 사관학교도. 그래서 내가 그사람보고 쪽 다 댔어요. 사관학교 교관은 누구누구고 내가 다 대주고 이러니까 나 의심할 여지없고 소속도 어디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제야 나를 손잡아서 끌어 올려가면서 참 죄송하게 댔다고, 사실 여기와서 지금 간첩이 사뭇 침투해 들어오는데 막느라고 부득이 해서 그랬으니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영등포로타리 구청앞에 거길 가니까 우리 민간인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가지고 수원에 갔어요. 참 그리고 시흥에 보병학교가 있었는데 내가 보병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지리도 잘알고 해서 가니까 보병학교니 뭐니 육군본부가 거기 있다가 떠난지가 벌써 오래전에 떠났다 이거야. 그래 수원으로 가서 그래 거기서 차를 얻어타고 수원가가지고 아군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군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바로 수색대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어디로 왔느냐면 여기 양재리, 그러니까 수원에서 과천으로 해가지고 양재리 전투지역으로 왔어요. 거기 보니까 박희성이가 5연대장이었는데, 박희성씨가 그러는데 그 양반은 거기서 어떻게 지리멸렬이 되고 누구나 하면, 최창현이라고 중장 한분이 있는데 최창현씨가 교대를 했어요. 그 양반하고 최창현씨가 연대장 교대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최창현씨가 전투를 하다가 또 후퇴를 했는데 인민군은 용인을 통해서 수원으로 왔고 국경을 통해서 벌써 쳐내

려왔고 우리는 삼각지대에서 포위가 됐었거든요. 그래 중의적삼으로 다시 갈아입고 국도를 통해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탈출해서 오산에 도착을 하니깐 그때 유엔군이 참전한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부터 나와서 죽 거길 천안을 거쳐서 또 내가 전투에 참가한 진천 전투 또 안동전투 안동, 예천, 상주해서 낙동강으로 건너가서 낙동강을 쪽내려오다가 유명한 다부동 전투에 거기서 내가 수색 나갔다가 기관포를 3개를 다 맞았어요. 3개를 맞아서 내 여기보면 형편이 없어요. 뼈가 안부러진게 다행이죠. 그때 당시 우리 국군에서 묘한 일이 있었어요. 생식기를 맞은 놈이 내가 1호죠. 기관포를 여기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새개를 뒤에서 쏜것 뒤에서 다 맞았는데 왼쪽에 고환을 완전히 잃었어요. 다 날라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고민이 컸었지. 총작이 그 지경이 돼서 거기서 고환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생식기능을 상실한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후송이 되어가지고 대구로 들어가던날 대구에 박격폭탄이 몇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구에 떨어뜨리니까 다시 거기서 후송이 돼가지고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몇달동안 치료를 해서 나아 가지고 그 후에 후송이 돼서 동래에 가서 정양 좀 하다가 제주도 군사부 사령부, 계엄부 사령부로 내가 내려갔어요.

이현희 : 제주도.

김재홍 : 예, 거기 가가지고 계엄 민사부하고 군사부 사령부로 가서 1년 7개월 약 2년동안 내가 거기서 지냈지요. 그후에 국방부로 내가 발탁이 돼서 국방부 병무계장으로 왔어요. 병무계장으로 거기에서 대위에서 소령, 중령까지 됐어요.

92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이현희 : 중령까지요?

김재홍 : 그렇죠. 중령까지. 그러다 거기 있다가 육군본부로 내가 복귀를 했어요. 육군본부에는 작전참모부, 작전과 또 심리전과, 교육과 등 여러가지 과가 있는데 그때 내가 심리전과장 보좌관으로 갔어요.

이현희 : 중령으로?

김재홍 : 그렇지. 그때서부터 내가 심리전을 하기 시작한거죠. 거기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심리전 감실을 창립을 해서 초대 계획과장을 했어요. 그때 심리전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휴전이 된 후죠- 심리전을 하는데 그때 우리 심리전이라는 것은 대북방송을 하는거하고, 또 비행기를 가지고 라운드 스피카에 다가 공중방송을 하는거하고, 또 전단 뿌리는거 하고, 전단뿌리는 것도 휴전선에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사람만 몰래 뿌리는 것만 그리고 또 하나는 미 극동사령부 심리전초가 오끼나와에 있었어요. 그래 오끼나와 심리전초하고 미국 극동사령부 소속의 심리전 부대 1개중대가 한남동에 와 있었어요.

그럴적에 내가 심리전 경무과장, 계획과장을 했으니까 기본계획이라든지 대북관계를 담당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특히 내가 기억에 남을만한 것은 내가 가니까 -아마 남도부라고해서 인민군의 중장일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기록도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한데 그가 6.25 사변 1개월전에 1개소대병력을 데리고 동해안으로 상륙을 했대요. 동해안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교란작전을 거기서 하고 그러다가 6.25가 났는데 그러다가 체포가 됐거든요. 6.25전에 체포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거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심리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리전초에서 형집행을 중지할 하고 심리전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신

원이 작전 교육국의 심리전과에 일단 넘어온 거죠. 그사람의 신원은 헌병대에다가 위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때마다 심리전에 이용을 한거지. 내가 부임하기전에 이미 벌써 남도부는 대개 이쪽에서 서로 심문이 돼가지고 북한의 사정 여러가지를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남도부가 하나 남길만한 얘기는, 절대 나는 죽지를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사형언도를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 이유가 김일성 원수가 어떠한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만은 죽이지 않는다, 찾아간다, 그러면서 상당히 자신있는 소리를 하더라는거지. 그런걸 보면 공산주의라고 하는것 자체가 그러한 믿음을 주는데서 공산주의에 맹종을 하게 마련이고 또 너만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예가 있잖아요. 심리전을 하다보며는 공산주의 하던놈들도 「반드시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러한 작전을 하고 그러한 공작을 하고 나며는 구속이 되더라도 안심을 해라. 우리는 너희들이 여기서 그렇게 오래 점령을 하고 공작을 해서 넘어갔으니까 너희들은 살리겠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너희들을 구출한다」 이러한 신념을 넣어 주기 때문에 그놈들이 이제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잡힌놈도 큰소리를 치거든요. 죽음을 막상 눈앞에 두며는 자신있다고 하는게 합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때 큰소리치는거는 저희들도 뒤에 뭐가 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때 내가 남도부라는 사람을 뒤에 알았지만은 남도부같은 사람은 심리전을 하는데 살려놔야 합니다. 저희들이 말렸어야 됩니다.

이현희 : 선생님이 심리전에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성과 얻었던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재홍 : 그런데 우리가 심리전을 할 적에 이상환이라고 그때 제가 그를 만났을때가 스물일곱인가 여덟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스물

여섯살인가 그가 구속이 됐는데 그 이상환이는 북한의 주소대사를 지내고 휴전회담에 나왔던 북한의 대표 이상조라고 있어요. 이상조의 사촌아우죠. 그리고 그 이상조, 이상환이가 밀양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상환이가 어떻게 해서 구속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까지 왔느냐하면 이상환이가 6.25 사변 이전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 해방후에 동네 어떤 조직에 다닌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이놈이 굉장한 정말 정력적인 빨갱이입니다. 학생적부터 그래서 북에 넘어 다니기를 보통다녔고 그리고 6.25 사변 전에 강동학원을 한번 갔어요. 강동학원이라는게 간첩교육하는데 아닙니까? 북한의 거기를 졸업을 하고 벌써 여기를 넘나 들기를 상당히 넘나 들며 그사람이 공작을 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사람이 6.25 사변 나자 문화부중대 소속돼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온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전부 차단이 됐거든. 그래 길을 잃었어. 후퇴를 할래도 이놈이 길을 잃고 오도가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밀양 제고항에 들어갔어요. 제고항에 들어가가지고 과수원을 하는데 과수원 가운데다가 무우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있기를 3년을 숨어 있었어요. 밤에 나와서 다니고 낮엔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때 이놈이 북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이제 나와도 너는 자수하면은 안죽는다 해도 믿지를 않는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기어이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오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의 매제가 우리 국군의 병기장교로 하나 있었는데 그놈은 아는거지. 그의 처남 이상환이가 거기 있는 것을 그는 아는거야. 그래서 북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장교의출증, 출장증명서를 그 매제가 다 해다주고 또 신분증은 아니겠지만 출장명령서를 해주고 그래서 이상환이가 그거가지고 대위계급장을 달고서 내일 넘어 갈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전날 제 매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미 넘어가다가 들키면 자기가 절단이 나게 됐거든. 그 충을 다 연구할텐데. 그래서 잠깐 권총을 빌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안들어 왔어요. 그날 저녁에 매제가 야 이거 안들어 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어 나를 회유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는 누이가 낙원동 어디 살았는데 그때 매제가 충고를 한거야. 거기서 잠을 자고서 다음날 넘어갈려고 하는 직전에 사전에 알아서 포위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왔는데 그 27살 먹은 그때 이상환이가 참 똑똑해요. 그에게 애국방송을 시키기 위해서 장장 5시간을 할 수 있는 원고를 썼어요. 써서 그걸 가지고 그때는 녹음기가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매일 그 어딥니까? 원자력병원 있던데 거기가 광화문통의 조선일보 부근이죠. 그를 데리고 호위병 둘을 호위하고 그를 내가 짚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와서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녹음을 하는거야. 하루에 그때 당시에 대이북 방송을 할 때가 15분씩 45분 방송할 땡니다. 그런데 그때 낮에 하는것, 밤중이나 새벽에 하는것, 또 초저녁에 하는것 해서 세번 나눠서 하는데, 그때 심리전의 효과라고 전파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게 없어요. 지금 봤을때 싸이클을 고정시켜 놓고 하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의 수뇌부들 마음대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들리지요. 그때 만해도 비밀히 라디오를 숨겨왔다가 한밤중에 방송한것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기대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전을 해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대북방송을 45분동안 하고나면 쪽 우리는 각국의 모든 지역 라디오를 다 듣잖아요. 통신을 들으니까 전부 그걸 발췌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심리전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북으로 전파되면 그것에 대한 변명내지는 그

방어적인것이 수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몇일씩 넘어옵니다. 전파가 넘어오면 그건 사실 그들이 시인하는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분 방송을 내려보내면 그들이 거기에 극구변명을 할려고 그러고 아니다하고 반발하고 한다는건 다시 말하면 그게 이쪽 에 대한 방송이 상당히 그만치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상환이를 한번 내가 감명있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그를 여러번, 하루 이틀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침식을 같이 하다시피하고 그래서, 안쓸려고 하던 원고도 쓰고 이랬는데. 그는 거의 완전히 귀화를 한거야. 그전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누가 가서 물어봐야 대답을 제대로 안합니다. 자신만만해요. 그도 이미 사형언도를 받은애지. 아 그래서 나중에 공개장을 하나 쓰는데 「나의 형 이상조에게 보내는 공개장」하고 쓴거죠. 그 공개장의 내용이라는데 여기의 발전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화를 해서 옮겨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하는 이러한거를 그의 사촌형한테 보내는 공개장을 썼죠. 그거를 녹음을 하고 나오는데 나의 팔을 붙잡더니, 김종령님 오늘 제가 녹음한거를 안할 수 없습니까 하길래 왜그러냐고 하니 북한에는 만일 이상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제 2의 이상조, 제 3의 이상조, 제 4의 이상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혈육을 같이한 제가 꼭 이 공개장을 내 형한테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빙그레 웃어가면서 공산주의에도 그런게 있느냐고 하니 그가 『저야 대한민국사람된거 아닙니까. 이제 귀화해서 대한민국사람됐는데 확 풀어주면 그 이상의 몇배 충성을 다할 사람인데 나를 못믿어서 못풀어줍니까?』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상환이를 살릴려고, 살려서 심리전에 쓸수 있다고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일해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또 사상전을 하는데도 우리 생각만 가

지고는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반드시 그 사회에서 살아보고 사회를 깊이 아는사람, 이사람으로 하여금 사실 그 사회를 파헤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심리전, 특히 사상심리전 같은거 하는데는 그래서 그가 절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심리전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상전에는 이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를 살릴려고 무려 도장을 아마 50~60개 받았을 거야. 육군에 부탁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를 형집행정지를 해 가지고 심리전에 쓸 예정을 한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 김창용 특무대 대장 한테 협조를 받아야 돼. 다른 각급참모한테는 다 협조를 받았는데 거기가서 걸렸어요.

이현희 : 그 특무대장 김창용 소장?

김재홍 : 김창용이가 그 왜그러냐하면 우리보고 공산당이라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아, 공산당 빨갱이 여기 잡아온것을 우리도 놔주지 않는데 네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공산당이 아니면 어떻게 놔주자고 하느냐』 이래서 그때 묘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그를 살릴려고 했다가 못살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이현희 : 사형 당했어요?

김재홍 : 그렇죠. 그거를 생각할때 그놈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나하나를 살려 줄 수 있는 분은 김중령님 밖에 없습니다. 또 김중령님, 누구한테도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김중령님한테 비로소 감화를 받아서 마음을 바꾼것 아닙니까? 미국의 심리전 장교가 그렇게 맨날와도 절대로 안만나주었어요. 극동사령부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마음 바꾼것은 김중령님 때문인데, 또 역시 바꾼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참 살다 죽을려고 하는 거니까 그저 나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애걸을

하더군요. 그래 참 그사람의 정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심리전을 하는데도 그렇고 사상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형집행정지를 할려고 헌병사령부 인사참모부, 또 각 참모부에 필요로 한 협조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김창용이하고 특무부대장, 참모차장하고 참모총장 적으면 형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김창룡이한테 막혀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렇게 그게 안됐고.

이현희 : 그렇게해서 결국 사형을 당한 셈이군요.

김재홍 : 그렇죠. 결국은 사형이 됐지요. 나는 집행이 된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제가 안됐으니까 된걸로 나는 확신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고 당연히 집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심리전이라고 하는것이 얼마만치 효력을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1차전쟁 당시에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것이 최초로 소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전을 통한 심리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보병부대 몇개 사단과 필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난 그런 심리전을 통해서 느낀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리전을 할 때도 정부의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와 미국 극동사령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온 이 심리전자료, 중무자료를 보던한 3년의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마만치 우리가 적중을 모르고 6.25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통계숫자를 보던가 모든걸 이렇게보면.

이현희 : 적의 병력관계, 또 이동작전 이런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부에 와서는 그런 정보도 있었다고 하지만 잘받지도 않고, 아마 그랬던것 같애요.

김재홍 : 소화가 안됐고 또 그마만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의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 권위가 절대 없었다는것, 또

지고는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반드시 그 사회에서 살아보고 사회를 깊이 아는사람, 이사람으로 하여금 사실 그 사회를 파헤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심리전, 특히 사상심리전 같은거 하는데는 그래서 그가 절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심리전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상전에는 이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살릴려고 무려 도장을 아마 50~60개 받았을 거야. 육군에 부탁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를 형집행정지를 해 가지고 심리전에 쓸 예정을 한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 김창용 특무대 대장 한테 협조를 받아야 돼. 다른 각급참모한테는 다 협조를 받았는데 거기가서 걸렸어요.

이현희 : 그 특무대장 김창용 소장?

김재홍 : 김창용이가 그 왜그러냐하면 우리보고 공산당이라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아, 공산당 빨갱이 여기 잡아온것을 우리도 놔주지 않는데 네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공산당이 아니면 어떻게 놔주자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묘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그를 살릴려고 했다가 못살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이현희 : 사형당했어요?

김재홍 : 그렇죠. 그거를 생각할때 그놈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나하나를 살려 줄 수 있는 분은 김중령님 밖에 없습니다. 또 김중령님, 누구한테도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김중령님한테 비로소 감화를 받아서 마음을 바꾼것 아닙니까? 미국의 심리전 장교가 그렇게 맨날와도 절대로 안만나주었어요. 극동사령부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마음 바꾼것은 김중령님 때문인데, 또 역시 바꾼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참 살다 죽을려고 하는 거니까 그저 나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걸을

하더군요. 그래 참 그사람의 정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심리전을 하는데도 그렇고 사상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형집행정지를 할려고 헌병사령부 인사참모부, 또 각 참모부에 필요로 한 협조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김창룡이하고 특무부대장, 참모차장하고 참모총장 찍으면 형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김창룡이한테 막혀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렇게 그게 안됐고.

이현희 : 그렇게해서 결국 사형을 당한 셈이군요.

김재홍 : 그렇죠. 결국은 사형이 됐지요. 나는 집행이 된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제가 안됐으니까 된걸로 나는 확신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고 당연히 집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심리전이라고 하는것이 얼마만치 효력을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1차전쟁 당시에 심리전이라고 하는것이 최초로 소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전을 통한 심리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보병부대 몇개 사단과 필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난. 그런 심리전을 통해서 느꼈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리전을 할 때도 정부의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와 미국 극동사령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온 이 심리전자료, 중무자료를 보면 한 3년의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마만치 우리가 적중을 모르고 6.25를 맞았다는 얘기에요. 통계숫자를 보던가 모든걸 이렇게보면.

이현희 : 적의 병력관계, 또 이동작전 이런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부에 와서는 그런 정보도 있었다고 하지만 잘믿지도 않고, 아마 그랬던것 같애요.

김재홍 : 소화가 안됐고 또 그마만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의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 권위가 절대 없었다는것, 또

그리고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정보가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와서 6·25를 회고해 보면은 누가 무슨 직책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그만한거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때 그때 옳은 정보를 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분석 평가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었어요.

이현희 : 요즘 그런 얘기가 지난 이후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미 있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김재홍 : 실망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의 군의 고위간부, 정부의 고위층에서 그걸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자체가 그 정보를 믿지를 않았거든요. 미국사람들이 미국사람들 자체도 그때만해도 그 공산주의중에서도 북한같이 악랄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난 뒤에 미국의 군대편제가 바뀌진게 있어요. 뭐냐하면 미국에서 요즘와서 1개 분대가 9인조지만은 6.25사변 그전에만해도 6.25사변전에는 12인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사람들 작전 관제도 평지 작전하는 것만 구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지 점령한다고 하는건 그거는 무모한 것이다, 고지 점령한다고 하는게 전출상에 무모한거다. 왜그러냐면 산악전을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고 게릴라전을 몰랐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지형상의 지형으로 봐서는 고지 점령을 함으로서 소위 작전권을 주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현희 :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우리 전쟁에서.

김재홍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보니까 12인을; 그런 지형속에서 1개 분대장이 12인 지휘를 할 수 없

100 6·25 남침전쟁과 통일운동

다, 그래 9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해서 나중에 바뀌어진 예가 있어요.

미국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안믿어 줬고 또 우리 정부에서 역시 또 그랬고, 또 그러한 축적된 정보라든가 이런것을 분석 판단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이현희 : 그건 참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많은 곤경을 우리가 겪었죠.

김재홍 :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도 할 수 있고 판단하는 기준도 내세울 수가 있고 하지마는 그때 그것이 안됐죠. 그리고 심리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대가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현희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상심리전에 참가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신 김재홍선생께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토니 파라 하클리

1. 생년월일 : 1925. 5. 9.
2. 출 생 지 : 미국 콜로라도주
3. 주요경력 :
 - 미육사 졸업 ('49)
 - 6.25 참전 ('50)
 - 전쟁포로 ('51)
 - 나토 부사령관 ('70)

이현희 : 내가 겪은 한국전쟁에 관해서 前 나토 부사령관 하클리 장군과의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통역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 국제문화협회 서아정씨가 나오셨습니다.

하클리 : 한국에 온 것과 동시에 이 대담에 참가하게 된 것을 본 인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현희 :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셨는지요?

하클리 : 이번에는 한국 국제문화협회의 초청으로 오게 되었는데 부인과 함께 왔고 한국전이 끝난 뒤 3번째 방한입니다.

이현희 : 몇년 몇년에 한국을? 6.25 전쟁이 끝난 뒤에 다녀가셨는지요?

하클리 : 1975년, 1981년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현희 : 네. 그럼 이번이 전쟁 후에 세번째 오시는 거군요. 한국에 서는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클리 : 우선 국방연구원 내의 전사편찬위원회를 방문했었고, 또 올림픽시설과 그 준비현황을 시찰했고, 그 다음에는 한복에 관한, 다

시 말해서 한복 천을 어떻게 만들고 한복 옷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시찰했고 내일은 6.25 참전 당시에 직접 전투를 가졌던 지역, 파주·파평리 같은데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현희 : 그렇습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것은 정확히 몇년도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 었는지요?

하클리 : 1950년 9월에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리고 51년 4월에 전쟁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53년 10월에 전쟁포로에서 석방됐습니다.

이현희 : 예. 한국에 와서 약 1년 남짓 전쟁을 하시다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쟁중에 기억에 남는 전투는 어떤 것이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하클리 : 전쟁포로가 되었던 마지막 전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전투에서는 당시에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있었습니다. 51년 봄에 거기에 대항해서 임진강의 한 지역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약 4일간의 전투였는데, 그때 미국군은 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은 2개 사단이 대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백병전까지 벌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전투였습니다.

이현희 : 1950년 9월에 참전하셔가지고 1951년 4월에 포로가 됐으니까 1년이 채 못돼서 포로가 되셨군요.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클리 : 당시에 중공군한테 포로가 됐는데 그 중공군들은 포로들을 엄격하게 다루긴 했지만 공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현희 : 몇명이나 포로로 있었죠?

하클리 : 대대의 반정도는 사상자였고, 4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이현희 : 포로 생활은 그럼 어디서 하셨는가요 ?

하클리 : 내가 있었던 포로수용소는 압록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 후반부터 주로 중공군에 의해서 운영된 포로수용소였습니다.

이현희 : 포로생활은 모두 몇년이나 하셨는지요?

하클리 : 약 2년 반 가량 했습니다.

이현희 :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포로 생활중에 어떤 일이었는지 ?

하클리 :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차 탈출을 시도했었습니다. 그중에 한번은 다시 체포되어 평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이 됐었습니다. 그때 탈출당시에 미국인하고 호주인 공군장교랑 같이 탈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은 탈출에 성공하고 나만 다시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현희 : 고문은 어느 정도나 심하게 당하셨습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하클리 : 오늘날 같은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겐 그 고문이라는 것이 상상하기 힘들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단지 고문에 사용됐던 도구를 전시한걸 보기만해도 매우 끔찍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온몸을 묶고 맨주먹으로 구타를 하는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기억나는 고문의 하나는 상의를 완전히 벗긴채로 조그만 아동용 의자 같은데다 묶고 의자를 뒤로 눕힙니다. 그다음에 얼굴과 가슴에 물을 막 끼얹고 그위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러면 수건이 물에 젖어들죠. 그위에 물을 계속 끼얹기 때문에 그게 계속 얼굴에 들어 붙으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면서 기절하게 되는 거죠.

이현희 : 그런 어려운 고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

하클리 : 우선 그 포로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지금 당장 처해 있는 현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습관 이외에도 정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기독교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나를 돕고 있다는 신념이 그 어려움을 견디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로생활을 하는 도중에 한 첫집에는 평양 정치범 포로수용소의 독방에 감금이 됐습니다. 이 독방은 전혀 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이고 완전히 몸이 묶인채 독방에 감금돼 있었고 이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나는 고문 때문에 몹시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렇게 하느님 눈에 띄지도 않고 사라져 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 말처럼 몇 분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호전이 된겁니다.

이현희 : 혹시 포로 생활중에 석방이 될 것이다. 나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져본 적은 있으신지요?

하클리 : 결국 궁극적으로는 석방이 될거라는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테바논 전쟁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포로에게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나고 포로라는 기간이 얼마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현희 : 포로수용소 내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하클리 : 포로수용소 내에서도 아마 포로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하는데 그 사상교육의 논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상교육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포로 기간의 초기에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주로 말하기를 우리는 곧 UN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두번째 단계에 가서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UN군을 반드시 패퇴시킬 것이라고 내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53년도 전쟁 말기에 가서는 무

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현희 :네. 그러니까 그런 평범한 얘기 가운데서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모든 육감을 동원해서 알아내려고 그러는 것이 포로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석방은 언제 됐던가요?

하클리 :석방을 위해서 판문점에 당도한게 1953년 8월 31일입니다.

이현희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휴전되고 얼마 안돼서군요. 그런데 석방될 때 기분이 어떻든가 지금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감격이 많이 사라졌겠지만 그 감격을 좀 어디...

하클리 :우선 첫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구요. 석방을 위해서 포로들이 판문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레가지고 석방에 관계되는 상세한 얘기를 듣고 차를 한잔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화장실엘 가고 싶었어요. 그레가지고 경비병한테 화장실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려니까 경비병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하고 실감을 했어요.

이현희 :제가 듣기론 장군께서는 1941년 2차 대전 당시에 사병으로 지원입대하신 후에 1982년 나토군 부사령관인 대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무려 42년이라는 긴 세월의 군인생활을 하셨습니다. 42년 군대생활을 한 4성 장군으로서, 누구보다도 군대를 잘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강력한 군대, 또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인의 자세란 것은 어떤 것인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클리 :우선 군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적정연령에 달한 젊은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병역을 필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가지는 순전히 자원해서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직업을 갖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의무병역제를 택하고 있는 것 같구요. 미국은 순전히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의무병역제도로 이뤄졌던 직업군인으로 이뤄졌던 중요한 것은 그 군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국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도 그렇고 북미의 여러나라들도 그렇고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 2차대전이라든지 한국전에 관한 경험도 없고 또 옛날에 들은 전쟁에 관해 들은 얘기가 차츰차츰 기억에서 사라져 가면서 전쟁의 위협이라는 걸 전혀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수시로 일깨워 주면서 방위의 의무를 깊어지게 하는게 차츰차츰 어려워지는 거 같고 이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없으신가요?

하클리 :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전반이 군대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한다는 거구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가 국방을 공고히 하는 것이지요. 학교를 짓는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에 투자하기 전에 평화를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룩한 그런 여러가지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국방을 우선 가장 튼튼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그렇다면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의 공포라든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군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구라파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 쪽도 그렇다

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사실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런데서 군이 국방도 튼튼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무슨 방법은 없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클리 : 우선 중요한 것은 국가 방위가 모든 젊은이들의 의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군대의 제 1 차적 의무가 국가방위라는 걸 분명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필요성,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최선의 방법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같은 경우 1914년에 히틀러가 등장했었고 또 그 1세기 전에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있었구요. 또 그 이후에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대두할 동안에 영국은 사실상 아무런 태세도 갖추지 않고 방관한 상태였다는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1950년대 북한이 훈련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을 때 한국군은 아직도 초기단계, 병력동원이라든지 장비를 갖추는데 초기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남침을 해왔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게 중요하구요. 그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아무래도 오랫동안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군께서는 한국참전사를 저술중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역사학도로서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하클리 : 나는 현재 미국 국방부의 공식 전사편찬위원입니다. 그

래서 한국전에 미국의 참전사를 저술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1949년도까지만 해도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해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3.8선을 경계로 작은 접전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경을 둘러싼 접전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북괴에 의해 저질러진 6·25 전쟁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한 의도적인 침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사실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몇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1950년도 6월 초반에 3.8선 이북의 인접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후방지역으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소개되었던 주민들 중의 일부가 월남해 가지고 증거를 한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사실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 북괴군에 군사고문으로 있던 러시아 군인들이 6월중에 모두 본국으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완전히 북한 군사현장에서 사라졌고, 세번째는 전쟁을 앞둔 10일간 북한의 모든 무기, 경찰대병기, 차량 등이 모두 완전히 실전태세로 전개가 돼있었다고 해요. 그런것은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그 막대한 경비나 인력을 동원할 수 없는 준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희 : 그건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클리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김일성은 남한을 적화하는데 몹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번째로는 김일성이 전쟁장비라든지 군사원조를 위해서 스탈린에게 계속 요구했었는데 스탈린은 그동안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고 또 유고의 티토가 소련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었고 또 베를린을 자유진영에 대해서 고립시키는데 실패했고 또 체코정부가 여러가지 사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전념하느라고 김일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50년 여름이 되어서 김일성이 우리는 드디어 남침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좋다고 허락을 내린거죠. 여기서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당시의 남한은 정부라든지 군대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50년 7월까지의 김일성이 완전히 성공단계에 도달했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7월달 한달까지를 보면은 약 35일 동안에 한국전쟁은 완전히 북괴군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 말이지요. 북괴군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이 북침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요?

하클리 :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남한과 미국정부가 고의로 아직 준비가 안된 척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반증으로 내세울 수 있는 첫째 반증은 한국 군대가 몹시 약했다는 것, 그리고 전혀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전쟁 발발 당시에 거의 패배당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3.8선 이북 인접 주민들을 소개했다든지, 러시아 고문단들이 철수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히틀러가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아니라 다른데서 히틀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현희 :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제 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클리 : 물론 여태까지 정전 이후 약 5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한국 국민들이 이룩해낸 걸 보면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지만 만약 한국 정부와 군대가 약해진다면 북한이 쳐들어 온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요,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계속 발전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저히 자기들이 당해낼 수 없다는 그런 저지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그런데 한국전 당시 저도 어린나이지만 6.25를 겪은 세대입니다. 서울시내가 완전히 다 잿더미였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보시고 떠나신 후에 75년, 81년, 두차례 한국을 방문하시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세번째 오셨는데 내년에 올림픽을 할 정도의 발전이 돼있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하클리 : 1953년, 내가 전쟁포로에서 석방되어 서울을 떠날 때는 서울의 반이 거의 불에 탔거나 폭탄으로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한강에는 보트가 몇척 떠다니고 민간인을 위한 교량은 없고 군사교량이 있는 상태고 사람들은 영양부족으로 옷도 잘 못입는 상태였는데 1975년, 또 81년, 그리고 사회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산업발전이 차츰 증가하는걸 볼 때마다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매우 재능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매우 활발한 점을 감안할 때 모두 한국인들이 계속 발전하는 걸 저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웃 일본에게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우방으로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지요?

하클리 : 그러니까 한국의 장래를 아주 낙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거나 경제 주역으로 뛰고 있는 세

대들보다는 바로 여러분의 세대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 40년 정도의 기간중에 한국이 이룩한 업적을 볼때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과 반공포로 석방

<합동증언자>

- 전덕범 ○ 김광호
- 정승도 ○ 김사빈
- 이성운

■ 합동증언자 ■

◇ 전덕범 (田德範)

1. 생년월일 : 1922.6.1
2. 출생지 : 평북 정주
3. 주요경력 :
 - 천도교 신자 ('44)
 - 천도교 청우당 평북도당 근무 ('45)
 - 반공포로 석방 ('5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618 부대 통신참모 ('59)
 - 북한연구소 근무 ('77)

◇ 김광호 (金光鎬)

1. 생년월일 : 1921.3.26
2. 출생지 : 평북 벽동
3. 주요경력 :
 - 천도교 청우당 면당 문화선전부장 ('40)
 - 중국 국부군 52군 동북보안군 특수중대장 (대위) ('44)
 - 반공포로 석방 ('53)

◇ 정승도 (鄭勝道)

1. 생년월일 : 1920.5.22
2. 출 생 지 : 평북 선천
3. 주요경력 :
 - 천도교 신자 ('40)
 - 천도교 청우당 면당위원장 ('45)
 - 반공포로 석방 ('53)
 - 천도교 관악교 근무 ('80)

◇ 김사빈 (金仕斌)

1. 생년월일 : 1918.6.3
2. 출 생 지 : 함북 온성
3. 주요경력 :
 - 천도교 신자 ('45)
 - 천도교 청우당 군당 부위원장 ('49)
 - 포로수용소 석방 ('54)

◇ 이성운 (李成運)

1. 생년월일 : 1929.4.23
2. 출 생 지 : 황해도 수안
3. 주요경력 :
 - 천도교 신자 ('42)
 - 천도교 청우당 면당위원장 ('45)
 - 반공포로 석방 ('54)
 - 천도교 종의원 의장 ('88)

118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과 반공포로 석방

이현희 : 우리는 6월이 되면 6.25 동란의 아픈 상처를 되새기게 됩니다. 당시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어야 했던 비극적 현장에서 포로가 됐던 북한 출신 천도교 청년들은 포로수용소 안에서 좌익포로들과 대결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일식을 봉행하며 자유를 쟁취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몇 분을 모시고 당시를 회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다시피 금년(1988) 6월은 1950년에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난지 38주년이 될 뿐아니라 1953년 6월 18일에 당시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반공애국포로가 전격 석방된지 35주년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반공 통일사료로 남겨 뒷날 좋은 참고자료가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귀한 증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체험한 일이시니까 가장 정확한 사실에 접근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시 거제도의 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간에 심각한 알력이 있었다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극한상황에서도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한 반공애국포로들이 자위권을 행사하여 한편으로는 친공포로들과 투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용소 안에서 시일식을 봉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종교활동을 전개해왔다는 사실은 아마 세계 전쟁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이를 직접 체험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포로수용소 안에서의 종교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에 계실때의 상황과 당시 포로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호 선생,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광호 : 저는 현재 천도교의 영등포교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1948년에 중국에서 귀국하여 신의주에 정착하였다가 유명한 북한의 천도교인이 창당한 청우당 삭주군 청수면당의 상무로도 있었지요. 또 면총리원 원서로 있다가 과격행동으로 집에 은신해 있던 중 6·25 남침전쟁을 만나 소위 인민군 동원부에 잡혀서 사실 억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번 탈출하였으나 죽을 고비를 넘겼죠. 결국 고랑포에서 동지 4명과 탈출하였으나 두명은 총탄에 맞아 부상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도와 요행히 성공하였지요. 그리하여 1951년 봄에 부산의 가야포로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현희 : 다음 전덕범 선생은 어떠하십니까?

전덕범 : 저는 현재 천도교 관악교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북에 있을때 저는 천도교 청우당 평북도당 정치부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6·25 남침전쟁이 터지자 곧장 징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피해서 고향인 정주에 숨어있다가 유엔군이 진주하였지요. 그때 정말 감격하였습니다. 이래 우리나라는 완전히 통일할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날벼락이겠습니까. 중공군이 참전해 가지고 남침기세를 올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유엔군 등 미군도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할텐데 그것이 잘 안된 모양이죠. 할수없이 낙망하고 내려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후퇴할 때 같이 피난 도중 이 해 11월 27일에 정주에서 붙잡혀 인천수용소에 넘겨졌다가 다음해 정월 가야수용소로 수용되었습니다. 전쟁때 질서가 없으니까 피난민을 포로로 취급했던 것이지요.

이현희 : 앞에 계신 정승도 선생은 언제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셨죠?

정승도 : 저는 천도교 관악교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정주 남서면의 청우당 면당 선전·조직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

다. 6·25 남침전쟁이 터지자 우리 면당에 비행기 헌납기금 모금이 할당되었죠. 당시 남서면당에는 17~8개의 접연(接聯)이 있었지만 전혀 모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내무서에 끌려가 군사동원부로 넘겨져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선을 따라 서울·동두천·의정부 등지로 전전했었지요. 그뒤 고향사람 노연희등 3,4명이 함께 탈출하여 복지리라는 마을로 몸을 피해 간신히 도망했습니다. 거기서 삼신군이라는 지하반공유격대와 합류해서 며칠동안 반공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9·28 수복 이후 유엔군과 국군이 입성하자 태극기를 들고 이들을 환영하러 의정부로 나갔더니 우리가 머리깎은 것을 보고, 또 고향이 이북이라니까 인민군인줄 알고 무턱대고 포로수용소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10월 초순이었는데, 미군에 인계되어 인천수용소에 집결됐다가 부산 가야수용소를 거쳐 12월경에 거제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이현희 : 김사빈 선생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넘겨지셨는데 그 경위에 관해 요점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사빈 : 네. 저는 현재 천도교 관악교구 소속의 교인입니다.

저의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천도교를 믿어왔는데, 해방 이듬해 고향인 함북 온성에서 천도교 청우당 온성군당 창당 발기에 참여해서 처음에는 정치부장으로 있다가 1949년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숙청된 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철도부설 강제노동수용소에 끌려갔다가 6·25 남침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에 징발당하기 위해 9월에 일단 귀가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공산당을 피해서 숨어다니다가 성진 부두에서 월남하는데 실패하고 만주 팔로군과 같이 명천에서 교량공사를 하며 한때 피신생활을 했으나 결국 귀가하여 1951년 4월에 온성에서 하

는 수 없이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 후 전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우리 부대가 개성 수비를 담당하게 되자 8월 2일 밤에 같은 부대 천도교인 6명과 같이 부대를 탈출, 그중 4명이 무사히 사선을 넘고 장단에 있는 국군부대로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첩보원으로 월북하라고 하기에 결코 갈 수 없다고 하자 포로수용소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 거제도포로수용소로 넘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역경에 역경을 극복하면서 생활해온 셈이지요. 민족의 통일이 이때처럼 절실히 요청될 때가 없었습니다.

이현희 : 다음은 이성운 선생께서 탈출의 자초지종을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성운 : 네. 저는 현재 천도교 중앙총부 종의원 의장이고 동대문교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벌써 6·18 반공애국포로 석방 35주년이 됐다니 감개가 새롭습니다.

저는 고향이 황해도 수안입니다. 여기서 학교교사로 있다가 천도교인이라는 성분때문에 축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청우당 천곡면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6·25 남침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9·28 수복으로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자 천도교 청우당 수안군당내의 특수집에 소속된 사람들을 예비검속을 해서 23명의 천도교인이 끌려가 해주정치보위부로 넘겨졌습니다. 그중 몇명이 해주형무소에 수감됐었죠. 그뒤 10월 16일 해주가 국군에 함락되자 인민군은 철수하면서 정치범들을 가두어둔 채 형무소에 방화를 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학살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공산당 무리들은 이처럼 잔인무도 할까 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살아나와서 산에 숨어있다가 국군이 입성하자 내려와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도중 사리원에서 유엔군이 우리를 무조건 붙

잡는 것이었어요. 그때 일본인 통역이 있었죠. 그를 통해 사정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소년형무소에 보내졌는데 거기 모여 있는 수천명되는 사람들이 흡사 거지꼴이었습니다. 우리 일행 10여명은 어떻게 하든 심사를 받고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진에 내려 논바닥에 텐트를 친 소위 참대밭수용소에 수용됐다가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모두 거제도수용소로 이송 수용되었습니다.

이현희 : 당시 거제도수용소는 어떠하였으며 몇명이나 포로로 잡혀 들어가 있었는지 하는것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김사빈 :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는 약 17만명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포로교환 때 밝혀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중공군이 약 3만명, 남한출신이 약 2만명, 나머지는 북한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래에 북괴 의무대 등에 있던 여자 포로들 약 5백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현희 : 수용소마다 번호가 따로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류된 것입니까?

이성운 : 인민군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의용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징발당했다가 붙잡힌 남한출신들은 61에서 65수용소까지 60단위로 분류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70단위와 80단위는 북한출신 포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90단위 수용소가 생기면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를 분리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현희 : 아 그랬습니까? 김사빈선생은 수용인원에 관해 말씀할것이 있겠지요?

김사빈 : 네. 거제도에는 약 30개 정도의 수용소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각 수용소에는 1만명에서 5천명 정도까지 상황에 따라 수

용인원이 달랐습니다.

이현희 :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간에 반공문제, 통일달성등 민족분단의 극복을 위한 심각한 알력이 있었다는데 그 발단은 무엇이었나요?
이성운 선생님.

이성운 : 네.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상적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포로교환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어 북에서는 포로들을 무조건 전원 북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인민군포로들이 북으로 가면 자기네가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수용소 안에서 공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포로가 된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한출신 의용군들이 수용소 안의 질서를 잡았었는데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북의 지령을 받고 1951년 봄에 거제도에 건너가면서 좌우익간에 노골적인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두번째는 우리와 같이 사상범 내지는 반공에 앞장섰던 천도교인들을 중심한 포로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북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사 반대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공포로들과 싸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우기 미국은 휴전회담에서 자기네 미군포로를 찾기 위해서 무조건 전원 북송을 찬성하는 쪽이었으니 여기에는 이념이고 적이고 아무것도 필요없었습니다.

이현희 : 김사빈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사빈 : 네. 제가 말씀드리죠. 1951년 9월경에 북한 노동당 정치보위부에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즉 수용소 안에서 공을 세우면 과거를 문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수용소 안에서 미군과 투쟁해서 포로수용소를 제2전선으로 만들어 우익을 숙청하고 포로교환할 때 전원 북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124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과 반공포로 석방

추석날 밤에 전 포로수용소에서 1차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내가 부산 가야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85수용소에서는 천도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송환반대 혈서를 써서 진정까지 했습니다.

이현희 : 정승도선생님. 85수용소는 매우 유명했다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셔서 그리로 가지게 된 것입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도 : 예. 잘 알겠습니다. 85수용소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61수용소에 있다가 85수용소로 이동했는데, 그때 정주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9할 이상이 천도교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3개 대대를 조직했는데 대대장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천도교인 오(吳) 씨였습니다. 거기에다 평남지역 천도교인들까지 합쳐서 3대대가 약 5~6백명이 되었는데 거의 모두가 천도교인이었고 간부급도 모두 천도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포로들을 전부 송환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반공청년들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자위책을 강구하게 됐는데 전원이 「송환결사반대」라는 혈서를 써서 관제요로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무더운 8월 하순경으로 생각되는데 좌익포로들이 모르게 하느라고 밤에만 사흘 동안 한사람씩 불러서 혈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를 주동한 분은 정주군 안흥면 종리원에 계시던 박찬호선생을 비롯한 천도교 교인이었습니다. 혈서를 다 받고 박선생이 철조망 보조책임자를 통해서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 미국정부 등 각 요로에 진정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유를 원한다, 우리를 석방해달라, 우리는 민족통일을 절대로 원한다, 남한으로 갈것을 결사적으로 갈구하니 그렇게 해달라,

동토의 땅 북한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지요.

그런데 극비리에 진행한 혈서진정이 프락치에 의해서 좌익포로들에게 그 명단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밤 갑자기 좌익포로들의 선제공격을 받아 한사람씩 불러가 인민재판을 받고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밤 10시부터 다음날 4시 반까지 간부급 우리 교인 18 명이 타살되었습니다.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였으니까요. 몸서리치는 현상이었지요. 맨 처음 희생된 분은 박찬호선생이었죠. 평양의 한인덕씨와 대대장 오씨도 희생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전덕범 선생도 잡으러 왔었는데 도망가서 위기를 면했지요. 나중에 안 일인데 그날밤 20명을 타살하기로 했다가 날이 밝아서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현희 : 전덕범 선생님,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셨습니까?

전덕범 : 네. 구사일생이라할까 천우신조였다고 봅니다. 당시 진정서의 명단을 내가 작성했는데 포로번호와 이름을 쓰고 혈서라든가 날인을 해서 유엔군과 제네바에도 보냈습니다.

이현희 : 정승도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데 좋겠습니다.

정승도 : 예. 날이 밝자 우익포로들 1천여명이 공포에 질려서 3중으로 된 가시철망쪽으로 몰려들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와보니 팬티만 입히고 무참히 타살된 18명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경에 우익포로들을 95수용소로 분리시켰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95수용소는 모두 우익포로들만 있었나요? 김사빈 선생님, 보고 들으신 대로 현장감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사빈 : 네. 처음에는 우리들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꾸 불어나서 약 5천명정도 되었습니다. 나는 61수용소에 있다가 10월에 95수용소로 갔습니다. 95수용소는 3개대대인데 1대대는 주로 인민

군장교들이 수용돼 있었죠. 2대대는 새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비롯한 잡다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3대대는 85수용소에서 넘어온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다수의 우익포로들입니다.

나는 2대대에 속해 있으면서 중대장에 선출됐는데, 나를 의심한 좌익들이 중대장을 해임시키고 딴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위책으로 부대 안에 천도교인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청우당 경성군당에 있던 김모(某)씨와 경원군당위원장이었던 김병욱씨, 나진군당 선전부장이었던 장정관씨를 만나게 되어 3대대에 우리 교인이 많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대대 안에 약 1백여명의 교인들을 3대대와 합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변인인 전덕범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지요. 그야말로 우리는 천운이었습니다.

이현희 :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군요. 그런데 그 당시 말씀하신 수용소에서 대변인의 지위는 어느정도 됩니까? 전덕범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덕범 : 대변인은 수용소 안에서 수용소 소장과 공식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고였습니다. 대변인은 포로들이 자율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되는데 처음에 95수용소에 우리 교인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되었지요.

이현희 : 김사빈 선생님, 전덕범 선생을 만나게 된 과정을 말씀하십시오.

김사빈 :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밤 장정관씨 소개로 전덕범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관절 신분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 고향을 물으니깐 정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찬배 선생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단들이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 만났더니 전찬배선생이 자기 아버지라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더군요. 내가 1948년도에 아버지한테 천도교 청우당 중앙당학교에서 백일동안 강

습을 받았다고 하니깐 그럼 천교도인이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자 서로 협력해서 자위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52년 정월쯤에 2대대와 3대대의 천교교 교인을 비롯한 우익포로들이 96수용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대변인인 전덕범선생이 주동이 되어 미군 수용소장과 외교를 잘한 때문이었습니다.

이현희 : 미군한테 이동시켜 달라면 잘 들어주었습니까? 잘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요.

전덕범 :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니다. 당시 95수용소장이 월슨대위인데 나하고는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내말이라면 전적으로 믿어주었고 대부분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사령부에서 대변인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북송 반대건의서를 서너번 제출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96수용소에서는 친공포로들과의 알력이 없었습니까? 이성운선생님. 그리고 96수용소는 어떤것인지요? 몹싸 궁금합니다.

이성운 : 예. 그보다 96수용소가 어떻게 신설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에 78수용소에 있었는데 친공포로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습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각 수용소마다 반공포로들이 북송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운동이 소폭적이거나 태동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내가 있던 수용소에서도 좌익 폭동이 일어나 10여명이 타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83수용소에는 처음으로 반공청년 중앙단이 창단되었는데 거기서 우익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 어느쪽이 실권을 잡느냐에 따라 그 수용소는 좌익수용소가 되기도 하고 우

익수용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죽지 않으려고 진정서를 썼습니다. 내 손으로 쓴 진정서만도 수십통이 될겁니다. 그것을 국방부장관과 보사부장관, 그리고 한국측 휴전회담대표 최덕신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좌익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타고 넘으려는 등 소동이 벌어지니까 유엔군이 이를 알고 우리 수용소에서도 우익수용소인 83수용소로 많이 옮겨주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섞여 탈출하려다 인원제한 때문에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김사빈 선생이 이야기했지만 96수용소가 생기면서 각 수용소에서는 중학교 이상 학력자를 차출해서 96수용소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좌익수용소에서는 우익포로들이, 또 우익수용소에서는 좌익포로들이 서로 맞아죽지 않으려고 학력이 있건 없건 나오라고 하니 탈출하기 위해서 모두 나와가지고 96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때 96수용소로 가게 되었지요.

이러다보니 96수용소에서도 좌익이 싫어서 나온 우익포로와 우익이 싫어서 나온 좌익포로가 혼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단장과 대장들이 표면상으로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가리지 말고 평온하게 지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암암리에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2중대장은 지창삼이라는 우익 청년이었고 나는 소매장을 맡고 있었는데 2대대에 이북 노동성에 있던 초산사람 적색분자가 언젠가 나에게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 당에 있었다 」고 하자 내가 노동당에 있었던줄로 착각하고 비밀을 실토하는 거예요. 즉 96수용소가 평온한 것 같지만 이미 각 대대마다 세포조직이 되어 있어서 어느날 폭동을 일으켜 혁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창삼 대대장과 경비대에 알려서 그놈을 불러다 심문해서 좌익극렬분자들을 색출해 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95 수용소에서 3 대대가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현희 : 김광호 선생님. 그안에서의 반공투쟁에 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호 : 네. 저는 73 수용소에서 96 수용소로 와서 2 대대에 있을 때 95 수용소에서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된 3 대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덕범씨와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대대 안에 반공청년단 조장이었기 때문에 각 소대에 정보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날 저녁 정보원으로부터 「내일 아침 4 시쯤 좌익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와 3 대대에 연락하는 한편 카투사가 그들을 색출해서 나홀동안 완전히 좌익조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대대 반공청년단에 관여하는 줄 알고 좌익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짜놓았었습니다.

그 후 행정기관까지 개편해서 나는 2 대대 1 중대 대변인으로 있었다가 나중에는 1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이현희 : 그 때 전선생님은 96 수용소에서도 대변인이었습니까?

전덕범 : 96 에서는 3 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95 수용소장이었던 월슨대위가 96 수용소장으로 다시 옮겨왔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수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현희 : 정승도선생님의 반공투쟁담을 듣고 싶습니다.

정승도 : 예. 말씀드리죠. 우리 3 대대는 96 수용소에 1 대대와 2 대대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때 3 대대장은 순천사람 원기복씨였는데 우리 나름대로 1 대대와 2 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보니 좌익이 테러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85 수용소에서 좌익

130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과 반공포로 석방

에게 선제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전 대원이 3~4일간 잠을 못자고 군화를 신은채 수건에다 돌맹이를 싸서 묶어가지고 불침뼀을 세워서 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먼저 선수를 쓰게 된거지요.

이현희 : 김사빈 선생님, 극렬좌익 분자는 어떻게 색출할 수 있었나요. 96수용소에서는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김사빈 :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익극렬분자들을 색출하는데는 전덕범선생이 미군 수용소장하고 목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카투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홀동안 좌익분자들을 심문하고 색출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공산당식으로 보복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용소에서는 우익포로들도 좌익포로를 죽이기까지 했죠. 우리 3대대는 거의 천도교인들이었기 때문에 96수용소에서만은 단 한사람도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좌익 극렬분자들을 색출해서 유엔군에 넘겨서 다른 수용소로 보내버렸는데 그 숫자가 약 4백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을 쫓아낸 후로는 천도교청년들이 완전히 질서를 잡았지요. 당시 우리편 숫자는 1천명밖에 안되는데 반해서 좌익은 4천명이었다는 것이 마지막 분리심사를 하고난 다음에야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교인들이 96수용소의 질서를 완전히 잡은 후로는 거제도수용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미군이나 한국군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수용소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전덕범씨가 미군 수용소장과 교섭을 잘해서 물자보급도 잘 됐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들은 늘 배가 고팠죠. 임석지선생이 나서서 모든 포로들에게 식사공급을 공평히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품도 간부들이 가질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었는데도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

법적인 수용소로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현희 : 그건 참 다행이었군요, 전덕범 선생님. 96수용소 내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편했겠지요?

전덕범 : 네. 물론입니다. 포로들은 매일처럼 작업하는 '것이 일과인데, 이렇게 우리 96수용소가 모법적이니까 미군들이 어느날 하루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쉬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유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수용소 안에서 천도교인들이 자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종교집회를 갖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부터인가요? 김사빈 선생님.

김사빈 : 1952년 3월경에 천도교인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부터 그 안에 천막을 치고 시일식을 봉행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현희 : 시일식을 봉행하게 된 발단이라고 할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일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사빈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김사빈 : 천도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교인들이 자진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도교 강원도 이천군당위원장을 하던 박영수씨, 개천에서 종리원장을 하던 이항○씨인데 이름이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 덕천의 손성룡씨, 현재 천도교 인천교구에 계신 임현씨 등이 교회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천도교간판을 내걸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덕범씨가 미군과 교섭을 해서 시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천막을 지원받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현희 : 수용소 안에 다른 종교들의 집회도 있었습니까? 이성운 선생님!

이성운 : 기독교가 있었지요. 그들은 유엔군에 군목제도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외부에서 목사가 들어와서 예배를 보았는데, 숫자상으로는 천도교인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보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시일식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현희 : 알았습니다. 전덕범 선생님, 종교인간의 타협이나 반공통일 운동은 안하셨나요.

전덕범 : 내가 처음에 96 수용소에 가서 기독교측과 손잡은 사람이 김중호라는 목사였습니다. 또 천주교 대표로 변모(某)씨와도 접촉해서 정보를 수집했었지요. 그후 나는 주로 반공청년회를 조직해서 각 대대와 소대에 조장들을 임명하고 반공활동을 하느라 교회 활동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완전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현희 : 김사빈 선생님. 교회의 간판도 걸었다지요.

김사빈 : 네. 사실은 맨 처음 우리 소대에서 소규모로 시일식을 보기 시작하다가 이를 확대시키자고 해서 전덕범씨를 통해서 미군 수용소장에게 승인을 받아 천막도 얻고 아마 「천도교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을기(弓乙旗)를 달아야겠는데 마침 임현씨가 마련하겠다고 해서 시일날마다 천막에 궁을기를 게양했지요. 이렇게 되자 천도교 간부들이 여기서 모이자고 해서 10여명이 천막 안에 기거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취하여 프린트본으로 된 천도교경전과 또 백세명선생이 쓴 「경전해의」를 들여다가 시일식을 봉행했습니다. 그때 쓰던 프린트본 경전을 현재 임현선생이 간수하고 있어요.

이현희 : 당시 시일식에 몇명이나 모였고 누가 설교를 했나요?

김사빈 : 그때 천막 안이 팍 찼는데, 아마 4~5백명씩은 모였을 겁니다. 설교는 주로 임현·박영수 선생을 비롯해서 몇분이 했고,

천덕송은 임종보씨가 지휘했습니다.

이현희 : 96 수용소에서 시일식을 봉행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성운 :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가 분리 수용될 때까지니까 아마 1952년 가을까지 약 반년 남짓 될겁니다. 이북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거제도에 남겨놓고 자유대환에 남겠다는 사람들은 본토로 옮겨서 부산의 가야수용소를 비롯해서 광주·논산·영천·부평 등 여러 곳에 분산 수용되면서 96 수용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현희 :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수용소로 가셨지요? 정승도·전덕범 선생님 말씀하시죠.

정승도 : 모두 가야수용소로 갔습니다.

전덕범 : 그 전에 우리가 분리심사후 96에서 91수용소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청우당 강동군당 선전부장을 하던 우리 교인 이동창 선생이 헤게모니를 잡아서 천도교가 주도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가야수용소에서든 천막을 치고 시일식을 봉행했습니까? 이성운·전덕범 선생님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성운 : 가야에서는 병영시설이 되어 있어서 병영 안에서 봉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야수용소에는 8개 대대가 각각 5~6백명씩 수용되어 있었는데 대대별로 철조망이 쳐있어서 각 대대별로 따로 시일식을 거행했지요.

전덕범 : 가야수용소에서든 강응인선생과 김형욱 선생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현희 : 그렇게 되었군요. 이성운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성운 : 강응인선생은 여단장으로 천도교 청우당 함경남도 도당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가야수용소에서는 대대별로 시일식을 보았으니까 대대마다 시일식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

134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과 반공포로 석방

하기가 어렵겠군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미를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성운 : 체계적으로 모아지지는 않았으나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배급나온 담배니 담요같은 것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썼지요.

정승도 : 외부 교인과 교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수용소에 몇 해 전 환원시킨 임석지선생의 조카되는 정주군당 조직부에 있었던 임두정씨가 자기 삼촌이 포로수용소에 있으니까 면회오면서 연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초량동에 천도교 교구(지금의 부산시교구)가 있었는데 동관중에 천도교 총부가 이 곳 초량교구로 옮겨와 있어서 사실상 천도교 중앙총부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백세명선생을 비롯해서 김창업·최동조·손두정씨 등 간부들과 연락이 되어서 찾아 오기 시작했지요.

이분들에게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없지만, 언젠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데 우리들이 담배 등을 팔고 절약해서 그때 화폐개혁이 되기 이전 돈으로 5백만원을 스페어 통에 현금으로 가득 채워서 천도교 중앙총부로 보냈었습니다. 당시 누구를 통해서 전했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그 후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던 수용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성미를 모아서 천도교 중앙총부에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가야수용소 외에 다른 수용소에서도 시일식이 거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성운 : 탄 수용소에서는 훨씬 활발하게 천도교식의 시일식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논산수용소에서는 대대가 갈라져 있어도 천도교 천막을 따로 수용소 안에 두어 각 대대에서 집합할 수 있

게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의 천도교의 교구역할까지 했는데 천도교의 교구장은 작년에 천도교의 동대문교구장을 역임하다가 환원하신 강기섭선생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규모있게 천도교의 시일식을 봉행했고, 성미를 모아서 현재의 천도교 대전교구를 창립하는데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광주수용소에서든 천도교 교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시일식을 봉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현희 : 천도교 강릉교구장을 역임했던 성기남씨도 논산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논산에는 3개 수용소가 있었다더군요. 이 분은 제3수용소 8대대에 있었는데, 7대대는 거의 전부 천도교인이었고, 8대대도 황해도를 중심한 천도교인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 천막을 치고 「천도교」라는 간판을 걸고 일요일마다 시일식을 봉행했는데 3~4백명씩 모였고 시일식이 끝나면 천덕송을 배우기도 했다더군요. 그때 이분도 프린트로 된 경전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논산의 제1, 제2수용소에서는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 시일식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일 등 : 그렇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다음으로 반공애국 포로들이 6·18 석방과 판문점을 통해서 석방되는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운 선생님.

이성운 : 네. 거제도에서 친공포로들과 분리되어서 본토에 분산수용되면 곧 석방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공청년단을 중심으로 석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도 전덕범선생이 추천해서 반공청년 중앙단에서 일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반공청년단조직은 단장과 비서가 있고 그 아래 중앙위원이 있어요. 또 서기가 있고 대대별로 조장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반공청년단이 중심이 되어, 이북에서는 국군 포로를 재우

장시켜 전선으로 다시 보낸다는데 우리도 나가 싸울테니 석방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유엔군사령관과 보사부장관, 휴전회담대표들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미군들이 석방운동을 하지 말라면서 반공청년단 간부진을 모두 영창에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용소 관리대대의 성모(某) 중령이 나를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우리 의사를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만 시켜주면 당장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고 하자 성중령이 6월 18일 0시를 기해서 반공애국포로를 전원 석방시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대대의 조장들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나가는 척 하면서 조장들을 모아서 만났더니 성중령이 철조망이 4겹인데 바깥 두겹은 자기네가 끊겠으니 안에 두겹은 당신네가 끊어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경비병들은 자기네가 연금시키겠다면서 앞산에서 전지불로 잠박잠박 신히호하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용소 안에 공산분자의 프락치가 있어서 이들에게 탄로되면 만사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태풍이 분다고 위장하여 모두 옷과 신발을 신고 자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호응해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희 : 그야말로 아슬아슬 했습니다. 김광호선생님.

김광호 : 네. 그렇습니다. 가야수용소에서 탈출할때 밖에서 철조망 절단기를 들여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만약 좌익에서 폭동을 하든가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가 20여명으로 특공대를 조직해서 한 사람씩 모두 내보낸 후에 나왔는데 아마 새벽 2시쯤 모두 탈출했을 겁니다.

이성운 : 탈출 후 일부 극소수가 잡혀서 재수감되기도 했지만, 다른 수용소에서는 우리처럼 조직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명의 희생자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날 2만7천여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몇천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논산과 부산의 거제수용소에 재집결시켜 수용하였습니다.

이현희 : 그날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은 후일 관문점을 경유해서 석방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바랍니다. 전덕범·정승도·이성운선생님, 차례대로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덕범 : 우리는 관문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후 관문점에서 나머지 반공애국포로들을 상대로 인민군 대표들이 집요하게 설득공작을 폈습니다. 그러나 특히 천도교인을 중심한 반공청년들은 오히려 인민군 대표에게 완강히 반항하면서 자유대한의 품에 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4년 1월에 반공청년들이 자유의 다리를 넘어 올때 선두에 태극기와 궁을기를 나란히 앞세워 건너왔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정승도 : 당시 태극기와 궁을기를 앞세우며 자유의 다리를 건너올때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왔던 공보처장 갈홍기씨가 궁을기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무슨 기냐고 물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성운 : 그만큼 반공 애국포로의 대다수가 천도교청년들이었는데, 당시 이를 교단차원에서 제대로 수용했다라면 오늘날 천도교의 교세에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터인데 당시 천도교 총부의 기능이 비정상적이었죠. 또 수용태세도 되어있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현희 : 오늘 여러가지 좋은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천도교 교인들이 당시 보국안민의 정신 아래 수용소안에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민족통일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섰을 뿐 아니라 시일식을 자발적으로 봉행했었다는 사실은 고

개가 숙여줍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자유의 다리를 넘어 올 때 태극기와 함께 궁을기(弓乙旗)를 앞세워 건너왔다는 사실은 분명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길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 수용소에 국한된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민족통일이 지상과제인 이 시점에서 매우 유익한 증언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좌담회를 마치면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휴전협상과 제네바 정치회담

<증 언 자>

○ 한 표욱

◇ 한표옥 (韓豹頊)

1. 생년월일 : 1916.5.20
2. 출생지 : 함북 북청
3. 주요경력 :
 - 연희전문학교 졸업 ('38)
 - 미국 시라큐스대 졸업 ('41)
 - 주미한국대사관 1 등서기관 ('49)
 -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 ('51)
 - 주미한국대사관 공사 ('54 ~ '60)
 -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교수 ('63)
 - 주 제네바 대사 ('66)
 - 주 태국 대사 ('68)
 - 주 유엔 대사 ('71)
 - 주 오스트리아 대사 ('73)
 - 주 영국대사 ('77 ~ '81)
 - 한·영협회 회장 ('84 ~ '86)
 -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85~현)
 - 국제연합 한국협회 부회장 ('85~현)

이현희 : 한표옥대사는 1949년 주미 한국대사관 1 등서기관, 그리고 51년 등 참사관을 역임하였으며, 54년에서 60년까지 등 공사를 역임하시고, 63년에 미 조지워싱턴 대학 정치학 교수를 역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66년 주 제네바대사, 그리고 77년에서 81년까지 주 영대사를 역임하시고, 1983년부터 86년까지 한영협회 회장과 고문을 역임하셨으며 외교가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휴전협정 시대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서 이 방면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84년에는 국제연합 한국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수교훈장 광화장과 태극백삼 1급훈장,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대십자훈장을 받으셨으며, 저술에는 「한·미 외교 요람기」라고 하는 업적을 가지고 계신 대사이십니다.

오늘 선생님,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6.25 남침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대사님께서서는 미국에 계셨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욱 : 1950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밤 9시경으로 기억됩니다. 워싱턴 시간이죠. UP통신의 워싱턴지국 야근 기자를 도널드 곤잘레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외교관 생활에는 파티가 많아 자주 외출을 하지만 그날은 우연히 집에 있었습니다. 또 제 집사람도 임신중이었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결혼후 6년간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곤잘레스 기자는 당신 나라가 북한에 침입을 받고 있는데 아는 바 있는가 물었어요. 나는 곤잘레스 기자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겠나 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기자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근거있는 얘기냐, 이렇게 깜짝 놀라서 몇번 물었습니다. 곤잘레스 기자는 지금 막 서울발신으로 당신 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왔는데 당신 정부로부터 들은 것

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군요. 그 기사는 바로 6.25 남침전쟁을 제일 처음 세계에 알린 UP의 잭 제임스 기자의 특종보도입니다. 나는 더 상세한 보도가 들어오면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UP에 그런 기사가 들어 왔다면 AP에도 들어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나서 AP에 전화를 걸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외교문제 담당의 모리스라는 기자를 찾았는데 그 기자는 집에도 사무실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야근 기자에게 한국에 관한 무슨 뉴스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자는 UP에 범상치 않은 뉴스가 들어온 것 같은데 AP는 아직 자세한 보도가 없다고 말했죠. 저는 그 기자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 부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제일 친하게 접촉한 UP의 슈티에트 헨슬리 기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헨슬리 기자는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현희 : 그랬었습니까? 그때 대사님은 시외전화로 똑 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헨슬리 기자가 워싱턴지국으로부터 연락은 받았지만 상세한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워싱턴으로 가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한표욱 : 당시 미국에는 AP, UP, INS 등 3개 통신사가 있었죠. 나중에 UP와 INS가 통합해서 UPI가 되었는데요.

헨슬리 기자는 한국전쟁에 종군했고, 저와는 친구같이 다정한 사이로 자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여러가지 외교문제라든가 시국문제 이런것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지난 1969년 제가 태국대사로 근무할 때에 방콕에서 열린 월남 참전 7개국 외상회의때 로저스 국무장관을 수행하고와서 반가운 인사를 한 일도 있었지요. 나는 통신사와의 접촉에서 시원한 해답을 못

얼은채 국무성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문을 밝히고 나의 스폰드의 이름을 대면서 한국담당 직원이 있으면 대화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숙직자의 대답이었죠. 급한김에 그 직원에게 뉴스의 보도내용을 설명하고 서울에서 무슨 보도가 없냐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전후사정은 모르겠고 링컨화이트 대변인이 곧 국무성으로 나온다는 전갈이 있었다면서 다시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현희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한대사님은 국무성직원이 전화로 선블리 사건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으나 뭐가 있다는 암시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을 느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표욱 : 네. 맞습니다.

주말이라 누구나 다 교외로 나가 있을 시간에 대변인이 밤중에 국무성에 나오는 사실만으로도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UP의 곤잘레스 기자로부터 첫 전화를 받고 난 뒤 이 모든 확인과정이 불과 20분 동안의 일이었죠.

나는 張勉大使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정보를 되도록이면 자세히 파악한 뒤 보고하려는 생각에서 여러곳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로 장대사에게 보고하기로 했죠. 매일 저녁 칵테일 파티다 디너파티다 해서 두 세군대를 다니던 장대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관저에 계셨어요. 20여분간에 일어난 일들을 간략히 보고하고는 공관으로 나가겠다고 했죠. 그때 저희집은 워싱턴 교외의 타고마파크라는 곳에 있었는데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말을 생각했어요. 그때 이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위협으로 우리는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테리컬하거나 낭만에 젖어있지 않다, 미국에 대해 불평할 기분도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

다는 사실이다는 등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이현희 : 네. 그러셨군요. 그 차창에 비친 워싱턴의 초여름밤이 유난히 무덥게 느껴졌다고 하셨죠. 이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그토록 경고해 마지 않았던 전쟁이 결국에 터지고 만 것 아닙니까? 또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한표욱 : 네, 제 머리속에도 아주 좋지 않은 기분과 함께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궁금증에 쌓여 있었죠. 트루먼대통령과 애치슨국무장관이 평소에 한 말 중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을 골라 보았는데 트루먼대통령은 1950년 5월 9일 와이오밍주의 한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악의 복합체이고, 가장 새로운 복종체제이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시달리는 자유진영을 미국도 쳐다보고 있고 미국은 자유주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주장을 보존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애치슨장관은 3월 20일자 국무성 브리핑에서 자유진영이 약점을 보이면 정치적 진공상태가 생길 것이고, 이것은 소련이 들어와 최악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디까지나 효율의 입장에서 자유진영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기본입장이 이처럼 확실하다면 결국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밤 10시쯤 대사관저에 도착해서 장대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상세히 되풀이했는데 장대사와 저의 심경은 매우 비통했습니다. 장대사가 국무성에 다시 전화를 걸어 보라고 했죠. 앞서 통화했던 일직직원이나 왔는데 나일즈본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 본드는 장대사가 계시냐고 이렇게 묻고는 곧 두사람이 국무성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장대사와 제가 국무성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 40분 경으로 생각됩니다. 국무성에는 던 러스크 극동담당 차관보, 애치슨장관의 고문하고, 그리고 필립조셉 박사, 존 허크슨 유엔담당 차관보, 엘릭시스 존슨동북아과장, 나일즈본느 한국담당관이 나와 있었는데 모두 약식야회복 차림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날밤 그들은 한국무성 관리의 결혼식기념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비상소집이 돼 온 것이죠.

러스크차관보가 장대사와 나를 밀실로 안내했습니다.

방금 무초대사로부터 정보가 왔는데 북한이 남침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한국정부에서 무슨 연락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우 난감했습니다. 장대사는 『없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이렇게 말을 했죠. 러스크 차관보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의 대사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을것으로 기대하는데 한국정부로부터 무슨 연락이 있으면 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밀실을 나왔는데 장대사와 저는 아까 들어올 때에 복도에 서있던 기자들을 생각하고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서로 의논을 했죠. 우리들이 만든 답변내용은, 첫째로 북한의 침범은 우리의 도발없는 침략 행위라고 했고, 둘째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고 모든 전쟁계획 수립은, 이런 것들은 소련이 했다. 셋째 미국은 급히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을 하고 자정쯤 대사관으로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무대에서 온 국제전화 였습니다.

이현희 : 그때 한 대사님이 수화기를 들으셨다고 했죠?

한표욱 : 틀림없는 이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

가 많은것으로 보아 긴급국무회의가 경무대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대통령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필립, 저놈들이 쳐들어 왔어. 우리 국군은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힘으로 격퇴할 수 있는 지는 걱정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든 미국의 원조가 시급히 도착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장대사는 있느냐.』 그때 이승만 박사 나이가 74 살이었는데 노인네 목소리 치고는 매우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대충 이대통령의 목소리로 희로애락 감정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음성이 분명히 자신감이 엿보였어요. 장대사가 전화받았을때 같은 요지의 지시가 있었었습니다. 이것이 이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통신이었는데 이대통령은 통화의 끝머리에 정일권 장군과 손원일제독에게 빨리 귀국하라 일렀거든요. 정장군하고 손제독은 워싱턴에 무기원조를 교섭하러 왔다가 귀로에 하와이에서 주재중이었던 거예요.

이현희 : 그때 이승만대통령과의 몇번에 걸친 통화가 끝난후에 한 대사님은 다시 국무성에 전화를 해 가지고 러스크차관보를 찾았지 않았습니까?

러스크차관보에게 서울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자 그가 장대사와 함께 국무성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걸로 저는 알았는데요?

한표욱 : 예. 우리는 워싱턴시간으로 6월 25일 새벽 1시쯤으로 기억됩니다. 국무성에 갔어요. 2시쯤에 만난 국무성 요인들이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었습니다. 장대사와 나는 다시 러스크차관보의 밀실로 들어가서 이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다 들은 러스크는 무초대사로부터 온 정보 보고를 읽어 주었던 거예요. 내용은 공산군이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북한이 전면공격으로 나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대

항에 나선 한국국민의 용기와 결심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든 미국이 시급히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대사말에 잘 이해하고 동정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스크는 일부러 해답을 피하는 눈치였지만 국무성의 공기는 한국을 돕긴 돕지만 유엔의 테두리안에서 사태를 다루겠다는 그런, 애치슨선언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참 부산하게 연락을 주고 받던 러스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 문제는 미국이 혼자서 다룰것이 아니다, 일단 유엔에 회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무성은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의 유엔 대표하고 연락을 취했다, 25일 상호 11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니 당신네들도 참석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현희 : 네. 그러셨군요. 애치슨 장관은 즉시 미주리주에 가있던 트루먼 대통령에게 장거리 전화로 알렸죠. 워싱턴과 미주리주는 2시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한 시간이 워싱턴에서는 밤 10시반인데 러스크는 뒤에 그의 회고록에서 애치슨 장관에게 곧 전용기편으로 워싱턴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애치슨 장관은 지금 밤이고 또 국가원수가 밤에 여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내일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만류했던데요.

한표욱 : 네. 애치슨은 그때 트루먼대통령에게 한국사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즉석에서 승락을 받아 국무성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또 유엔의 미국 대사부에도 그 시간에 오스틴 대사도 별장에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무성과 유엔대사부간 업무협의는 러스크차관보와 에니스트 그로스 부대사간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로스 부대사는 국

무성의 지시를 받고 곧 티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과 접촉을 했어요. 리 총장은 즉석에서 유엔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스스로 그로스 부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리 총장에게 요청해 놓고 새벽 3시쯤 서면으로 정식 제출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그때에 장대사와 한박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모두 검토했습니까?

한표욱 : 네, 장대사와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 대사관에 돌아왔는데요. 두 사람은 유엔에 가는 것을 의논하고 집에 와서 짐을 챙겨가지고 상오 6시쯤 다시 대사관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사 전용 차편으로 7시 30분 메릴랜드주 인드르주 공군기지로 가서 조금 있으니까 국무성의 나일즈 본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 담당부 국장, 데이비드 웨인 하우스가 왔어요. 우리는 군용기로 넷을 태워 아침 8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안에서 웨인하우스 부국장은 어쩌면 장대사가 발언을 해야 할지 모르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대사와 저는 발언 내용의 초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시절 유엔문제를 한학기 공부한 기억을 살려서 머리를 짚습니다. 제가 만든 요지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침공은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은 평화를 켜는데, 전쟁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시간만에 군용기는 뉴욕 라파디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택시를 타고 유엔본부가 있는 롱 아일랜드의 레이크 석세스로 갔습니다. 당시에 유엔본부는 맨하탄에 있지 않고 롱 아일랜드에 있었어요. 지금은 맨하탄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현희 : 그랬습니까? 6월 25일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 뉴욕시, 레이크 석세스에 있는 유엔본부에는 우리 교포를 비롯한 많은 사

람이 그때 긴급해 가지고 모두 몰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장의 공기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 이유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한표욱 : 그 이유는 티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이 무엇보다도 한국을 돕는데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을 수립케 한 유엔한국위원단, 즉 UNCURK를 설치한 장본인으로 유엔 COK입니다.

그는 공산침략이 곧 자기네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것 같았어요 또 그는 이날 오전 10시 유엔 한국위원단으로부터 한국사태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는데 호주, 자유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터키의 7 나라 대표로 구성된 유엔 한국위원단은 총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전면 침공의 성격을 띤 중대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잘 관찰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자 2시에 안보리가 개최됐습니다. 한달씩 교대로 맡은 의장은 노르웨이 대사 순이었습니다. 소련을 제외한 자유진영,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인도등 10개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석했는데 소련의 말리크대표는 중국의 대표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이미 그해 1월부터 유엔에 보이콧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회직후 리 총장이 발언에 나서서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고를 인용, 유엔은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라스 미 대표가 일어나서 무초대사의 보고를 토대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후에 미국측이 마련한 결의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중대사태에 피해 당사자인 한국대표를 참석시켜 호

소를 듣자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라스의 발언이 끝나면서 유고대표가 발언을했죠. 유고대표는 이 문제는 남북한 양측의 얘기를 다 들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북한대표도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잠시 회의가 옥신각신했죠. 결국 북한대표를 참석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표결결과는 6:1로 유고안이 부결되었죠. 이 표결에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는 기권을 했죠. 이어서 우리나라의 참석요구에 관한 표결이 진행했는데 저는 외교관 생활중 처음으로 우리 문제가 남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을 겪게 되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9:1로 가결이 선포됐을 때는 그야말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감격적인 순간을 맛보았는데 이것은 제 일생에 그렇게 흔한 순간은 아닌 것이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참석이 가결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련대표 말리크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운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현희 : 장대사와 한포옥대사는 워싱턴에서 군용비행기를 타고 유엔으로 오면서 사태의 중요성으로 보아 소련대표가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죠? 회담전에 막상 말리크가 없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고 했는데 그때 심경이 어떠했습니까?

한포옥 : 네, 소련은 그후 8월부터 안보리에 복귀했는데 7월까지 모든 안보리 결의가 비 합법적이고 무효라고 생떼를 썼죠. 그렇지만 대부분 회원국들은 소련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불참이 결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

석을 내려서 이 논쟁은 흐지부지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야말로 한국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놓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책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대통령이나 장대사, 그리고 저 할것 없이 그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할까 이것이 반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유엔가입안을 제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심사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격심사 위원회가 회부한 가입안을 안보리가 인준할 때까지 소련이 유엔에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소련이 반드시 나타나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때에 장대사가 대표에게 부탁을 했더라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우기 단, 소련이 불참한 것도 중공 문제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북한의 남침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방패를 내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이현희 : 한대사님은 트루만대통령하고도 면담을 하셨습니까?

한표욱 : 한국대표와 티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인 로비, 또 소련 대표 말리크의 불참덕분으로 장면대사는 6월 26일에 열린 유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침략당한 우리의 입장을 아주 상세히 설명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매우 다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대사는 제가 준비해 준 설명문을 읽었죠. 그 핵심은 북한피뢰의 침공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대사는 또 한국정부 수립에 유엔이 큰 임무를 했는데 평화와 인류에 대한 기본 책임을 진 안보리가 북한의 침략을 적극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장대

사가 군사원조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장대사의 발언 후 영국대사가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충발언을 했고 이어서 미국측이 제의한 결의안이 9 : 0으로 채택됐습니다. 참 그것도 매우 특이한 하나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참석자중에 유고대표만이 기권했습니다. 이 결의안의 요지는 4가지인데요, 첫째는 북한은 즉각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 둘째는 북한은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하라, 셋째 유엔회원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원조도 중지하라, 넷째 유엔 한국위원단은 이 결의안이 시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라, 이런 것입니다. 장대사님과 제가 회담중에 앉아 있는 사진이 뉴욕타임즈 6월 26일자 1면에 톱으로 게재되었죠. 장대사와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을 거의 새다시피해서 저는 유엔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밤 12시쯤 이대통령으로부터 두번째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죠. 대통령의 목소리는 토요일 밤과 달리 매우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은 『필립!』, 필립은 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일이 맹랑하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 국군이 용감히 싸우기는 하지만 모자란 것이 많으니 즉각 장대사를 모시고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장대사의 통화가 끝난뒤 저는 국무성 나일즈본드에게 전화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태의 시급함을 인식한 국무성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죠. 20분뒤 본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좋다. 하오 3시 백악관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현희 : 그래서 즉시 면담을 하시러 간 것이 아닙니까?

한표욱 : 네, 장대사와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들어가는 복도에 보도진이 찍찬 것을 보면서 매우 흥분을 느꼈죠. 트루먼 대통령은 불그스레한 혈색에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당황하고 초췌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애치슨 국무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대사는 이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얘기하고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트루먼대통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염려 마쇼. 한국정부, 국민,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고 국민들이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소. 미국독립 전쟁때 독립군이 무기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낙담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라파에트 장군이 우리를 도와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1917년 유엔 여러 나라들이 독일의 침략을 받아서 존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은 그 지원에 나선적이 있소』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트루먼 대통령의 이 말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두가지 사례를 설명한 것도 한국을 지원할 생각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죠. 트루먼은 이날 이 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의 지원호소 메시지를 가져온 장면 대사는 풀이 죽어 있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나는 그를 위로했다. 전투를 시작한지 48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망적인 정부에서도 자유를 수호하고 승리를 얻은 그런 경우가 있다. 기운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밝힐 것은 그날 장대사나 제가 몹시 침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울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벌룸(Oval Room)을 나서자 수십명의 보도진들이 질문공세를 폈거든요. 제가 메모까지 써 온 것을 장대사에게 드린 답변내용은, 우리는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 침략을 우리 혼자 힘으로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미국 정부와 국민이 지원해 주기를 호소한다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현희 :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2차 유엔 안보리도 열었죠. 6월 26일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고 난뒤에 장면박사와 또 한표욱대사의 마음에는 활기가 차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표욱 : 네, 대사관에 돌아와서 트루먼 대통령과의 면담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에 다시 국무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 2차 유엔 안보리가 열리니까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장 대사와 저는 이튿날 일찌기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라파디아 공항에 도착하니까 구내 방송에 한국대사가 있으면 안내석으로 올라 오라는 것입니다. 안내원은 급히 워싱턴 대사관으로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다이얼을 돌려했습니다. 대사관 여비서가 조금전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선에 미국의 해·공군을 참전시킨다는 성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레이크석세스의 유엔본부에 갔습니다. 트루먼의 발표를 들은 많은 사람이 이 극적인 회담을 보려고 밀려들었는데 1,200명 정도 밖에 입장할 수 없어서 5천명이 밖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방청객 중에는 한국인도 여럿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련대표 말리크는 여전히 불참합니다. 회의 벽두에 오스틴 미국 부대표가 한국사태에 관계된 정세를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골자는 북한이 6월 25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남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에서 군사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장대사가 안보리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

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유고대표가 유엔의 중재, 또 북한대표의 유엔 초청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내놓아서 파란을 겪었는데 끝내 캔슬되고 말았습니다.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끝에 밤 11시 50분쯤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을 회복하고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도록 공고하는 이런 내용의 미국 결의안이 찬성 7, 반대 1, 기권 2 표로 채택됐습니다. 반대는 유고, 기권은 인도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채택된 시간에서, 서울은 이미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6월 29일 이 대통령이 INS 통신의 레이 리차드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무기를 달라고 했는데도 미국은 우리가 무기를 가지면 복진할까봐 안 주었다. 억울하기 짝이 없다. 나는 한국의 장래문제를 유엔이 다루는 한 무력통일은 절대 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래서 전세가 날로 악화되어서 피난길에 올랐던 어느날 이대통령은 한표옥대사에게 손수 타자로 친 그런 친절한, 그리고 절박한 사신을 보내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표옥 : 네. 거기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세가 대단히 분리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권총한자루를 갖고 다닌다. 혹시 적군에 체포되면 나는 자결할 각오이다. 프렌체스카 여사는 일본에 보내려고 달랬지만 나의 속셈을 알아 채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같이 죽겠다고 울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전세는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이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 직전인, 9월 1일 임병직 외무장관을 유엔에 파견합니다. 윤치영, 임병직씨등 한국대표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대 유엔의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9.28 수복으로 사기 충천한 이대통령은 유엔대표단에게 활동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요지는 모두 5가지 입니다.

첫째, 유엔군은 38 선을 돌파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다.

세째, 38 선을 건너간 다음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 되어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네째, 38 선 이북의 신탁통치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다섯째, 다만 유엔군이 잠정 주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임병직장관이 유엔에 보고하고 난 후 장대사는 유엔관계 일에서 거의 손을 뗍니다. 다만 저 혼자서 워싱턴 뉴욕을 오가며 두분을 봐줘야 되는데 장대사는 틈이 날 때는 미국내 지방을 돌고 연설을 하고 또 호소를 하고 했습니다. 그해 11월 23일로 기억됩니다. 이 대통령은 장대사를 국무총리로 전보하고 후임에 양친씨를 이듬해에 임명합니다. 또 뉴욕에 와있던 임병직장관을 주유엔대사에 임명하는 한편 당시에 미 국무성의 리더즈 그란츠 계획에 의해서 워싱턴에 있었던 변용태씨를 외무장관직으로 발령합니다. 그런데 외무장관직의 인수인계는 임병직, 변용태 두사람이 워싱턴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아이러니컬 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장대사는 전쟁중에 국무총리 보다는 오히려 주미대사에 좀더 있고 싶어했죠. 나는 장대사의 부탁으로 이대통령에게 장대사를 주미대사에 유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장대사의 부임과 함께 저는 참사관으로 승진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현희 : 그러셨군요. 6.25 남침전쟁 발발직후 미국이 신속하게 해

군, 공군 지원을 표명하고 유엔참전결의를 주도한데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갈채를 보냈지 않습니까?

한표욱 : 네. 대통령은 이같은 움직임이 매우 고맙다 하면서 1950년 7월 2일 서울에 와있었던 미국 INS 통신 레이 리차드슨 특파원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주미 대사관과 유엔대표부에 보내서 각처에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임병직 외무장관은 7월 4일자로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6월 27일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것이고, 또 회원국들이 결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도와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전투를 계속 진행할 결심을 만방에 밝혔다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될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우리의 투쟁과 희생은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유엔현장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장상의 모든 원칙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믿고, 이 원칙들이 유지되어야만 되는 것과 같이 모든 신생국이 각자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여기서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의 전세와, 미군증강경위, 그리고 38선 돌파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표욱 : 네. 매우 전세는 불리했습니다. 드디어 29일 트루만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애치슨국무장관, 마셜국방장관 등과 구수회담을 열어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군활동 범위에 대해서 결심을 내렸던 것입니다.

첫째로, 38선 이북에서의 해군전투는 활동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맡김으로써 38선 이북의 군사활동을 비로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군은 필요한 부대를 부산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도록 조

치를 했다는 것이고 그후 맥아더장군은 급전을 보냈습니다. 불리하니까 미군의 전투병력이 즉각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2개사단 병력의 파병을 허가 했습니다.

오스틴 리 유엔 대사는 6월 30일 안보리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오스틴대사는 유의할 발언을 했는데 모든 미군의 군사적 활동은 한국이 6.25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미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와같은 태도는 우리 국군의 반격전이 벌어져서 38선 돌파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부각됐습니다. 1950년 9월 17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뒤 2주일만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 38선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7월 19일 이대통령은 트루만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소공위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소련이 북한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한 38선을 건드리는 일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대한민국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련의 후원으로 수립된 북한이 38선을 파괴하면서 남침한 이상 38선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전쟁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오스틴대사의 유엔 발언에 대해서 이대통령이 즉각 반박서한을 썼던 그런 문제가 오래지 않아서 우리 국군의 38선 접근에 다가서는 쟁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현희 : 미국도 7월 말부터 낙동강 교두보를 기점으로 반격작전을 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38선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표욱 : 네. 8월에 오면서 이 논의가 활발해 가지고 국무성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후에 국무장관을 지낸 동북아 문제담당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와 존 엘리슨 동북아 국장입니다. 이들은 38선 돌파

160 휴전협상과 제네바 정치회담

지지자들이자 38선은 이제 없어야 되고 침략자를 격퇴한다는 것은 바로 그네들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들의 의견에 맞서서 기뢰국의 폴리스 등은 조지 케논의 영향을 받아서 백아더로 하여금 유엔군이 38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태도를 표명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국무성내에는 38선 돌파문제에 관해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데 대해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은 매우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치슨 국무장관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38선 돌파문제에 대해서 국무성 관리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맞서 있었던 때에 애치슨 국무장관은 여름 휴가중이라고 그랬는데 8월말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애치슨의 책상에는 한국문제에 관한 케논의 비망록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조지케논은 국무성을 떠나 국방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케논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전 발발과 동시에 미국이 침략을 격퇴하겠다고 한 결정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반소정권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한표욱 : 네. 케논은 한반도는 소련에 대립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좋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유를 말했죠. 소련문제에 관한 정통한 권위자로 알려진 케논이 소련 영향권 안에 한국이 들어감으로써 극동지역에 평화가 유지될 것이고 전후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이 향상되리라고 보았다면 사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다행히 애치슨은 케논의 건의를 고려하지 않았죠. 전쟁발발 이전 상태로 복귀한다는 중전 생각과는 달

리 38 선의 존속가치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38 선을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와 아울러 국방성도 7월 30일 소련, 중공이 개입하지 않는 한 유엔군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된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 까지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1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소·중공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한 38 선을 무시하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38선 돌파쪽으로 옮겨졌는데 유엔총회도 이 문제로 논란을 겪었습니다. 유엔 안에서는 전략적 고려와 정책적 고려가 맞서 있었는데 여하간 미국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은 소련, 중공의 반응을 분석 돌파하자는 방향으로 중용을 했죠. 인도대표는 중공의 개입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 대표단은 여러 대표단을 찾아 다니면서 전쟁을 결정적으로 끝낼 생각이려면 38 선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병직 대표단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47년 유엔 결의안이 통일된 독립정부 수립을 유엔의 목표로 정한 이상 이제야 말로 결의안을 관철시킬 때가 되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한국의 피나는 호소와 미국의 입장에서 찬성을 표시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았죠.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때 미국이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유엔의 집단안보원칙이 준수될 수 있었으므로 한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인천상륙작전 이후인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표명이 되었습니다. 애치슨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유엔군의 군사행동은 38선 이북으로 계속 행진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통일된 독립국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엔 결의안의 정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스틴 미국대사도 유엔군은 막대한 희생과 고통과 비극

을 겪으며 찬란한 승리에 도달하고 있다, 다시는 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이 가공의 벽위로, 즉 38선 위로 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피하게 한다면 한국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뿌리를 다시 박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의 남침행동으로 38선은 더이상 선을 존속시키지 말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현희 : 결국 미 합동참모부에는 9월말 트루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맥아더장군에게 38선 돌파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합참의 지시가 있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한표욱 : 네. 첫째는 적군을 완전히 격퇴하고 소·중공이 개입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38선 이북에 군사력을 취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유엔군은 소·중공의 국경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인데 특히 동북전선에는 한국군만 투입하라는 것이고, 세째 소·중공이 개입할 경우에 전투를 계속하되 방어작전에 국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효주한대사, 맥아더장군은 소·중공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대통령에게는 38선 돌파 결정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수행할 생각이었는데 이에 따라 맥아더장군은 10월 1일 두번째로 김일성에게 무기를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하라는 그런 방송을 보냈습니다. 맥아더장군, 위커 미 8군 사령관은 특히 38선 돌파를 부추겨온 이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단독행동은 안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현희 :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보리가 전쟁행위 중지라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한표욱 : 네. 미국이 주도한대로 6.25 유엔안보리가 북한측에 대해

전쟁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는데 남침 속도를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정부는 27일 새벽 중앙청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천도를 결정하고 이 대통령도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었죠.

트루먼 대통령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27일 존슨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미 해군, 공군의 한국지원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훈령토록 지시하는데, 도표 맥아더장군에게 전달된 훈령은 남한으로부터 북한의 군사력을 일소하기 위해서 38선 이남의 모든 군사목표를 미공군이 공격토록 명령한 것이고, 또 미해군으로 하여금 38선 이남에서 남한에 대한 침략군을 즉시 막기 위해서 남한영해에 아무런 제한없이 작전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해도 좋다 하는 것이 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의 훈령은 어디까지나 미군지원을 해·공군으로 국한하고, 또 군사행동은 38선 이남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월 25일에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침략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때 이 군사적 조치는 일대 결단이었습니다.

유엔안보리 2차회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열렸습니다. 27일 하오 3시 미국시간, 인도대표 라우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전투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군대를 계속 38선 이남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는데 긴급한 군사조치가 요청된다는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고를 주목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지역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공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은 결의안을 제안한 미국의 오스틴대사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어요.

북한은 제 1차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안보리 결정을 조롱하고 있다는 해석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북한공산군의 한국공격은 바로 유엔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초강경발언을 했습니다.

이현희 : 오스틴은 회담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날 미 해·공군으로 하여금 한국군에 지원을 제공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힌 트루먼의 성명서를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장대사가 연단에 나섰는데요.

본인은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즉각 취해지기를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습니까?

한표욱 : 네. 회담중에는 소련대표 말리크가 25일처럼 나타나지 않았죠. 1차 회의때도 그랬지만 이날 안보리에 앞서 우리 대표단은 즉시 말리크가 참석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로비에서도, 점심식사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미국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우방대표들을 붙잡고 말리크의 참석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1,2차 안보리를 앞두고 그로스 주 유엔 미국차석대표는 티리 그브 리 유엔사무총장, 에이그롬 유엔고문과 함께 절차 문제를 협의하면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안보리 기능을 마비시킬 경우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소련의 거부권에 대응하는 문제는 미 국무성의 유엔관계국 직원들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려는 우리에게 미 국무성의 나일즈 본드는 일단 북한의 전투행위를 중지시키고 38선을 넘어가는 방향이라고만 귀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채 시간이 없어서 정

부에 보고도 못했는데 만약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은 회원국의 자격으로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에 대해서 인도를 대표한 라우회장과 이집트 대사는 본국 훈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1시간씩 2차례나 정회를 요구하고 나중에는 회의를 다음날로 연기시키자고 했습니다. 장 대사와 저는 소련의 참석을 우려해서 초조하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오스틴 미 대사가 지체할 수 없다고 서둘러서 중국, 영국들이 가세해서 밤 10시 50분 회의가 계속됐죠.

찬성 7, 반대 1, 기권 2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현희 : 장대사와 한표옥박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숙소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에 계시던 이 박사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데 황금연비서가 받았다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서울이 방금 공산군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황비서의 말을 듣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대사님, 38 선을 넘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한표옥 : 미 국무성과 유엔에서 38 선 돌파 이후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유엔대표단에게 지시를 내렸죠.

38 선을 넘지 않는 한반도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38 선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소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38 선 돌파결정을 비공개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초조했죠. 통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당연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로 생각됩니다. 무초 주한대사로부터 서울탈환 소식을 듣고 서울에 가는 것이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양입니다. 사슬에 묶였던 북한동포를 해방시켰다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대통령에게 국군이 38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이대통령은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38선을 돌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대통령은 대구 육군본부의 참모총장실에 나타나가지고 왜 복진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 대통령은 여기서 작전참모 강문봉, 헌병참모 최경록 등 참모들까지 모아놓고 매우 다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나의 통솔을 받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닌가? 38선은 이미 없어졌다. 장군들은 내 말을 들겠는가?』 이 대통령은 손수 작전명령을 즉석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장군에게 복진을 명령해서 정장군이 난처해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현희 : 그랬던 비화가 있었군요.

결국 38선은 10월 1일 우리 국군에 의해서 돌파되지 않았습니까?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결정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기념한 것으로 아는데요. 미정부도 10월 4일 정식으로 미군의 38선 돌파 명령을 내리고 10월 9일에는 미 1군단이 개성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 목표에서 통일 한국의 실현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이제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표욱 : 네. 사실 미국은 10월 7일 유엔에서 통과된 한국독립에 관한 결의안으로 명백히 선언이 되는 것이죠. 결의안은 한반도에 대한 유엔의 기본입장을 전 한국의 통일독립된 민주적 정부수립, 또 완전 평화상태의 확고한 수립등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27일, 25일도 들어가죠. 이틀간 이 안보리가 채택된 결의안보다도 더 나아가서 어느 면에서는 1947년 유엔총회를 통과한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때 임병직장관과 우리들은 대단히 만족했죠. 각국 대표들을 만나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군이 38선을 통과하고 통일의 모멘트가 될 결의안까지 통과되었죠.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인도가 선봉에 나섰습니다. 비록 남한이 지금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유엔이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남한의 주권이 자동적으로 북한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무렵 유엔이 북한을 점령한 통치문제를 놓고 군정을 실시하느냐 신탁통치를 하느냐 하는 대책이 거론돼서 38선 돌파후 2주일 정도 통일의 설레임 속에서도 매우 신경이 날카로와 가는 그러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인도가 반대한 방안대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북한에 연장 적용하느냐, 다른 통치기구를 잠정적으로 설치할 것이냐, 남북한의 새로운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국무성 안에서 논의된 것 아닙니까?

한표욱 :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지급전보를 받고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파악 하

기에는 이북 해방지역에 미군정 체제를 수립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대로 방지하겠으니까 유엔 대표부에서 적극 저지하라는 것이죠. 워싱턴에서 국무성을 상대로 활약중인 장면대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대통령이 유엔에 남북한 총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죠. 1948년 정부수립때 임명 해 놓은 이북5도 지역을 전쟁이 끝나면 임지에 보내 행정기구를 칠수하고 그후 북한만의 선거를 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을 미 국무성과 유엔 대표들을 상대로 열심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대통령은 이 구상을 전보에 담아 가지고 맥아더 장군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유엔이 통일된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는 절차에 있어서 북한만의 선거가 아니라 남한도 똑같이 선거를 한다는 방식에는 절대로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고귀한 피를 흘려서 공산주의자를 패배시킨 후에 다시 북한에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유엔의 의도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 정부는 전쟁이 종결하면 2년전에 임명한 2북5도지사들을 파견해서 민간 행정기구를 접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북한 민중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남한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자유와 특권이 북한 인민들에게 평등히 부여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아더장군은 이대통령에게 현재 워싱턴은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결말이 날때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행동도 신중히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심으로는 맥아더는 대한민국이 북한해방지역의 행정을 접수한다는 것을 사실상 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정은 1950년 10월 15일 맥아더가 트루만의 요청에 따라서 웨이

크 섬에서 회담한 내용이 1977년 2월 미 국무성에 의해 공개됨으로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맥아더의 한국옹호에 대해서 트루만도 그럴수는 없다, 우리는 이 정부를 계속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현희 : 미 국무성은 북한 점령후 통치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성의 극동국 정책기획관 에머슨이 작성한 기본 구상은 북한 점령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고 있죠. 유엔 한국위원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단계로 한국군을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유엔군으로 하여 유엔군 점령부대가 뒤에 도시를 장악해서 북한군 무장해제, 민간 구호, 공공기관 기능회복을 말도록 했던 것이죠. 제 2 단계는 유엔 한국위원단이 도착해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답사해 그후 재건에 관한 사항을 건의토록 하는 것이고 3 단계는 유엔 감시하에 북한 지역안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것 아닙니까?

이 단계에서는 특히 한국위원단의 동의를 통한 한국의 중립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도록 짜여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 점령후의 문제에 관한 한미 정부간의 이와같은 압력은 10월 하순 공산 중공군이 일어나 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한국전에 개입함으로써 통일의 희망과 함께 사실상 우리의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선생님!

한표욱 : 중공군이 개입했죠. 중공이 한국전에 개입한 것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한지 2주일 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대통령이 평양과 원산을 방문하고 국군은 나진까지 쳐들어 가서 통일의 꿈이 부풀었는데 우리는 또 다시 악화되는 전세에 매우 당황했죠. 맥아더장군

은 11월 3일 유엔 안보리에 10월 25일에 중공군 개입을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유엔의 분위기는 금방 달라져요. 유엔군이 3.8선을 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던 그런 때와는 상이한 것이죠. 3.8선 돌파시비가 일었을때만 해도 중공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려가 막연하게 제기됐지만 중공군 개입은 전쟁이 어떤 성격으로 바뀌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로 전환되어 가는것을 우리는 볼수가 있습니다.

여러나라의 대표들 태도가 멍칫해진것이 예견하게 나타납니다. 각국 대표들의 걱정은 한국전이 한반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점을 모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부터 맥아더 장군은 본국으로부터 복진은 하되 만주까지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압록강으로 진군하되 중공 접경에는 한국군을 배치하고 시베리아와 인접한 함경도도 미군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군과 소·중공 사이에는 완충지대를 유지해서 유엔군은 한반도 허리부분에만 주둔시키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완충지대 설치 는 중공군이 내려온 직후에 영국에 의해 제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50년 11월 1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U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한 런던발신 기사에서 영국은 미국과 중공이 한반도에서 정면충돌을 막기 위한 타협안으로서 한만 국경지대에 일정한 어떤 하나의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서 이를 중공군이 점령케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완충지대안이 나오면서 외무 장관에서 유엔 대사가된 임병직 대사는 반대를 했지요. 『그같은 구상은 한반도 영토의 혼토라도 한국인에게 귀속되고 또 현재 전쟁이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공산군의 섬

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의 활동은 각국 대표들에게 적극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매우 복잡해져 가는 것이죠. 통일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의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공이 참전했다고 우방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공개입은 북한 침략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대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은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이런 정신으로 중공을 격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공을 몰아내야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일부 국가 대표들은 현재 병력으로 중공을 격퇴할 수 있겠는가, 세계 대전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한에 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나라들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적극적인 태도를 부추릴까봐 걱정되거든요. 인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마를 포함한 아시아 몇개국과 이집트 중동 국가들까지도 끼어서 모두 13개 나라 이름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현희 : 우리나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3인 대표단을 구성하자는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란의 외무장관이었던 엔테잠 유엔총회 의장, 라우 인도대표, 캐나다 대표인 피어선 의상등 3명으로 위원단이 구성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대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표욱 : 네, 이들은 유엔 사령관과 중공군 측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한국전을 가라앉히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질의를 보냅니다. 휴전 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이지요. 우리 대표단은 각 대표를 상대로 휴전 구상에 대한 치열한 반대에 나섭니다. 휴전은 어불성설이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미국이 쉽사리 휴전 구상쪽으로 기울어 지지 않게하려는 그러한 생

작이었습니다. 미국측은 3인 대표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7개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전투를 즉각 중지한다.

둘째, 38 선을 기준으로 20 마일 폭의 비무장 지대를 설치한다.

셋째, 휴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네째, 유엔 한국위원단이 휴전을 감시한다.

다섯째,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포로를 1:1로 교환한다.

여섯째, 휴전 성립을 유엔 총회가 정식으로 인준한다. 이 조건으로 우리는 간단히 선거에 진 것이지요. 미국정부가 전쟁 중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주목을 할수 있습니다만 사실 전황은 계속 유엔군에 불리해 지거든요. 결국 51년 1월 4일 1.4 후퇴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과 서울 이북에 있는 월남 동포들이 얼어붙은 한강을 모두 그때 빠져갔습니까? 이교수도 그때 피난가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 네, 그때 중학교 1학년때 였습니다만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 찌그러진 구두에다가 녹슬은 기차색 자전거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로 추위를 무릅쓰고 언 한강을 넘어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표욱 : 네, 비극이 아니었습니까?

유엔의 분위기가 어찌나 나빴던지 유엔군 자체도 철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까지 나돌았습니다. 임병직 대사가 이끄는 유엔 대표단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3인 위원회 제의에 대해서 중공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관심이 있

었습니다. 3인 위원회는 미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중공에도 전쟁중지 조건을 문의합니다. 그러나 중공은 3인 위원회의 제의를 일축해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3인 위원회 자체를 규탄하고 말거 든요. 그러나 3인 대표위원회는 북경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휴전후에는 즉각 정치회담을 열어서 한반도 전체에 관한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공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냉담합니다. 그러면서 중공은 스스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중·소·미·영·프랑스·인도·이집트 등 7개 나라가 북경에서 회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공이 즉각 유엔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공의 이와같은 역 제의로 3인 위원회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1952년 3월로 접어들면서 전세는 다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새로 부임한 제임스 어워드 벤토리크 미 8군 사령관은 훌륭한 용맹한 장군인데요, 반격작전을 개시했죠.

3월 14일에는 서울을 재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중공은 3인위의 휴전 제의를 일축했고 미국은 반격으로 적극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전세는 호전되어서 우리는 큰 위안을 받고 고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교수는 그때 어떠했습니까?

이현희 : 그때 저는 1.4 후퇴때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바로 3월 달이 되는 이때에 지금 경기도 파주군 교화면 문발리 거기에 숨어 있었죠.

저는 중학교 1학년이지만 잡혀갈 우려도 있었고 또 그때 실지로 납치되어 가지고 기약없는 복행을 강요 당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저는 거기서 학교에 다니다가 다시 서울로 복학을 했습니다.

한표옥 : 네, 우리 모두의 비극이요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단은 이러한 상황의 오름세를 타서 각국 유엔 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납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공군을 격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거든요. 그 무렵에 미국안에는 상하원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 시키게 됩니다. 이때가 51년 1월 19일이었고 상원은 1월 23일 입니다.

미국은 이보다 앞서 그 전해 11월에 중공의 영토를 침범할 의도가 없으니까 중공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 했지만 중공은 말을 안 들었거든요.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필요하다면 원자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모든 신문은 이 경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뉴스지가 임병직 대사의 사진까지 곁들여서 기사를 게재했던 일이 지금도 저는 새롭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잇달아 표현되자 미국의 중요한 참전 맹방들도 불안한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영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등이 미국에 대해서 중공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밀어 붙이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충고의 의견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이 일단 휴전을 일축했어도 중공의 내심을 좀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51년 1월 유엔 정치회담에서 벌어진 토의에서 미국 정부는 중공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침략은 반드시 격퇴해야 된다, 침략은 절대로 보상 받아서는 안된다는것 또한 미국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미국측은 이 회담에서 50년 10월 7일 총회에서 통과된 통일 독립된 민주 한국의 성립에 관한 결의안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중공측에 대해 휴전의사를 재타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현재까지의 중공의 태도는 유엔을 완전히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공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유엔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대표단은 미국의 이와같은 발언에 무척 고무됩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50년 11월 유엔의 한국 문제의 토의 중에 중공측 견해를 기대한다고 제의해 가지고 오속권을 수석으로 한 4명의 중공특사가 안보리에 나타났는데 신경이 날카로워진 임대사는 발언을 통해서 이들에게 비난을 퍼 부었죠. 이러한 기억도 지금 생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희 : 그리고 미·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트루만 미 대통령의 원폭사용 발언이 나오면서 영국은 경악했죠. 사실은 포츠담 회담에 참석 했던 애틀리 영국 수상이 50년 12월 4일 워싱턴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2차대전직후 미국과 영국은 비밀 협정을 맺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할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영국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트루만과 애틀리는 워싱턴에서 6차례나 회담을 가지지요. 워싱턴의 우리의 대사관은 트루만과 이들의 회담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애틀리는 중공이 한국전에 개입함으로써 확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니 전쟁을 적절한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 했다는 데요, 한대사님 어떻습니까?

한표욱 :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자문을 받은 트루만 대통령의 응수는 매우 고무적이었는데요, 중공이 개입했다고 해서 북한이 남침했을때와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일 유럽의 압력으로 영국이 이 전쟁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면 한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미국 국민도 이런 행동을 중공에 대한 유화 자세로 옹호를 해서 반발심이 심해질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침략은 보상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우리는 양보 할 수 없다, 유엔의 권위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전쟁은 유엔

깃발아래 수행되는 전쟁이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담이 6차례나 계속된 것은 당시 국제적 지위가 높았던 영국의 입장을 일축해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트루만과 애틀리는 회담을 끝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지요. 『미·영국 국민은 최근 수년동안 명백해진 도전에 관해서 결의와 단결로써 함께 대처할 것이다. 유엔군은 이런 권위와 권고에 입각하여 한국에 파견됐다. 유엔은 유엔군이 위임한 임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영국은 이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 할 것이다. 우리는 강경하게 다른 지역에서나 침략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침략은 보상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틀리수상이 영국으로 떠나고 트루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요. 애치슨 국무장관의 긴급동의가 나옵니다. 한국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소개를 한 것이지요. 애치슨 장관은 미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미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미 정부 입장을 조속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성과 국방성 사이에 그동안 휴전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간 경위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지 2개월도 못 되어서 미국은 참전 우방의 압력으로, 한국 국내의 우려통으로 인해서 휴전을 논의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현희 :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많이 개입되어 있군요. 50년 12월 11일 트루만 대통령이 주재를 해서 열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국전쟁 처리방법으로 휴전을 고려한다는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와같은 경우는 공개되지 않았습시다만 회담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한표욱 : 요점은 바로 3 가지 입니다. 첫째, 한국 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휴전회담을 고려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엔군이 군사적으로 곤경에 빠지거나 정치적으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휴전 성립에 앞서 유엔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전 세부사항에 관한 협상을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 합참본부는 휴전 수락이 가능할만한 군사적 조건을 긴급과제로 세밀히 검토한다는 것이죠. 이와같은 결론이 나온뒤 애치슨 국무장관은 주 유엔 미 대표부에 트루만 · 애치슨 회담에서 설정된 노선을 따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국전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희 : 그러면서 한국정부도 미국이 전쟁을 휴전으로 물고 나가고 있는 어떤 느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장대사에게 미국정부의 저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장대사는 국무성을 네 차례나 방문하고 백악관에도 찾아가는데요, 맨 처음 장대사는 국무성의 러스크 극동담당 차관보를 찾아갑니다.

12월 4 일인데도 장대사는 한국민은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재 천명 이행해 왔다고 서두를 꺼내는데요, 그 전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표욱 : 휴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우리에게선 전선으로 나가기를 열망하는 50 만명의 반공청소년들이 있다, 지금 필요한것은 이들 50 만명의 무장이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대사는 미국의 대 중공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공에게 유화 정책으로 대하는 것을 반대 한다는 것이지요. 장대사는 머컷트 부차관보를 만납니다. 데이빗 영국 외상이

미국·중공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완충지대를 설치 하자는 제의를 했다는 외신 보도를 거론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영토안에 완충지대가 설정되는데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공산침략을 끝까지 격퇴하는 결의를 끝까지 굳혀주면 좋겠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머컷트 부차관보는 이같은 장대사의 호소에 대해서 한국민의 결의와 용기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위로하고 그러나 지금와서 중공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유엔에 제출한 결의안에 많은 회원국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엔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임병직 유엔대사와 저는 유엔에서의 휴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통령에게 대 중공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했죠. 이대통령은 이를 받아서 워싱턴의 장대사에게 미정부에 대한 교섭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현희 : 한국정부가 미국측의 휴전점토, 철군 등을 우려해서 국무성을 상대로 대 중공 결전을 촉구하고 있을 때 바로 미·영 등 서방 언론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보도를 했다고요?

한표욱 : 네, 미국 정부는 언론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흐리는 기사를 계속하는데 대해서 큰 걱정을 했지요. 문제의 보도들 가운데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사살했다는 그런것도 있었죠. 미국정부는 한국이 전세도 좋지않아서 난관을 겪는데 이런 기사들까지 자꾸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실천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것입니다. 사실 애치슨 국무장관은 50년 12월 6일 각 재외공관에 공한을 보내는데, 한국군 행동에 대한 좋지않은 얘기는 조작한 것이 다분히 있다고 설명합니다. 애치슨 장관은 무효 주한대사를 통해서 파악한 진상을 열거하면서 일반적으로

로 한국 관리들은 부역자들에 대해 이성적이고 절제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만여명의 체포된 사람들도 부역 때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해 12월 6일로 기억됩니다. 인도, 이집트 등 아시아, 아랍 13개나라가 주동이 되어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유엔군은 다시는 38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러스크 국무성 극동 차관보는 장면대사에게 한국 정부는 가급적으로 이 성명에 왈가왈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또 장대사가 끈질기게 요구해 오고있는 50만명 무장지원에 대해 러스크는 정책문제라기 보다도 능력여부가 문제다, 미국은 유엔군에 군수물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겹겹이 되어있는 상황속에서 그 당시 장면대사의 애국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장면대사는 이때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있었잖아요. 장대사는 고별인사차 백악관에 들어갔죠. 재임기간동안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한다고 의례적인 인사를 꺼낸 장대사는 50만명 무장지원 문제를 트루만 대통령에게 꺼내게 되는데요, 그 전후 사정은 어떻습니까?

한표욱 : 장대사는 트루만에게는 50만명을 1백만명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백만명의 청년이 훈련을 받으며 무기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살 국무장관하고 브레들리 합참의장을 만나는데 좋겠다는 말을 하고서 자리를 회피합니다. 12월 11일이라 생각되는데 장대사는 국무성을 다시 방문을하죠. 그때 유엔총회에서는 38선의 재확정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얘기했지요. 또 압록강 이남에 완충지대를 설정

하는 것도 반대하죠. 51년 1.4 후퇴하던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개시합니다. 전황이 호전되지요. 유엔군은 점차 중공군의 남하를 막는데 성공합니다. 1월 26일에는 수원을 수복하지요. 2월 9일에는 한강을 건너고 3월 14일에는 마침내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고무됐지요. 휴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휴전에 대해 중공의 대표는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미국은 강은 두가지 모습을 함께 드러냅니다. 1월 17일 애치슨 장관은 중공이 계속해서 유엔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미국은 침략적인 중공군을 규탄해야 된다고 강경하게 얘기하면서도 휴전협상 태세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게 아니겠습니까?

이현희 : 그러면서 미국정부가 휴전검토를 시작하고 있을때 미국민의 여론은 중공에 대해서 험악했지요. 또 매우 냉담했지 않습니까? 중공이 유엔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와 전쟁중지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데 대해 분개한 것인데 51년 1월 19일 미하원은 중공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고 상원도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한표욱 : 네, 그랬었죠. 여기에 맞춰서 유엔에서도 중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영·호주 등이 중공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나와서 미국은 다소 난관에 봉착하지만 오스틴 미 유엔대사는 미국내의 여론대로 밀고나갑니다. 그는 결의안 제안과 관련한 연설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 유엔이 중공의 태도를 타진해 본다는 것은 유엔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반발도 했지요. 오스틴 대사에 이어서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공이 한반도에서 침략을 도모하고 있는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다. 유엔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규탄하면서도 중공에 대해서는 규탄을 주저하는 것은 모순이다. 휴전 협의상의 타당성 여부 등에 쓸데없이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런 연설때문에 중서부에 갔다온 임병직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한반도에 휴전이 있게되면 한국민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중공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은채 휴전이 되면 나중에 다시 쳐내려오고 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미국은 점점 어려운 입장에 빠집니다. 유엔에서 우방들은 협상 주장들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고 국내에선 대 중공 강경론이 수그러 들지않았던 것이거든요. 급기야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옵니다. 미국은 달갑지 않지만 결국 수정안을 응낙합니다. 유엔은 2월 1일 테바논 대사가 제출한 추가 조치 위원회의 제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공 규탄 부분은 살아있어요. 전쟁의 교착상태와 지리한 유엔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1주년이 가까운 6월 23일 소련 부의상겸 유엔 대표인 야콥 말리크가 평화의 냇가라는 15분간의 유엔 라디오 프로를 통해서 휴전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비칩니다.

대공 강경론자인 맥아더가 그해 4월 10일 해임되고 매듀 리치웨이 중장이 대신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된지 두달쯤 지난후에 제안이 나오는데 대해서 워싱턴의 대공유화론자를 비롯해 미 유엔 사무총장, 영국, 인도 등 휴전론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우린 불리한 것이죠.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커크 주사 미국대사에게 소련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커크 대사는 만일 그의 연설이 소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을 그로미코 외상 대리를 통해 확인했다고 국무성에 보고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현희 : 그때에 임대사하고 한대사는 말리크의 연설에 아연실색했죠. 중공이 전쟁을 고집하는 한 미국은 전투를 계속해야 될것이란 관측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대사님!

한표욱 : 중공측은 휴전에 관해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죠. 커크대사의 본국에 대한 보고에 미 국무성은 즉각 참전 15개국 대사의 모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휴전에 응할 방침을 우방들과 함께 확정했죠. 그리고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워싱턴의 지시에 순응하던 리치웨이 장군에게 훈령을 내립니다. 국무성은 아울러 무초 주한 대사에게도 똑같은 결정을 알리고 이대통령에게도 알리게 하였습니다. 말리크 소련 부외상겸 유엔대표가 휴전을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은 51년 6월 13일 입니다만 미·소가 휴전에 관한 상호의견을 타진한 것은 3주일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소련문제 전문가이고 민주당 외교의 기둥이었고 당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있던 조지 캐논이 애치슨 국무장관의 요청을 받아 말리크와 접촉, 휴전에 관한 양측 견해를 주고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해 5월 31일 뉴욕의 롱 아일랜드 소련대사의 별장을 찾아가 캐논으로부터 휴전용의에 관한 질문을 받은 말리크는 신중한 검토를 약속합니다. 이 두사람은 6월 5일 다시 만납니다. 말리크는 가능한 한 한국에 빨리 평화를 되찾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휴전원칙을 밝히면서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므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중공이나 북한에 접근해 보라는 자기의 개인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후 대소 협상의 산물인 이 휴전방침을 리치웨이 유엔군 사령관과 무초대사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통보합니다.

이현희 : 그러면 그당시 이대통령은 무척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하죠. 이대통령은 휴전문제에 관

하여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한 것은 패배를 자인한 것이다, 무력으로 성취할 수 없던 것을 이제 와서 양면의교를 통해 이루어 보려는 흥계임이 틀림없다, 그런 소련의 제의는 평화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표욱 : 네 ! 그렇죠. 이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일은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다. 휴전 회담이 있을때 우리의 입장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이대통령은 이러한 성명을 워싱턴 대사관과 유엔대표부에서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우리가 종전에 휴전반대 입장을 바꾸어 휴전협상에 가담할 그런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휴전협상 결정에 낙담한 한국측으로서는 불과 2개월전에 해임된 맥아더 장군의 대공강경 자세를 매우 아쉬워 한 것입니다. 맥아더장군이 해임된것은 51년 4월 11일 아닙니까? 그날밤 갑자기 백악관 대변인이 트루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공표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회견장에 나갔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나타나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내 판단으로 맥아더장군이 미 정부의 일단 수립된 정책에 대해 전적인 지지도가 없다.』 그 해임 발표시간을 자정으로 정한것은 미국보다 13시간 빠른 동경의 석간신문에 나가는 시간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맥아더장군이 불시에 해임되었어도 그 인기는 대단합니다. 맥아더가 귀국해 뉴욕에서 퍼레이드가 벌어졌을때 7백만명의 인파가 그를 환영했다는 걸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때까지 2차대전의 영웅 아이젠 하워 장군이 1944년 유엔 연합군 총 사령관으로 개입할때 환영인파가 350만명 밖에 안됐거든요. 맥아더는 바로 상하원의 초청을 받아서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시민 자격으로 의회에서 연설한 것도 전례가 없습니다. 맥아더는 몇군데 환영식에 참석하던 4월부터 그 해임과 관련하여 미 상

원 의교국방위원회, 합동 청문회에 2개월간 출석 증언합니다. 청문회에는 맥아더외에 브래들리 합참의장, 칼피스 육군 참모총장, 서먼 해군 참모총장, 벤덴버그 공군 참모총장이 나왔고 행정부에서는 애치슨 장관도 출석을 했습니다.

청문회는 한마디로 트루만 대 맥아더의 싸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청문회를 대 논쟁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현희 : 네, 잘 알았습니다.

이대통령의 남북통일 노선은 맥아더장군이 주장하는 노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미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맥아더 해임과 관련하여 미 상하원 합동 청문회에서 개진되는 맥아더장군과 공화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는 당시 한국대사관은 매우 흡족하여 마지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군을 무장시키지 않았느냐, 38 선은 누가 만들었냐, 북한이 남침한 것은 결국 미국의 대중공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등등의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대변해 준 것이 아닙니까?

맥아더가 해임된 결정적인 이유도 결국은 맥아더가 공화당쪽 사람들과 공통의견을 교환해오면서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한대사님, 어떻습니까?

한표욱 : 51년 4월 5일 맥아더가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였던 조 마틴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던게 화근이 됐죠. 맥아더는 『한국전쟁이야말로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최초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끝장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나를 구속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 편지에서 이렇게 솔직한 의견을 냈거든요. 이 편지를 마틴 의원이 공

개해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트루만 대통령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해임된 맥아더는 몇개월 동안 영웅대접을 받았지만 그를 내쫓은 트루만은 인기가 내려잡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52년 미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에 승산이 적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인텔리에게 인기있었던 에들레이 스티븐슨 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는 미스터 공화당이란 애칭으로 불리던 테프트 의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공 강경론자였던 테프트가 후보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어 맥아더의 대한정책을 받아 들였다면 한반도는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로는 2차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지명이 되고,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이젠하워란 인물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선거 유세중 아이젠하워는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해서 인기를 모으는데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미 8군 사령관 밴프리트가, 그것도 군사적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거 결과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공화당은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정확하게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선거에 잘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의 인천상륙작후 유엔에서 38선 돌파 논쟁이 발생했을때 당시 나토 사령관이던 아이젠하워는 전쟁에서는 승리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면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군사적 승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적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을 명예롭게 해결하겠다고 말한 그가 당선된 후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태도는 5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한국을 방문했을때 이미 역력히 나타나게 되는것을 우리는 잘 목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애

기가 되겠습니다.

이현희 :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의 한국방문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변을 고려해서 철저히 보안에 가려져 있었죠. 미국의 언론도 아이젠하워의 방한과 관련한 보도를 그가 한국에 도착한 뒤 3일 후에야 발표했을 정도로 보도 관제에 적극 협조했다고 보는데, 아이크의 방한은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워싱턴에 있는 한 대사님을 비롯한 외교관들은 잘 알수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에 제실때의 한대사님은...

한표욱 : 아이젠하워가 52년 12월 2일 수원 비행장에 내렸을 때에 환영나온 한국 정부인사는 아무도 없었죠. 하와이 미드웨이 웨이크섬, 유타도 등을 거쳐서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아이크는 미 8군 사령부에서 나온 대령 1명만의 영접을 받거든요.

이렇게 은밀하게 한국땅에 내린 아이크는 수행한 브래들리 합참의장, 국방장관 내정자였던 찰스 윌슨등과 함께 승용차편으로 미 8군으로 직행하죠. 동경에서 역시 비밀리에 와있던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밴플리트 8군 사령관과 함께 간단한 환영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죠. 이대통령은 11월 21일 클라크 장군으로부터 귀뜸을 받아가지고 아이크의 방한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통령은 아이크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클라크 장군은 이대통령에게 환영행사 등으로 입장을 난처하지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죠. 아이크의 도착 일시와 장소를 이대통령에게 조차 비밀에 부칩니다.

클라크 장군의 회고에 따르면 서울 동숭동 서울대 문리대 자리에 미 8군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크는 존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의 외아들 존 소령이 한국전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라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계획과 한

국군 증강문제를 거론하였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휴전가능성만 관심을 나타내게 된것입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아이크는 클라크와 밴플릿으로부터 전황을 브리핑을 받은후 3사단 작전국 차장으로 복무하던 존소령을 만나 부자 재회의 기쁨을 나누일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이대통령은 전선 시찰후 4시쯤 돌아온 아이크를 미 8군으로 찾아가죠.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 수행합니다. 이대통령과 아이크는 간단하고도 의례적인 인사를 나눕니다. 이대통령이 환영행사를 마련하겠으니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거절하고 맙니다. 이튿날 아이크는 경비행기 편으로 영연방 사단 805 야전사령관, 미 2,3사단을 시찰합니다. 이대통령은 15사단에 미리 가서 아이크를 영접하고 정해창 사단장으로 부터 함께 브리핑을 들죠. 그리고 이들은 각각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날 아이크는 떠나게 되어 있었죠. 이대통령은 약소국의 처량한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아이크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귀하가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본인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에 불러들여서 직접 성명을 발표하겠다. 본인 성명서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크 장군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한국 원수에 대한 고별인사의 예의도 갖지 않고 떠난다는 사실을 자세히 공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대통령의 불쾌한 표시에 대해서 두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귀국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향해 도착할 무렵 이대통령의 전갈을 받고 아이크는 아연실색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포로가던 아이크는 차를 돌려 경무대로 들어가 이대통령이 하는 말을 거의 말없이 듣고 나왔다는 겁니다. 클라크 장군 회고록에는 『나는 아이크가 많은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하오 늦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크가 방문할지의 여부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이대통령에게 말

했다. 하오 늦게 다시 이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찾아가 볼수 있느냐고 물었다. 좋다는 말을 듣고 나는 중앙청 뒤에 있는 그의 관저로 달려갔다. 평상시처럼 나는 그의 거실로 달려갔다. 그러나 예전과는 뭔가 달라보였다.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그방이 텅 빈것 같았다. 이박사가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아이크의 편지를 전했다. 그의 표정에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봉투도 뜯기전에, 그러니까 아이크가 그를 방문하지 못한다는 뜻을 담은것을 안것 같았다. 대체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크는 72시간 30분동안 한국에 머물고 이대통령을 위해서 두번 간단히 경무대에서 만나고 밤8시에 돌아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카터 대통령도 무례했던걸 알수 있는데 말씀입니다.

이현희 : 휴전회담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51년6월23일 말리크 소련대표의 한국전 휴전 필요성 제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데요. 대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표욱 : 네! 일주일이 되는 6월30일경입니다. 트루만대통령은 리치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휴전교섭을 벌이도록 훈령하거든요. 3가지 조건이 포함됩니다.

첫째, 38선 북방에 20마일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둘째 38선 북방에서 식량·의료품을 제외한 모든 수송대 이동을 허락하지 않을것, 셋째 휴전조건을 관리하는 권한은 유엔 한국위원단에 부여할것 이런것이었습니다. 리치웨이는 이 훈령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 방송을 통해가지고 북한 인민군 총 사령관에 대해서 휴전회담 대표를 임명할것을 요구하는 한편 쌍방대표가 원산항에 정박중이던 네덜란드 병원선 유틀랜디아호에서 회담할것을 제의합니다. 39시간 만

에 북경 방송이, 그후 2시간만에 평양방송이 수락하고 나섭니다. 평양방송은 회담장소를 대사관으로 바꾸고 회담일시는 7월 10일 부터 15일 사이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7월 3일 유엔군 측은 10일 이전이라도 좋다고 서두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휴전 협상 예비 회담이 51년 7월 8일 개성에서 열리거든요. 미국의 조이 킹이 공군 대령, 제시 에어리 해병대령, 그리고 이수영 중령이 유엔군측 대표로 참석하고 공산군측은 북괴군 대좌 2명, 중공군 대좌 1명이 참석합니다. 예비회담은 정식회담을 7월 10일 열기로 합의합니다. 휴전 회담의 개시로 지금까지 수 많은 인민과 재산피해를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해온 우리 국민들은 허탈속에 빠져들어 갑니다. 7월 10일 상오 11시 본래 요청으로 쓰였던 개성 고려동의 내봉장이란데서 개시가 됩니다. 휴전 예비회담이죠. 수석대표 미 해군 극동사령관 G.I 조이 중장, 8군 참모부장 H.I 호치스 육군소장, 극동 공군 부사령관 L.C 클레이치 공군소장, 극동해군 참모부장 A.A 버거 해군소장, 한국 제 1군단장 백선엽 소장이 유엔군측 대표단입니다.

공산군측 대표단은 북한 부수상겸 참모총장인 남일대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정찰국장 이상조 소장, 북괴 1군단 참모장 장평산 소장, 중공 제 4야전군 15 집단군 사령관 등화, 중공군 동북 관구 선전부장 사방등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조이 제독이 먼저 개회사를 했죠. 회담에서는 군사문제만을 다루고 한국문제만을 논의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군측 수석대표인 남일은 휴전은 유엔군측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는 투의 선전을 늘어놓고 쌍방군대가 38선으로부터 철수하고 적대행위중지, 비무장지대 설치, 포로교환, 모든 외국군대는 한국에서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회담내용이 끝난 뒤에도 보도진에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점을 문제삼아서 서울 주재 외신 기

190 휴전협상과 제네바 정치회담

자들이 그날밤 회의를 열고 기자단의 회의 참석을 리치웨이 유엔군 총 사령관에게 요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리치웨이장군은 조이제독에게 2번째 회담부터는 기자들 20명을 입회시킬것을 제의토록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7월 11일 20명의 기자들을 태운 트럭이 개성으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공산군에 의해서 거부당합니다.

유엔군 대표단은 11일 상오 회의를 끝낸후 기자 출입이 관철되지 않으면 3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합니다.

7월 16일 제 3차 회담때부터는 기자 취재가 허용이되죠. 이대통령은 이형근 소장을 한국측 대표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진 개성회담은 휴전협정을 다룰 협의사항을 놓고 17일간 난항을 거듭해서 7월 26일 양측이 타결한 휴전 회담의 협의사항의 합의서가 나옵니다. 모두 4개죠. 첫째 의제 채택, 둘째 비무장지대 설정을 위한 군사경계선 결정, 셋째 휴전을 위한 제 조치, 넷째 포로교환을 위한 제반 조치. 그게 하나 더 있었군요. 다섯째 쌍방 관계 각국 정보에 대한 권고 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회담은 시작되었으면서도 될수 있으면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어 회담의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전투는 더욱 가열해지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현희 : 휴전 협상이 본 궤도에 올라서 군사분계선 문제가 일제히 올랐을때 공산측이 38선으로 측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유엔군이 안된다고 반대를 해서 당시의 전선을 중심으로 하기로 힘들이지 않고 결말이 났다는데요. 어떻습니까?

한표욱 : 휴전협정 실시와 관련해서 공산측은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를 동수로 선정해서 휴전 감시 위원단을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제의하지만 유엔군측은 반대하고 맙니다.

감시 위원단안에 이견이 나타날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것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후 휴전 감시위원단은 중립국으로 구성하기로 낙착됩니다. 이 합의 후에 유엔군측은 위원단으로 스위스와 스웨덴을 제시 했지만 공산측은 부득 6 나라로 정해서 소련, 체코,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소련의 참여를 꺼린 유엔군측은 4개국안을 끝까지 고집해서 51년 12월말 이를 관철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 짓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51년 12월초까지 5개 협의사항중 4개항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포로교환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월 28일 포로명부를 교환하기에 이르렀죠. 명단교환을 계기로 포로교환 문제는 심각한 논쟁과 공전속에 빠져들어 갑니다. 포로 명부를 받은 유엔군측은 그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격분합니다. 공산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한국군 6,412명, 미군 3,198명, 유엔군 1,215명을 합해 10,825명 뿐이거든요. 반면에 유엔군측이 제시한 공산군 포로는 모두 132,472명입니다. 공산측이 내놓은 포로의 수는 그들 스스로가 방송 등을 통해 자랑삼아 발표한 숫자의 5분의 1 밖에 안돼요.

이현희 : 유엔군측은 사실 이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공산측은 회담을 통해서 많은 미군은 너무 약해서 병들어 죽거나 유엔군의 무참한 폭격에 죽었고, 한국군 포로 일부는 희망에 따라 해방전에 투입됐고 일부는 석방됐고 일부는 죽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데요, 포로교환 문제는 아무리 협상을 계속해도 합의에 이르는 커녕 논쟁만을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한표욱 : 공산측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교환 수가 예상보다 적지만 유엔군측은 이들만이라도 구해내기로 작정하죠. 어차피 살아있는 사

람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도적인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공산측은 포로교환 송환문제에 관해서 무조건 석방 귀국시켜야 한다는 강제 송환을 주장합니다. 1949년 채택된 전쟁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 7조와 118조는 교섭 포로는 석방되어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세우게 되죠.

유엔측은 석방 귀가시키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포로 석방은 포로가 나라의 이익을 위하는 것 보다는 포로의 보호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워싱턴의 유엔협상이 시작된 51년 7월부터 참전국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휴전 협상의 전진과 결과가 이 회의에 보고됩니다.

1년간 논란끝에 유엔군측은 52년 9월 18일 공산측에 대해서 3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만 택하라는 것이거든요. 첫째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를 비무장지대에 석방해서 자기가 가고싶은대로 가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 그들을 중립국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하자, 셋째 포로를 교환하기 직전 명부를 대조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물어서 마음대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공산측은 이 3가지 방안을 모두 거부하고 맙니다. 예상 했던 대로죠.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은 정전 회담 무기연기를 선언하고 나가버리면서 회담은 결렬됩니다. 판문점에서 포로협상회담이 담보상태에 빠지면서 52년 10월 열린 유엔총회도 이 문제를 토의합니다. 미국측은 휴전협상에서 밝혀온 입장을 되풀이 합니다. 포로 석방에는 강제송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 동조하는 20개국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안은 휴전회담 전진을 취하고 공산측은 더이상 유엔을 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해 줄 것

을 요구합니다.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것이죠. 소련도 여기에 맞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즉각 휴전, 정치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모든 포로석방 이런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한동안 포로교환 타협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다섯가지죠. 첫째, 포로석방과 교환을 제네바협정을 준수해서 처리한다는 거고, 둘째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법 원칙을 준수할 것이고, 셋째 강제 송환이나 강제 억류는 안된다고 하는거고, 넷째 포로는 중립국 위원단에 넘기고 포로석방과 송환은 이 위원단의 합의에 의한다는 것이고, 다섯째 마지막 입니다마는 본국 송환을 원치않는 포로들에 대해서는 양측 대표가 90일 동안 면회하고 끝내 송환을 원치않는 포로는 정치회담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란 겁니다. 이 인도안에 반대하는 미국은 다수 의견을 고려해 지지 쪽으로 선회합니다. 소련과 그 동조국은 오히려 그들 의견에 상당히 접근한 인도안을 반대하죠. 결국 인도안은 52년 12월 3일 55:5로 채택됩니다. 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가 53년 새정부를 조직해서 트루만 행정부를 해체하고 소련도 그해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휴전이 성립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공산측이 상병포로는 가급적 빨리 상호 석방하자고 제의합니다. 그리고 53년 3월 23일 휴전회담에서 상병포로 교환안이 합의돼 가지고 4월 11일 조인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이들 포로교환이 계속되서 유엔군측이 686 명을, 공산측이 6,007 명을 각각 인수해 갑니다. 그러나 휴전을 반대한 한국은 더욱 격렬하게 휴전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휴전반대 데모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현희 : 저희들은 거의 매일 시내 변화가에 나가 가지고 휴전 결사 반대를 했죠. 『우리는 제2의 월남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때의 외신기자들이 우리입에다 대고 녹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거기다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러더군요. 그래서 『휴전 결사반대! 무기를 달라! 우리는 북진통일을 한다! 우리의 통일은 우리가 한다!』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표욱 : 이대통령은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서 이제 휴전은 선택할수 없는 정세라고 판단했습니다. 53년 4월 13일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사이에 상병 포로교환이 합의되고 이에따른 상병포로 교환이 4월 27일에 끝나면서 휴전회담이 다시금 열립니다. 공산측에서는 일반 포로교환을 위한 여러가지 사항을 제의해 오거든요. 송환을 요구하는 모든 포로는 휴전후 2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 1개월후 중립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포로는 그곳에 보내진 그러한 후 6개월 동안 본국의 파견원이 현지에서 그들을 설득시키도록 할것, 또 중립국으로부터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즉시 석방할것, 6개월 후에도 중립국에 남아있게되는 포로들의 문제는 휴전후 정치회담을 통해서 해결할것 등.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모두 4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병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 정부하고 주미 대사관은 아주 아찔한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막연히 중공측에서 정전을 반드시 바라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휴전협상 재개 기미가 짙어지면서 주미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유엔대표를 상대로 집중 설득 작업을 나섭니다. 이대통령이 그때 그들에게 지시한 그런 사항은 이런 것이죠.

중공측을 한국에서 철수하도록 할것, 포로들의 자발적 송환이 보장될수 있는한 공정한 방법으로 확립할 것, 이게 두번째이고, 세번째 영국과 유엔은 공산국의 재침때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 지원

을 한다는 것을 확약할것, 네째 휴전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재정 및 경제 원조를 계속할것, 다섯번째 한국을 분단 상태로 남겨두는 협정은 어떠한 것이라도 법적 효과를 가질수 없다, 이런겁니다. 이때쯤에는 우리 대사관의 신경이 백만명의 중공군이 그대로 남은채 휴전이되면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안보 문제로 쏠렸거든요. 이때쯤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등에게 서한을 띄워서 방위협정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대통령은 약소국 입장에서 바로 미국에 순응해서 휴전협정에 협조를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살을 재촉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대통령의 이같은 상황 판단아래 우리들에게 포커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리한 여건조성을 미국에 대해서 촉구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휴전협정에 임하고 있던 유엔군 대표단은 아이젠하워의 지시를 구체화해서 휴전회담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측에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비밀에 붙여지죠. 이런 제안은 53년 5월 25일 유엔군 소속 대표인 해리슨 장군에 의해서 공산측에 제시됩니다. 첫째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약 47,000 명의 포로를 인도, 체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로 구성된 5개국 중립국 위원단의 관리하에 두고 인도군이 감시 임무를 맡는다는 것이구요.

둘째,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 대해서는 약 190명의 공산측 대표가 포로수용소를 방문해가지고 4개월동안 본국 송환을 설득하고 설득에 불응하는 포로문제는 휴전후에 정치회담에서 취급한다는 겁니다.

세째, 정치회담에서도 문제의 타결이 불가능할 경우 정치적 망명처를 요구하는 포로들에게 유엔이 자유세계의 거처를 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으로 유엔 대표단에 있는 최덕신 소장은 이것을 공신측에 제시하는 당일 아침에 알게됩니다. 이대통령도 같은 시각에 경무대를 방문한 클라크 장군과 브리크스 대사로부터 이를 통보받습니다. 이것은 독립과 주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한국은 포로 석방을 한다는 조항도 빠짐으로써 공신측 요구에 그대로 양보하는 것이고 자유송환 원칙을 고수해온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현희 : 판문점에서 유엔측이 포로교환 문제에 관한 양보를 제시해서 휴전협정과 조인만 남은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휴전 반대 데모가 격화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참석했습니 다마는 상이군인들의 데모가 미국 신문에 보도돼 이 보도에 접한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는데요. 53년 5월 29일로 생각합니다.

변영태 : 외무부장관은 5개국 중립국 위원단이 한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 한국군을 유엔군 산하에서 탈퇴시키겠다, 이렇게 좀 위협적인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병력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5개국 군대와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표욱 :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에는 백두진 국무총리가 방미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양유찬 대사가 백총리를 수행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백총리도 회고록에서 얘기를 했습니 다마는 6월초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 참석후 귀국하는 길에 이대통령의 출국 정지 지시에 따라 워싱턴에 들러 아이젠하워에게 휴전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하고 있습니다. 백총리는 아이젠하워에게 의례적 인사를 건넨 후 말문을 엽니다. 한국에서 전쟁을 계속해 달라, 중공을 격퇴하여야 한다, 인천 상륙후에는 군사적 승리를 통해 통일시켜야 한다던

미국이 왜 지금 태도를 바꾸고 있느냐, 미국이 하지않겠다고 해서 한국은 방관할 수 없다, 한국 혼자서라도 통일과업을 성취하겠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분명코 민족통일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젠하워는 어이가 없다는 등 그리고는 미국이 도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느긋하게 배를 내밀었다고 볼 수있죠. 백총리는 우리는 모두 죽고 말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백만명의 중공군이 주둔한채 휴전협정이 체결돼 가지고 결국은 죽을바에야 결국은 싸워서 죽겠다고 말한것이죠. 양대사와 함께 대사관에 돌아온 백총리는 대화내용을 나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통령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했거든요. 이 일이 있는 며칠후 백총리와 저는 케네디 영 국무성 극동국장의 만찬초청을 받아서 부부동반으로 그집을 방문했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 국장이 받더니 저에게 전화라고 하며 건네줘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국인 기자거든요. 당신네 나라에서 이 북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포로를 석방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는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전화를 아마 전것은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하는 것인데 코멘트를 줄이고,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적당히 전화를 끊고 백총리에게 컷속말로 소식을 알렸어요. 커피정도는 마시고 만찬자리를 뜨는것이 예의에 맞는 일이라서 잠시 앉아 차를 마신후 황급히 영 국장집을 나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953년 6월 18일 새벽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한국 정부는 27,000 명의 반공포로를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영천, 논산, 부평등에 있던 포로수용소에서 이날 자정부터 새벽사이 석방시켜 버렸거든요. 포로석방이 단행되는 순간까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헌병 총 사령관 원영덕 중장, 송순효 헌병 부

사령관등 고급장교 몇명밖에 없었어요. 포로수용소를 감시하던 한국군 헌병들은 헌병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포로 탈출을 적극 도왔습니다. 6천명은 탈출하지 못했죠. 일반 국민들은 석방된 반공 포로들에게 은신처와 음식등을 제공하고 따듯이 대했습니다.

이대통령의 특별담화도 있었죠. 이대통령은 그날로 반공포로 석방은 정당한 조치이고 석방은 그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제네바협정과 인권정신에 의해서 한인 포로는 벌써 석방시켜야 할텐데 유엔 당국과의 포로를 석방하는것이 옳은것으로 이 설명을 들은 분들은 동정상으로나 어조상으로나 동감을 갖는것으로 나는 믿는바이다. 지금와서는 유엔이 공산측과 협의한 조건이 국제적 관계를 더욱 복잡히해서 필경 우리 원수에게 바로 민족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오해를 주는 현상을 일으킬 염려가 있게되었다. 그러므로 이 협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반공포로를 오늘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현희 : 그때에 아주 배짱이 좋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자고 요구했지만 미국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미국에게 경고한 것이지요.

워싱턴의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델레스 국무장관은 잠자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깨워서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나중에 안 일입니다마는 델레스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전면전이 될것같다, 전쟁이 확대되면 원자무기를 사용할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한표욱 : 반공포로 석방은 6월 16일 오후 2시 델레스가 워싱턴을 방문중인 백두진 국무총리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거든요. 백총리는 양유찬 주미대사와 함께 국무성에 들어갑니다. 델레스는 좀 화가난듯

해요. 한국을 비난하는 공개성명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각서를 두사람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델레스는 한국조치에 대한 미국의 여론과 유럽쪽의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델레스는 이대통령의 처사를 등뒤에서 칼을 찌르는 격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거죠. 백총리와 양대사는 반공포로를 석방하지 않으면 공산측이 협정속에 있는 구멍을 기술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포로들을 무기한 억류할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반공포로를 북으로 강제 송환하면 다 죽게 될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면서 석방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포로 석방 이틀후인 6월 20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게 포로석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공포로를 강제로 북에 송환하면 집단 수용소에서 처형될지 모른다, 죄없는 반공포로를 평화를 위해 희생시킨다면 우리는 그들의 저주를 받을것이라는거죠. 대통령도 같은날 클라크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민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야 할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맹방과 결별하고 우리의 단독적인 결심을 이행하는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민은 우리의 본래의 목적인 인간의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는데 충실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여론은 반공포로 석방을 비난합니다. 이대통령은 물론 이러한 비난을 자오하고 있었죠. 이대통령은 또 주재국의 호감만 사기위해서 자기나라의 강한 주장을 약화하는것은 외교관으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일선 외교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생각에서 나온것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이대통령 자신에게는 물벼락 날벼락이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국가 이익에 절대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

했기 때문에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반공포로를 석방한 후에도 한국에서 휴전반대 운동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유엔군측이 공산측과 서로 포로교환 문제를 놓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것 처럼 한국과 미국정부사이에 방위조약체결 문제를 놓고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한표욱: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휴전 회담이 재개됐을 무렵인 53년 4월 30일 이대통령은 클라크 유엔 사령관에게 매우 의미깊은 서한을 보내는데요. 클라크 장군은 이대통령의 뜻을 워싱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약을 맺어주는것이, 바로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주는 것이 한국의 휴전반대 입장을 완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5월 25일 포로교환 문제에 관해 공산측 주장에 대폭 양보하는 제안을 휴전테이블에 내놓으면서도 한국 정부에게는 한시간전에 통보해 한국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클라크장군과 브릭스 주한대사는 이대통령에게 이 제안을 통보하는 자리에서 휴전협조 방편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참전 16개국이 칩락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결의를 성명하고, 둘째로 한국군은 20개 사단을 증강하고, 셋째 10억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제시하면서도 방위조약 얘기는 하지않습니다. 이대통령은 격분했죠. 미국이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대통령은 5월 30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상호 방위조약을 맺는다는 전제조건아래 공산당과 유엔군의 동시 철군을 제의합니다. 한국은 공산도당의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야합에 의한 가공할 충격에 대응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대통령은 이어서 6월 6일 성명을 발표해 방위조약에 첫째 미국은 한국이 침략을 받을때 다른 나라와 상의없이 즉각 군사원조와 개입을 해야 된다, 둘째 미국은 한국군의 증강을 돕고, 셋째 한국이 자체 방위할 수 있도록 미국은 적절한 무기·탄약·군사지원을 한다는것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 8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5월 30일자 이대통령의 서한에 의한 회답형식을 통해서 『본인은 휴전협정이 종결되어 각자가 이를 수락하는대로 곧 미국이 필리핀·호주·뉴질랜드와 맺은 방위협정의 선에 따라서 귀국과 조약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통령 방미를 초청해요. 이대통령은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덜레스 국무장관을 서울로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덜레스는 당장은 분주하기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으니 월터 로버트슨 국무성 차관보를 파견하겠다고 제의합니다. 대통령은 받아들여거든요.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은 로버트슨 방한을 수락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한국의 신협정에 협조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하는데는 진지하게 응하겠지만 한국의 의사를 미국이 충분히 존중해야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응변으로 나타낸것입니다. 로버트슨의 방한이 결정됐을때 우리 워싱턴 대사관에서 그의 배경·인품 및 기타 참고될 정보를 본국에 전보로 상세히 보고한것은 물론이죠. 버지니아주 명문가 태생이다 하는것 등 여러가지 얘기합니다.

미국은 결국 대통령 특사를 한국에 파견해서 한국정부의 반공포로 석방단행으로 악화된 휴전협정 위기에서 이대통령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53년 6월 25일 로버트슨이 서울에 왔는데 도착성명을 통해 그는

202 휴전협상과 제네바 정치회담

휴전협정과 포로교환, 장차 정치적 회의등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상호이해에 도달하는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의 친서를 휴대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희 : 이대통령하고 로버트슨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 미 국무차관보를 맞은 한국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론 한국 안보를 위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 문제라지만 그 밖에 휴전협정 조인후에 정치회의 문제와 경제 재건, 한국군 증강이 아울러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었다는데요. 한대사님 말씀해 주시죠.

한표욱 : 아이젠하워가 53년 4월 보낸 편지에서 휴전협정후 정치회담을 통해 남북한 통일에 의한 총선거 문제를 토의할것이라고 밝혔을때 이대통령은 정치회의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공산측 대표들이 정치회의를 질질 끌면서 선전무대에 이용할것이라는 생각에서 회의기간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는 한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이대통령이 정치회의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회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는 국제협정에 합의하고도 위반하는게 상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정치회의 기간내에 합의가 없을 때는 전쟁을 재개하여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그런 굳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로버트슨 방한과 관련해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미리 작성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휴전후 정치회의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한정하고, 둘째 90일간의 정치회의기간중 중공군 철수문제 결정이 없고 남북통일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휴전협정이 무효화해서 미국은 타유엔군의 동조없이도 한국과 더불어 통일을 위한 전쟁을 재개하거나 공·

해군 지원을 해줄것, 세째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락하면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부에서 철수하지 않을것이고 휴전협정을 반대하지 않을것, 네째 휴전 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할것. 이상과 같은 한국입장은 53년 4월 25일 이대통령과 로버트슨의 `90 차 회담에서 전달됐습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동시에 휴전협정 조인후부터 정치회담이 끝날때까지 공산군이 한국에 침투해 파괴행위를 벌일 것이니 이를 방지하는데 미국이 전적으로 한국을 지원해 줄것과 적군 병력에 상응하는 군비를 신속히 증강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90 일간의 회의를 계속하면서 만족스런 진전이 없이 공산측이 회의를 선전무대로 이용하거나 한국에 침투 파괴행위를 자행할때 미국은 한국과 의논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용의는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월 2일 3차 회담때 로버트슨은 휴전협정 조인 이후 미국은 한미 고위회담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히죠. 이는 델레스 장군과의 방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로버트슨은 미국이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것과 회의에서의 공동보조를 재삼 천명하고 90일 후에는 한국정부와 즉각 협의를 벌려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이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로버트슨은 대통령 특사라고는 하지만 미국정부가 수차 밝혀온 입장 이상의 카드를 좀체 내밀지 않거든요. 미국 정부가 종전부터 이대통령에게 다짐한 약속을 재확인 하는것만으로는 한국정부의 휴전협정에 대한 협조를 자아내기에 충분치가 못했던것입니다.

이현희 : 이대통령은 로버트슨 미 국무차관보를 상대로 휴전협정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불안전하고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안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서는 정치회의가 무의미해질때 전쟁을 재개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설명을 했다는데요.

『6·25 남침전쟁이 발발했을때 트루먼대통령이 주저없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몇달만에 바다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을것이다. 미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은 끊임없는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적군은 완전히 몰락상태에 빠졌다. 추격한 우리 입장에서 북진은 힘들지 않았다. 한국군의 일부는 압록강까지 갔었다.』 뭐 이런 얘기죠.

뿐만아니라 이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들춰가면서 1905년 미국이 한국을 배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승만박사는 국제정치나 한국현대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통령의 의사는 사실 비교해 볼때에 본래의 입장과 큰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통령이 2주일 이상 로버트슨과 회담을 벌이는 동안 미국측이 간청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협조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됐거든요. 7월 11일 이대통령은 덜레스 국무장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역사의 교훈을 제공하는것외에 아무 결과도 없이 흘러가 버린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장래를 맞이하고 있다. 공산측은 한국에서 일종의 승리를 거둔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분을 십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들은 위성국을 이용해서 세계 최대강국과 싸워서 비긴 정도가 되었다고 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휴전을 통해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전쟁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현희 : 미국은 결국 로버트슨 차관보를 통해서 이대통령의 휴전

협정에 대한 협조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휴전 협정 조인전에 이 회담에서 얻어내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표욱 : 로버트슨이 내한한지 16일만인 53년 7월 11일로 생각됩니다. 이승만-로버트슨 공동성명이 발표됐죠. 그것은 이런겁니다.

『첫째, 우리는 포로들이 강압을 받아서는 안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포로는 남아서 석방될 거고 반공입장의 중공군의 경우도 각자가 선택하는 곳으로 보낸다는 우리의 견해를 재확인한다. 둘째, 양국정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했다. 셋째, 특히 우리는 최단시일내에 우리의 공동목표인 한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일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로버트슨은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12일 한국을 떠나죠. 15일 아이젠하워에게 전달합니다. 휴전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한국측이 일단 양보하였지만 대신 미국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이와같은 이해로 인해서 한국은 휴전에 대한 본래의 입장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7월 23일 아이젠하워는 한국부흥 6개년 계획안에 동의했고 델레스 미국무장관은 휴전 조인후 한미 신회담 개최를 제의합니다.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습니까? 유엔군 사령부의 윌리엄 K. 해리스 중장과 북괴군 대사 남일은 12분만에 18건의 문서에 서명하게 되고 맙니다. 휴전협정문서는 다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미육군대장, 북괴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에 의해 정식 서명됩니다. 회담이 열린지 2년 1개월, 6.25 남침전쟁이

발발한지 3년 1개월만에 찍어진 하나의 종지부입니다.

인명피해도 유엔측은 33만명, 공산측 180만명, 전쟁비용이 유엔군 측만도 150억불로 제 2차세계대전때와 거의 맞먹고, 특히 한국인의 주택손실 파괴가 60만호, 전쟁고아 및 부랑아 10만명, 전쟁 미망인 50만명이라는 막대한 희생도 보람없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만 허탈한 휴전만을 우리는 보게되는 이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의 처음 목표는 북괴의 남침을 저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는데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현희 : 한국정부의 끈질긴 투쟁이 없었던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가능했을까 하는것이고, 또 참전 16개국의 공동성명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한표욱 : 휴전협정과 방위조약 체결후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케네디 영 미국무성 동북아 국장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그는 안보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과 우려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정도의 깊이와 이해성 있는 파악이 안되어 있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북괴와 중공이 모두 전쟁발발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는 재침하지 못한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성명으로 공산측에 경고하면 침략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고 케네디 영은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만 중공군이 계속 북한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안보에 이룰테면 큰 위협이다 하는 그 한국측 주장을 매우 설득력있다고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사실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휴전을 성립시켜야 하는것이 미

국의 처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8월 2일 출발에 앞서서 덜레스는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덜레스 미국장관의 방한은 미국 정부의 우려와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산침략에 희생이 되었고 그 침략을 막는데 막대한 공헌을 한 한국정부와 예비회담을 갖고 의견교환을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8월 3일 저녁 헨리 케버트 로지 유엔대표, 스티븐슨 육군장관, 또 로버트슨 국무차관보 등을 데리고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도착합니다. 백총리를 비롯해서 국회 덜레스장관 환영특별위원 등이 마중하고 이대통령이 몸소 덜레스 장관일행을 맞이해서 파티도 열어 주는 등 각별한 배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측이 당시 덜레스를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협정을 준수하거나 정치회담에서 협조하지 않을것이므로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집단을 타도할 것을 덜레스 장관에게 호소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희 : 이승만-덜레스 회담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휴전협정 조인후 일주일만에 열린 이 두 사람의 회담은 휴전후 열리게 되어있는 정치회의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정치에 관해서 한국이 먼저 제시한 대목은 회의참가 범위였지 않습니까?

한·미·중공·북한만 참석해야 한다는게 이대통령의 주장이거든요. 너무 많은 나라가 참석하면 의견이 분분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데 문제가 있을테니까 여기에 참가국의 수를 줄이자는 것이죠. 그러나 덜레스는 반대합니다. 다른 참전국들이 허락하지 않을것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측도 다른 참전국들이 정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만을 가질것이라는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

문에 당초 주장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았다는데요.

한표욱 : 맞습니다. 그 대신 이대통령은 소련과 인도만은 회의에 참석하는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뜻을 박았거든요. 우리 국회도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만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는 일정기간내에 개최, 한국 주권에 상반되는 결정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델레스와의 회담에 임하는 이대통령의 입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델레스 장관도 정치회의에 소련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해 한국정부가 신축성있는 태도를 취해줄것을 희망하거든요. 미국으로서도 이같은 한국 요구에 응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다른 참전국들도 호응할리가 없다는게 델레스의 의견입니다.

이대통령이 태도를 좀 완화해 나가게 됩니다. 정치회의 기간중에는 한국이 단독행동을 취하지 않을것임을 천명합니다. 한국군 강화를 위한 군사지원, 경제원조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원하던 한·미 상호 방위조약안이 델레스 국무장관에 의해 제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델레스 협상 5일만에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휴전협정상 정치회담은 협정 조인후 3개월만인 53년 10월 27일 이전에 개최토록 되었다. 정치회담에서 미국과 기타 참전국 대표들은 한국을 자유롭고, 자주적인 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방안을 모색할것이다. 90일간 정치회의를 열어본 후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회의가 침투, 선전, 비방등을 위한 공산대표들의 선전장으로 이용되는 경우 우리는 정치회의에서 함께 철수할 태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계속 통일되고 자유독립된 한국을 성립시킬수 있는 방안을 상호의 견교환을 통해 모색할것이다. 이것은 2차대전후 미국의 근본 정책

이었고 유엔 자체에 의해서도 목표로 채택되었고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 외교정책에 이 목적을 추구할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현희 : 결국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된게 아닙니까? 이대통령과 델레스 미 국무장관의 회의에서 한국측이 정치회담 기간중에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것을 약속함으로써 3개월 시한부의 휴전을 묵인하자 미국측은 준비해온 상호 방위조약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초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표욱 : 초안은 53년 6월 6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했 던것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대통령과 델레스가 정치문제 등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백두진 총리,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로버트슨 국무차관보 등 미국측 관리 등과 방위조약 문안협상을 벌이거든요.

이 두가지의 대비에 대해 회담결과를 종합한 이-델레스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양국 정부는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보조를 같이한다.

둘째, 양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해서 한·미 양국을 결합시키기 위한 상호 방위조약을 기초한다.

셋째, 양국 정부는 동조약의 발효 및 실시를 위해서 헌법상 절차를 적극 시행한다.

네째, 상호 방위조약이 발효되기까지 기간에 공산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무력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유엔군은 즉각 공산 침략자에 대응한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미국이 그 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한다.

여섯째, 미국은 정치회의에서 한국 및 기타 유엔측 대표와 협의

하여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촉구할 것이다.

일곱째, 90일 정치회의 기간에 아무런 결실이 없고, 공산군측 대표들이 회의를 대한민국에 대한 침투, 선전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국을 고난에 빠뜨리는데 이용하면 양국 대표는 동시에 철수한다.

그래서 다음날인 8월 8일 경무대에서 이대통령, 백총리, 여러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영태 외무장관과 델레스 장관에 의해서 방위조약안이 조인됩니다. 이것이 끝난후 델레스는 대통령께 선물도 하면서 환담을 했는데, 대통령은 한국말로 『이 친구들이 이제 낚시대를 주면서 고기는 우리더러 잡으라는 말이군』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방위조약이 맺어진데 대해 크게 만족하고는 이런 성명을 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미 공동조치는 외부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한·미 방위조약은 그후 2달뒤인 10월 1일 신촌에서 변장관과 델레스장관 사이에 정식 조인되고 다음해 1월 양국 의회에서 비준됩니다.

그러나 조약은 그후 1년이 넘는 54년 11월 18일에 발효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정치회의 기간중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통일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요. 이 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었던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성공

을 했죠.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지지한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하게 이해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박사의 능수능란한 그런 외교정책에 바로 우리 한민족의 운명이 걸렸다고 할수 있는 그 당시로써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결국 조인하도록 협상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냈다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들 수 있겠습니까.

이현희 : 고맙습니다. 박박신데 이렇게 귀하고도 정확한 우리 현대사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모두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과 반공포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말씀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끝의 부분이 된다고 볼수있는 제네바의 극동 평화회의, 일명 제네바 정치회의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네바 극동 평화회의는 한국의 통일문제하고 인도차이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 아니겠습니까?

한국문제 토의에는 한국과 미·영·프랑스 등 유엔참전 16개국, 또 북한·소련·중공이 참가했습니다. 그때에 개최 벽두에 영국이 제안한 유엔 감시하의 한국통일 5개원칙을 가지고 토의했죠.

그후 한국은 5월 22일 첫째,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둘째 자유선거를 위해서 언론자유, 인권보장,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셋째 이와같은 원만한 성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유엔군의 완전철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짜로한 한국 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쓴 「외교여록」이러는데도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셨더군요.

소련은 6월 5일 모든 외국군의 철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5개항의 제안을 했고, 북한도 6월 5일 모든 외국군의 우선 철수와 그

뒤에 오는 모든 절차를 토의하기 위한 전한국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등 6개항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회의가 사실 진전없이 되면서 그것이 교착상태로 빠져들어 가니까 유엔 참전 16개국은 15일 “유엔 헌장에 의해서 침략자를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일과 진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한국 통일을 중심으로 열망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자유선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을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한국 문제를 토의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회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하는게 바로 제네바 극동평화회의 또는 제네바 정치회의의 하나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런 상황을 한대사님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엔은 1953년 8월 7일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휴전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해서 이것을 인준한 후 협정에 규정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의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토론은 정치회의의 참가범위와 의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참가 범위는 소련과 인도의 참가문제, 의제는 한국문제외에 중공의 유엔가입도 상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요.

한표욱 대사님은 어떠신지요?

한표욱 : 8월 17일 이 두개의 결의안 초안이 제출되지요. 그중 하나는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이디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네델란드,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터어키, 영국등 14개 나라의 공동제안입니다. 내용은 참전국중에서 유엔 사령부에 병력을 제공한 국가들이 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정치회의에 참석하고 그들이 합의한데 대해서만 책임을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련측 안입니다.

회의참석 범위는 미, 영, 소, 프랑스, 중공, 인도, 폴란드, 체코, 남북한, 버마, 스웨덴 등으로 하고 휴전협정을 조인한 국가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결정이 채택되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소련안은 두가지 독소를 내포하고 있지요. 하나는 회의결정에 대해서 중공이나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한가지는 한국에 결정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두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총회는 벽두부터 논란이 벌어지죠. 특히 회의참석 범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찌미 유엔대표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소련과 인도의 참석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휴전 협정에 명시된 정치회의 참가 범위는 양측과 관련된 정부라고 되어 있지만은 참전국에 국한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는 또 만약에 비참전국이 참가하게 된다면 정치회의에 참석치 못한 다른 유엔회원국보다 이들이 우위에 서게되는 결과를 낳을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열린 16개 나라 참전국 회의에서 소련의 협조없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의미하다는 영국, 캐나다등의 주장에 부닥쳐서 사실상 미국도 중공과 북한이 원한다면 소련에 한해서 공산측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의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참석 범위 논쟁은 인도문제로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희 : 유엔 총회에서는 인도가 한반도 통일문제 협의에 개입을 하면 우리나라는 회의에 불참할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았다는 것이 여러가지 문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표욱 :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도 8월 24일 총회에서 그 입장을 밝히지요. 변 외무부장은 만일 유엔이 인도 참석을 결정한다면 한국은 인도와 협조하는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

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 장관은 유엔이 인도 참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을 인정하나 한국에도 정치회의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있습니다. 총회는 그래서 8월 27일 미국과 우방이 제출한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소련안을 부결시켜 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델레스 미 국무장관은 9월 2일 재향군인회 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인도 참석을 봉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은 인도의 정치회의 참석을 반대했다. 우리의 그와같은 태도는 두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양측간의 회의를 소집할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도는 공산측에도 끼지 않았고 한반도에서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싸운 유엔사쪽에도 참가하지 않은 국가였다. 한국전에 대한 그같은 기권은 물론 인도의 특권이다. 그러나 모든 특권이 그렇듯이 인도의 특권도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 댓가의 하나는 인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깊은 불신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도를 참석 범위에서 제외시키는데 두번째 이유를 제공할것이다” 하는 것이죠.

유엔총회는 또 정치회의 의제에 관해서도 한국 통일문제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명백히 뜻을 밝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 15일입니다.

개막된 제 8 차총회에서 소련은 한국문제를 재토론할 것을 주장합니다. 중공과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냈다는것이 바로 그 이유지요. 이 새로운 제안이라는것은 정치회의에 참가할 나라에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버마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유엔총회의 개막벽두에 의례히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국 문제의 재론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미국 등 우방은 8월에 있었던 제 7 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정치

회의 문제는 토의가 끝났다는 이유를 들면서 소련제안을 부결하고, 총회는 이와같은 운영의 결정을 채택합니다.

이현희 : 1953년 8월 28일 제 7차 유엔총회가 한국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 개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따라서 유엔사는 9월 27일 중공과 북한측에 서한을 보내서 정치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비회담을 가지자고 제의하지 않습니까? 유엔사측은 이 예비회담의 장소로 샌프란시스코, 호노놀루, 제네바중 택일할것을 아울러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던 공산측이 답신을 보내면서 예비회담 날짜를 10월 26일로,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제의했습니다. 유엔측은 이에 동의했어요.

판문점 예비회담에는 참견 16개국을 대표해서 델레스 미 국무장관 특별 보좌역이자 순회대사였던 아더 딘, 그리고 미 국무성 극동국장 케네디 영, 한국에서는 조동환 외무부차관, 이수영 대령등이 참석을 하고, 평양에서는 기복석, 북경에서는 나중에 중공외상이 된 황하,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나왔잖습니까? 그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표욱 : 공산측은 회의 벽두부터 8월 28일 통과된 유엔 결의안의 무효화를 기도하지요.

이 결의안으로 확정된 정치회담 참가범위를 재론하려는게 아니겠습니까? 공산측은 9월 제 8차 유엔총회에서 소련이 정치회의 참가 범위를 재론하고자 메를 썼던것을 되풀이 하면서 버마, 인도, 파키스탄을 위시한 소련 등을 중립국으로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공산측이 참가범위 문제를 회의 벽두에 꺼낸 저의를 저는 배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8월 28일 유엔결의안을 무효화하자는 것이고,

둘째 아시아 몇 나라를 포함시키고자 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호감을 얻자 하는것, 셋째 소련을 중립국으로 참석시킴으로써 전쟁발발부터 배후장본인이라는 누명을 해소시키자는것, 넷째 오랜동안 지연작전을 펴므로써 참전국간에 의견차이를 조성, 미국 입장을 약화시키고 압력을 가할 어떤 요소를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이 예비회담은 공산측의 이와같은 수작에 따라서 회의 토의 사항을 협의하는데만 3주일이나 걸립니다. 이때까지도 공산측은 소위 아시아 중립국과 소련을 정치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산측의 이러한 집요한 주장에 대해 딘 대사는 더 참을 수 없었던것 같습니다. 12월 9일 회의에서 딘 대사는 『소련이 착하고 자부심많은 나라라고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소련의 발톱은 매우 날카롭다. 소련은 약소국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흥분된 이런 어조로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결국 중립국이 아니라 분명히 침략성이 강하고 호전적인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한반도 통일문제를 토의할 정치회담에 참가시키느냐하는 얘기죠. 결국 소련은 중립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문점회담에서는 아무런 결론이 나올수 없는것이 확실해지죠. 미국 정부는 이 회담이 더 이상 계속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하여 딘 대사를 소환합니다. 더구나 12월 31일 회의에서 공산측은 한국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도록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했다, 이렇게 비난하며 미국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것이죠. 딘 대사를 대리해 참석했던 영 국장은 공산측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노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완전중지, 무기휴회로 들어가거든요. 그후 판문점 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현희 : 딘 대사는 그후 예비회담에 대해서 공산측이 유엔군과 미

군의 완전 철수, 공산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남부에 연립 정부수립, 자유중국의 유엔 축출 및 중공의 유엔가입, 미국의 대 중공 무역제한 제재등을 주장했다고 그렇게 밝혔지요. 판문점 예비회담이 결렬된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앞으로 열릴 정치회담에 임하는 북한, 중공 또는 소련을 사실상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문점 회담의 실패로 한국은 다시 정치회담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결국 마음이 변해서 전쟁재개와 방위위협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까지 되거든요. 한국의 이와 같은 낙관은 이대통령의 메세지에도 반영됩니다. 이 메세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워싱턴 보도진영에도 배포되지요.

만약 미국이 지금과 같이 강한 입장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하등의 결실도 없이 끝나고 말 정치회담을 위해서 녀달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낭비를 하지않아도 될것이라는 요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한표욱 : 미, 소, 영, 프랑스 네 나라가 한국문제를 위한 정치회의를 제네바에서 열기로 합의한것은 판문점 예비회담이 결렬된지 4달후 입니다.

1954년 2월 18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 베를린에서 소집된 네 나라 외상회의는 의회 자체의 성과는 별로없이 끝내면서 대신 한국문제와 인도차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4월 26일 제네바에서 정치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회의의 결정은 우리측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우리나라는 기분이 나빴어요.

첫째; 제네바 회의는 휴전협정에 의한것이 아니었습니다. 휴전협정

은 협정후의 3개월째인 53년 12월 26일 정치회담을 열도록 규정했지만, 이에 따라 열렸던 판문점 예비회담이 결렬돼 버렸거든요.

둘째, 유엔협정에 규정된 정치회담의 참석 범위를 놓고, 유엔총회와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한국이 그토록 참석을 반대했던 소련이 제네바 정치회담에는 주최국의 하나로서 격상되는것이 못마땅 했거든요.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제네바회담같은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말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목적달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위해 또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국제회의에 참석할 뿐이다.』

한국은 판문점 예비회담에 공산측의 억지태도와, 미국측의 완강한 태도등으로 인해서 회담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앞으로는 정치회담이 불가능할 것을 판단해서 전쟁 재개쪽으로 결심을 굳히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베를린 4개국 외상회담 결정은 큰 실망이 아닐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할수 있는데까지 참관을 증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정치회담에서 국가이익이 희생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는데 대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이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은 이 정치회담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절대 옹호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와같은 보증을 받은 한국의 태도는 완화되어 갑니다.

이대통령이 제네바 정치회담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4월19일 정치회담 결정을 성명으로 발표하고 미국에도 이를 통보합니다.

미국의 보증도 있었지만 한국통일의 기회를 우리 정부가 막았다는 비난을 받지않으려는 정치적 판단도 고려됐는데 뉴욕타임즈지

가 한국 정부의 회담참관 결정에 관한 통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그때 정치회담에 참가하게 된 그런 경위랄까 ;
이런것을 당시의 외무부장관 이었던 변영태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1953년 유엔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15개국 결의안에 의거해서
한국통일에 관한 정치회의의 시일, 장소, 기타 요항을 워싱턴에서 누
차 열린,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17개국 대사 회의에서 토론을 하
여 얻은 합의사항을 가지고 미 국무성이 소련을 통해서 공산국가
와 절충한 결과 휴전협정 60조에 규정된 정치회담의 기한일인 10
월 28일경에 판문점에서 유엔 16개 참전국을 대표해서 미국이 공
산측과 예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공산측
은 처음부터 예비회담에 제한된 그런 의사 요목을 벗어나서 정치
회의의 구성문제 토의를 주장했으며, 또 그것을 먼저 토의하기를 주
장한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소련을 중립국가로 초청하는것을 역설
하는데, 15개국 결의안을 전적으로 전복하려 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무리한 역설을 반복하면서 두달에 가까운 시일을 허비하다
가, 공산측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극히 모욕적인 말을 하거든요.

미국측은 이 모욕적인 말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공산측은 불응합
니다. 크리스마스쯤 결국 예비회담은 결렬되어서 미국 수석대표 딘
씨는 귀국해 버리잖아요. 차석 케네디 영씨가 얼마간 쳐져있다
가 역시 귀국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휴전협정에 규정된 정치회담은
난산이라기 보다는 완전히 죽은거나 다름이 없는거죠. 그래서 다음
해 2월달 독일 통일문제로 베를린에 모인 '4상회의'는 무
위로 돌아가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데 한국 문제와 인도지나 문
제로 제네바에서 정치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프랑
스가 인도차이나 문제에서 손을빼지 못해서 초조해 하는 바람에 공

산측에 유리한 타결이 성립된 것이 분명하므로, 프랑스·소련이 인도지나 문제로 회담을 여는데 합의한것은 이상한 것이 없으나, 우리나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따라가게 된 경위는 사실은 석연치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표욱 : 네, 알았습니다.

영·불·미국 세나라가 한국문제와 인도지나반도 문제를 결부하여 내놓았는데, 한국문제만을 잘라버리기가 공산측으로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15개국 결의안의 구속을 벗은 회담이 될 것이란 점은 하나의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미국·영국·프랑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열어보지도 못했 단말은 우선 면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인도지나의 문제에 편승해도 무방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원래 휴전협정 60 조에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한국통일 운운한 것은 사실은 형식적인 소리거든요. 평화적으로 한국 통일을 완성해서 휴전협정을 끝맺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 통일이라는 정치회의를 한번 형식적으로 해주고는 휴전협정을 항구화해서 무력충돌을 당분간 면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휴전 협정이란 단어자체가 공산당의 어투입니다. 송환거부란 문구를 쓸 자리에 송환권리를 행사치 않는것을 운운했거든요. 어휘 하나하나와 그 배열의 순서까지 공산측의 추후 공작의 복선이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들면 60 조에 모든 외국군대의 한국에서의 철수,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의 제문제를 운운한데 있어서 외군 철수가 우리나라 문제 해결에 앞서야 되겠다는 소련의 주장을 정당화한 복선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순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통일이란 표현이 있느냐하면 없습니다.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소련으로 볼 때는 한국 남단에 있어서의 무전현상의 영구화를 의미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포로의 송환 자유 원칙은 전세계가 3년에 걸친 긴 정전 교섭을 통해서 외쳤지만, 휴전협정의 자유는 그만두고 그림자나 찾아보라는 거지요. 휴전협정은 자유세계가 공산세계에서 바친 항복서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문서거든요. 적의 칼밑에 쪽쪽 제손으로 쓴 항복의 문서도 못되고 3년간 공산주의자에게 종아리를 맞아가며 써바치면 다시 쓰라고 하고 또 써바치면 다시 쓰라고 해서 맨나중엔 자기가 썼던 문구는 하나도 남지않게되고 말았지요. 휴전서를 첫번에 써주었다면 종전은 3년 일찍 되었을 것은 의심없거든요. 그리고 공산당 아닌 유엔군측 대표들이 어찌면 그렇게 공산 어휘에 밝으나 아무런 재주든 비상하지만 칭찬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체적 밑에서 3년간 쓰고 지우고 쓰고 하는바람에 선 선치는 못하고 칭찬은 생김도 못하게 될 판입니다. 이 통철을 건드리는 말을 심하다 하기전에 휴전협정 조문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정부는 제네바회의 개최직전까지 참가를 보류했다기 보다 거부한 편이거든요. 중요한 이유로는 제네바회담은 휴전협정에 의거한 정치회담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주최자의 하나로서 양양된 위신을 갖게되는 것이고 또 중공은 실질적으로 주최자 측에 서게되어 소위 5대국의 반열에 들어가기 쉬울 것이라는 것이고, 인지 문제가 손을 뻗 정치적 회의에 한국문제가 실질적으로 희생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들은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다가 최후 순간에야 우리 정부가 참가하기를 결정한 것은 회담에 의한 한국통일의 기회를 우리 정부가 막았다는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까닭입니다.

한국어가 회담용어로 되기는 우리 주장이 미국의 찬성을 얻어 관철된 결과거든요. 미 국무성이 보내온 소련의 제안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어만이 회담용어로 되어있고 한국어는 빠져있었어요. 이려고도 소련이 민족해방운동의 챔피언으로 꾸미냐고 제네바회담에서 몰로토프를 한번 면박준 일이 있었다고 하는것을 제가 외무부장관 변영태 선생으로부터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현희 : 한국 대표단이 비교적 상대한 초청을 받으면서 제네바에 도착한것은 개막을 사흘 앞둔 4월 23일 현지시간은 하오 2시죠? 그때 어느분이 갔습니까?

한표욱 : 서울로부터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흥진기 그 당시 법무차관, 최종오 동국대교수, 이수용 외무부 정보국장, 한유동 외무부장관 비서실장, 손병식 외무부 의전과장, 유희령 속기사, 이재범 한글타자수 등 모두 8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양영찬 주미대사, 임병직 유엔대사가 합류했지요. 대표단은 소규모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북한은 비행기 4대에 가득 태운 인원이 도착했습니다. 한 백여명정도 였는데, 기세를 올리자는 거지요. 소련이 200명, 중공이 300입니다. 보도진도 900명정도 됐는데 굉장한 규모라고 할수 있고 또 번잡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는 각국 대표단과 관광객으로 북새통입니다. 호텔은 초만원이구요. 우리 대표단은 미국 대표단의 선발대로 와있던 케네디 영국무성 극동국장, 켈훈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카윈 주 제네바 총영사등의 마중을 받으면서 그들을 통해 미리 정해놓은 호텔 드 파미유에 투숙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검소하고 조용히 행동한데 비해서 북한의 대표 남일은 일만평 정도의 호화별장을 얻어쓰고 5명의 미모 여자수행원을 데리고와서 매일밤 파티를 여는등 허세를 부렸는데 기자들이 남

일이 공항에 도착했을때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엽전행 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딱 입을 다물어버려요. 중공대표 주은래도 노코멘트입니다. 그 뒤에 도착한 소련대표 블로토프 외상이 도착성명을 발표하지요. 그러자 주은래와 남일도 차례로 성명을 내지요. 성명발표 순서를 재미있게 생각한 기자들이 큰 개, 중개, 강아지로 비유하면서 중공, 북괴의 소련 추종 자세를 비꼬았다는 것입니다.

이현희 : 아주 재미있는 비유였습니다. 제네바 정치회담에 임하는 미국측 태도는 어쩌면 한국과 끊임없이 자주 밀접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회의 성패의 열쇠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치회담을 앞두고 많은 전략회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54년 4월 26일 개막되는 제네바회담을 앞두고 4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참전국대사급 전략회의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나타났지요. 그때 전략회의에는 한대사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략회의에 나온 덜레스 미국무장관은 그 전날 내려진 한국 정부의 제네바 회담 참가 결정을 각 대표들에게 알리고 미국은 한국 대표단과 밀접한 연락을 가지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한표욱 대사님은 그때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전략회담에 기간적으로 참여했으니까 그 사실자체만 보더라도 제네바 정치 회담의 돌아가는 상황을 더 정확히 아실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덜레스 장관은 한국 참가 없이는 제네바 정치회담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요. 그 정치 회담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이렇게 역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표욱 : 덜레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지적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총인구 2/3가 남쪽에 있음을 다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방안에 관해 그때까지 자

유선거가 없었던 북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델레스는 이 방안이 곧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 최종적인것이 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고지를 설정해 놓고 차례차례 내 던지는 테크닉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워싱턴에서 파악된 비밀정보로 델레스는 이등 영국외상에게 이와 같은 미국의 인식과 판단을 숙지시키고 그의 전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회의에서는 특히 소련외상이 베를린 4개국 정상회담때 앞으로 있을 한국 통일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을 중공까지 포함한 5대 강국 의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델레스 장관의 모든 발언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대통령에게 약속한것을 상세히 부인한 것이지만 그가 역설한 사실 자체가 한국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전략회의 내용중 중요 골자를 먼저 전보로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외교 파우지편으로 서울에 급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치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은 제네바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4월 23일 도착한 한국 대표단과 4월 24일 도착한 델레스 장관은 양자회담을 통해 회담전략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거든요. 회담개최를 하루 앞둔 25일 상오 로버트슨 미국무성 차관보가 호텔 드 파미유로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변장관은 총선거 실시 이전에 중공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로버트슨은 정치회담에서는 한국이 그 같은 일관된 주장을 되풀이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진영측에서 선거실

시전에 중공군의 철수를 주장하면 중공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 회담을 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중공군 철수문제는 접어놓고 통일문제 해결을 더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중공군이 있는 데서라도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양군철수후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장관은 로버트슨의 의견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델레스와 직접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지요. 로버트슨은 돌아가서 변장관에게 델레스장관의 방문에 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따라서 변장관은 양유창 주미대사와 함께 이날 12시 30분 델레스 속소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델레스는 변장관에게 정치회담에서 유엔측의 첫 발언을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변장관도 가능하면 한국 수석대표가 첫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델레스의 제의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철저히 지지할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세밀한 신경을 쓰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한국의 주장을 두둔해 주려는 자세가 역력히 나타난 것을 봐서 저는 그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델레스는 한국의 중공군철수 주장에는 로버트슨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변장관이 인도차이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전선과 대만전선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때가 올지도 모르니 한국문제를 너무 성급히 해결지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경고하자 델레스는 선거실시전에 중공군철수를 주장하는 한국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이렇게 한발 물러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현희 : 제네바 정치회의는 결국 54년 4월 26일 개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변영태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네바에 도착한 것이 4월 23일이라고 하면서 제네바시에 숙해 있는 성의 주석과 스위스연방정부 정치성 전리주임을 위시한 주임측의 마중과 미국대표단의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던 동북아시아 국장 케네디 영, 주한미대사관의 1등서기관 켈훈, 주 제네바 미총영사 가윈씨 외에 다수 인사의 출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여명의 사진반의 포위를 받고보니 꽤 불만한 일이 예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회담관계 사람들의 폭주로 인해서 여관변통이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미국선발대의 알선을 통해서 미리 정해진 호텔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관은 아주 복잡했다고 그랬어요. 대표단만 해도 중공이 상당한 수가 있었고, 소련·북한이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때 회담장소로 갈적마다 입구 좌우에는 차안에 앉은 우리의 면상을 유심히 들여다 보는 그런 수백 군중이 보였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같은 사람들이 왔을리는 없고, 상당한 숫자에 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대표가 조국통일문제를 논의하기위해 한자리에 모여 대화했다는 점에서 이 회의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역사적인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회의 장소인 제네바 팔레데나트송도 유서깊은 곳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옛 국제연맹자리였던 이곳은 1931년 이승만 박사가 연맹 회원국을 상대로 식민지 국가의 설움과 독립을 향해 피끓는 호소를 토로했는가 하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디오피아를 침략했을때 셀라시 황제가 구국을 호소한 장소이기도 하지요.

사회는 이등 영국의상 모로토프 소련의상, 프린스완 태국의상 등 의장단이 교대로 말도록 결정했다죠?

한표욱 : 첫날은 프린스완 외상이 사회를 맡았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27일에는 모로토프외상이 사회를 맡아서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었죠. 첫 출발을 한국이 맡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버젓이 공용어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아마 국제회의에서 첫번째 아니면 꽤 드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공용어에 관해 소련은 당초 영어, 프랑스어, 소련어, 중국어만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미국측의 주장으로 한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대표의 한국어는 영어로 통역되고, 북한대표의 한국어는 소련어로 통역됐는데요. 한국어를 처리할 동시 통역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발언은 최종오 교수가 처음에 통역을 하다가 양유찬 주미대사가 직접 통역하기도 했다는데 이 최종오씨는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또 성심여자대학교의 총장도 하고, 명예 총장으로 계신 조기홍여사의 부군되시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변영태장관은 해방후 공산측의 방해로 한국통일을 다스리지 못하고, 비판을 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렇게 열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이북에 한해 가지고 선거를 실시해서 한국국회에 공식으로 남겨놓은 1백석을 채울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선거실시에 앞서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과거 6, 7년간 한국에서 유엔감시하에 실시된 선거를 북한에서도 실시한다면 유엔이 착수한 한반도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장관은 특히 공산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총선거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그같은 생각은 유엔 자체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불순한 태도 표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실시된 자유선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게 바

로 변장관의 중심애기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수석대표의 이와같은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즉각적인 지지발언에 나섰습니다. 50년 10월 7일 채택한 유엔총회 결의에 이미 한반도 통일방안이 엄연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거든요. 지금 필요한 일은 언커크로 하여금 말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공산측이 여기에 응하고 중공군이 이북에서 철수,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 유엔의 한반도 통일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미국측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북한측의 남일이 등장합니다. 남일의 통일제안은 이러한 것입니다.

몇가지 나오는데 첫째, 남북한의 경제적·문화적 친선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북한의 인민회의와 남한의 국회에 선출된 남북 양측 대의원으로 전한국위원회를 조직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남북한 민족공동단체 대표를 참가시킨다. 둘째, 전 한국위원회는 정치 이념이나 종교, 성별, 민족에 불구하고 누구나 균등한 참정권을 누리도록 한다. 셋째 모든 외국군대는 6개월 이내에 한국영토로부터 철수를 완료한다.

이 북한의 통일안은 미·소 공동위원회 때부터 공산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방안이었습니다. 외국군 철수, 전 한국위원회 구성, 전국 총선거가 바로 그 골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한국방안은 선 중공군 철수, 후 유엔감시하의 북한선거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남일의 발언이 있자 콜롬비아의 에드아르토 즐레타 안젤 수석대표는 공산측안이 유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 한국위원회

의 설치는 공산주의지의 불공평하고 악의에 찬 설계라고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문제 해결에는 유엔의 결정을 이용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에 의해서 국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는 북한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였거든요.

다음날인 4월 28일 연설한 미대표 덜레스 국무장관은 남일의 제안은 공산측의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의 서곡으로 50년 6월에 제의한 바 있는 평화통일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또 6월에 베를린회의에서 제안한 독일통일안과 매우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평화통일이 바로 적색통일이요, 남북통일의 기본도 바로 무력통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덜레스는 북한의 제안대로 하면 자유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한국인의 3/4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소수인민을 지지하고 있는 공산정권과 대등한 입장에서 병합을 강요당하게 된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공산측의 의도가 대한민국을 없애고 그자리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며 그와같은 음모가 계재된 통일방안을 한국이 용납할리 만무하다면서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현희 : 예. 아주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북한제안을 반박하는 연설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공의 주은래가 연단에 올라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요?

한표욱 : 예. 주은래는 중국이 5대국 외상의 일원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긴박한 아시아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이 회의를 5대국 주도로 규정짓고 중공이 대국의 대열에 끼는 것을 자처하곤 합니다. 이어 주은래는 남일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통일은 외국이

230 휴전협상과 제네바 정치회담

나 테러단의 간섭을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보통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남일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거죠.

주은래는 특히 휴전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에 위배되고 또 반공포로 석방은 한·미 양국의 조치로 협정위반이다, 이렇게 베를쓰면서 의제밖으로 자꾸만 빗나가는 겁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측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4월 29일 한국전 참전 15개국과 한국은 자유진영의 공동제안의 작성을 위한 9개국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9개국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 영, 불, 호주, 필리핀, 터키, 콜롬비아, 네덜란드 등입니다.

그러나 이날 하오에 속개된 전체 회의에서 리차드 케이시 호주대표가 발언을 신청했는데 한국통일방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측 주장과 상반되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서 또 한국대표단을 실망시켜요. 케이시 의상은 남한에는 이미 유엔 감시 아래 선거가 실시됐으므로 북한의 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한국대표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만약 전 한국선거가 최종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9개국회의 위원회의 공동제안을 작성하기도 전에 9개국 위원회의 일원인 호주가 제안한 것은 배신되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는 격분했습니다.

언커크 호주대표이자 제네바대표단의 일원인 크리츨리시가 한국대표단을 찾아와서 케이시 발언을 해명하라 했어요. 그말대로 하자면 공산측은 유엔감시등 조건을 들어서 우리측 제안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니 자유진영에서 관대성을 보인다고 해도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수석 대표는 웃는 낯으로 형편에 따라서는 우리도 우방과 상의없고 독자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호주가 그런 자유의 규범을 보여줘서 우리는 도리어 대견하게 보노라 이렇게 말해서 크리츨리시도 어이없이 웃으면서 돌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는 다음날인 4월 30일입니다. 미국 대표단의 로버트슨 국무차관과 극동 국장이 제네바회의의 축소회의를 운영하자는 영국제안을 한국대표단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거든요. 축소회의는 베를린 4개국 외상회의 참가국인 미·영·불·소와 한국·북한 그리고 중공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대표단은 이러한 축소회의가 중공을 소위 5대강국으로 인정하게 되는등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반대로만 일관하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받을것을 고려해서 한번쯤은 참가해주고 그다음 회의 참가는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7개국 축소회의는 그날 하루 1차 회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3시에 열린 축소회의에서는 바로 그 날입니다. 변외무장관, 양 주미대사, 임 주유엔대사, 홍진기 법무차관이 참석합니다. 10분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등 영국외상이 축소회의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모로토프 소련외상이 즉각 북한대표의 발언부터 듣자고 제의합니다. 남일은 미리 준비해 온 연설문을 낭독했습니다. 27일 전체회의에서 했던 전 한국위원회 구성제의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다음으로 변수석대표에게 발언토록 했습니다. 변장관은 발언 순서를 맨 끝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대신 남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한국위원회를 남북한 국회위원으로 조직하자는 얘기인데 그 구성비는 어찌할 것이요?』이에 남일은 『비율은 물론 1:1이 돼야죠.』하고 대답했습니다.

변장관은 『그럼 대한민국에서 50명을 보낸다면 북한에서도 50명을 보내겠다는 말이죠?』 남일은 낮은 목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변대표는 더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현격한 남북한의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얼마나 비 민주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나 하는 것이 충분히 참가국에 증거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엉뚱한 수작을 부린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아주 패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현희 :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공산측은 소련의 지휘아래 모로토프 소련외상, 주은래 중공외상, 북괴의 남일이 차례로 동일한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일부 자유진영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입장과 다른 제의를 들고 나와서 한국 대표들은 이종의 괴로움을 겪었다는데요? 이것은 변형태 장관의 외교회의록에서도 나오더군요. 가령 예를들어서 7개국 축소회의가 결실없이 끝난뒤 5월 1일 우방만 참석한 16개국 참전국회의에서 뉴질랜드 대표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남일이 제의한 전한국위원회 같은 것은 다소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않느냐 하는 식의 내용이었던데요. 어떻습니까? 한대사님!

한표욱 : 그랬었죠. 변형태 수석대표는 즉각 전한국위원회란 대한민국정부의 거세, 거기에 대체될 입법면에서의 연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공박하고 정면 반대해 버렸어요.

또 자유진영의 공동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9개국 위원회에서도 필리핀 수석대표인 카살 외상겸 부통령이 남북대표로 헌법수정회의를 만들어 통일방안을 연구토록 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산측의 공세에 업친데 덩친격으로 우방진영에서도 일사

불란하지 못했죠. 이때에 변장관은 5월 3일 전체회의에서 공산측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반박을 하고 우방의 엉뚱한 제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스스로의 통일방안 6개항을 제시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러나 바로 한시간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대표단의 로버트슨 국무차관보, 케네디 영 극동국장, 켈훈 주한 미대사관의 일등 서기관이 한국 대표단을 찾아와 우방 9개국 회의에서 공동제안을 협의중이니까 한국 정부의 일방적 방안을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대표단은 상의후 미국의 견을 받아들여서 6개항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의 이등 외상은 변장관을 자기 거처로 초청해서 한국입장을 후퇴시키려는 설득공세를 벌입니다. 이등 외상은 북한에서 뿐만아니라 남한에서도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며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보름후인 5월 20일 한국에 선거가 있는데 남북한 선거를 다시하면 방금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총사퇴를 강요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그러한 경우에 정해진 조문이 없고 이런 조문에 참가하는 국민투표등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방간의 견해차이가 나타나 있어서 참전국의 9개국 위원회는 쉽사리 한국 통일방안에 관한 공동제안을 구체적으로 성문화 하지못하고 말았거든요. 5월 5일의 일입니다. 로버트슨, 영, 켈훈 세사람이 한국 대표단에 한국측의 동의만 얻으면 9개국 위원회에 제의 하겠다면서 7개항으로 된 미국측 공동제안 초안을 제시합니다. 이 초안은 물론 다른 참전국들의 의견이 참작된 것인데, 초안이 한국주장과 충돌된것은 남북통선을 실시하자는것과 통일정부수립후 1년 이내에 미군과 중공군을 한반도에서 동시 철수시키도록 하자는 두가지 안입니다. 한국측은 변장관

이 제네바회의 개막 연설에서 분명히 중공군의 조기 철수와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국대표단은 미국의 초안중 이 두점만은 본국정부의 훈령이 없이는 수락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걸들여서 제안 수락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행한다는 대목을 삽입하는 것과 대통령과 전 한국 국회를 선거운운이란 문구에서 대통령과를 삭제할 것, 엉커크가 감시하고 확인한 인구조사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 또 전 한국 국회개회에 관한 조문의 장소를 서울로 명기할 것, 마지막으로 통일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규정한 조항에서 한국에 인접한 국가들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측은 한국 대표단이 본국 정부의 지시 없이는 수락할 수 없다고 지적한 남북한 총선거와 미·중공군 동시 철수 두가지만을 미합의로 남겨놓고 그 밖의 다른 수정 요구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된 두가지조항에 대해서 끝내 한국측의 반응이 없자 로버트슨 차관보는 이제 더이상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9개국위원회에 미국측 초안을 제출, 16개국 참전국 회의에까지 밀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섭섭하게 다그쳐 물았던 것입니다.

이원희 : 양유찬대사가 제네바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 워싱턴 제네바공사로서 대사관 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한대사님은 본국 정부는 물론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대표단을 돕고있는 이승만대통령의 특별고문 로버트. 올리버시 등으로부터, 이 올리버시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역임한 분이죠.

정치회의 진척과 본국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미국무성과 매일 제네바회담의 내용을 협의하느라고 회의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것 아닙니까? 특히 제네바 회담은 이

미 실패한 것이며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대통령의 성명을 워싱턴 보도진이 발표함으로써 그때 한대사님은 자유진영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표욱 : 네. 맞습니다.

그해 5월 7일입니다.

대통령 이승만박사는 성명을 발표해서 한국의 평화적 통일교섭을 더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공산측의 우의를 조장케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한 시간적 이득을 더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제네바 회의가 언제 끝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가 끝난후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말보다도 더 유효한 수단을 취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대통령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특사 아저 딘을 서울로 보내서 한국측이 제네바회담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주도록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특히 딘 특사는 미국대표단이 5월 5일 한국대표단에게 제시한 남북한 총선, 통일정부수립후 1년내에 외국군 철수등 9개항의 미국측 초안을 받아 줄 것을 증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대통령은 중공군은 선거전에 철수해야 한다, 남북한 전한선거는 개헌에 의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보아 대다수 국민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 행한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대통령과 딘 특사의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되는데 상오, 하오에 경무대에서 한국측 백두진 총리와 손원일국방장관, 미국의 브리그스 주한대사가 배석한 가운데 절충작업이 벌어지는데, 딘 특사는 이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것 같다고 판단해서 워싱턴에 보고했고 워싱턴은 이를 제네바 미 대표단에게 전달하는 그런 체제를 취하지요.

5월 11일 정치회의 전체에서 변영태 수석대표는 세 번째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감시하에 북한총선거만이 유일한 한국문제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이현희 : 그래서 이튿날 로버트슨 차관보, 영 극동국장등 미 대표단이 한국대표단을 방문해 가지고 마치 7개항 조항을 언제 제의한 일이 있나는듯이 변수석의 연설을 칭송하고 앞으로 유엔감시하에 북한 선거만을 밀고 나가자고 다짐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같은 미국 대표단의 태도 변화에는 딴 특사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표욱 : 네. 그렇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5월 13일 열린 참전 16개국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또 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카시아 필리핀 수석대표가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헌법회의를 또 다시 얘기해요. 영국의 이등외상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는 국제기관에 의해 감시되어야 하며 감시관으로 선출된 여러 나라는 구태여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이는 제네바회의가 선출한다고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등이 말한 국제기관의 감시는 한국이 주장해 온 유엔감시와는 다른 것이고, 공산주의 측이 내세운 중립국 감시와 유사한 것입니다.

미도 프랑스외상도 적절한 감시권을 가진 중립국 옵서버 운운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더구나 호주, 뉴질랜드등 영연방 국가들은 선거전에 중공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한국입장을 외면한채 양군 동시 철수에 기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국력이 이만큼 신장했으니까 말이지 그때는 그만큼 무시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엔감시하에 북한선거를 우선 밀어붙이자는 미국대표단은, 우

방들의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자 하루종일 발언을 하지않다가 저녁 7시쯤 돼서 7개항의 초안을 다소 수정한 6개항의 새 초안을 한국 대표단측에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측은 미국의 우방들과 접촉해 본 결과 유엔 감시하에 북한 총선거 방안이 거센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초안을 다시 들고나선 딱한 사정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이같은 상황에 처해서 한국대표단은 처음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짜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유진영이 한국통일을 위한 공동제안을 마련하기로 한 9개국회의가 열린 5월 14일 근간에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희 : 우리 한국측 통일안도 물론 있었죠? 1954년 4월 27일 제비바 정치회의 연설에서 수석대표인 변장관을 통해 한국통일에 관한 기본 입장을 표방한 한국대표단이 20일 가까이 토론을 벌였어도 자유진영과 공산측 사이에 의견 접근은 고사하고 우방들 사이에도 구구한 견해가 있어서 공동제안이 성안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대표단이 구체적 방안을 꺼내야 할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당시 휴전반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국내상황을 생각할때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표욱 :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만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전에 중공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한국측 주장에 맞서 한국전 참전국마저 제각기 상충되는 방안을 들고 나서는 판에 줄곧 북한만의 총선거를 거듭 되풀이 할 수 만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하고 공산측 방안과 아울러 우방간의 의견조정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장관의 지휘와 양유찬 주미대사, 임병직 주유엔대사의 외교문제에 관한 협조아래 홍진기 당시 법무차관이 통일방안의 문안작성을 맡았습니다.

5월 15일 하오 로버트는 국무차관보와 케네디 영 국무성국장이 최종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6개항의 통일방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의 숙소를 방문합니다. 한국측은 이들에게 14개 항목으로 급히 마련된 한국통일 방안 초안을 제시했거든요. 주요골자는 북한만의 단독선거주장에서 후퇴해 가지고 유엔감시하에 남북한이 토착인구 비례에 따라 자유총선거를 실시, 통일을 성취하자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종전의 국제연합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자유선거는 이러한 선거가 종래에 가능하지 못했던 북한에서 시행하고 남한에서도 주민의 대다수가 원한다면 이를 행한다.

셋째, 선거는 본 제안이 채택된지 6개월 이내에 한다.

네째, 선거 전중후에 선거감시관계에 있는 국제연합 직원을 전 선거지구를 통해서 자유분위기의 조건을 감찰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동, 언론 등의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지방당국은 국제연합직원에게 가능한 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다섯째, 선거 전중후를 통하여 입후보자, 선거운동자 및 그들 가족은 이동, 언론 등 완전한 자유와 민주국가에 있어서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타의 인권을 전적으로 향유한다.

여섯째, 동 선거는 비밀선거와 보통 성년선거를 기본으로 하여 시행한다.

일곱째, 전 한국 입법회의의 의원선출은 전 한국인구에 정비례한

다.

여덟째, 선거지역 인구에 의한 정확한 비율에 의하여 대의원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감시하에 국세조사를 행한다.

아홉째, 전 한국 입법부는 선거직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열째, 특히 다음의 각 문제는 모두 전 한국입법부의 결정에 일임한다.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이 선거하는 여부,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여부, 군대해산문제, 이 세가지 입니다.

열한째,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 한국입법부에 의하여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열두째, 중공군은 선거 1개월 전에 완전히 철수한다.

열세째, 국제연합군의 한국으로 부터의 점차적인 철수는 선거전에 개시할 수도 있으나 통일한국 정부의 전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가 성취될 것을 국제연합이 입증하기 전에 완료되어서는 안된다.

열네째,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의 영토보존과 독립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보존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측의 변대표는 이날 저녁 델레스국무장관이 귀국한후 미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던 리더 스미스 국무차관을 방문해서 이 열네개 항목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스미스차관은 나는 이 회답에서 한국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측이 어떠한 공동제안을 가지고 회답이 결렬되어야 세계의 동정을 가장 많이 얻을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측 통일안도 그때 제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대표단이 급히 마련한 14개항의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미국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데 그게 계속된 것입니까?

한표욱 : 네. 아니죠. 사실 4월이나 5월 18일 로버트슨 차관보와 영 극동국장이 한국대표단을 방문해서 한국안에 대해 수정을 제의함으로써 미국도 이 제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버트슨과 영은 바로 제 3항의 선거실시기간을 6개월이내로 못박지 말고 『가급적 조속히』로 막연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제 2항도 『한국에서 그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여』라고 고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로버트슨과 영은 5월 20일에도 한국 대표단을 찾아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21일에는 스미스 수석 대표까지 한국대표 숙소를 방문하여 한국이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라고 자꾸만 수정한다면 미국은 14개방안 전부를 지지하고 앞으로 열릴 16개국 회의에서 다른 우방의 지지를 받도록 백방으로 주선해 주겠다하는 것입니다. 변영태 수석 대표는 정부의 허가없이 제안의 어떤 부분도 손댈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보류합니다. 사실 스미스등이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로 대처하자고 요구하는 항목은 전 한국 선거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행한다고 말한바 있는 이대통령의 방침을 고려해 만들었던 만큼 본국 정부의 훈령이 있는 다음 수정하는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열린 16개국 회의에서 변대표는 제안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스미스 수석대표가 대체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고 캐나다 대표인 피어슨 외상도 제 2항의 수락을 조건부로 찬동했습니다. 이등 영국 외상도 피어슨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그러나 중공군의 선거전 철수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개안은 한

국 제안이지 참전국 16개국을 대표하는 제안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카시아 필리핀 부통령은 16개국 공동 제안이 달성될때까지 한국 제안의 발표를 보류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국 회의는 한국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당장 표시할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더 상세히 검토하기로 하자는 피어슨 캐나다 외상의 의견에 반대하는 대표가 없어서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토록 한다는 의견이 통과된 셈입니다. 5월 22일 하오에 열린 정치회의 전체 회의에서 변대표는 14개 통일방안을 제안하는 연설을 합니다. 전체 회의 직전 서울로부터 미국등 우방이 요구하는 제 2항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로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전문지시가 도착해 연설에 이것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북진통일론과 다름없는 북한만의 총선거론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거든요. 제네바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북진통일론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셈입니다. 14개항의 통일 방안이 발표되면서 한국에서는 남북한 동시선거를 수락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대표단 소환론까지 나올 정도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남한에서의 선거를 실시토록 제안된다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중에 국회를 해산, 총 선거를 실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만 총선거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한국대표단 제안에 대해서 미국 대표단은 만족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지는 사설을 통해서 변장관이 선거전 중공철수를 주장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16개국 회의때와는 달리 전체회의에서는 이 14개항의 제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분위기가 호전된 것 같았습니다. 우방 대표들은 지지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제안이 적극성과 보편성을 띤

감이 있었고, 구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점 때문에 마치 자유진영측의 대표 제안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현희 :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공산측에서는 정치회의 초기입장을 변함없이 되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은래 : 중공의상은 전 한국위원회에 의해 실시될 선거에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한대사님 어떻습니까?

한표욱 : 네. 말씀드리지요.

한국대표단이 14개항의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후에 북한의 상 남일이 6월 5일 전체회의에서 발언했지요.

남일은 한국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특히 전 한국위원회의 대표 선출에서 남북의 인구비례에 의한 것은 현재 한국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세기 아메리카의 여러주가 병합되어 합중국을 창건했을때 각주는 인구의 상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또 스위스 칸톤은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의 발언권은 동일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북한 인구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숫자의 대의원을 내야 한다는 남일에 대해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허황된 이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38선은 미국의 주나, 스위스의 칸톤같은 국내의 정치적 구획선이 아니다, 그것은 외국세력에 의하여 무리하게 그어진 부자연한 구획선이다, 라고 반론을 펴니다.

남북을 통해 국가의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철천지 한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단일 주나 칸톤으로 되어 있는 한덩어리의 국가다, 남일의 통계숫자가 효과를 발하려면 미국의 어떤 주나 스위스의 어떤 칸톤 안에서 어떤 부

분에 사는 사람의 한표가 딴 부분에 사는 한 사람의 5,6표로 계산한 실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얼마든지 기다릴테니 이런 새 숫자를 발견하거든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변영태 대표의 이론에 자유진영 대표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는 중에 공산주의측은 한국문제에 관련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부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이 정치회의에서 시종 두드러진 쟁점으로 부각된 것의 하나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 문제입니다.

공산측은 1947년부터 한국문제를 논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해온 유엔에 대해서 그 권위와 권능을 비판하거든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측의 이 태도가 대단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킨 나라가 미국이고, 그후 계속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 임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바로 미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은 이등 영국의상 발언에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요, 이등은 유엔이 범인 취급을 당하거나 전자유인이 지지하는 유엔의 행동이 범행취급을 당하도록 하는 행동은 일체 삼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반에 가장 납득이 잘 될 자유선거를 들고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니까 유엔의 권위, 권능에 관한 주장과 함께 자유선거를 따로 강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표욱 : 네. 자유선거를 따로 떼어내는 것은 유엔감시 주장을 제쳐놓고 공산측을 만족시킬 선거감시 방안으로 기울어 질수 있게 하

는 길을 터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대표단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실시되는 선거가 유엔명의까지 빼어버리도록 권유된다면 자유선거는 자유선거가 아니라 공산조정에 의한 가짜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스미스 미국 국무성 차관, 미도 프랑스의상등은 우방들의 유엔 감시와 자유선거의 2개원칙에 대한 태도를 확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후 제네바회담에서 이 이상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유엔참전국 15개국과 한국은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회의를 종결짓는 조치를 그만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하오 3시에 열린 회의에서 남일, 주은래, 모로토프등 공산국 대표들의 연설이 끝난후 프린스완 태국대표가 16개국 공동선언문을 비감하게 낭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통일, 독립, 자유를 가져오기 위한 유엔의 이제까지의 노력에 부응하는 한편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한반도 총선거가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하는 원칙의 범위 안에서 여러가지 제안과 해결책을 시도해 보았다. 장래에 열리는 회담은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공산측은 이에 대해 비난하면서 회의속행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회의 결렬의 책임을 유엔측에 떠넘기려는 이러한 상투적인 앞은 술책이 아니겠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한국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해 4월 26일부터 시작된 제네바정치회의는 사실상 아무런 결실이 없이 막을 내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네바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유엔협정에 규정된 정치회의는 실질적으로 무산되어 가고 유엔측과 공산측이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만 막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그야말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이 잘 안되고 결렬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특히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말씀으로 남겨놓은 「외교여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매우 한국측이 선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백남운도 여기에 접근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당시 상황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4월 26일 최초 회합에서 북한대표석을 보았을 때 백남운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표욱 대사께서 그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실 테니까 또 외무부장관의 회고록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한표욱 : 네. 갈적마다 남일의 옆에 앉은 조그만 사람이 변영태장관의 인식을 촉구하는양 여러가지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통성명을 하니까 공산측 사절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계심이 번뜩 들었다는 거죠. 와서 통성명을 하는데 그가 백남운입니다. 즉 북한 정권의 교육상이고, 제네바회담의 차석대표입니다. 말은 많이 듣던 이름인데 제네바에서 처음 만난것은 의외라는 말이 자연히 나왔던 것이죠.

남북대표끼리만 따로 회의장소외의 개인 대 개인이 접촉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백남운이 변영태 외무부장관의 숙소와 전화번호를 물었다는거죠. 딱 거절하는 것도 위해서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리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당시에 제네바 정치회담, 극동평화회의,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이러

한 경향은 53년 10월에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소극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북한의 남침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력적 통일시대를 동시에 억제시키고 있었는데 54년 4월에서 6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한반도와 인도차이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우방들까지도 북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한다는 대한민국의 대표단 변영태를 중심으로 한 10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결국 국제연합 관할아래에서 남북한 동시 선거로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르라는 조건을 붙여서 국제연합 관할 아래에서 남북한 동시 선거로서 통일을 이룩한다는 내용이 골격을 이루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14개 원칙을 공식으로 제의했던 것인데 이어서 국제연합 총회가 54년 이후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평화적인 실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이해 아래 사실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도 있지만 사실은 혁신계 인물 두산 이동화선생이 초안한 진보당장령의 평화통일론을 분석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동화가 진보당을 탈당한 뒤 진보당 스스로가 채택한 평화적 통일방안, 즉 진보당 통일문제 연구원장 김기철이 작성한 평화적 통일방안 역시 나는 새로운 문제를 모두 던져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회담에 대한 말씀은 대체로 이것이 전후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희 : 오랜시간 중요한 증언을 해주신 한표욱대사님께 매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대사님의 해외생활 42년동안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다 못들은 것 같습니다. 또 종전 무렵에 있어서 한·미 관계라든지 '또 한대사님의 주미 한국대사관 시절도 모두 듣지 못한것 같고, 그밖에 초기 한·일 회담문제 이런 것도 다 듣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말씀해 주셨고, 또 정확하게 숫자, 날짜, 사실, 인명,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므로 해서 우리 초기에 있어서, 특히 1950년대 초에 있어서 6.25 남침전쟁을 전후한 그 시기부터 휴전회담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실무를 맡았고, 또 전략회의를 중간에서 주재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증언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오늘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한표욱대사님은 박사학위 논문에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독립통일 사료집을 내는데 있어서 그 증언은 어떤 다른 분의 증언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또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언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4. 학도의용군의 활동

<증언자>

- 한영환

◇ 한영환 (韓榮煥)

1. 생년월일 : 1933.5.30
2. 출생지 : 충북 진천
3. 주요경력 :
 - 연세대 국문과 졸업 ('55)
 - 연세대 교수 ('56)
 - 한양대 교수 ('65)
 - 성신여대 교수 ('69)
 - 성신여대 대학원장 ('88)
 - 성신여대 교수 ('89)

이현희 : 한선생님이 6.25가 나면서 학도의용군으로 가실때 지금 중고등학교로 보면 몇학년이시죠?

한영환 : 고등학교 3학년이고, 청주에서 다녔죠.

집에 갔다가 피난들 나가기 시작하고 인민군들이 밀려내려오니까 6.25가 터진 것으로 알았죠.

이현희 : 그래서 6.25가 언제쯤 터진 줄로 알았어요?

한영환 : 25일은 몰랐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 38선에서 잦은 충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늘 보도되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진짜다 하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젊은 사람들 피난들 나가고, 집에서도 피난간다고 해서 결국 부산까지 가게 되었죠.

이현희 : 청주서 계속 걸으면서 그때 무엇을 이용하지 못했나요?

한영환 : 이용하지 못했어요.

청주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고향 진천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도중에 부산 가기 전에 먼저 밀양, 삼랑진에서 상당히 머물렀어요.

이현희 : 그때 갈 때는 몇사람이나 같이 갔습니까?

한영환 : 그때는 많았어요. 내 고향사람들도 있었고, 몇십명이 일개 배를 지어서 남하를 했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도 몇몇이 있었고, 그런데 자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고, 또 도중에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해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은 내가 삼랑진에 갔을때 10 여명으로 줄었어요.

이현희 : 그런데 진천에서 거기까지 걸어 가신 것이예요?

한영환 : 그냥 걸어진 것이 아니라 대전 지나서 옥천 근처에서 고개를 넘어서 전라도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진안, 장수, 덕유산고개를 넘어서 함양, 산청, 진주, 마산까지 갔는데 사뭇 쫓기면서 총소리를 들으면서 갔어요.

이현희 : 중간에 우리 국군을 만나지 못했나요?

한영환 : 만났죠. 대전, 금산, 진안가는 데에서 옥천쪽으로 고개를 넘어서 금산쪽으로 넘어가서 미군 패잔병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이 아마 딴 소장이 잡혀 간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군들과 함께 걸었어요. 뒤에서는 계속 인민군들이 따라오고 결국 우리는 마산까지 걸었어요.

마산에서 모두 제각기 흩어졌죠. 다행히도 마산에 아는 사람 한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집을 찾아가서 며칠간 신세를 지다가 마산 시내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 기차를 타고 밀양으로 갔어요. 밀양에 갔을때 내 고향친구 조정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어머니하고 둘뿐이 없는데, 그가 그때 서울농업학교 6학년이었어요.

이현희 : 그당시 그분은 몇살이었습니까?

한영환 : 중학교 3학년, 열여덟. 그 친구는 나보다는 국민학교 1년 위인데 중학교부터는 같이졌어요.

그래 가지고서 밀양에서 며칠 머물다가 삼랑진으로 왔어요. 갈때마다 피난은신처라는곳이 농업창고인데, 거기서 밥한공기씩 얻어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저녁마다 수용소 수색을 해요. 젊은 사람들 강제 징집을 위해서 잡아가요. 그럴바에는 부산에 합동유엔군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자고 했죠.

이현희 : 소문을 듣고, 부산에 합동유엔군 본부같은 것이 있으니 거기 합류하자는 말씀이죠. 그때는 현지입대인가요? 그때는 어땠나요?

한영환 :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현희 : 훈련은 약식으로 하고 그냥 무장해서 일선에 보내고 그랬죠?

한영환 : 삼랑진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농업창고가 역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매일 군인들을 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일선 투입시키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그런 것을 보니까 역시 젊은 때가 돼서 그런지 우리도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나가서 싸우자, 둘이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 친구 어머니께서 울고불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서 몰래 둘이서 도망왔어요.

이현희 : 삼랑진에서 부산으로 오신거네요?

한영환 : 그래서 기차를 탔는데 표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분증도 없고, 오다가 보니까 학생증 대신에 학도호국단 수첩, 그것이 학생증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피난 오다가 기차를 탔으니까 검색이 심하고 표 조사는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사실 피난민인데 지금 학도의용군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모면을 하고 부산에 도착했으니 그때가 8월 초순인데 부산서 내려가지고서 부산역에 있는 현병, 경찰

에게 물어 보니까 가르켜 주었는데, 부산 역전에서 용두산쪽으로 바라보면 방송국 바로 밑에 일본식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절 이름이 편조사인데 절을 가르켜 주면서 저기가 학도의용군이다, 그래서 둘이 거기를 찾아 가는데 골목마다 검문검색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우리는 거기 가는 길이다. 해 가지고 모면을 하고 가서 신고를 했는데 사무실은 조그마하고 일본식의 다다미방 절인데 중은 못본 것 같고, 간판은 학도의용군 본부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이름, 학년 간단하게 적고서 합류 했어요. 8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구성원이 3학년 학생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제발로 찾아온 사람만 거기 다 있고, 거기서 일주일 남짓 생활을 했어요. 훈련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송도해수욕장, 그렇지 않으면 거기 방파제까지 구보하는 것 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먹밥 두개씩 주고 점심은 없고, 그것 먹고서 낮잠 실컷 자고, 그러다가 우리보다 먼저 일선에 간 아이들, 포항쪽 안강, 경리, 대구쪽으로 나간 아이들이 있는데 그사람들 중에 돌아온 아이들이 있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리로 왔으나 학도호국단에 대해서는 별로 제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보니까 군복에다가 학위휘장을 가슴에 달았어요. 휘장을 달았는데 가운데 태극모양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학도호국단, 이렇게 수실로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군복에 휘장을 달고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는 평상복 바지에다 노타이 셔츠착용하고 세탁을 한적이 있으나, 전부 다 거지같은 차림을 하고서 8월 중순에 우리가 수도사단으로 갔는데 120명정도 모였어요. 그때 120명씩 보내는 것 같았어요.

120명 정도 모이니깐 내일 우리가 출정한다, 오후에 시가행진이 있다, 그래서 우리 120명이 같이 대오를 짜서 시청앞에 나갔어요.

육군군악대를 앞세워 가지고 행진을 했는데 경남여고 학생들이 학위대 휘장수목을 가슴에 하나씩 달아주었어요. 20 ~ 30 명이, 그러니까 노타이 셔츠에 그것만 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편조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주먹밥 한끼씩 주니까, 수용소 것 보다는 커요. 수용소에서 얻어 먹는 것 역시 배가 고프니까 돈이 주머니에 몇푼 있던 것 그것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시계를 하나씩 차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점심은 고구마, 이런 것 사먹었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떠나는데 트럭이 여러대가 왔어요. 내가 간 곳이 수도사단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당시 전선은 포항, 경주, 영천, 대구이고, 수도사단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수도사단이라고만 알지 다 모른다고 하고, 그 당시는 뉴스를 들을수 없고, 소문밖에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가 경주쪽은 생소하고 대구쪽이 좋다 그래 가지고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서울사대 3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출발을 할려고 트럭을 타기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났어요.

아마 안 갈려고 잠시 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잡혀 왔어요.

그 안에서 매일 부르던 노래가, 밤에는 부산항구의 불빛이 찬란하고 배들이 꽉 차 있었고, 그래서 「남쪽나라 십자성은 어머니 얼굴」이라는 노래를 가장 즐겨 불렀어요. 우리가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고 보니까 울산을 거쳐서 경주쪽을 향해서 트럭에 앉아서 가는데 저녁때 쯤 경주 근처에 도착하니까 트럭이 잠시 멈추었어요.

그런곳에 차가 잠시 섰고, 그런데 포소리가 들려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저쪽에서 트럭이 오는데 보니까 사람 죽는다고 소리소리 지

256 학도의용군의 활동

르고 그래요. 부상병들을 짐짝으로 싣고서 후송을 하는데 트럭 뒤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여요.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전부 현병이고, 민간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구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포항쪽으로 가는 길은 전부 사과밭이고, 다리를 건너 안강, 포항 갈림길이 있었어요. 지금의 형산강, 거기서 내리라고 그래요. 다리 뚝 밑에 미군공병대가 있는데 다리끝 한칸이 나무로 임시 가설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저녁마다 그 다리를 끊었어요. 아침에는 연결을 해놓고. 거기서 내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 학도호국단 휘장을 단 아이들이 한때 달려와서 환영해 주고, 우리를 도로에다가 정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철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군인이 있었는데 수도사단장이라면서 우리를 맞이해서 일장 훈시를 하는 거예요.

이현희 : 그때 송요찬씨가 준장쯤 되었나요?

한영환 : 계급장은 안 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장훈시 하는데, 학생들이 조국의 위기를 처해서 정의감에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장하냐고 한참 훈시하고 있는데 포탄소리에 다 도망갔어요.

송요찬에게 젊은 학생들이 『이런 놈들이 무슨 전투를 하느냐』 하고 욕을 먹었어요. 훈시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선배들이 가마니에다 사과를 따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몇개씩 뜬에 앉아서 먹고, 소총 분해결합을 두번 시키고, M1 총을 하나씩 주었지요.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 군사교육 시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다 받았을 걸로 안겨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둡기 전에 김에 만 주먹밥을 쥘서 먹고 있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어두워져서 우리를 데리고 앞사람 뒷자락을 잡아라 하고서 고참들이 인술을 해서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대로 입을 열면 안된다고 그러고, 호를

들어가서 한참 가다보니까 예광탄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시체 썩는 냄새였죠.

이현희 : 시체는 군인이나 학도병들이죠 ?

한영환 : 그들도 있고, 인민군도 있고. 한시간 정도 밤길을 걸었는데 어떤 지점에 가서 배치를 받았어요.

산중턱쯤에 배치를 받았는데, 비가 오는데 그 차림을 하고 있니까 추웠어요. 수류탄을 두 사람 사이에 하나씩 주면서 안전편을 뽑아서 던지면 몇초내에 터진다 이려고서 첫날밤을 지냈는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해지고, 한쪽에서는 사격전이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박격포탄은 날아오고, 총소리는 기관총소리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5발에 한발씩이 예광탄이고, 기관총을 계속 쏘니까 예광탄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을 완전히 덮었는데 양쪽에서 교차하니까 긴장은 되면서도 아름답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또 잠잠해졌다가 시작했다가, 그런데 우리한테 사격하라는 얘기는 없고,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안시켰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쯤 몇차례 하고 나서 초저녁에 뜬하던 것이 새벽이 되면서 앞으로 돌격 소리가 나오니까 『만세, 만세』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민군들이 돌격해서 오는데 일제히 사격을 하는데 쓸수가 없어. 방아쇠를 당기니까 어떻게 소리가 큰지 깜짝놀라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어깨에 충격이 강하게 오고, 그렇게 왔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고 하니까, 수류탄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불빛 때문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한번 격퇴를 했고, 그날 저녁에 두차례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총 쏜것 밖에 없고 누가 맞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날이 새고 보니까 그곳이 안강 바로 뒷산인데, 매일 거기서 들이대고 있으니까 시체가 널브레하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현희 : 그럼 며칠 간이나 거기서 전투를 하셨어요?

한영환 : 우리가 그러한 것을 되풀이 했는데, 북진명령이 난 것은 9월 중순이었던것 같아요.

이현희 : 9월 중순, 그러면 인천상륙할 때입니다.

한영환 : 바로 그때입니다.

여하튼 그 전선에서 별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20일정도 거기서 했어요.

이현희 : 말하자면 계속 북진태세를 취한 모양이네요?

한영환 : 그랬던 것 같아요.

이현희 : 그 아래로 우리가 더이상 후퇴하지 않았죠?

한영환 : 시내를 빼앗긴 적도 있고, 안강도 빼앗긴 적도 있고, 그래서 밤중에 형산강을 건너서 해염처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 간적도 있었죠.

이현희 : 그런데 밤에만 그렇게 해요? 낮에는?

한영환 : 낮에는 비행기로 했죠.

이현희 : 비행기로 해서 우리가 들어갔다가 밤에는 우리가 나오고?

한영환 : 밤에는 빼앗기고, 낮에 다시 들어가서 찾고, 또 빼앗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북진을 시작하기 열흘전에 우리 옆에 3사단 17연대가 전선을 이탈하고 부대가 전부다 아래 도로로 내려가서 너희들 어데가느냐 하니까 일본간다고 해요. 그때 얼마나 유언비어가 많았나하면, 이것 다 그만두고 전부다 군인들만 일본으로 후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고요.

일본간다고 그러는데 그런가보다 하고 우리도 멀지 않아서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일주일쯤 전이었을까, 그 부대가 가고 다른 부대가 오고, 그렇게 되풀이 하면서 죽은 사람은 많이 생기고, 인민군들도 죽은것을 보니까 우리 철모 쓴 놈도 있고, 별놈 다

있고, 그들도 군복이 그저 그 모양이야. 어디가 허전해서 군복을 벗겨가지고 쓰고 그 차림에다가 철모만 벗겨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정식보급이 처음 온 것이 미제군화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연대에 소속이 됐어요. 1연대의 대대장이 한신인데, 1연대의 연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1연대에 소속이 되고 특공대대가 있었는데, 동기를 직접 통솔했어요.

이현희 : 그때는 학도호국단에 있었지만 편제상으로는 1연대에 배속된 것입니까?

한영환 :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해산돼 가지고 그렇게 학도병이 1연대에 배속이 됐죠. 그래 가지고서 한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인천상륙 소식이 들려요. 뼈라를 뿌리고 그래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7연대가 서울에 있었던 연대여서 인천상륙할 때 서울에 보내기 위해서 빼낸 모양이에요.

이현희 : 저희는 목격을 했어요.

미군이 운촌으로 해 가지고 서울로 들어 올때 해병들이 있었고, 미군이 있었고 그랬어요.

한영환 :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청송갔을 때 우리가 복진을 어디로 했는가 하면 청진으로 했어요. 안강에서 어느날 저녁때인데 밀에 도로에 다 내려 왔더니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현희 : 복진명령이었나요?

한영환 : 우리는 졸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트럭을 탔더니 경주를 거쳐서 영천까지 거치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디쯤 가다가 한 밤중에 우리를 내렸어요.

이현희 : 그동안에 전투같은 것은 없었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예요?

한영환 : 우리가 가는 길은 전부가 이쪽에서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260 학도의용군의 활동

그래서 영천을 지나서 얼마 가서 우리를 내려왔는데 거기서부터 밤새도록 큰 산을 걸었는데 날이 샅때쯤 어느 산 밑에 일렬로 매복을 시키더군요.

이현희 : 그때도 학도병은 한 백여명 규모였나요? 그때 전사자들도 나왔겠네요?

한영환 : 그때 여럿 나왔어요.

날이 새서 보니까 앞에 들이 있고, 남쪽으로 큰 동네가 보이고, 들과 가운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보니까 우마차하고 인민군이 딱 차있는 거예요. 장비니 뭐니 실고서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동네가 청송인데 날이 새면서 일제히 사격을 했어요. 그때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소, 말이 쓰러지고 짐 벗어나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요.

이현희 : 그런데 왜 그렇게 우마차로 갔을까요?

한영환 : 비행기가 다 부서났죠.

그때 거의 차는 하나도 없었고 전부다 우마차였는데, 도로에 딱 찰 정도였죠. 그래서 일제히 기습을 했는데 그때 벼들이 누렇게 익기 시작할때이지요. 그래가지고 반대 편 논 가운데로 다들 도망가고 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우마차는 전부 부서지고 죽고, 국군에게서 주는 화랑담배도 우마차에 있고, 이래 가지고서 우리는 행군을 영양으로 갔어요.

영양갔을 때가 추석인데, 영양읍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밤새 어떤 산을 넘어가지고서 어떤 부락을 새벽에 기습했는데, 보니까 인민군 일개 대대가 후퇴하다가 그 동네에서 밥을 해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기습을 했어요.

이현희 : 학도호국단이 전과를 많이 올린 셈입니다.

한영환 : 그러다가 영월로 해서 봉화, 춘양으로 갔죠.

이현희 : 그러니까 동부전선 아닙니까?

한영환 : 바닷가도 아니고, 동부의 산악지대죠.

이현희 : 태백산맥을 따라 간 것이죠?

한영환 :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봉화, 춘양을 거쳐서 영월로 갔다가 영월서 강릉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처음 바닷가를 만났는데 큰 전투는 없었어요.

이현희 : 그때 인민군들은 쫓기느라고 별로 대항을 하지 못한것 같아요.

한영환 : 그래 가지고 38선을 동쪽으로 넘었고, 그리고 고성 갔을 때 학도의용군은 정식으로 해산돼 가지고 우리가 1연대 군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급을 받았어요. 계급이 뭐냐 하면 하사급,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등병이죠.

이현희 : 학도병은 대개 일률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한영환 : 다 똑같았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사이에 죽고 다치고, 또 제각기 요령 좋은 놈들은 어디로 빠져 버리고 해서 그때 아마 숫자가 불과 3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갔고, 내 고향친구가 청송에서 죽었어요. 처음 복진하고 나갈때 죽었어요. 그리고 또 부산 학도의용군에 갔을때 나하고 청주농업중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차병대라고. 그 친구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다녔어요.

그 친구와 나는 완전히 연대 현역으로 편입이 돼서 1연대 1대대로 전부 편입이 되어 가지고 고성에서 산으로 들어가서 금강산 제 1 수력발전소, 제 2, 제 3, 제 4, 제 5 골짜기를 가면서 보니까 수력발전소 표적이 붙어 있는데 5까지 있더라구요.

그 골짜기를 갔는데 어디쯤인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골짜기를. 이틀인가를 우리가 걸어서 넘어왔는데 등성이를 넘고 보니

까 온정리,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그리 갔어요. 거기서 온정리, 금강산 발전소 골짜기를 가는데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이현희 : 그럼 금강산을 아주 빠져 나간 것이 아니죠?

한영환 : 금강산 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나가 보니까 온정리이고, 온정리 고급중학교에서 우리 부대가 묵었고, 거기서 온천목욕을 했어요.

이현희 : 아무도 없었을 텐데, 민간인들은?

한영환 : 민간인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식 여관이 초대소인데, 벽만한 김일성 초상화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다 총을 쏘가지고 박살을 내놨는데, 부대라는 것은 서로 교대를 하니까 어떤 때는 제일 앞에 나가고 어떤 때는 뒤를 따라 갔죠. 앞에만 계속 못가는 것이 쉬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피난후에 목욕을 처음 했는데 군복은 하나씩 나와서 다 갖춰졌고, 군복을 다 갖춰입는데 한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장전을 거쳐서 원산 쪽으로 가다가 신고산을 거쳐어요. 신고산은 철길에 터널이 신고산하고 맞붙어 있는데 거기에 새 탱크 4대가 열차에 실린채 가마니에 덮여서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원산쪽으로 갔는데, 다른부대가 원산서 시가전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원산서 시가전을 하는데 요란하게 보여요.

그런데 날이 새면서 우리부대 1연대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왼쪽으로 산을 넘어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현희 : 그것은 동해안쪽이 아니라 백두산쪽이죠?

한영환 : 말하자면 평양쪽이지요.

그리고 부대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높은 산인지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어두워져요. 산을 내려가다가 기습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국 전투를 했는데 사흘동안 아무것도 보급이 안 되었어요.

이현희 : 포위가 됐었나요.

한영환 : 포위가 아니라 보급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한 것이예요. 그래서 인민군하고 매치가 돼 있고 저항이 강하니까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비행기하고 연락이 돼서 비행기가 와서 우리가 내려갔어요.

이현희 : 거기서 3~4일 정도 저항, 교전하고 그랬나요?

한영환 : 교전했죠. 거기서도 죽고 다치고 한건 다반사니까. 비행기가 와서 내려 가다가 배가 고파서 허기가 쫄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기어내려 가는데, 소를 누군가가 쏘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벌레 처럼 달려 들어서 그냥 뜯어 먹었어요. 인간의 마지막 아수라장 같았어요. 나중에 민간인 소를 죽인 사람은 총살시킨다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이현희 : 전투중에 불가항력적이죠.

한영환 : 그러면서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밀고 내려 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화전민들이 일군 감자밭에서 낱것으로 감자를 먹었어요.

이현희 : 옥수수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한영환 : 옥수수는 먹을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감자를 먹었죠. 조금 더 내려가니까 배추가 있어요. 배추고 뭐고 통째로 뽑아서 씹어 먹었죠.

그렇게 하면서 마전리를 거쳐서 밤새도록 걸었죠. 먹을게 없으니까 먹이지도 않았죠.

이현희 : 그렇게 보급이 잘 안됐습니까? 굉장한 고생을 했군요.

한영환 : 내려 가다가 화전민 부락 같은데서 잤지요.

이현희 : 계속 산악지대였던 모양이죠?

한영환 : 우리야 그냥 산에서 잤죠. 그날밤 조그만 감자 3개씩 삶아서 처음 보급을 받았어요. 그건 현지에서 한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연흥으로 갔죠.

이현희 : 그러면 함경남도 아닙니까?

한영환 : 예, 그리고 우리는 원산시내를 비켜 연흥으로 해서 홍남으로 들어갔어요. 원산은 거치지 않고 함흥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홍남으로 갔죠. 홍남비료공장 굉장히 크더군요. 그 정문 로터리 앞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데 벌써 누가 머리를 떼어 놔어요.

이현희 : 선발대가 올라가면서 했을거예요.

한영환 : 그러면서 전부 복진을 했어요.

북청으로 해서 성진으로 해서 명천까지 올라갔어요. 명천 갔을때 부터는 우리가 한걸음에 갔어요.

이현희 : 그때는 저항이 강하지 않았나요?

한영환 : 강하지 않았어요. 산발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명천까지 갔다가 명천서부터 산으로 들어서 산능선을 타고 일주일을 가는데 한 번도 집에서 잠을 못자보고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냥 생쌀 씹으면서 일주일만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청진쪽 들판이 끝나는 부근으로 우리가 나갔어요. 저들판 끝에 멀리 청진 시가가 보였죠. 우리가 거친데는 길주도 있었고, 그리고 수성시내, 수성읍 뒷산에서 그날밤을 지키다가 기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대가 녹아 버렸어요. 그날밤에 한 15리를 도망하느라고 총, 배낭을 다 버렸어요.

이현희 : 그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나요.

한영환 : 그게 마지막이죠. 그때쯤 일개 대대씩 인민군이 투항해 와요. 그래서 전부다 마음을 놓고 있었겠죠. 그러다 진짜한테 걸린거죠. 우리 대대가 절반정도 희생되는 비운을 맞았죠. 그날밤은 나도 총, 배낭을 버리고서 15리를 도망갔으니까. 운이 좋았죠.

이현희 : 정말 이젠 구사일생이군요.

한영환 :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갈때 건너 갔던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에다 부상자들을 실어다 왔었는데, 다른 부대가 이제 대신 쳐들어 가고 우리가 그 다음날 날이 새서 보니까 대대가 반밖에 남지 않았죠. 부상입어서 부락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야전삽으로 곡괭이를 만들어서 얼굴을 깃 쥘어서 죽여 왔어요. 옷은 다 벗겨가지고 그 옷을 다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分辨을 못해요. 구덩이라야 눈만 봤지 그뎨 눈이 쌓여 있었으니까.

이현희 : 거기만 해도 벌써 추운지역 아니예요.

한영환 : 길주 갔을때 우리가 첫눈을 맞았는데 첫눈이란게 30cm가 옵니다.

이현희 : 굉장히 북쪽 아십니까? 얼마나 추워요.

한영환 : 그래서 죽은 사람 매장시켜주고 우리는 조그만 동네로 가서 쉬었어요. 거기서 보충을 받아 가지고 며칠 있으니까 갑자기 부대이동이 있었죠.

이현희 : 후퇴가 된거죠?

한영환 : 청진으로 해서 길주까지 갔었어요.

이현희 : 우리 부대가, 국군부대와 같은 학도의용군이 제일 북쪽까지 갔던 것이 어디냐는 것은 중요한 애긴데, 대체로 그때 느끼기에는 어느지역까지 북진했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북진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예요.

한영환 :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학도의용군이란게 없어졌죠. 현역으로 다 편입이 되었죠.

이현희 : 그때에 길주, 수성 정도니까 이틀테면 탈환한 셈이었나요?

한영환 : 그렇죠. 다 참여를 했으니까 부령까지도 갔을거예요. 그쪽으로 간 패들도 있었으니까.

266 학도의용군의 활동

이현희 :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네요?

한영환 : 그렇죠.

이현희 : 압록강쪽은 혜산진 까지 갔는데, 동북지역도 함경북도로 많이 갔었군요.

한영환 : 많이 갔었어요. 수성이 어디냐면 청진으로 직접 가는 해안가에 철도가 없어요. 내륙의 수성이란데를 가서 청진으로 철도가 있었지요. 부령, 회령으로 가는 철도가 있고 수송도 있고. 수송이 교통의 요충지 같았어요. 하루는 부대가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부대가 이동하는데 민간인을 많이 만날것이니 민간인 하고 말을 거는 사람은 총살시키겠다고 하는 명령이 있었죠. 우리는 무슨 명령이 이러냐 했죠. 우리 부대가 눈이 계속 쏟아지는데 도로에 나가니까 피난민들이 짝 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중공군이 왔다는 거예요.

이현희 :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한영환 : 우리는 처음 알았어요.

이현희 : 중공군 개입 사실을 잘 몰랐었군요?

한영환 : 몰랐어요. 그래서 길주 남쪽으로 빨리 피난을 가라, 원자탄을 쏜다고 피난민들이 그렇게 일러줘요.

이현희 : 소문이 난 모양이지요?

한영환 : 소문이 났던것 같아요.

이현희 : 원자탄 쏜다고 모두들 긴장해서 피난들 간다고 그랬겠죠.

한영환 : 그래서 길주까지 이틀 밤낮 한번도 쉬지 못했어요.

중공군한테 죽기 싫으면 따라 오라고 해도 낙오자가 생겼지요. 길주에 와서 길주 역전에 일제시대때 지은 통나무로 만든 벽이 있잖아요. 얼마나 추웠든지 그걸 뜯어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옷을 말리고는 뚜껑 없는 화물기차를 타고 성진까지 왔

어요. 성진서 며칠 있었는데 그 도중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조그만 국민학교 가운데 눈을 치워 놓고서 애들 백여명 모아놓고 젊은 여 선생이 애국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이현희 : 애처로운 정경이네요.

한영환 : 그리고 성진에 있다가 또 한번 기차를 타고서 퇴조라고 하는데를 갔어요. 퇴조에서 함흥 쪽으로 올라 갔어요. 함흥에 올라 가서 6백 몇고진데 하루종일 올라갔어요. 눈 때문에 올라 갈수가 있어야죠. 올라가서 진지를 만들고 거기서 한 일주일 있었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아래 들판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흥남, 함흥이 보이더군요. 그 앞에 배가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일주일 있다가 마지막에 이틀인가 남겨 두고서 중공군들이 따라 왔어요. 그래서 교전을 하다가 우린 어느날 첫 새벽에 철수했어요. 흥남으로 말이죠.

이현희 : 다시 포항 쪽으로 온게 아닌가요?

한영환 : 아뇨. 묵호에 갔다가 우리 1연대가 다시 속초까지 갔어요.

이현희 : 또 올라 갔어요?

한영환 : 속초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와서 삼척에 호산까지 왔어요. 다시 호산서 부터 1월 15일인가 되어 가지고 1연대 창건일 이라 나 뭐다 그랬어요. 거기서 부터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삼척 갔을때 내가 다쳤어요. 배에 박격포 파편을 맞았는데, 그때 병원에 갔죠. 죽변의 야전병원으로 갔다가 경주 18군병에, 그리고 부산의 31군병이라고 지금 부산대학 자리에 천막만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다가 제주도로 갔어요.

이현희 : 수술하신 자리 어때요? 지금.

한영환 : 자욱만 있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벌써 몇십년전 얘긴데요.

나는 그런 체험담 밖에 없어요. 체계적인걸 나는 모르니까.

이현희 :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도 좀 느끼게 됐고, 우리 학도의용군들의 반공사상이랄까 그런 것도 철저했고 또 젊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원 입대 한것 아닙니까? 그때 도망갈려면 얼마든지 도망갈수 있었겠지만, 그런 혈기에 의기를 가졌다는게 참 자랑스러운 얘기가 되고 후세에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좋은 자료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도의용군이란게 여러 기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영환 : 왜 그런가 하면 부산서 내가 학도의용군으로 나갈때 내가 몇기인지 모르겠는데 대개 120명 차면 그때 그때 부대가 요청을 하는 쪽으로 보냈던것 같애요. 배속이 우리는 수도사단으로 가서 1연대 소속이지만 3사단도 가고 영천, 대구쪽 여러군데 갔어요.

이현희 : 그때 배속되어 나간 학도의용군 숫자가 몇천명 되겠조?

한영환 : 몇천명 되죠. 그 자료가 거의 모아져 있을 거예요.

이현희 : 직접 체험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한영환 : 그 당시에 학도의용군의 간부들이 그 조직 경위야 모든걸 알테고 학도의용군을 거쳐나간 숫자도 파악하고 있을거고,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현희 : 학도의용군 동지회라든가 그런것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증언을 들어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대강 알수 있겠조.

한영환 : 그때 말예요, 이런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니까 수도사단 1연대의 학도병 중에서 일본에 가 있는 교포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온 아이들이 한패가 있었어요.

이현희 :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네요.

한영환 : 그 사람들 하기도 같이 얘기하고 지냈는데, 이제 이름도 다 있고 그때 일본 중앙대학의 2학년 다니던 경상도 사람이든가, 그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성은 이가인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나요.

이현희 : 그 사람들도 자원입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빠질려면 빠지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한영환 : 그것도 자료가 의용군인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전쟁 후에 돌아가려다가 일본정부에서 안받아 줘서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랬어요.

이현희 : 휴전후에 돌아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한영환 : 그런데 일본에서 안 받았죠. 그래서 그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안두지만 나는 실제로 생활해서 알수 있죠.

이현희 : 그럼 이정도로 하죠. 오랜시간 귀한 체험 들려주셔서 통일사 연구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 혁신계의 통일논쟁

<증언자>

- 이동화 ○ 안신규
- 안준표

◇ 이동화(李東華)

1. 생년월일 : 1907. 2.10
2. 출 생 지 : 평남 강동군
3. 주요경력 :
 - 동경제대 정치과 졸업 ('36)
 -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38)
 -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 ('41)
 - 평양민보 주필 ('45)
 - 공산주의 청산 ('50)
 - 경북대 교수 ('52)
 - 성균관대 교수 ('54)
 - 진보당 창당준비위원 ('55)
 - 동국대 교수 ('59)
 - 민족통일촉진회 최고위원('71)
 - 독립동지회 지도위원 ('81)

이현희 : 이동화 선생님은 1907년 2월 10일 평안남도 강동군 승허면 화천리에서 이달경선생, 그리고 이희경여사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나셨죠?

이동화 : 그렇죠. 내형은 일찍 죽었어요.

이현희 : 장남 관빈이라는 분이 일찌기 돌아가셔서 두산선생이 사실상 장남이 되신 것이군요? 그리고 아래로 남동생, 여동생 두분이 계시군요. 그래서 1914년 천자문을 시작해서 한학을 공부하

셨죠?

이동화 : 그렇죠. 처음에 서당에서 한문을 읽었지요. 조금 뒤부터는 가정교사 밑에서 한학을 공부했죠.

이현희 : 1920년까지 맹자, 사서삼경을 다 떼셨군요.

이동화 : 4서3경을 다 떼지 못하고 맹자까지는 내가 읽었어요. 맹자까지 읽고 그리고 내가 14살 응근 나이로 12살때 처음 학교를 갔거든. 평양가서 맹자까지 읽고서 평양가서 기독교 계통의 숭덕학교에 4학년으로 들어갔어요. 4학년 한해를 보내고 그 다음해 광성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3.1운동때는 참가를 하셨습니까?

이동화 : 나는 어렸으니까 참가할 나이가 아니지만 평양서 독립만세 불렀다고 하는 소식이 우리 농촌에 전해졌을 때 아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독립만세를 부른 사실은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현희 : 1919년 3월 4일, 3.1 만세운동 때에 향리에서. 그때는 12살, 13살이시니까.

이동화 : 내가 만으로는 12살 이렇게 되지.

이현희 : 13살쯤!

이동화 : 13살이었을 거예요. 13살 초여름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현희 : 그래 가지고 그다음해 4월에 평양숭덕학교 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해 21년 4월 중순에 평양광성고등 보통학교에 1학년에 입학하셨죠? 그리고 23년 민족지도자들의 강의를 들으시고 애국심을 키우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셨나요?

이동화 : 사실은 그때가 처음도 아니고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보다도 앞서서지요. 왜그러냐 하면 내 가정

교사로 있었던 친척 박동화라고 하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마찬가지로입니다. 내 친척 형뻘 되는 분이거든. 박동화선생이 가정교사로 있어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박동화선생이라고 하게 되면 당시로서는 선각자라고 할수있는 분인데 왜그러냐 하면 일찍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와세다대학 강의록을 읽고 그러셨지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일찍 들어가서 기독교의 독실한 신도로 되어있고 일본말을 잘 배우셔 가지고 일본 와세다대학의 강의록을 읽으셨거든. 또, 일본말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산술같은 것도 언제 배우셨는지 잘하셨고, 그래서 내가 박동화선생 한테 한학, 맹자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산술도 학교가기전 몇달전에 배워가지고 갔어요. 송덕보통학교 4학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 그리고 선생님 지금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동화 : 어렸을 때 가정교사인 박동화선생이 독실한 기독교 신도고 또 어머니도 후에는 기독교 신도로 되셨고 아버지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기독교에 입문을 했지. 학교가기전에 교회당에 나갔습니다.

이현희 : 성경공부도 하셨구요?

이동화 : 성경공부도 했죠. 일요학교 어린이들을 내가 직접 지도하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적어도 일요일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죠.

이현희 : 그런데 요즘도 교회를 가십니까?

이동화 : 기독교하고는 인연이 멀어졌지요. 그리고 송덕보통학교, 기독교학교를 4학년 다니다가 또 다시 기독교학교인 광성고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성고보에 들어가서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 매일 아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설교가 있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광성고보 4학년때……

이현희 : 4학년 수료하신거죠 ?

이동화 : 4학년 수료했어요.

이현희 : 그리고 일본에 가신 것 아닙니까 ?

이동화 : 광성고보 4학년을 마치고 일본에 전학을 해서 갔지요.

이현희 : 그것이 25년 3월달이죠 ?

이동화 : 아마 그럴 것입니다. 광성고보 4학년 1학기에 내가 사실은 낙막염을 앓았어요. 뒤에 폐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도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 1학기를 하루도 나가지 못하고서 병으로 쉬었어요. 그리고 2학기때 학교에 나가서 2학기과 3학기를 했는데, 그러나 2학기, 3학기성적이 좋다고 해서 진급은 되게 되었거든. 5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광성고보선생으로 와서 있었던 같은 고향출신, 후에는 친일파 거두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우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같은 고향선배인데 그이가 서울공업전문을 졸업하고서 평양에 와서 광성고보의 선생을 1년동안 하신일이 있거든. 나와 같은 고향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때 사랑을 받고 그런 분인데, 그이가 광성고보 1년 교원생활을 하신 뒤에 구주대학으로 갔어요.

공업전문대학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주대학 공과에 가서 구주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구주대학을 졸업하시는 해에 내가 광성고보 4학년을 마치게 되었거든. 말하자면 그이가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 더우기 일본 고등학교를 들어가자고 하게 되면 광성고보를 그대로 다니는 것보다는 일본에 가서 하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이가 권고를 해서, 권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선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광성고보 4 학년을 마치고서 구마모도 현립중학교로 전학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 그게 세이세이쵸 중학교죠?

이동화 : 그렇지. 세이세이쵸 중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현립중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현희 : 4 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것이죠?

이동화 : 4 학년으로. 광성고보 4 학년을 마친 셈이지만 그때 조선의 고등학교라는 것이 일본 현립중학에 비하면 과정의 수준이 1 년은 뒤지고 있어요. 그것을 뒤에 확인을 한 이유는 4 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쪽 4 학년에서 배우는 것이 가령 수학을 우리가 광성고보 4 학년 때에 마친 그것을 3 학년 때 마치고 4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성고보 보다 수학과목을 가지고 봐도 1 년은 거기서 앞서고 있었거든. 사실은 내가 전학을 갈때 나하고 같은 때에 김대우선생의 경성공업전문 동창인 분이 정주 오산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고 계셨거든. 오산교 교감을 하고 계셨어요. 그의 동생이 오산고 4 학년을 마치고 나와 같은때에 구마모도로 전학을 갔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진양근의 형되는, 지금 오산학교 교감으로 있는 분이 김대우선생하고 경성공업전문 동창이거든. 그러니까 김대우선생에게, 진양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동생을 일본으로 전학을 시켜달라고 해서 김대우선생이 주선하여 내가 전학해간 구마모도 현립중학, 같은 학교에 진양근군을 같이 전학을 시켜주도록 주선을 하셨거든요.

이현희 : 그래서 김대우선생이 애를 많이써서 주선을 했네요?

이동화 : 그렇죠. 나를 친동생처럼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니까. 지금 진양근에 관한 것은 백씨 영근선생하고 김대우선생이

동창분으로 해서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나는 같은 고향인데
광성고보에서 직접 김대우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왔고 그러니까요.

이현희 : 그래가지고 26년 3월 하순에 세이세이꼬 중학교 4학년을 마치시고 4월에는 야마구찌 고등학교 이과 갑류에 입학하셨군요?

그래가지고 1928년 4월 문과갑류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사회주의 계통의 문헌을 많이 보셨군요?

이동화 :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때에는 일본 학생층에서 맑스주의가 크게 퍼지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걸쳐서 고등학교만 해도 독서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고등학교나 있었어요. 그 독서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감각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과학이라고. 해도 맑스주의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이현희 : 맑스주의 연구가 역시 골격을 이루죠?

이동화 : 그렇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독서회라고 하게 되면 주로 맑스주의를 연구하는 것인데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는 맑스주의 연구도 시작을 할 때이지만 무정부주의 연구가, 일본에서는 무정부주의가 맑스주의보다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

이현희 : 무정부주의 사상은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이동화 : 맑스주의보다 먼저 들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겠지.

일본 맑스주의 계통의 지도자로 있었던 이름있는 분 중에는 야마꼬와 히토시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교씨라고 그이도 사실 명치시대에도 무정부주의부터 시작을 했던 분입니다. 그이 뿐만도 아닙니다. 동경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후

에는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학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그랬던 분으로, 후에는 그러면서도 문교부장관까지 지낸 분이 모리도 다쳐오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는데 모리도 다쳐오 선생도 사실 무정부주의자로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후에는 맑스주의로 전환을 한 분입니다.

이현희 : 그럼 역시 무정부주의가 먼저고 그다음에 맑시즘이네요 ?

이동화 : 그렇지. 일본의 사회사상이 들어올 때에는 무정부주의가 먼저 들어왔어요. 내가 고등학교 들어 갔을 그때에는 무정부주의 관계서적이 맑스주의 서적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때 무정부주의 계통의 잡지라고 하게 되면 「해방」이라고 하는 잡지, 무정부주의 계통의 잡지, 그것이 나와서 책방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회사상만의 잡지를 읽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맑스주의 계통에서 잡지가 아니라 그때는 맑스주의 계통의 잡지는 나오고 있지도 않았거든. 「해방」이라고 하는 잡지를 먼저 사다 읽었어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내놓은 잡지인데.

이현희 : 그러면 그때 사회주의 계통으로서 유명한 ………

이동화 : 그러니까 해방을 읽고 사회사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죠.

이현희 : 누가 권유를 해서 읽지는 않았습니까 ?

이동화 : 난 이과 잡류에 들어갔는데 하숙을 할 때 야마구찌사에서 한 오리 떨어져 있는 농촌에 하숙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같은 하숙에, 몇해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름도 다들 잊어 버렸는데 국회사무총장을 지낸일이 있고 또 고대교수를 해방전에 하고 있었던 최정우라고 하는 영문학자가 있어요. 최정우군이 나보다 고등학교는 1년 앞서는데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 아닌가 하는데, 최정우군이 지금 얘기하는 야마구찌사에서 한 오리 떨어져

있는 아사쿠라라고 하는 농촌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하숙에 나도 같이 가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최정우군은 고등학교를 나보다 1년 먼저 들어 왔으니까 독서회에 관계를 하게 되어 가지고 최정우군이 좌익관계 서적을 가져 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처럼 해방이라는 잡지를 책방에서 구해다가 읽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나보다 앞서서 최정우군은 좌익계통 서적을 먼저 읽기를 시작을 하고 있었고 해방이라고 하는 잡지를 나보다 먼저 읽기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같은 하숙에서 읽기 시작한 직후의 일입니다.

하루는 빨간 표지에 팜프렛을 하나 가져다 주면서 자네 이것을 읽어 보게, 그래서 보니까 제목이 「자본주의의 가라구리」라고 하는것입니다. 가라구리 라고 하는 일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말로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현희 : 자본주의 가라구리?

이동화 : 자본주의, 말하자면 계급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자본주의의 말하자면 착취기구라고 할까 하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의 비리에 대한 간단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것인가 하게 되면 일본의 유명한 아까 얘기한 원래 무정부주의로 출발을 해가지고 맑스주의로 옮겨갔던 야마카와 히토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야마카와 히토시가 시온슈기노 가라구리 라고 하는 이런 팜프렛, 빨간 표지로 됐습니다. 그것을 최정우군이 가져다 주면서 읽어 보라고 그래서 읽어 보게되었어요. 맑스주의 관계의 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정부주의 관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방이라고 하는 잡지도 읽기 시작했고 그랬었죠. 맑스주의 관계서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일 먼저 내가 읽기 시작을 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슈기 가라구리 라고 하는것을 가져다 읽어 보라고 그래서 좀 읽어 보았지. 읽어 보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충분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어렴풋이 짐작을 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지요. 사회와 과학관계의 용어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중학교 갓 나온 내가 과거에 읽어 본 일도 없고 사회과학관계 술어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열심히 읽어 보았어요. 읽어보니까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가 있었어요.

요컨대 자본주의를 비판한 서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비판을 한 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야마카와씨가 전개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해할 예비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읽고 나서 그 뒤에는 책방에 좌익서적이 홍수처럼 밀려 나왔습니다.

야마구찌씨는 비록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는 학교가 고등학교도 있고 전문학교, 고등상업도 있고 작은 도시지만 학생들이 많이 있는 도시거든. 그러니까 책방에 좌익서적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책방에 들러 가지고 좌익서적도 보고 또 때로는 사다가 읽기도 했죠. 그때 사다가 읽은 책중에서 처음에 나왔던 책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유물사관이라고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조금뒤에는 사회사상 연구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맑스주의 서적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사회사상 전체를 망라한 것이라고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회사상 전집이라고 있고, 그 조금 뒤에는 맑스주의 전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 했어요. 맑스 엥겔스 전집이라고.

이현희 : 그것은 또 그때 일본말로 번역된 것입니까?

이동화 : 일본말로 번역한 것이지. 그때 그 당시에 번역으로 나오

지 않았던 것을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일부러 번역을 해가지고 30본 가까이 되는 막스 엥겔스 전집을 개조사에서 출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상관계의 서적을 읽기는 불편하지 않았고 책방에 매일 번역물만 해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 번역물 뿐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가 1학년때부터는 전문대학 책방에 독일서 들어온 좌익서적 원서가 있었지요.

이현희 : 그것은 완전히 독일어로 된 것이죠?

이동화 :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때는 전문이나 아까 얘기한 책방에는 독일어 원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빨간 표지로 된 것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맑스주의의 총서라고 하는 것인데 빨간표지의 총서로 나온 것, 그것도 그대로 들어있고 그리고 독일 공산당의 기관지 「적기」라고 하는 것이 독일말로 「로테파네」라고 하는데 이 책이 그때 책방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현희 : 그것은 몇십종류 몇백종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동화 : 그때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때 잡류를 했는데 독일 말은 졸업할때 책을 읽을 정도로 되지 않아도 좀 했지요. 잡류에서 독일 문화를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동경대학에 들어가서 독일말 원서를 읽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잘읽기가 어려워요. 을류한 동창들은 동경대학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이들이니까 을류한 이들은 독일어 맑스주의 원전을 읽어내요.

이현희 : 독일어 실력이 좋았네요.

이동화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을류에서는 독일어만 해도 매주 12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자고 하게 되면 어학시험이 중요하니까 을류에서는 독일말 공부를 많이 하거든. 그들 중 동경대학 들어온 학생들은 독일어 원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잡류에서 제일 잘 한다고 자부했지만 읽기가 어려

워요. 그럴 수 밖에 없었죠. 우리 잡류에서는 한주일에 독일말을 4시간 밖에 안했는데 을류한 놈들은 12시간 이상을 했으니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동경대학 들어간 뒤에 독일어 공부를 좀더 했습니다.

이현희 : 도쿄 제국대학 법문학부 정치학과에 입학한 것이 1929년 3월 하순, 야마구찌 고등학교 문과 잡류를 졸업하고 거기에 입학하신 후 독서회 가입을 해서 맑시즘 문헌들을 많이 읽어 보신 것 아닙니까?

이동화 : 동창들끼리 같이 연구를 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책방에서 맑스의 관제서적들을 사다가 원서고 번역된 것이고 간에 많이 사다가 읽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현희 : 야마구찌는 규슈인데요?

이동화 : 야마구찌는 규슈가 아니지. 야마구찌는 일본본토지. 야마구찌는 시모노세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구마모도가 규슈죠.

이현희 : 야마구찌는 동경시내에 있습니까?

이동화 : 야마구찌는 서부 일본이지. 한국에서 건너가면 제일 처음 배가 닿는 항구가 시모노세끼 아닙니까? 시모노세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일본해쪽으로 조금 더 남쪽으로 올라가는 철도가 아니라 동부쪽으로 올라가는 철도 조금 들어가게 되면 야마구찌시가 되거든요.

이현희 : 야마구찌에서 도쿄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동화 : 떨어져 있지요. 그때 신간선은 없었지요. 그때는 철도는 일본 북부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철도가 있는데 시모노세끼에서 세서나이까이로 올라가는 철도가 본선 아닙니까? 야마구찌로 가자고 하게 되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모노세끼쪽으로 조금 나가가지고 다시 동경가는 철도를 타고서 가죠.

이현희 : 그러셨군요. 그럼 동경대학 다니실 때에는 하숙을 하셨는지, 기숙사에 계셨는지요?

이동화 : 동경대학은 기숙사는 없었고 모두 하숙생활을 했습니다. 나도 하숙생활을 했지요.

이현희 : 그때 동경대학에 우리 한국인 학생은 몇명 안됐지요?

이동화 : 12명인가 13명인가, 11 학부를 전부 합쳐가지고.

이현희 : 그럼 한국사람의 입학은 억제한 것입니까?

이동화 : 억제한 것은 아니지요. 그때는 들어가기 어렵지요. 실력이 좋아야 되지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동경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전문학교 나와가지고도 안됩니다. 우선 입학할 자격이 없거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입학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첫째 어렵게 됐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동경대학을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시 고등학교 졸업장의 대다수는 경도, 구찌로 가고 동부로 가고 그리고 졸업생 중에 제일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경대학으로 왔으니까.

이현희 : 그때 선생님 정치학과에 입학하실 때는 한국학생들은 몇 없었지요?

이동화 : 법학부가 제일 많은 편인데, 그러나 동경대학 여러 학부를 전부 합쳐 가지고 한국학생들이 12명 내지 13명 밖에 없었으니까 법학부에 제일 많이 있었지만은 4~5명밖에 없었어요.

이현희 : 그때 선생님이 기억하시기로 어떤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이동화 : 지금 변호사하는 노영민, 그리고 영남대학 총장을 했고 서울대학에서도 교수로 했고 서울대 상과대학에서 학장을 했던 이인기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그 외에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현희 : 그때 공부하시다가 29년 겨울에 폐결핵 때문에 휴학을 하셔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군요?

이동화 :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있으니깐 답답하고 그래서 또 빠른 치료법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동경을 다시 갔다가 동경에 한 반년 있어 보았지만, 도저히 동경에서는 치료가 어렵게 됐다고 한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한 5년 병상에서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때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현희 : 그때는 특효약이 없었군요?

이동화 : 요즘에야 특효약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때는 특효약이 없었지. 자연요법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안정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영양물을 섭취 하는 것, 약 대신에 영양물을 섭취한다고 하는 것이 둘째 요소이고, 세째 요소로서 공기가 좋아야 한다, 좋은 공기를 마신다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현희 : 그때 선생님 고향이 바닷가 였습니까?

이동화 : 바닷가가 아니지. 대동강 상류에서 멀지 않지만 5년동안 누워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닷가 강가에서가 아니라 농촌집에서 집한채를 내가 점령을 하고서 말하자면 5년동안을 누워서 산셈이지.

이현희 : 5년동안 투병하시면서 책도 읽고 하셨겠죠?

이동화 : 누워서 사는데 열이 나는 동안에는 책을 읽어서는 좋지 않거든. 도리어 열을 올리는 역효과를 내니까. 열이 나는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10시에서 오후 5~6시 시간까지가 열나는 시간입니다. 미열이 나는 경우 일체 책은 읽지 않아요. 안정만 하고 열

나지 않을 때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일어나 앉아서 읽으면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해서 좋지 않거든. 그래서 그 당시 폐를 앓는 사람이 독서를 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자연영사에서 특별히 고안한 방법이 있었어요. 누워서 책을 읽게하는 서경대라고 하는 것을 사다가 책을 펼쳐가지고 누워 읽을 수 있었지요. 그것과 동시에 등의자로, 밤낮 누워있는 것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불결합니다. 그러니까 요양 생활하는 사람은 등으로 만든 전용의 등의자가 있어요.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등의자를 일본서 주문을 해다가 그것과 같이 서경대를 같이 주문을 해서 등의자 한켠 옆에다 식료 만든 서경대를 고정시켜 놓아 책을 펼쳐서 고정할 수 있게끔 하였지요. 그러면 한장한장 뒤집어서 읽는데 별 불편 없습니다.

이현희 : 그 당시에는 어떤 책들을 주로 보셨습니까? 탐시즘관계서적입니까?

이동화 : 탐시즘관계도 적지 않게 읽었구요, 철학관계의 책도 읽었어요.

이현희 : 선생님의 전공이 정치학입니까, 국제정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입니까?

이동화 : 국제정치를 주로 학생 때는 할려고 했지요.

이현희 : 외국원서도 보실 수 있었네요?

이동화 : 그때 노어원서를 읽었죠.

이현희 : 선생님, 러시아 말도 하시죠?

이동화 : 노어책을 비교적 잘 읽습니다.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면 동경대학 동창인데, 경도 제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대학 불문과에 있었던 개성출신의 조재홍이라는 동창이 있었어요. 조재홍은 나보다 동경대학을 1년 먼저 들어갔고 조군 역시 좌익계통의 학생이 되어 가지고 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거든.

조군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에 형무소 안에서 노어를 배워가지고 나왔어. 노어를 자습을 했지. 1년동안 형무소 안에서 노어를 자습해 가지고 책을 읽게 되어서 나왔거든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

영어와 불어를 하고 자습을 해가지고 독일말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구라파말을 한두가지 잘 하게 되면 노어 배우긴 쉽습니다. 특히 독일말을 하게 되면 노어는 쉽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숙에 있을때 내가 동경에 다시 가기전에 오래간만에 조군이 찾아 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징역살이를 하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특별히 했다고 할 것은 없지만 노어를 배워가지고 나왔노라고 했어요.

이현희 : 그래서 그분한테 노어를 배우셨군요.

이동화 : 사실은 조군의 그 조언에 따라 내가 노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해가는 면에서도 필요하기도 하니까 이 기회에 노어를 배워두게,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조군이 하는 말이 자네 독일말 공부했지 라고 해서 내가 갑류에서는 내가 독일말 잘하는 편이었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독일말을 하면 노어 배우기가 쉽네, 빨리 시작을 하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 간일이 있어요. 그래서 동경서 고향 돌아오기 전에 노어공부를 했지요. 며칠후 마루장에서 노어자습관계의 책을 찾아 보니까 특별한 책이 없는데 노어 3개월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온 엷은 책 두권으로 된 것이 있었어요. 러시아인 흐리먼스 3개월 노어라는 두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구해서 하숙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숙에서 노어 3개월을 한달이나 한달 반쯤 지나서 통달하게 되었어요. 부지런히 읽었으니까. 조군이 얘기한 것처럼 독어하는 사람이 쉽고 한 것이 사실이죠. 나는 갑류에서 독일어를 잘한편이었고 하니

까 노어공부도 쉽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현희 : 노어하셔가지고 노어원전 많이 읽어 보셨지요?

이동화 : 그런 뒤에 일본에서 노어 4주간이라고 하는 자습서가 나왔어요. 노어 3개월보다 내용이 낫다고 할것도 없지만 어쨌든 노어 4주간을 사다가 학습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역시 노어를 읽어 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 비슷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갈때 노어원서를 몇가지 사가지고 갔어요. 가령 레닌제국주의론이라든가, 불렉까나프의 예술론이라든가.

이현희 : 정치나 철학, 예술관계의 책을 보셨겠죠?

이동화 : 불렉까나프의 예술론은 노어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읽기 시작했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이론적인 공부에 도움이 돼서 읽어봤지만 그것은 사가지고 가서 읽었죠. 그러고 나니까 노어원서를 읽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일본 동경 칸잔에 나후가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출판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스크바 출판사 특약점 비슷한 곳이죠.

이현희 : 그것을 병상에서 쪽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동화 : 그 얼마후에는 그 유명한 레닌 전집 6권을 동경에서 빌려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일부 읽어 보기도 했죠.

레닌의 맑스주의라고 하는 제목에 레닌자신이 썼던 레닌 전집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맑스자본론 모스크판에도 전집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맑스주의라고 하는 제목에 그것은 하나의 논문이니까 불량이 많지 않은 것이지. 그런 것도 논문으로서 읽어본일이 있고 읽으면서 정확히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현희 : 그래서 그후 1936년 3월 하순에 동경대학 정치과를 졸업하시고서 가을에 귀국하셨죠?

이동화 : 한학기는 동경서 있다가 계속있어 봐도 별 것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현희 : 그당시에 동경대학 정치과에 다니실 때에 4년만에 졸업을 하셨죠? 그러니까 투병생활까지 한것을 하면 7년이죠? 그때 특히 영향을 받은 교수가 있습니까?

이동화 : 그러니까 동경대학에 들어가서 1년을 하고서 그 다음해에 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동경에 가서 반년 동경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만 4년 투병생활을 했죠. 4년을 누워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회복이 되어서 동경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는 일본의 국내정세, 동경대학 내부정세도 크게 달라졌죠. 우리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는 좌익학생들이 매일같이 대학안에서 지금 여기서 처럼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서 데모들을 하거든요.

이현희 : 좌익계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동화 : 상당히 많았죠. 많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전 고등학교 마다 독서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독서회에 관계했던 학생들만 해도 대부분 우수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회관계자로서 구주나 동국간 놈보다는 동경대학간 사람들이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우수한 사람들이 독서회에 모여있었으니까.

이현희 : 독서회가 우수하지 않으면 활러고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동화 : 사실은 우수하지 않으면 독서회에 들어와서 맑스주의를 연구해도 따라갈 수도 없고 별 흥미도 느낄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 독서회 멤버라고 하면 대체로 우수한 사람들이죠. 동경대학 들어온 뒤에 동경 독서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독서회를 하기전에 앞서서 신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차대전이 일어날 때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신회라고 하는 것이

동경대학의 진보적인 학생회 단체인데 신회를 시도한 책임교수가 요세로 사꾸조라고 하는 정치학자, 일본의 진보적인 정치학자였습니다. 요세로 사꾸조 선생이 신회를 직접 지도하셨거든요. 요세로 사꾸조 선생의 지도밑에 신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보적인 학생들의 사상단체입니다.

이현희 : 선생님이 거기에 가입을 하셨나요?

이동화 : 내가 들어갔을 때는 신회는 고등학교 독서회 관계자들이 신회에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들어가지 않았죠. 고등학교는 별도로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이전에는 신회로 돼 있었으니까 진보적인 학생단체는 신회가 대표로 돼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신회는 말하자면 고등학교별로 돼 있었던 학생들이 동경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지도하는 역할을 신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접 신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신회를 요세로 사꾸조선생이 지도를 하고 있었고 일본의 유명한 민주주의 정치학자로서 알려진 일본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지도자는 동경대학을 거쳐나온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신회계통이거든요.

요세로 사꾸조 지도밑에서 신회에 관여하면서 진보적인 사상을 연구하고 나간 젊은이들이 말하자면 일본 노동운동에 참가하고 사회운동에 참가를 했어요. 그때까지 일본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지도자의 중요한 부분이 동경대학 출신인데 그 동경대학 출신 중요한 부분이 신회 계통에서 나온거죠.

이현희 : 그 중에서 신인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핵심인물 이네요.

이동화 : 그렇지. 그것은 아마 명치말년경쯤, 대정년대쯤 그랬을 것

이예요.

이현희 : 선생님도 그분한테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동화 : 물론 요세로 사꾸조선생은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정치사 강의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강의를 들었죠.

제일 앞에 앉게 되면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서 요세로 사꾸조선생 강의를 들었죠.

이현희 : 그때 한국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무슨 차별같은 것을 받았나요? 식민지학생이라 해서.

이동화 : 일본애들하고 구별? 구별은 별로 없죠. 같은 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학생의 단체로서 한국학생의 친목제 비슷한 것이 있었고.

이현희 : 한국인 학생들로서 모임은 어떤 명칭을 띠었나요?

이동화 : 우리들 좌익계통의 독서회는 있었어요. 한국학생만의 독서회가 있었죠. 우리 한국학생만의 독서회도 있었고, 또 일본 애들하고 같이 하는 고등학교별 독서회도 있었는데 나는 양쪽 다 참가하고 있었죠. 고등학교별 독서회는 일본 애들하고 같이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수도 고등학교별 독서회가 더 많았죠. 한국학생 독서회는 역시 진보적인 한국학생만의 모임이니까 한국학생들 전부가 아니지. 전부 합쳐도 많지 않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만이 모이니까 많지 않지. 그래서 우리 한국인 학생의 독서회는 몇명 되지 않았고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하는 고등학교별 독서회는 그 수가 많았죠.

이현희 : 동경제국대학을 나오신 이후에 귀국하셔서 몽양 여운형 선생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동화 :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반년후에 고향을 가서 고향에 잠깐 있다가 졸업한 다음해 봄에 서울에 올라왔죠. 그때가

지고 몽양선생을 처음 본 것이 다음해 봄입니다.

이현희 : 37년경 아마 만나신 모양이군요?

이동화 : 초여름경에 같은 평안도 고향출신인 임정식이 좌익에 관계를 했었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지. 임정식군은 같은 동향일뿐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학교는 난 광성고보를 다녔고 임군은 평양고보를 다녔지만 그러나 하숙이 근처에 있고 그래서 고등보통학교 초여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이죠. 임정식군을 만나서 내가 초여름에 서울에 다시 올라 왔습니다. 임정식군이 『오늘 강연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 보세』 그래서 임군을 만나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조선일보사로 갔어요.

이현희 : 그때 조선일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화문 ……

이동화 : 조선일보는 지금 거기가 아닌가 합니다. 제일 우측이 강당인데 거기에서 강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강연이냐 하면 시인 모윤숙, 노천명이라고 하는 여류시인의 강연이었죠. 모윤숙, 노천명 이런 분들이 강연을 하니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조선일보사에 갔거든요. 가서 강연장인 우측 강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당앞에 발코니인가 하는데 몇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임군이 안내를 해서 몽양선생 앞으로 가서 임군이 소개를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몽양선생을 처음 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여운형선생은 내가 고등학교 학생때부터 잘 아는 사이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게 되면 우남선생님의 처가가 평양인데 우남선생의 장인이 내 아버지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남선생 부부가 내 아버지를 잘 알죠. 그런 관계로 해서 내가 대학생시절부터 우남선생을 잘 알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생각해 보니 우남선생이 몽양선생에게 내 얘기를 하신일이 있지 않았

는가해요. 왜 그렇게 느꼈느냐 하면 임정식군의 소개로 해서 인사를 드렸더니 내 이름을 듣고서 잘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본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본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지만 역시 우남선생에게 얘기를 들으셨나 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이 그렇지 않았던가 생각이 됩니다.

이현희 : 그때 몽양 여운형선생은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 아십니까?

이동화 : 그때 신문이 휴간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놈들이 강제로 손기정마라톤 일장기 마크 문제로 해서.

이현희 :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

이동화 : 조선중앙일보도 정간강제조치로 정간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동아일보도 정간이 되고 조선일보도 정간이 됐죠. 그런데 다른 신문들은 그 뒤에 나오게 되었지만 중앙일보는 나올 수 없게 되어서 아주 없어지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사에서 몽양선생을 보았다고 했을 때는 신문이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현희 : 이미 폐간, 정간된 이후죠?

이동화 : 다른 신문도 나오기 전이니까 무슨 완전한 폐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신문이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지.

이현희 : 그래가지고 그후 송진우선생택에서 자주 모여서 무슨 토론을 하고 그랬었죠?

이동화 : 몽양선생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죠. 고태선생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몽양선생하고는 관계가 없이 내가 처음에 한때 신문사로 갈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같은 고향인 현상효선생의 소개로 동아일보에 좀 있었어요.

이현희 :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시고 귀국한 뒤입니까?

이동화 : 대학을 졸업하고서 고향을 거쳐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직후 얘기죠. 현상효선생은 같은 평안도 출신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그의 아들, 그때 서울법전을 졸업을 하고서 동경에 가서 중앙대학을 다니던 아들, 그 아들은 일찍 죽어 버렸어요. 죽어버렸지만 중앙대법학과를 다니고 있던 관계로 해서 현상효선생을 찾아 보고 알게 되었던 것이지. 현상효선생 소개로 해서 동아일보에 들어가도록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 그런 관계로 해서 고하선생을 내가 찾아 보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현희 : 그때 고하가 동아일보 사장을 했던가요?

이동화 : 동아일보 사장을 하다가, 그때 중앙중학있는 골목 계동에 고하택이 있었거든. 그때는 신문이 나오지 못하고 휴간으로 있을 때니까 고하선생 사랑을 찾아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모여 있었고 그랬어요. 김정연선배도 거기에 와 있었고 장덕수선생도 거기에 와 있었고 그일 그계통에 여러분이 와 있어서 고하선생 사랑을 찾아가면 볼 수가 있었고, 고하선생은 본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예요. 후배들을 앞에 놓고서는 말하자면 혼자 떠벌리는 식으로 ...

이현희 : 좀 열변스타일인 모양이죠?

이동화 : 열심히 혼자 떠벌리는 식이죠. 그러다가는 난 그때 재관계류중인데, 고하선생이 『노형은 어떻게 생각하죠?』라고 묻죠. 그러면 대선배가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역시 장단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서 『웁습니다』 그러면 더 열을 내셔서 떠들어 대시고는 그랬거든. 그런데 그것은 고하의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도 고하하고 성격이 다른 낭산 김준연씨는 떠들지 않아요.

동경대학 내 직접선배아닙니까? 고하선생이 혼자 떠들어대면 떠

들어 대시는 것이 반드시 위치에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 때때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도 하시거든. 그렇다고해서 반대라도 못하니까 김준연선생이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들으시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도리어 더욱더 웃으시거든요.

이현희 : 웃음으로 부정을 하신 셈인데 김준연선생과 송진우선생은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송진호선생이 조금 위죠?

이동화 : 조금 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희 : 그리고 38년 1월에 중앙불교전문학교, 뒤에 해화전문학교로 발전을 했는데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정치학 교수로 취임하셨는데, 그때가 처음 교단에 서신 것이 아닙니까?

이동화 : 처음이죠. 그때 불교전문에 어떻게 관계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얘기도 했지만 평양광성고보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셨고 후에 일본의 구주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시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해서 내가 구마모도 현립중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김대우선생의 소개로 해서 불교전문에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우선생님이 총독부의 사회교육과장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대우선생은 광성고보 내가 어린학생일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해서 자기가 소개를 할테니 나더러 학교라도 가봐라고 해요. 처음에는 관청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내가 못들어가겠다고 했죠. 관청으로 들어가려면 물론 고등문과시험을 치지 않고 들어가서는 곤란하겠지만 한 1년 관청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키지 않고 공부만 하게 해 줄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관청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을 못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는 수 없이

학교라도 가겠냐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실 신문사에 나갈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동아일보에 갈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학교라도 가겠느냐고 그랬죠. 사실은 그 뒤 사실대로 얘기하면 동아일보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서 김대우선생이 언론기관으로 꼭 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조선일보에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조선일보에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거절을 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왜그러냐하면 조선일보에서 거절한 사람들이 내가 동아일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 하면 박모씨의 조카 무슨 현인가 하는 조선대학 출신이 있었어요. 조선일보의 간부로 있었는데 그 조카가 나하고 구마모도 중학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와서 동아일보에 들어갈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안도 출신인 놈이 조선일보에 들어온다고는 하지 않고 동아일보에 들어갈려고 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김대우선생이 소개를 했는데도 이유를 붙여가지고 사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라도 가겠는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대우선생의 소개로 불교전문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어요.

이현희: 거기서 선생님이 지하 항일서를 지도를 하셨는데 주로 항일운동하는 단체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셨는가 보죠?

이동화: 그때 내가 직접 사상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접촉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교육에서 얘기를 할 때에도 사상적으로도 역시 올바른 지도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했으니까 약간의 영향은 미쳤다

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내놓고서 무슨 진보적인 사상을 고취한다든가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런것을 하면서 학교에 머물 수 없지.

이현희 : 아마 그런 것 때문에 1941년 9월 6일 일제에 의해서 소위 치안유지 위반혐의로 구속이 되셨는데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동화 : 어느때 얘기입니까?

이현희 : 1941년 9월 6일.

이동화 : 41년이면 콩그룹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될때 얘기인가 보는데, 교편잡고 있을 때부터 이야기 하겠어요. 토요일인데 9월 6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인데 그때 토요일이지만 강의가 3시간 있어가지고 강의를 끝내고서 출석을 부르고 나오니까 종로에서 형사 둘이 찾아와서 선생의 하숙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성북동으로 데려갔더니 하숙방을 돌아봤죠. 좌익서적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대부분의 좌익서적은 친척집으로 옮겨 놓고 있었지만 내 하숙에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형사 하나가 좌익서적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하는 말이 『공부하는 분이니까 물론 저런 서적도 필요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현희 : 책도 압수해 갔습니까?

이동화 : 뒤에 와서 일부 가져 갔어요. 일부 가져갔는데 뒤에 찾아 내려고 하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현희 : 그럼 그래서 연행돼 가지고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이동화 : 그날 연행되어 간 곳이 종로서인데 종로서로 가니까 일시 어느방에 가있다 올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몇시간 기다렸죠. 그뒤 그들이 와서 데려간 곳이 고문실이었죠.

이현희 : 종로경찰서 고문실이 따로 있었어요?

이동화 : 고문실은 따로 있죠. 고문실은 수도도 있고, 누일 수 있는 긴 벤치도 놓아 두고, 거꾸로 매다는 것인지 무슨 비행기태운다고 하는 고문도 그 뒤에 몇번 당했지. 그날은 거기서 나가지 않았고 고문실에 데려가서 고문하기 전에 취조한다고 했지요. 무엇을 물어보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유없이 고문실로 데려가 고문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무슨 죄로 물렸는가 하면.....

이현희 : 무엇을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고문중에서.

이동화 : 그러니까 내 사상에 관해서 알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 그때 지하운동을 하다가 숨어버린 동지 하나를 찾고 있었는데 김한성이라고 하는, 그때 김한성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러 들어갔습니다.

이현희 : 김한성씨.

이동화 : 사실 또 그분이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겠죠.

콩그룹이라고하는 박헌영 중심의 지하운동 아닙니까? 김한성군이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안됐지만.

이현희 : 거기에 관련된 모양이죠. 김한성씨가 박헌영하고.

이동화 : 그렇지. 그때 수백명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현희 : 큰 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동화 : 그 당시로서는 제일 큰 사건이었죠. 일제말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이현희 : 거진 선생님 관여는 없었지요?

이동화 : 내가 직접관계는 없었다고 하겠지만 간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독서회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

독서회라고 하는 것이 그 조직하고 연결이 꽤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연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지만 뒤에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독서회가 두갈래가 있었는데 한갈래는 경성대학 동창회에서 김한성군과 나 그리고 지금 평양에 있는 김훈이 있고 또 평양에 있는 최훈이 있고 그리고 동경대학 동창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한 독서회가 그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한갈래는 서울법전 출신들 2, 3인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가를 하고 그래서 독서회를 이룬 것이 두갈래가 있었어요. 이 두갈래 독서회중에 나만이 양쪽에 다 참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현희 : 두군데 다 관계를 맺으셨군요? 선생님은,

이동화 :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붙들려 갔는데, 붙들려 가기 수일전입니다. 2학기초에 내가 평양 고향에 갔다 올라온 직후에 경성대학 출신의, 그 당시는 내가 얼굴도 잘 모르던 고향학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지금 평양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군이 해화전문으로 찾아와서 내가 교원실에 있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들어서만 조용하게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도서실로 데려갔어요. 도서실로 데려가서 들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고군이 하는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김한성동지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장소에 있으니까 안심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고군이 그때 일본돈으로 29원인가 30원인가 하는 것을 꺼내면서 이것을 한성동지가 가져다 전해드리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해요. 그것이 무슨 돈인가 하면 몇일전에 김한성군이 급히 쓴다고 해서 내가 몇십원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숨어서 불편하게 살면서도 나한테 꾸었던 돈이라고 그것을 보내 주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

나 하면 그 당시 좌익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도덕관념이 그리 뚜렷하지 못해가지고 돈문제에 관해서 깨끗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되겠다고 하는 자기비판 같은것이 일어나가지고 김한성군의 입장에서든 많지 않은 돈이지만 돈문제에 관해서 깨끗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돈문제에 관해서 밝힌다고 해서 그렇게 했겠지. 그때 돈 2, 30원이면 요즘 돈으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고군이 찾아 왔어요. 그러면서 김동지는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몇일 뒤에는 김군 자신도 붙들려 들어갔어요.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면 뒤에 안 일이지만 경성대학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현희 :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네요?

이동화 : 병원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병원에서 붙들려 갔어요. 내가 붙들려 갔다고 하는 것은 한성군이 붙들려 간 조금 뒤에 내가 붙들려 갔어요.

이현희 : 그런데 선생님은 중병으로 형집행정지 돼 가지고 고향에 가서 요양을 하셨죠? 1943년 1월 6일경.

이동화 : 지금 얘기는 내가 요양을 하고서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한 후에 얘기죠. 아까 동경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 그러니까 동경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4년동안 고향에서 눌러 살았지. 그런 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죠.

이현희 :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었죠?

이동화 : 그렇지. 그때는 어느정도 회복이 돼서 건강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생겼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에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

이현희 : 그후에 해방직전에는 여운형선생의 건국동맹에도 참여하셨죠?

이동화 : 건국동맹의 몽양선생 측근중의 한사람으로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건국동맹이 지하에서 나올때는 내가 서울에 있지 않았고 형무소에서 보석으로 나와 가지고 고향에서 병치료로 요양을 하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건국동맹이 지하에서 있을때는 내가 서울에 있지 않았죠. 그러나 몽양선생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는 자신의 가까운 동지의 한사람으로 보고 있으셨고 건국동맹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나를 동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현희 : 그후에 8.15해방이 되었지만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에 서기로 임명이 되셨죠?

이동화 : 그렇지. 서기국의 몇사람 위원중에는 서기국의 제일 중요한 부서로 있었죠.

이현희 : 서기가 여러분이 계셨나요? 선생님결에서.

이동화 : 한때는 언론인으로서 일을 했고, 그러나 좌익운동에도 관계를 했던 고경홍이라고 제주도 출신인데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 고경홍군이 서기국에 들어와 있었고, 또 제주도 출신의 최 누군가가 있었어요.

이현희 :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중경 임시정부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죠?

이동화 :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중경임시정부를 추대할 그럴 이유는 없었지.

이현희 : 독자적으로 건국준비를 해야된다 그랬죠?

이동화 : 물론 중경 임시정부 사람들을 배척을 할 이유도 없었지만 무슨 중경 임시정부가 정통적인 정부라고 해서 그것을 추대해

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할수가 없었지. 모두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자는 입장이지 무슨 중경정부를 추대하고 그 밑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었지요.

이현희 : 그 당시 몽양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몇몇 선생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이 건국준비위원회의 핵심멤버로서 일제가 폐망해 간 이후에 정권을 인수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동화 : 물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현희 : 문자 그대로 건국준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동화 : 해방이 돼가지고 새 나라를 세울 경우에는 역시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세력이 나라의 중심이 돼야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그러니 몽양선생 자신도 고하 송진우와 같이하자고 하는 제의를 하셨는데 고하 자신이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몽양선생은 역시 우파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지.

이현희 : 우파, 좌파 다 손을 잡으려고 그러셨죠?

이동화 : 다 합쳐가지고 일종의 연합전선을 가지고서 새나라를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이현희 : 선생님은 몽양 여운형에 관련되는 정치노선에 대해서도 글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한마디로 여운형선생의 중심사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화 : 물론 진보적인 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러면서도 본래가 민주주의자이셨고, 민족 독립운동자이셨고, 민족주의를 떠난 민족주의와 아무 인연도 없는 그러한 사상가가 아니시고 민족

주의자 이시고, 동시에 민주주의자 이시고, 동시에 사회주의자 이시죠. 이것이 내가 몽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난 그것이 분명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운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고 사상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라고하면 영원한 한국적인 애국자인데 그러니까 한국적인 민족주의자이지. 그러나 그것이 고루한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진보적인 민족주의자이시죠. 그러니까 참다운 민주주의자 이시고, 사회주의자 이시니까 민족·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이현희 : 민족사회주의 이시니까 선생님 노선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동화 : 그렇죠. 내가 생각해온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운형 노선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지. 내가 몽양선생을 우리의 대선배로 모시고 있는 이유가 몽양선생의 사상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를 지도해 주는 위치에 있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하게 된 대선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현희 : 그러니까 몽양의 측근하면 역시 두산 이동화선생님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동화 : 나만도 아니지만 어떻게 나도 몽양선생을 가까이 모셨으니까 몽양 측근의 한사람인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이죠.

이현희 : 그래서 민주사회주의 사상이나 그런 운동도 역시 몽양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동화 : 그렇지요. 나는 학생때 한때는 맑스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로서 일관해 있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학생시대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려고 했냐하면 맑스주의 쪽으로 기울어질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무정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맑스주의 연구를 시작했지요. 저쪽에서 일을 할때 애들은 물론 맑스주의 입장에 서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맹목적인 맑스주의자였나면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요. 소위 진보적인 인테리의 한사람으로서 맑스주의를 맹신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어느정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책임의식이 일어나면서도 저쪽 정치에 대해서 저쪽 사상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느정도 비판적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맹신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가 없었죠.

이현희 : 바로 그러한 점이 선생님의 특징이고 훌륭한 점입니다. 맑스를 너무 흠모해가지고 맹신에 가까우게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이동화 : 젊은 사람들 처음에 입문을 할때 대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현희 : 상당히 매력이 있고 끌리니까 그러는데 거기서 다시한번 한걸음 앞서서 그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동화 : 나는 처음부터 맹신했던 성향이 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맑스주의를 어느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역시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어느때 좌파맑스주의라고 할 모스크바 계통의 공산주의라고 완전히 손을 끊게 됐나하면 저쪽에서 경험을 하고 나서입니다. 저쪽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예컨대 스탈린주의적인 공산주의를 가지고 안되겠다 ……

이현희 : 선생님은 아주 명확하게 손을 끊으신 것이죠.

이동화 : 그점에 대해서는 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현희 :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군요.

이동화 : 그래서 완전히 손을 끊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그러면서 신념이 더 굳어졌어요. 예컨대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로서 신념이 더 굳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현희 : 오히려 그런 것을 경험을 하셔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동화 : 이제는 누가 뭐라고해도 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나로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현희 : 그런데 선생님이 전주때에 몽양하고 같이 일을 하셨다가 9월 10일 서울을 떠나가지고 조만식선생의 평양민보 주필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동화 :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평양을 갈때에 내가 구체적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일이 있었어요. 전국준비위원회에 관계를 하고 있다가 그때 우리계통에서 정당을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전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역시 내가 느끼기에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건국동맹을 발전시켜가지고 새나라가 설립이 될 때에는 그것이 새나라 정권으로서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 생각을 할려고 한것이 사실이거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우기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하에 놓이게 된 뒤에 무슨 건국동맹

이니 무슨 새 나라의 정권, 깃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이현희 : 평양민보가 46년 5월 1일 민주조선으로 게재되면서 거기의 주필로 제셨다가 2개월 뒤에 해임되셨죠?

이동화 : 그러니까 1년동안 신문을 내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다음해 10월달부터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신문제호를 민주조선으로 바꾸었어요. 신문제호를 민주조선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나는 신문사에서 물러나게 되었구요.

이현희 : 그냥 주필로 제신 것 아닙니까?

이동화 : 그러니까 그때에 신문사를 그만두면서 주필의 자리를 물러났는데 제호를 바꿀때까지는 내가 주필이었으니까 평양민보의 주필이었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신문의 제호가 바뀌면서 사실상 내가 신문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런 뒤에 조선문화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조선문화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는데 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저쪽의 중요한 기관에서는 「부」자 붙는 자리가 실제로 일하는 자리입니다. 각 부의 「상」이라고 하는 것도 「부상」이 실제로 일하는 자리이고, 「부상」중에서도 「제일부상」이 실권을 행사하는 자리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이름만의 자리올시다.

이현희 : 이복은 지금도 그렇겠죠?

이동화 : 지금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문화협회에서도 협회 위원장은 「고향의 봄」의 작가인 소설가 이기영씨가 위원장이고 내가 부위원장인데 이기영씨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기영씨는 소련군인들이 조선의 대농민작가인 이기영씨를 추대해야한다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이기영씨를 평양으로 소련군인들이 모셔온 후 소련군 사령부에서 이기

영을 조선문화협회위원장으로 시켜라 그래서 위원장이 되도록 되었는데 그는 실제로 일을 할만한 경험도 없는 문인이죠.

이현희 : 그럼 정치적인 센스는 부족했겠죠?

이동화 :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별로 실무를 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 그러나 그 밑에서 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죠.

이현희 : 부위원장으로 계시다가 47년 2월 그만 두시면서 김일성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셨죠?

이동화 : 김일성대학에서 외교사를 처음에 했죠.

이현희 : 그럼 몇년이나 강의를 하셨습니까? 6.25 직전까지 하셨나요?

이동화 : 그렇죠.

이현희 : 그럼 몇년하신 셈입니다.

이동화 : 몇년했지.

이현희 : 그 강의를 하시면서 북한체제에 매우 회의, 환멸, 이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동화 : 그런 동안에 저쪽에서 여러가지 보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스탈린 공산주의를 그대로 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지가 오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러는 과정에서 스탈린적 공산주의 가지고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신념이 굳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다른 것이 없겠는가?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없었지.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그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 일본 노동운동 사회주의계통의 사람들중에서도 일본 대중당에서 아소이사씨가 당선이 됐던거지. 그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민주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정도지. 그때 일본에서 나오는 종합잡지에도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그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이현희 : 북한에서는 민주사회주의하면 그렇게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동화 : 그것은 저쪽에선 안되지. 지금와서는 약간 생각이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 당시에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나쁘다고 생각하던 때지요. 민주사회주의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하려는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간주됐죠.

이현희 :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민주사회주의를 물고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매우 당황도 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동화 : 물론 민주사회주의를 내가 공개리에 내세우고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그러지도 않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결국은 스탈린주의적인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사회주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하는 말은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얘기를 공공연히 내세워 가지고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사상적인 전환이라고 할까 사상적인 확립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6.25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이현희 : 거기서 6.25를 맞으신 것이죠?

이동화 : 그렇죠. 6.25를 평양에서 맞이 했죠.

이현희 : 우리 국군이 평양을 해방시키면서 서울로 오신 것이 되나요?

이동화 : 6.25가 일어나고 평양에 약간 있다가 피난갈 사람들은 피난을 간다고 해서 평양시를 떠나고 그랬는데……

이현희 : 아마 10월달일 것입니다.

이동화 : 10월초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평양을 떠나서 고향 강동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일단 나왔어요. 고향에서 사실은 국군이 평양에 입성하는 것을 고향에서 알았거든. 말하자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만주로 다 쫓겨갔다고 할 수도 있고 따라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만주로 갔지. 이쪽이 밀고 올라가니까 만주로 들어갔어요. 난 고향에 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만주로 들어갈 때는 모르기도 했지만 내가 같이 따라 갈 생각을 했을리도 없고 그러다가 국군이 평양에 입성한 뒤에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평양으로 돌아와보니까 국군이 평양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평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 이전에 만주로 전부 갔죠.

이현희 : 공산주의자들은 다 만주로 탈출했죠?

이동화 : 다 만주로 떠나갔죠. 대개는 걸어가다 시피해서 강제로 해가지고 만주로 들어갔거든요. 자동차 있는 사람은 자동차로 갔겠지만 자동차도 없는 사람은 걸어가다시피 해서 갔어요.

이현희 : 선생님이 북한공산체제에 환멸을 느끼신 것은 6.25 전에 이미 그러셨는데 6.25 전쟁 그 이전에 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올 수가 없었나요? 6.25 직전에는.

이동화 : 6.25 직전은 아니지. 해방직후에 서울에 잠깐 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문사일로 왔습니다. 신문사 간부급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어요. 동경대학 후배 중에서 한두사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분은 그때 서울에서 하는 일이 있어 평양을 못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서울로 내려왔다가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돌아갔던 일이 있지.

이현희 : 김일성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할때는 김일성을 만나 보신 일이 있으세요?

이동화 : 사실은 김일성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전에 신문사에 있을

때에 가끔 만났습니다.

이현희 : 만나서 민주사회주의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셨나요?

이동화 : 그런 토의같은 것 할 기회는 없었죠. 내가 신문사에서 주필로 있었는데 주필이라고 하는 것이 사장을 겸하는 것이거든. 저 쪽에서는 주필이 사장입니다.

이현희 : 여기 개념하고 다르네요?

이동화 : 여기서 주필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에만 관계를 하거든요. 저쪽의 주필은 경영에 까지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필은 사장을 겸하고 있으니깐 때때로 권력기관을 찾아 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당이고 그래서 때때로 당에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되죠.

이현희 : 그 당시에 김일성하고 처음 만나고 하실때는 아무런 토의를 안하셨습니까?

이동화 : 김일성을 처음 만난것이 언제냐하면 해방직후입니다. 우리들이 신문을 내기 시작한 직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번은 김일성 환영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현희 : 그것이 김일성이 평양에 처음 들어 왔을 때입니까?

이동화 : 그것은 조만식선생이 평남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분이 재정, 행정부문의 총책임자거든. 조만식선생 중심의 사람들이 김일성 환영회를 연다고 해서 나는 언론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환영회에 나갔던건데 그때 김일성을 먼발치로 봤습니다.

이현희 : 아주 젊었다고 그러던데요?

이동화 : 그때 김일성이가 33살인가, 32살인가 밖에 안되었을 때니까, 나도 40 전이고.

이현희 : 그러니까 그때 무슨 공산주의를 철저히 한다. 공산정권을 세운다, 그런 것은 이전 얘기지요?

이동화 :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소련군 사령부의 러시아 사람 정치장교가 인사를 하고 김을 추켜올리는 소리를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김을 내세울 계획을 세워놓고서 하는 일이었겠지.

이현희 : 그렇지요. 각본에 의해서 했겠지요.

이동화 : 그렇지. 김을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자로 가장 훌륭한 항일투사로 그렇게 소개를 하며 추켜올렸는데, 그자리에 김이 나와 있다가 김도 약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조만식선생이 김을 환영하는 인사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승만씨에 장관하던 여자 있지않아요? 박씨 ……

이현희 : 박현숙.

이동화 : 박현숙이 맞아요. 박여사가 그때 사회를 봤어요. 박여사는 기독교 계통의 사람아닙니까?

조만식선생 계통의 기독교도지요. 그 남편도 기독교계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고, 박여사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지. 말도 재법 잘하고 그 박여사가 사회를 봤습니다.

이현희 : 그때 선생님은 신문사 주필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이동화 : 나는 그냥 참석만 했지, 언론을 대표해서. 그날은 멀리서 김일성을 바라만 봤는데 …

이현희 : 가까이서 같이 있을 기회는 없었나요?

이동화 : 그 후에 오래지 않아 가까이 볼 기회가 있게 되었지요. 그때에는 도당이라는 것과 시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도당과 시당은 별개로 있었는데 얼마후에 평양시당, 시당의 김창만이라고 하는 연안계통의 사람이 시당에 나와 있으면서 그 김창만군 주최의 김일성 환영회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만식선생이 열었던 모임이 있는 조금 뒤입니다.

이현희 : 별도로 ?

이동화 : 예,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번 모임은 인민위원회 계통의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 이것은 당계통의 모임으로 노동당 평양시당이 주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김일성 환영회 모임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 모임에 나갔더니 거기에는 조만식선생이 주최한 그 모임처럼 사람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모임에서는 김창만군이 개회사를 겸해서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김일성자신이 나와서 역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먼저번 조만식선생이 주최하는 모임에서는 김 자신이 별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데 김창만군이 주최했던 그 모임에서는 김일성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현희 : 그때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까?

이동화 : 김 자신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고하면 백두산 밑에서 약간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항일투쟁하던 때의 얘기를 했어요. 백두산 밑에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희 : 예, 사진에도 나온것을 봤습니다.

이동화 : 온천이 있는데 사실은 항일투쟁을 할때 일본놈들의 총탄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하고 그런 경우에 온천에 가서 온천물로 씻고 하면 효과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이 있거든. 그러면서 항일투쟁하던 얘기를 합니다. 김 자신이 항일투쟁할 때는 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으켜가지고 식량을 조달하면서 10년 동안 투쟁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독·소전이 일어난 것을 알고서 자기들도 이제는 우리 한민족의 운명은 독·소전의 결과로서 결정이 나는 수 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그렇지요. 하 여튼간에 우리들이 여기서 고생을 하면서 싸워봐도 우리들이 여기

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 그 결과로서가 아니라 독·소전의 결과여하에 따라서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것은 옳은 결론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 산에서 소규모 게릴라전을 가지고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결론을 내린뒤에 그러면 여기서 고생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노령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사람이 몇명이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산에서 같이 고생하던 동지들하고서만 소·만 국경을 넘어서 노령으로 넘어갔다고 했거든요.

이현희: 김일성이 돌아올때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할까 같이 왔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이동화: 많지는 않았어요. 많을 수가 없지.

이현희: 많지 않았습니까?

이동화: 본래가 많았을리도 없는데다 도중에 다 죽어버리고 탈락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의 수가 많았을리가 없습니다.

이현희: 그러면 조선 북로당은 김일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었나요?

이동화: 그렇지요. 김일성이 민주에서 고생해서 소용없겠다고 해서 이제 독·소전의 결과를 기다려 볼수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노령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기다리자, 그래서 노령으로 부하들 몇명을 거느리고 넘어갔다고 하는전데 아마 사실이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바로브스크에 모여가지고 스탈린식의 교육을 받았는데 거의 같은 무렵에 북만에서 항일투쟁을 하던 최영권의 부대가 노령으로 넘어갔고 또 동만에서 항일투쟁을 하던 김책부대가 똑 같은 무렵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민주에서 견디기 어려웠으니까 넘어갔겠고 또 민주에서 견디어 봐도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독·소전의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겠지요. 아 물론

314 혁신계의 통일논쟁

지의 같은 무렵에 북반에서 싸우던 최영권부대도 넘어가고, 동만에서 싸우던 김책부대도 노령으로 넘어가서 ………

이현희 : 이런 사람들도 빨치산 제통의 말하자면 혁명 투사들이군요.

이동화 : 유격대 대장들이지요.

이현희 : 유격대 투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동화 : 유격대 지휘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유격대 지휘자격인 최영권, 김책, 김일성 3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부하들과 합쳐가지고 하바로프스크에서 몇해 동안 스탈린식의 교육을 받죠. 그런데 그 수가 얼마며, 몇년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없지만은 하여튼 하바로프스크에 모여가지고 같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그의 부하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틀림없지.

이현희 : 그렇겠지요. 증언을 해준다면 틀림없는 얘기겠지요.

이동화 : 하바로프스크에서 모여가지고 몇해 같이 살았는데 김일성이 가 소위 진짜 김일성이냐 가짜 김일성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하들 말을 들으면 역시 가짜 김일성은 아니고, 성균관대학 교수 이명영교수……

이현희 : 이명영교수가 얘기하지요. 가짜라고 그러는 건데.

이동화 :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말하기는 한데 김일성보다 앞서서 동성동명의 김일성이 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김일성은 말하자면 선배 김일성의 부하로서 싸우고 있다가 역시 선배들이 죽어버리니까 선배의 뒤를 이어가지고 역시 지휘자로서 등장하지 않았는가 그래요.

하여간 물론 선배들이 죽은 뒤에 김일성 자신이 게릴라부대를 지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해방 수년전부터 였겠지.

이현희 : 지금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은 짧지

않았겠나 하고 봐요.

이동화 : 그렇게 길 수는 없지요. 김일성이 역시 본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성주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선배의 이름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승명이라고 하는게 있지 않아요? 일본사람에게도 많이있고, 서양사람에게도 있는건데, 선배 김일성에게서 이름을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가 김일성이 행세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바로프스크에서 몇해 교육을 받다가 소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김일성을 들여 보내가지고 한반도의 대표를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되겠다는 판단을 해가고 스탈린계통의 동쪽에 와서 지도를 하고 있던 사람중에 누구더라 ... 이 사람이 김일성을 좋게 봐서 스탈린에게 추천을 하고 김일성을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

이현희 : 무정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동화 : 아, 무정은 소련계통이 아니지요. 연안계통입니다. 무정은 나와는 가까운 옛 전우였지만 해방직후에 얼굴 한번 봤어요. 이북에 있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무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히 비유하기 어렵지마는 머리가 김일성만 못하지 않는가?

이현희 : 그 사람은 일찌기 숙청이 된 걸로 아는 데요?

이동화 : 무정이는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여 버렸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

이현희 : 숙청설이 아주 유력한것 같아요.

이동화 : 죽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것 같지마는 확실하지는 않고 무정에 관해서 내가 제일 먼저 얘기를 들었던 것은 경성대학 출신의 남로당 선전부장을 하는 누구 있지 않습니까? 평북출신인데.

이현희 : 이주화, 김삼룡인가요?

이동화 : 이주화, 김삼룡이는 말고 경성대학 강사도 하고 그랬던 경성대학 출신의 남로당 선전부장을 지냈던 사람 있지않아요? 김태준! 김태준이 일제말기에 서대문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그때 대부분 일본 놈들이 정책적으로 내보내서 김태준도 보석으로 나왔는가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가 해가지고 있다가 연안으로 망명을 갔었거든. 태준하고 결혼하게 되었던 박진홍이라고 함경도 출신의 송덕여고를 나왔지요. 여투사 박진홍은 사실 우리들이 붙잡혀 들어갈 때 같이 끌려 들어가서 서대문에서 같이 고생을 하고 그런 여류 투사의 한사람이죠. 이관승이 송덕여고 교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지도를 해서 투사로 만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관승이 당시 여학교 선생을 하지만 제자들을 교육을 해서 투사를 많이 배출 했거든요.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박진홍인데 이관승의 제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훌륭한 투사로 되었던 사람입니다. 박진홍은 평양에서 아직 살고 있을 거예요. 최고 재판소 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현희 : 아직 살아 있겠지요.

이동화 :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박진홍이 김태준이 보석으로 나왔을 때 결혼을 하고서 연안지구로 망명을 해가서 잠깐동안 한 반년 밖에 있지 못하고 8.15를 맞이해서 다시 나왔죠.

이현희 : 네, 그랬었습니까?

이동화 : 내가 평양에서 신문을 내기 시작한 후에 아까 얘기한것 같이 신문사에서 일 할 일꾼을 구한다고 해서 그해 11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서울을 잠깐 왔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는 도중에 황해도 신막서 김태준부부를 만났었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김태준부부는 연안서 해방을 맞이해서 귀국을 위해서 봉천을 거쳐오다가 봉천서 연안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머물러 있자고 하는 것을 자기

는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서울가서 빨리 박헌영계통의 사람들에게 저쪽의 실정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봉천서 연안사람들 하고 같이 있지를 않고 평양에도 물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신막서 우연히 만났었거든.

이현희 : 부부를 만나셨군요.

이동화 : 부부를 우연히 만났었어요. 어디서 만났느냐하면 신막군 당부에 가서 38선까지 차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김태준이 겨울 외투를 입고서 연안계통의 어느 사람하고 같이 당사를 찾아 들어온 거야. 거기서 뜻밖에 오래간만에 만났었거든. 그러니까 당부사람 점심대접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셋하고 당부사람하고 음식점을 찾아 갔는데 태준이 여관에 들어가서 박동지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박동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박진홍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관에 가니까 연안에서 나오다가 도중에서 낳은 사내자식을 안고 있어.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해서 진홍이도 음식점으로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그날밤에는 경계선을 밤에 넘어서 개성에 들어가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태준부부는 연안가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안파의 내부사정을 잘 알았거든. 그래서 그날 하루밤을 김태준부부하고 나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잔 일이 있었죠.

이현희 : 이리 내려 오시면서 그랬지요? 남쪽으로 내려 오는 길에.

이동화 : 예, 서울 올라오는 길에. 그날밤에 태준이 자신은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고 여자인 박진홍은 흥분해서 잠을 못자고 밤을 세워서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박진홍이가 얘기한것 가운데 연안파에 관한 얘기가 대부분이예요. 무정을 비롯해서 연안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 사람

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얘기를 들었어요. 개성 못미쳐 어느 농가였는데, 그날밤에 얘기를 듣고서 연안파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현희 : 다음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선생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화 :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별것 있어요? 이론적으로 여러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국파 사회주의의 입장에서는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건데 참다운 인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 민주주의의 완성의 형태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발전을 해서 완성된 형태와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것이 다른아닌 민주적인 사회주의다, 참다운 의미의 사회주의다, 그러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민주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국파의 사회주의 사람들의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건데, 그것이야 옳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요.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발전을 해서 그것이 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역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현재 이미 그것이 사실로서 나타나고 있다고까지 볼 수가 있는건데 말하자면 참다운 의미의 사회주의, 바꾸어말하면 민주적인 사회주의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영국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형태는 역시 민주적인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산세계 전체가 변해가는 방향을 보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스탈린적인 폭력적인 독재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갈 수가 없도록 되어가지고 스탈린적 공산주의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스탈린이 죽은 뒤에는 공산세계 전체가 변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공산주의 자체가 크게 변해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자유와 민주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사회주의 방향으로 공산주의 자체가 크게 변해간다고 하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구요. 최근에 와서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현희: 그런 징조가 분명하지요.

이동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동서 양대세력간의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양대세력이 대립을 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내지는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격화하고 악화되어 가면 결국은 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위험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먼저 염려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국제적인 관계의 움직임도 볼것 같으면 역시 새로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현희: 앞으로 내다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요.

이동화: 틀림없어요. 이제부터는 장구한 평화의 시대로 넘어갈려고 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민족의 입장에서든 우리의 민족문제 우리는 민족통일 한다고 하는 것도 전쟁을 거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이 날 수 밖에 없고 또 날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공산세계가 크게 변해야 하는데 그 공산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고 적어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의 북반부

북한의 공산주의도 변해 갈 수 밖에 없어요. 나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였건간에 오래지않아 그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김일성을 나는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루하고 완고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머리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아주 없는 고루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진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과거에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한 부분이 소위 변증법 철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증법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고루한 머리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현희: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화: 최근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신문에 아들에게 대를 물려준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단념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기사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희: 그렇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동화: 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자신이 아들에게 대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고하면 나는 우리 민족문제를 위해서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서광으로 역사에 비출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희: 급진 진보파의 앞서신 분이 두산 이동화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일정책이랄까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동화: 통일문제는 여러해 전부터 우리들이 생각을 해왔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생활 한 사람중에서 중립화 통일의 제목을 가지고 저서를 낸 사람도 두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저서를 낸 일은 없지만 여러해 전에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 통일운동 단체입장에서 역시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에 온다고 할때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요.

이현희: 그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동화: 그러니까 이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에게 내가 초안한 편지를 직접 보냈어요.

이현희: 복사본 갖고 계신것 있습니까?

이동화: 복사본이 지금있나 모르지만 어쨌든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이현희: 그것은 선생님이 기초하신 것입니까?

이동화: 우리 촉진회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발트하임이 서울에 온다고 할때예요. 기초하는 책임을 내가 맡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부랴부랴 우리말로 기초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간부들 모인자리에서 초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사람이 읽어 보고서 안되겠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런 무리도 없지않지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현희: 어떤 내용인데 문제가 됐습니까?

이동화: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하면 중립화를 내세운게 있다, 그리고 역시 연방제를 받아 드리고자 한다 이겁니다.

이현희: 그것은 김일성식 연방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화: 우리가 생각하는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식 연방제도 아니지만 김일성식 연방제하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지. 완전

히 다르다고 하면 연방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와같은 중립화를 내세우고 연방제를 주장을 하는 것은 통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까지 말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요컨대 우리 단체의 입장에서 안되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들이 여러분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촉진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광복회 회장으로 얼마전에 세상을 떠나신 유석현선생이신데 태수 유석현선생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촉진회 책임자였었죠. 또 다른 이들이 물론 반대를 했는데 그건 무리도 아니지. 그럼 말쟁이 됨직하니까. 이런 반대를 하는 것을 나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보낸겁니다. 단체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뒤에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내가 지도록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이름으로 보낸거지요. 그래가지고서 그 초안을 코리아 타임즈의 기자로 있다가 번역을 하고 있던 우리 혁신운동원으로 잠깐 참가한 일이 있는 분이 있는데 몇해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분이 영자신문에 몇해 있었고 영어의 실력이 상당하거든. 영어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저서까지 낸 일이 있는 그 분에게 내가 우리말로 초안한 것을 가져다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한 이유는 역시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빨리 번역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나보다는 전문가니까 번역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사흘인가 후에 찾아갔는데 아직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급하다고 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안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의를 가지고 해줄려고 한것 같지않아. 그래서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해 볼테니까 원고를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몇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리로 찾아왔지

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몇일을 기다리면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분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약간 내용을 고쳐도 괜찮겠지요, 또 그런 말까지 해 부분적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수정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수정을 한다고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분이 직접 수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믿을 수가 없거든. 안되겠다고 돌려달라고 그런데 좀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 것을 내가 억지로 원고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따로 새로이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해서 내가 직접 번역을 했어요. 어느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했는데.

이현희: 영어로 하셨어요? 독일어로 하셨어요?

이동화: 영어로 했는데 영어 번역은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이현희: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는 물론 하셨을 것이고.

이동화: 몇가지는 하지.

이현희: 한 4~5개국어는 하시는 편입니다.

이동화: 그렇지. 읽은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현희: 영어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보내셨습니까?

이동화: 보냈는데 그것이 또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 도중에 찢라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래서 보냈는데 세갈래로 보냈어요. 동경으로 한부 보내가지고 누구보고 보내달라고 하고, 미국 대사관 측에 한부 보내가지고 붙여 달라고 하고, 한부는 우편으로 내가 직접 보내고 그런식으로 세갈래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달쯤 후에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이현희: 그러면 접수가 된셈이네요.

이동화: 예, 접수가 됐지요. 그래서 미국서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엔의 화일에 들어가 있는 내 편지를 참고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요. 누군가 중립화 통일을 주장

하는 저서를 내면서 거기에 중립화 통일 주장한 사람이 동경에는 김삼규가 있고 한국에는 이동화라는 사람이 있다고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옛것을 추측을 해보니까 유엔에 가서 이것을 참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희 : 그것이 영어로 됐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볼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되어 있으면 제한이 되지만.

이동화 : 어쨌든 발트하임 사무총장때인데 고맙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가 왔거든. 그래 간것은 틀림없고 그뒤에 발트하임이 서울에 들리기도 했어요.

이현희 : 혹시 서울에서 한번 만났습니까?

이동화 : 만날 수가 없지요. 정보부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할려고 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을려고 했다는 것도 확실해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영어로 번역한 그것이 정보부에까지 들어 갔어요. 들어갔다고 하면 번역한 그분이 저쪽과 연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안일이지만 번역하는 사람도 정보부하고 연락없이는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됴직한것은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현희 : 자기가 나중에 책임 추궁받을 수도 있을테니까.

이동화 :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예약한 그것을 정보부에 보냈을 겁니다. 뒤에 전하는 말을 들으면 한달을 두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해서 자기들끼리 토의를 하고 요컨대 나를 그대로 두지 말자고 의견이 있는데요. 붙들어 넣고자하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달을 끌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져서 좋지 않다, 그것이 발트하임에게 간 편지가 아니었다고 하면 혹시 문제가 됐을런지 몰라요.

발트하임에게 간 편지를 문제삼게 되면 국제적으로 맞게 될 염려가 있거든.

이현희 : 선생님이야 제가 듣기에도 혁신계 관계로 여러해전 육고를 치루신 분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일관되게 민주사회주의 사상 내지 운동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깊게 존경하는 뜻도 그런 일관성있고 또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동화 : 네.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보지요. 지금와서는 약간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으면 세계 전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뚜렷이 보일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소련이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양대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현희 : 동구권과 우리하교의 관계도 매우 좋아져가고 있죠?

이동화 : 동구권과의 관계도 지금 좋아져 가고 있고, 중공이 저렇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깐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컨데 공산주의라고하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하면 수정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고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민주사회주의 방향이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해전부터 생각해온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현실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증이 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현희 : 선생님이 선구자시거든요. 그런걸 주장하실 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동화 : 그때로서야 말하자면 시기로 봐서 이른 때였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이현희 : 십지어는 그래서 이동화선생님 하면 공산적인 그런 생각

326 혁신계의 통일논쟁

을 가진 사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으니까 오해가 많았었지요.

이동화 : 오해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요.

이현희 : 예. 오해가 많아도 그렇게 일관되게 나가시니까 누가 감히 말할 사람이 없지요.

이동화 : 얼마전에 북쪽에서 판문점에서 무슨 회담하자고 모이자고 할 때에

이현희 : 남북국회회담에서 ?

이동화 : 그때에 이쪽의 일부 한 40~50명에게 초청장이 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지만.

이현희 : 선생님께도 초청장이 있었나요 ?

이동화 : 나한테도 왔었다고 하네요.

우리편 대통령후보로서 입후보했던 동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숙자 동지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이현희 : 그것이 대중사회당인가 ?

이동화 : 대통령선거 끝나고 없어졌지만 홍숙자 동지에게 여자로서 대통령후보로 입후보했던 사람이니깐 초청장을 보냈나. 본데 홍숙자 동지한테만은 정보부에서 초청장이 전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초청장이 왔다고 하는데 전달이 안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한테 초청장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저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저사람들 입장에서도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과거처럼 생소하고 나쁘게만 볼 수는 없도록 되지 않았는가? 저 사람들도 여러가지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사회주의를 나쁘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소련, 중국이 나쁘다, 이런 결론이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현희 : 자기 모순, 자가당착에 걸릴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속에서는 선생님의 주장이 사실 매우 선진적입니다.

이동화 : 그래서 저사람들의 나 개인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사람들이 옳지 않은 낡은 생각을 그대로 고집할 수는 없도록 되어가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현희 : 국제정세가 변화하는데 국내정세를 묶어두면 우리가 고립되는데 되겠어요?

이동화 : 공산세계 전체가 변하니까 북한도 변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세계 전체가 변하고 있는데 한반도라고해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컨대 역사는 크게 전환을 하는 단계에 처해 있지요. 크게 전환을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완고하다고 할 스탈린적 공산주의자의 입장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요컨대 공산주의가 그대로 남는다해도 크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정공산주의 방향, 그것이 곧 민주사회주의의 방향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현희 : 결국은 민주사회주의라는 이런면으로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선생님의 주장이 또 현실적으로 꼭 맞아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동화 : 나는 여러해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요컨대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전체가 다 함께 열어가야할 공통적인 중용적인 노선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되풀이해서 썼어요. 인류전체가 다함께 걸어가야할 중용적인 노선,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주의의 노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현희 : 평소에 그런 것을 주장하던 논설을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평전에 다 포함됐습니까?

이동화 : 지금 모아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때 그때

잡지에 발표한 것이 조금 있지요. 지방잡지에 발표한 것도 조금 있어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대구에서 나오는 잡지에 발표한 것도 조금 있어요.

이현희: 제가 참고할게 있나해서 여쭙본 겁니다.

이동화: 요컨데 기본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 아닙니까.

이현희: 지금 말씀하신데 다 포함되는 것이군요.

이동화: 인류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변혁기에 처해있는데 그 변혁, 전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컨데 스탈린적인 공산주의, 보수적인 자본주의의 방향이 아니라 역시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 민주적인 사회주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요컨데 민주사회주의, 나는 한국적 사회주의라고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국적 민주사회주의의 토대위에서 한국통일문제가 해결이 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한국적 민주사회주의라고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몽양의 노선과 일치합니다. 나는 한국적 삼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일도 있습니다. 몽양은 중국하고 인연이 깊었던 분인데 몽양자신이 사실은 손문선생을 존경해서 가까이 하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삼민주의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현희: 예. 중국 상해에 있었으니까.

이동화: 상해에 있을때 손문선생하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몽양은 한국의 삼민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기도 하고. 삼민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컨데 중국적 민족주의와 중국적 민주주의와 중국적 사회주의, 이것이 삼위일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삼민주의거든요. 우리 한국의 삼민주의는 무엇이냐 나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한국적 민족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사회주의, 이 3자가 삼위일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있는 것이 바로 한국적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여몽양의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현희 : 또 몽양의 사상이라고 할까 뜻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선생님이 대체로 맥락을 잇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민주사회주의의 노선을 걷는 셈이시니까.

이동화 : 한국적 사회주의라고 하면 물론 고대로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겠지요. 사상적인 원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여몽양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운동의 갈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한국사회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갈래지요.

이현희 :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정책을 그야말로 최우선 과제로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를테면 선생님 같이 급진진보파의 평화통일정책에는 중립화를 위한 통일방안도 있고 또 연방제라고 하는 그런면에서 통일방안도 있을 겁니다. 물론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그야말로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의 영원한 전쟁 역지를 위하여 또 통일의 전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진진보파의 평화통일정책도 그런면에서 매우 타당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50년 10월 하순에 대한민국 국군의 평양해방때에 서울로 올라오셨지요. 그리고 동시에 공산주의는 완전히 청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초부터 1952년 3월까지 우리 한국의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제5과 문관으로 일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그러니까 1952년이지요. 4월하순에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에 정치학 주임교수로 재임하셔가지고 일년을 재직하셨지요. 그다음해 1953년

3월 하순에 임시수도 부산으로 가서 한국내외문제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그 소장에 취임하시면서 송전대학 법정대학 정치학과에도 출강하시면서 우리 정치학을 강의 하시면서 평화통일론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1954년 4월 초순에 송전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주임교수로 취임을 하셨지요. 그리고 1955년 9월 초순에 국방대학원 고문교수에 겸임하시다가 1957년 8월에 사임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이 되시는데, 지금부터는 진보당 창당에 관계되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참여와 탈당에 관해서 이동화 선생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동화 : 저의 정치학교수로서의 활동은 짧았지요. 일제치하의 불건, 혜전 기간을 포함해서 한 10년정도 였어요. 그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치학교수로서의 저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디다. 반면에 혁신운동가로서의 저의 인상이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동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혁신계 정치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통념은 어떤 의미에서 저의 참모습이 아니겠나도 보겠어요. 바로 제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바친 대상이 혁신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규정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희 : 그러면 혁신운동가로서의 선생의 첫발은 1955년 그러니까 만 49세를 바라보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55년 9월 제 1 야당으로 민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간부였고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를 최고 대표위원으로 삼아서 창당되어가지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먼저 비보수 세력으로 혁

신을 부르짖던 세력이 같은해 12월 22일 유명한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셨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해주시지요.

이동화 : 예. 핵심인물은 역시 조봉암하고 동암 서상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조봉암은 일제때에 다 아시다시피 조선 공산당에 가입했었지요. 그래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는데 광복이 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에 경기도 인천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죽산 조봉암은 경기도 강화출신이었지요. 그래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되었고 제 2대 민의원 부의장으로 뽑혔지요. 또 1952년 제 2대 대통령, 제 3대 부통령 선거에서 79 만표에 달하는 표를 받아서, 당선자 이승만 대통령과의 523 만여표에는 물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두번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서상일은 항일투사로 해방후에 송진우, 장덕수와 한국민주당을 창당을 했지요.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에서 제헌국회를 지낸 원로 정치인이었습니다. 조봉암보다 11살위라고 생각되지요.

저는 대구의 경북대학교 교수때 가까워진 서상일의 추천을 받아서 준비위원회 12사람가운데 한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 박기출도 있었구요. 독립투사, 천도교인이었던 신수 선생도 12사람 가운데 한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보당 창당 작업은 예상했던대로 순조롭지 못했지요. 집권당인 자유당은 물론이지만, 제 1야당인 민주당도 진보당을 별로 신동치 않게 봤어요. 그들은 진보당의 창당을 추진하는 조봉암이 조선 공산당 당원이었던 이런 경력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진보당이 표방하는 구호로서 혁신이 사실상 용공과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의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955년 12월 22일에 발표된 진보당 발기 취지문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념

과 체제에 대해서 이질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대중자신의 자각과 단결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 자본가적 정치적 특권경제를 쇠신해서 진정한 민주 책임정치와 대중본위의 균형 있는 정치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한다, 이런 귀절은 그들에게 확실히 생소했고 또 어떻게 따져보면 그때 조봉암 같은 사람은 몇십년을 앞서서 간 그러한 선구자라고 할까요? 그런 특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어요.

이현희 : 그렇다면 이처럼 기존 정당들의 의혹과 냉대속에도 창당 의지를 밝힌지 몇일 지나지 않아가지고 1956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해는 나라 안팎으로 모두 중요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볼때 소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당 제1서기 후르시초프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중대한 연설을 했는데 스탈린 독재정치의 비인도성을 날날히 폭로했지요. 아마 수백만명의 시민이 무고하게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던, 그리고 당의 동지들이 무참히 유혈숙청됐던 그 어둡고 피로웠던 그 굴종의 시대를 그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나라안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정표로 기억되는 제 4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다시피 여기서 집권당의 여러가지 탄압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반후보로서 자유당의 이기봉 후보를 낙선시키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서 국민들은 사실상 정권교체를 실현했다고 보는데 이 국민적 열기와 자신감이 4년뒤 4.19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동화선생님.

이동화 : 예. 맞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발전적인 전환점에서 여야의

정당들은 5월 15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날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 확실히 대비해 나갔지요. 자유당의 경우를 보면 이승만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후보인 이기붕 민의원 의장이 지명이 됐죠. 이기붕은 미국유학시절부터 이승만을 추종했고 해방직후 이승만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의 이화장에서 해방정국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 살림을 맡은 뒤 서울특별시장, 국방장관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53년 9월 이 대통령의 자유당 지지세력이던 민족청년단, 이른바 [죽청]인데요, 이 죽청계열을 제거하면서 이기붕을 당 총무부장으로 기용해가지고 사실상 당의 제 2 인자가 됐어요. 그 여세로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3대 민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가지고 끝내는 민의원 의장까지 오르지요.

그런데 제 1 야당의 민주당은 대통령후보에 최고위원인 신익희 2대 민의원의장을 지명하고, 그리고 부통령후보에 최고위원 장면을 자기 지명했지요. 장면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홍사단 계열이었고, 또 초대 주미대사와 2대 국무총리를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익희가 민주당 전신인 민주국민당을 대표한다면, 장면은 비민주당세력 곧 관료와 은행출신인 정치인들 및 홍사단 인맥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진보당은 창당준비에 몰두해 갔는데 그해 1월 28일은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임시 사무소가 결정됐지요. 그때가지고 곧장 정·부통령 선출작업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진보당은 내부적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이동화 : 예. 제가 그 당시 직접 관련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조봉암을 대통령후보로 미는 세력하고 서상일을 미는 세력하고 암투가 있었지요. 진보당 창당에 참여했던 신도성은 조봉암에게

혁신 정당에게 정권이 돌아올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땅에 진보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굳이 조봉암이 대통령후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서상일이 대통령후보로 좋겠다하니 죽산은 부통령후보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말했었죠. 전에 통일원장관을 지낸 신도성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조봉암은 혁신세력의 집권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제안을 수락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봉암계열은 서상일은 표가 없다는 이유로 신도성의 제안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3월말일 열린 진보당 전국 추진위원회는 경선을 통해서 조봉암을 대통령후보에 서상일을 부통령후보에 각기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서상일은 조봉암은 대통령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부통령후보를 거절했는데 이때 예상밖의 인물인 박기출, 이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이 박기출이 부통령후보가 됐어요. 박기출은 부산출신으로 당시만 47살이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서상일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서상일, 조봉암, 윤길중, 김기철, 신도성, 이흥근, 고정훈, 한완균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강령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였지요. 저도 비교적 많은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강령의 기초를 의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령을 초안해 주었지요. 이 강령은 200자 원고지로 170장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체로 8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본주의의 공제, 둘째로는 자본주의의 위기, 셋째 자본주의의 수정과 변혁, 넷째 후진국가의 새로운 방향, 다섯째 제 2의 산업혁명과 20세기적 사회 혁명, 여섯째 6.25 남침 전쟁의 교훈, 일곱째 현 한국정부의 전제, 여덟째 당의 성격과 임무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강령은 두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아니라 따져보면 뒷날 이 강령이 크게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이 강령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제로해야 될 것은 제가 집필한 강령의 원고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몇 사람이 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내용은 대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대자본주의 성립과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대자본주의 사회가 고대 노예사회나 중세기 봉건사회에 비하여 놀랄만한 진전과 발전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근대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근대적 사회주의 즉 민주주의는 성장했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적 생산력 증대에 의거함으로써만이 근대적 자본주의적 민주국가는 출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이에 병행하는 근대적 자본주의 평등 실현과 그 물질적 생활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희 : 그러시면 선생님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질적 생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방대한 재부가 소수자에게 집중 축적된 반면에 대중적인 빈곤이 누적되어 가지고 혁혁한 증대가 오히려 대중적 빈곤의 원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동화 : 네, 특히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진보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자계층이 희생을 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여기서 노동자 계급 자신의 단결된 역량으로서 그들 자신의 생활조건과 사회적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동시에 자본주의 여러가지 모순 그리고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사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회

주의 운동이 대두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속에 자본주의는 해외로의 활로를 찾아서 제국주의, 즉 식민주의로 변모 했고 자본주의 열강의 이해가 충돌해서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났고 소비에트적인 독재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볼셰비즘을 명백히 거부하고 서유럽적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옹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현희 : 선생님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하셨는데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한 볼셰비즘의 대두, 또 식민지들에서의 광범한 민족해방운동의 전개로 세계 자본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를 비교적 빨리 수습하고 일시적인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안정기는 오래 계속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화 : 예. 소비에트 공산세계는 급격히 확대됐지요. 이와 더불어서 동서진영 사이에 냉전이 격화되는데 저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소비에트식 독재하에서는 국가권력이 절대화 되는 반면에 인간의 개성과 자유는 정면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무시하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진정한 사회적 민주주의와는 아무래도 상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의 청산을 한 것도 바로 이런데에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수정의 변혁을 또 논했지요.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는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실상 자기 수정의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자본주의의 변혁을 폭력적 국제주의 불세비즘의 경우와는 반대로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적 방식의 수행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데 참다운 사회적 민주주의에 끝까지 충실하면서 인류사회에 대한 20세기 변혁을 민주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우리는 특히 이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현희 :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사회적 민주주의 국가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화 : 네, 저는 북유럽나라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구제국은 2차대전 이후 사회민주당이 단독으로 또는 농민당과 연립으로 정권을 장악하고서 동일한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산업건설이 순조로이 진행이 되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이들 제국에서는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또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진실하게 향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의 변모과정을 살핀 다음에 저는 후진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여기서 분명히 가누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현희 : 선생님은 제 2의 산업혁명과 20세기 사회혁명을 논하셨는데 선생님에 의할 것 같으면 원자력과 공해학적 기술의 놀랄만한 발전에 의해서 그러한 발전의 기초위에서만 이런 모든 일이 개시되고 제 2 산업혁명에 의해서 다시 인류 사회에 변혁의 과정이 크게 촉진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발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원자력과 오토메이션의 광범한 이용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은 어떠한 변혁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일까요?

이동화 : 네. 상당히 내용이 많습시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산업혁명은 일류사회의 생산력을 크게 높일 수 있지요. 둘째는 산업혁명은 여러 산업부문의 국유화나 사회화의 대규모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산업을 필연적으로 촉진하지 않습니까? 세째는 이 산업혁명은 인류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할 것이고 그래서 인류전체의 생활은 점점 활발, 풍부해 진다는 것이지요. 네째로 원자력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은 항구적인 인류산업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새로운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지향과 함께 안티-테제로서의 소비에트공산주의 즉 불세비즘의 변혁을 다같이 촉진할 것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산업혁명의 진행과 동시에 20세기적 인류사회의 변혁이 옹기 수행되어 간다고 하면 이러한 변혁과정에서 원자적인 그러한 개인들 말하자면 평범한 민중의 거대한 창조적 에베르기는 자유로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복지사회건설이 모든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현희 : 그러면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화 : 네. 우리는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민주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남북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비록 급진 진보파의 평화통일론을 제창하는 사람이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진영과 방법을 쇄신 개선하는 한편 국내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력을 배양해 강화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크레몰린의 새로운 경제적 공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제가 될 뿐만아니라 실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현희 : 이러한 상태속에서 5월 5일 신익희는 전라북도 이리에서의 유세를 위해 열차편으로 달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지요. 그후 진보당은 재빨리 박기출 후보를 사퇴시키고 민주당의 장면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 대신 민주당이 조봉암후보를 밀어 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연합은 실현되지 않았지요. 민주당은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해 여전히 달갑지 않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되니까?

이동화 : 마침내 5월 15일 투표가 시작됐지요. 이승만대통령이 504만 6,437표를 받아서 당선됐지요. 그리고 신후보에 대해서도 185만표의 추모표가 나왔지요. 그리고 조봉암후보는 216만 3,808표를 얻었어요. 그는 4년전 투표의 3배 가까운 그런 경이적인 성적을 올린 셈입니다. 이영석이 지적했듯이 조봉암후보에 쏠린 표는 조후보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희 : 그러면 조봉암후보의 득표는 보수진영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진영에도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보당 당수에 선출되려는 그의 의지는 누구도 꺾기 어려웠는데 진보당창당을 추진하던 혁신운동의 원로층이 서상일을 당수로 옹립하려던 원래 구상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화 : 예. 그 때를 이용해서 조봉암은 자유당과 민주당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재야정파를 연합하는 그러한 수단을 보였지요.

그 결과 6월초에 혁신진영에는 각파지도자들과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내무장관을 지내고 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항일투사 철기

이범석장군마저 합류했지요. 민주혁신운동으로 이름지어진 대단합된 모습입니다마는 바로 진보 통일은 쉽지 않았지요. 이런시점에서 조봉암과 그 계열은 통합계열을 떠나서 진보당 창당을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서상일은 진보당 창당위원회를 떠나지요. 이때 항일독립투사이고 김구의 한국독립당 최고위원을 지낸 최익환도,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36살 청년 고정훈도, 또 저 역시도,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중앙상무위원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중앙상무위원직을 떠난 사람이 19명인데 결국 중앙상무위원회의 과반수에 이르는 23명이 마침내 이탈한 셈이 됐지요. 그래서 조봉암은 그 계열만으로 11월 10일 서울시 공판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과 김달호, 간사장에 윤길중으로 짜여진 말하자면 죽산 조봉암계열 일색의 당지도부가 구성된 셈이지요. 그때 김달호, 윤길중 모두 변호사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이현희 : 서상일은 진보당창당 준비위원회로부터 탈당후위에 이동화선생님을 비롯한 진보당 이탈파를 묶고 다른 한편으로 장건상계열을 끌어들어서 새로운 혁신정당을 만들고자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이동화 : 장건상은 그때 74 살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외무총장 서리, 항일투사 그런 경력을 지녔지요. 또 해방직후에는 몽양여운형의 근로인민당 간부로 있었지요. 그 이후에도 혁신계의 원로 예우를 받았는데 장건상계열을 끌어 들인다면 그런대로 혁신운동의 작업은 통합을 이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성공했어요.

1956년 11월 15일 민주혁신당 창당준비 선언문하고 강령 그리고 창당준비위원명단을 발표했는데, 창당준비위원은 44명이 지명되었습니다. 가령 서상일, 장건상, 최익환, 고종훈, 신숙, 임정의 요인이었던 윤암

김성숙 그리고 김홍식, 박기운을 비롯한 4명의 민의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물론 저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선언문과 강령, 정책은 대체로 선생님이 작성을 했는데요. 그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동화 : 네. 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진보당의 그것하고 본질적으로 같았는데요. 선언문에서 바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주혁신당은 어느 일부 소수집단의 정치단체가 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혁신된 진보적인 민주 정당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수호와 독재정치의 제거는 물론이지만 민족통일에 매진하고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을 한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당의 반공성도 선명히 부각이 됐지요. 그리고 선언문에서 불세비즘과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은 명백한 거지요. 또 6.25 남침전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집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지적했어요. 또 강령 제 1항에서는 우리는 공산당 독재를 배격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못박고 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병폐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혁신당은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현희 : 그러면 진보당과 잘라서면서까지 어렵게 출발한 민주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내분에 빠져가지요? 그래서 서상일계열, 장건상계열 사이에 당의 진로를 놓고 이념논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돼서 그렇니까?

이동화 : 거기에는 묘한 뉴앙스가 있어요. 서상일이 민주혁신당을 혁신운동의 통합적 기반으로 여긴데 대해서 장건상은 민주혁신당을 혁신운동의 한부분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으면서 진보당을 포함한

모든 혁신세력의 대동단결을 부르짖고 나서면서 그 논쟁은 대립으로 치달았지요. 여기서 두 계열은 성명전을 통해서 싸우다가 서상일 계열이 장진상계열을 제명하지요. 이때부터 서상일계열은 단독으로 창당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957년 10월 15일 서울시 공관에서 창당대회를 마칩니다. 최고 집행기관으로 정치위원회를 두었고 정치위원회위원장은 서상일이 선출됐지요. 저는 그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저는 겸직으로 있었던 국방대학원 교문, 교수직까지도 사퇴했습니다.

이현희 : 민주혁신당이 창당되고 1개월뒤인 11월 18일 통일당이 창당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준연의원이 당수로 취임했는데 이처럼 1956년에서 57년에 정당의 창당을 자극시킨 가운데 하나는 58년에 실시하는 제 4대 민의원총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54년에 실시된 3대 민의원 선거하고 56년에 실시된 제 3대 정·부통령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정당정치의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4대 민의원총선거에 대비해서 정치인들은 기존정당들로 모이거나 새 정당을 만들게 되지요. 이동화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요.

이동화 : 1958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 관심은 정계동향에 쏠렸지요. 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느 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혁신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통일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민심은 집권당인 자유당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대에는 야당의 큰 진출이 예상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는 아무래도 민주당에 보내줘요. 하지만 진보당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만 민주혁신당은 관심권 밖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심리적 분위기속에서 선거의 해인 바로 195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얼마안된 1월 12일 정부 당국은 진보당 간부들을 검거하기 시작합니다.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을 비롯한 9명을 체포합니다. 그 가운데 조봉암은 간첩, 그리고 이것을 방조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윤길중은 간첩 방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죠. 이른바 진보당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현희 : 아. 그랬었군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도 진보당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런 과정에 관해서 선생님이 당하신 것을 솔직하게 검토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 : 진보당 당원이 아니면서 이 사건이 처음 발표됐을때 연루된 유일한 피의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지요. 진보당 강령이 국가보안법위반이었기 때문에 그 강령의 초고를 작성한 저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진보당사건에의 연루는 바로 저의 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진보당사건 자체를 분석해보는데, 하지만 이 사건자체가 큼에 비해서 말씀드리는데는 여러가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보당간부들을 구속한 검찰을 대표해서 장순석 검찰총장이 1월 14일 진보당 강령에 나오는 평화통일론이 북한이 표방하는 평화통일론에 일치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북진통일과 무력통일이다, 이런것만이 판을 칠때였으니까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당도 불법적인 결사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조봉암이 북괴의 간첩임이 들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북한의 간첩이 당수

라면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진보당을 어떻게 합법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피의자들은 1월 22일 변호인단을 통해서 구속적부심사를 냈지요. 평양의 지령을 따라서 폭력이나 무력 기타 비합법적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할 의도가 없는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진보당 간부들도 간첩과 접선한 일도 없고 또 지령에 의해 활동하거나 정치자금을 받은 일도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그때의 변호인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현희 : 1월 26일 구속적부심사가 열렸지요. 피의자들은 혐의사실을 대개 부인을 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진보당은 비밀문서 등으로 복괴가 내세우는 평화통일노선에 호응해서 대한민국을 무시하려드는 그러한 혐의가 있을 뿐만아니라 진보당 간부중에도 피종인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서요?

이동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싸움에서 승리한 검찰은 이제적으로 진보당 노선의 강령을 구하는 증언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첫째 증인이 서상일입니다. 서상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당은 좌경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의 기구가 독재체제이고, 둘째, 유물론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론을 토대로 했고, 세째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계급투쟁의 당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혁신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진보당에 비해서는 우경화한 정당이다. 그렇지만 진보당 노선이 좌경화라해도 북한공산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다만 그들이 평화통일을 이룬뒤 노동자와 농민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합작 내지 같은 행동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상

일은 조봉암과 진보당 창당운동을 함께 시작했던 혁신운동계의 원로 아닙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그의 비관적인 증언은 진보당에게는 사실상 매우 불리했지요. 여기서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서상일은 저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또 진보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동화가 진보당의 강령을 기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과 내가 진보당을 나온 뒤 그들이 이동화교수가 포함시킨 공산당비판귀절을 삭제해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청취를 계속하면서 검찰은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고 또 몇몇 피의자들을 추가로 구속했지요. 범죄혐의의 증거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2월 16일 검찰은 피해자 전원을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때 조봉암은 간첩, 국가보안법, 무기불법소지 혐의, 또 윤길중은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다른 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였습니다.

기소 나흘뒤인 2월 20일 김·경·군 합동회의는 2중간첩 양명상을 공개했어요. 양명상이 북한으로부터 미화 4만달러를 받아서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2월 25일 정당과 사회단체등록을 맡고 있는 정부의 공보실은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진보당 간부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뚜렷하고 그들이 내걸고 있는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반되기 때문에 합법정당으로 용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축산 조봉암의 간첩혐의 내용은 논외로 하고 진보당이 표방한 평화통일론은 어떤 것이지요?

이동화 : 이 부분에 대한 검찰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북한

을 동격에 놓아 한반도 유일합법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해체를 전제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당시 북한의 통일론과 그것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입장을 비교해서 살펴야 되겠지요. 1948년 8월 15일 국제연합의 뒷받침아래 탄생한 대한민국은 자신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또 북한의 김일성의 정권은 반국가단체라는 법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통일이란 결국 반국가 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해방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게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력통일론이 공식적으로 나온 셈이지요. 그렇지만 무력적인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선거실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이미 국제연합의 관찰아래 선거가 실시 됐지않아요? 그래서 그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북쪽에서는 그러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선거를 실시해서 그 대표를 대한민국국회로 보내면 그것으로 통일의 법적 절차는 마쳐진다는 그런 주장이지요.

북한은 이 주장을 사실상 거부했어요. 대안으로는 남북동수로 전조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구가 마련할 새로운 선거법 아래 남북한에서 동시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회에서 새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과정을 중립국가들로 구성된 선거위원단이 관찰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총괄해 가지고 평화통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배격했지요. 자신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여기는 그때 대한민국정부로서 남북한동수로 전 조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리고 남북한 동시선거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유일

한 합법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파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조선위원회가 새로 선거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국내법 질서의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통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국 위장된 평화공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대북 경제심을 와해시키는 하나의 대공 마취제로 결론이 맺어졌지요.

이현희 :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그 당시 국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는데 결국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단 멈춘지 서너해 밖에 안됐기 때문에 대북 경제심을 늦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더우기 북한이 6.25 남침전쟁을 도발하기전 한달 앞선 기간에 평화통일을 두차례나 공식적으로 제의했던 사실은 북한의 평화라고 하는 제의는 분명히 이것은 속임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을 볼때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화 : 그렇지만 남북한 사이에 전쟁까지 치렀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북한측의 위장전술로서 평화적통일이 아니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평화적통일의 당위성을 높였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비극의 동족상잔을 벌여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회의가 나오지요.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된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요. 평화공존을 조심스럽게 찾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서도 평화적 공존의 경향을 보였지요. 이런 경향은 1953년 10월에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조약은 북한의 남침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력적 통일시도를 동시에 억제시키는 것이지요. 또 1954년 4월에서 6월 제네바에서 열었던 인도차이나반도에 관

한 국제회의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의 우방까지도 북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한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습니다. 이때 대표단은 변영태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국제연합 관찰아래서의 남북한 동시 선거로서 평화적통일을 이룩한다는 그런 입장을 강력히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라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국제 연합의 관찰아래 남북한 동시 선거로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그런 내용과 골격을 이룬 14개원칙을 공식으로 제의했던 것이지요.

국제연합도 54년이후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평화적 실현을 강조했던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평화적통일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아래 지금부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제가 보겠는데요. 바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않고 다만 내가 초안한 강령의 평화통일론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보당을 탈당한 뒤에 진보당에서 채택한 평화통일방안 즉 진보당의 통일문제 연구위원회위원장 김기철이 작성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역시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아래 제가 초안한 강령의 평화통일론을 분석할때 우선 밝혀야할 사실은 저는 평화적통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제1심 제2회 공판때, 이것이 1958년 3월 27일인데 나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민주적 통일이라는 문귀를 썼는데 나중에 인쇄나 온 것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북한이 먼저 쓴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때 마음에 걸렸던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의 이러한 입장은 제가 기초한 민주혁신당 강령과 정책에서 여지없이 확인되지요.

강령에서 저는 우리는 안으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민주

우방과 긴밀한 제휴아래 민족세력의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민주방식에 의한 조국통일 과업의 완수를 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서 저는 국제연합의 감시와 자유총선거에 의한 국토의 통일을 다짐했습니다. 민주혁신당의 문서 어느 곳에서도 문제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용어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이현희 : 그 사실에 대해서도 유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기초한 강령의 평화통일은 어떻게 평가하게 됐는가요?

이동화 : 우선 검찰의 해석을 살펴보겠는데요. 서울 지방법원 검찰청의 조인구 검사가 서울지방법원에 2월 16 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문제의 핵심으로 제기했지요.

공소장이 이렇습니다. 우선 북한피괴집단이 서기 1954년 4월 24일 소련의 제의에 의해서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것도 그 점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는데요. 공소장에서 검사는 북한의 평화통일론은 우리가 말했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해석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체와 적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지요. 그리고 진보당이 여기에 호응한 것으로 단정했는데 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봉암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방, 남북의 평화통일방안으로선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피괴와 동등한 위치에서 양측을 1 : 1로 간주해서 각기 해소시키고 통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남북자유 총선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피괴의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방안을 남한에서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을 피괴와 호응하여서 진복시켜야한다는 철칙아래 앞으로 창당될 진보당도 동 원칙아래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정당과 사회단체 등록을 맡은 정부의 공보실도

공소장의 취지에 똑 같은 취지에서 2월 25일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지요? 진보당 간부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뚜렷하다고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공보실은 그들이 내놓고 있는 평화통일론도 국시위반이기 때문에 합법 정당으로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화선생님 말씀해 주시지요.

· 이동화 : 정부당국의 이러한 주장을 피고인들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연합합시라는 원칙 밑에서 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네바 회담에 참석한 변영태 외무장관이 국제연합합시아래서의 한반도 통일방안에 14개원칙을 주장했을 때 북한이 그자리에 참석했었던 것과 국제연합을 통해서는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을 상대해 가지고서라도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협상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그들은 해명을 했지요. 그렇지만 검사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국시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를 안해요. 6월 13일에 있었던 구형공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서 진보당은 합법토대를 기화로 북한괴뢰와 합작해서 막대한 자금을 공급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왔고 그 합작의 방편으로 평화적 통일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지요. 또 검사의 결론은 이런 것들로 요약이 되는데요, 김학준교수도 이동화평전에서 이렇게 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진보당의 정책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의 귀결점을 살피며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총선거를 말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수식어가 있든 없든 그런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국제연합을 통하자는 문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북 총선거라는 것이 기존자유선거에 의해서 탄

생된 대한민국의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현재 대한민국헌법의 폐기와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발전적 해소라고 조봉암 피고인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정치적관심과 법률적 관심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총선거가 대한민국의 발전적 해소이든 퇴보적 해소이든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고 그 국가의 헌법을 위배하는 결사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결사인 진보당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와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검사의 결론입니다.

이현희 : 조봉암의 간첩혐의를 논외로 할때에 진보당사전에 있어서 두번째 논의의 대상은 진보당의 이념적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동화 : 검사는 진보당이 표방하는 혁신정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강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진보당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는 민주사회주의자 아닙니까? 이 논쟁에서 특히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저는 당시 우리나라의 혁신정당들을 서방진영의 사회당 우파와 비슷한 성격이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정의를 썼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강령은 반 볼셰비키적 북유럽 복지국가적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할 뿐이라고 이렇게 저의 소신있는 주장을 사실상 몇번이고 되풀이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논쟁은 자연히 학술논쟁의 성격을 띠는데 그때 배석판사였던 이병용변호사,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요. 지금은 민정당전국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이병용판사는 재판과정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란 용어가 당시만해도 생소한 때인데 유동진

재판장이 이동화피고인에게 “사회주의가 도대체 뭐요?” 묻자 이씨는 손을 번쩍들며 “일찌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로부터”라고 운을 떼어 긴 설명을 폈어요. 재판이 끝난뒤 유판사는 자기가 재판장인지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면서 정치학적인 문제는 이 판사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책의 학문적 분석을 해야 했는데 이 당시야 국내 정치학서적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20년대 일본 서적을 참고했는데 애 먹었어요』 이렇게 회고를 했지요.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밖에도 피해 대중, 자본주의 지향변혁 이런 용어들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법정은 마치 토론장이나 강의실을 방불케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당시의 신문들은 법정 소묘기사를 쓸 정도였습시다.

이현희 : 이런 재판과정을 거쳐서 1958년 6월 13일 검사의 구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봉암과 양명상에게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무기 불법소지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했지요. 윤길중에게는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이동화선생님을 포함한 진보당간부들에게 12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됐는데요, 7월 2일 언도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조봉암이나 그 당시의 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동화 : 사실 조봉암에게는 징역 5년이, 양명상에게는 역시 징역 5년이 각각 선고 됐는데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 합니다마는, 조봉암과 양명상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나머지 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방법원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지방법원은 우선 진보당의 사회주의 지향과 관련한 그런 점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첫째 동정당의 선언정책 강령에 의하면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순전환 사회주의를 지향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다고 선언했지요. 법원은 둘째, 진보당이 강령을 통해서 자본의 변혁을 폭력적 독재주의인 불세비즘의 경우와는 반대로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 그리고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경제균등을 강조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인정할때 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변혁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진보당의 평화통일의 위험성 여부를 살폈는데 법원의 살핌은 매우 면밀했어요. 전체를 소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진보당이 주장한 평화통일의 구호내용은 민주세력의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통일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파괴한 책임을 6.25 남침의 죄과를 범한 북한공산당에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들의 반성과 책임규명은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 아닐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관계피고인들이 지적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이것은 북한피뢰가 주장하는 위장된 평화통일과는 판이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이 두가지를 종합해서 1심은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라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검찰은 불복 항소했지요. 법원은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을 보석했고 7월 9일 이동화선생님을 비롯한 10 명의 피고인들을 보석했지요. 그렇지만 10월 22일 항소심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보석된 피고인들 전원의 보석취소를 신청했고 항소심이 신

청을 받아들여 같은 날짜로 두산 이동화선생님을 포함한 피고인 18명이 법정에서 재구속 됐지 않았습니까? 사흘뒤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우선 조봉암과 양명상에 대해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서 검찰의 구형과 똑같이 사형을 언도했지요. 그밖의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진보당의 선언문과 강령정책이 북한의 노선과 상통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진보당의 결사의 목적이 불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량만은 검찰의 구형 20년보다는 낮은 2~3년의 처형에 그쳤는데요. 그당시 검찰, 피고인 모두가 불복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화 : 예, 모두 두쪽이 다 불복했지요. 검찰은 피고인 21명 가운데 조봉암, 양명상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만 상고했지요. 피고인 전원 역시 상고 했습니다.

1959년 2월 22일로 생각되는 데요. 대법원공판이 5명의 대법관 합의부에 의해서 열렸지요. 피고인이 없는 재판부와 검찰 및 변호인 단만의 법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사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지요. 6월 27일로 기억됩니다. 선고공판이 열렸지요. 주심판사는 김갑수 대법관인데요, 이분이 판결문을 읽어 갔습니다. 우선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은 헌법위반이 아니고 평화통일론 역시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봉암, 양명상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봉암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재판으로서 사형을 선고했고, 양명상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으로 사형을 확정했지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진보당간부 전원은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진보당의 강령이나 정강정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강령을 들고 재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진보당 간부들은 대부분 무죄판결과 함께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양명상은 7월 29일, 조봉암은 7월 30일 각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 진보당사건에 대해서 이동화선생님은 아무런 회고나 증언을 남기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제자 이상두에 대해서만 회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동화 : 그렇지요. 그것은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그리고 슬프게 생각했던 하나의 사실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이상두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경북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의 제자입니다. 이상두는 저를 존경해서 제가 성균관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있을 때 문하생으로 스승에 여쭙는 편지들을 냈는데 제가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가택수색을 당해서 편지가 압수됐지요. 이렇게 해서 이상두도 연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상두교수가 그만 작고를 해서 매우 애통합니다마는 저는 그의 성품과 재능으로 봐서 가장 우수한 학생중의 한분이었고 가장 우수한 청년중의 한분이 틀림없었던 이상두군이 저 자신으로 말미암아 옥고를 치른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상두는 이사건이 인연이 돼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윤길중의 사위가 되는 인연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거쳐서 시립대학의 행정학과 수석 정치학교수로 북한의 정치학, 이데올로기 방면에 뛰어난 책을 많이 내놓고 있었는데 그만 아깝게 죽고 말았지요.

이현희 : 이동화선생님과 그 동료들이 1959년 2월 27일 무죄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 자유당의 몰락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선생님이 1심재판을 기다리던 때의 1958

년 5월 2일 실시된 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 1 야당 민주당은 그때까지 국회사상 가장 큰 야당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233석 가운데 79석을 얻어서 원내 1/3을 차지했지요. 득표율은 자유당의 42.1%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34.2%였습니다. 더우기 민주당은 여러가지 부정이 개입되어가지고 비교적 덜한 큰도시들과 상당한 수의 중소도시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서울에서는 14:1, 부산에서는 7:3, 그밖의 도시에서는 22:9로 승리해서 도합 43:13이라는 전적을 나타냈지요. 몇몇 선거구에서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당선자가 바뀐 곳까지 합하면 45:11로 그 격차가 커지지요. 아마 이것은 선거가 자유롭거나 공정하게 실시됐다면 민주당이 원내 제 1당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이동화 : 1956년에는 부통령선거에서 이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었지요. 2년뒤 4대 민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사실은 2년뒤의 4대대통령, 제 5대 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할 자유당으로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지요. 자유당은 반칙 정치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신국가보안법을 1958년 12월 24일, 소위 2.4 파동입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반대 농성을 하는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자유당 의원들만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1959년 1월 14일 범야세력은 민권 수호 국민총연맹을 결성했었지요. 항일독립투사인 김창숙은 4일뒤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했지요. 2월 4일에는 야당지 경향신문의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연행했고 4월 30일 마침내 폐간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 그렇지요. 그리고 정국은 점점 날카로워졌지요. 민권수호

국민총연맹은 6월 13일 서울에서 언론수호대회를 열어가지고 자유당정부를 규탄했지요. 자유당은 6월 29일 대통령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을 각각 지명해서 총선체제를 갖추어서 반대세력의 기를 완화하려 했지요. 그리고 7월 30일은 조봉암을 처형하지 않습니까? 자유당의 총선체제에 맞춰서 민주당은 대표 최고위원 조병옥위원을 대통령후보에, 또 최고위원 장면 부통령을 부통령후보에 각각 지명했습니다.

1960년 들어서 자유당정부는 제4, 5대 정·부통령선거 날짜를 관례보다 두달이나 앞당겨 3월 15일로 정했지요. 2월 15일 조병옥후보가 별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후보로 국민의 열망을 담았던 그가 그만 미국육군병원에서 쓰러진 것인데 민주당은 56년에 이어 60년에도 대통령후보를 병으로 잃는 비운이 겹치지 않았습니까? 정권교체의 열망에 쌓였던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동시에 민심이 끓어 올랐는데, 반대로 자유당선거는 선거사상 유례없는 부정을 자행해서 이승만, 이기붕을 당선시켰는데 아마 이것이 자유당 정부의 몰락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월 28일 이기붕일가가 자살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무너졌지요.

이동화 : 그렇습니다. 제1공화정의 폐허위에서 허정 수석 국무위원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4월 28일 세워지죠. 과정은 5월 1일 3.15부정선거의 무효를 확인했지요.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을 지내고,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던 허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이 문자 그대로 과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과정이 들어서면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정치현상 가운데 하나는 혁신세력의 재등장

358 혁신계의 통일논쟁

이고 진보당류의 평화통일론이 재 대두가 되지요. 60년 7월 29일에는 민의원 총선하고 초대 참의원 총선을 겨냥해서 혁신정당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현희 : 첫번째 정당이 5월 13일 발기를 선언한 사회대중당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진보당계열의 인사들이고 민주혁신당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를 했지요. 이동화선생님은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때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동화 : 4월 19일 혁명의 덕택으로 정당활동이 어느정도 자유로워 졌는데 그때 나는 혁신운동의 제 1선에 서기로 결정을 했지요.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민주적인 민주혁명이 끝날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혁명사업이 장기에 걸쳐 제대로 수행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주체세력의 결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혁신세력을 규합해서 주체세력을 주도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현희 : 선생님의 이런 심경은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에 참여한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이 아닙니까?

이동화 : 저의 생각으로는 4.19민주혁명의 여러 과업은 한국혁신세력이 책임지고 있는 역사적 여러 과업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세력을 모으고, 진영을 강화해서 4.19혁명의 완수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6월 17일 사회대중당 창당 준비위원 대표자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어요. 이 전국대회를 통해서 사회대중당을 창당하고 당수격인 대표 총무위원에는 서상일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 최고집행기관인 총무위원회 겸 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됐지요. 저는 그 뒤 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모든 혁신세력

의 규합과 결집을 목표로 삼았지만 현 체제는 그러지 못했어요. 혁신세력의 규합결집이 아니라 파벌과 균열이 계속이 되었거든요. 고정훈이 이끄는 사회혁신당, 장전상의 혁신동지 총연맹, 전진한, 성낙훈, 그리고 김철이 주동이된 한국사회당 이런 것들이 계속 창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 가운데 한국사회당을 제외한 나머지 혁신정당은 남북교류를 비롯한 평화적 통일론을 제창했고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를 옹호했던 것이겠지요.

이현희: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혁신정당은 7월 19일 실시된 참의원 총선에서 150명이 넘는 그런 후보자를 내세웠지 않았습니까?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민의원의 경우 233개구의 선거구에서 156명의 혁신계 후보들이 출마했는데 한명 이상의 혁신계 후보가 출마했던 선거구는 선거구 전체의 과반수도 넘는 123개에 이르렀죠. 이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숫자는 선생님이 정책위원장으로 있던 사회대중당이 아닙니까? 사회대중당이 17, 사회혁신당이 3, 기타 혁신정당이 13명을 출마시켰는데 사회대중당은 123명을 출마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동화: 저 역시도 사회대중당의 공천으로 대구에서 민의원에 출마했는데 대구의 5개 선거구의 사회대중당은 모두 당대 일급의 후보자를 냈지요. 대구 매일신문주필로서 유명했던 최석채, 또 사상계 편집위원인 양호민, 그 다음에 국민주권 수호연맹 대변인 김수환. 이들은 서상일과 사회대중당 붐을 일으키고자 했었지요. 이들 가운데 대구에서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대구의 원로인 서상일은 틀림없어 보였고 나머지 네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관심거리였지요. 그러나 유권자는 혁신정당에 대해서 냉담했어요. 민주당에 오히려 표를 몰아 줬지요. 그래서 혁신후보들은 5명만 민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360 혁신계의 통일논쟁

사회대중당에서 4명 서상일, 윤길중, 박환생, 박권이고 한국사회당에서는 김성수 한사람입니다. 이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의 전국적인 투표율도 각각 투표자 6% 내지 0.6%에 지나지 않았고 또 참의원의 선거에서도 혁신계 58석 가운데 겨우 2석 이훈구,전상구가 차지한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7,100표를 받아서 차점으로 낙선됐지요.

이현희 : 그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화 : 제 2공화정시대, 그러니까 민주당 시대의 정치를 가장 뛰어난게 분석한 고려대학교 한승주 교수에 따를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반좌파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까닭은 이승만 정부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지 이승만 정부의 반공주의라든가 보수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이때 만해도 6.25남침전쟁의 상처는 깊어 있었고 유권자는 남북교류론 또는 남북협상론 같은 주장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심리적 자세까지는 갖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현희 : 7.29 총선을 거쳐 과정은 끝나고 의원내각제 헌법이라 대통령에 민주당의 윤보선의원이,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장면의원이 각각 당선됐고, 민주당 정부가 이끄는 제 2공화정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화 : 네. 그래서 7.29 총선에서 참패한 혁신세력들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어요. 지도부의 전원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니까 혁신정당들은 원외 세력으로 밖에 머무를 수 없으니 얼마나 힘이 약합니까? 여기서 단합을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심점을 잃고 세포분열을 거듭했거든요. 그래서 세 갈래로 편성되는데 첫째가 좌파혁신계로 김달호 중심의 사회대중당과 최근우의 사회당이

었거든요.

이 최근우씨는 2.8선언에 서명을 하고 중국상해로 도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사회대중당은 7.29총선이전의 사회대중당하고 다르죠. 7.29총선 이전의 사회대중당 가운데 진보당 부위원장이었던 제3대 민의원인 김달호가 자신의 추종자들만을 모아서 1960년 11월 24일 창당 했습니다. 사회당은 여운형의 근로인민당계열인 최근우와 최백근이 중심이 됐지요. 두번째 흐름은 우파혁신계로서 민족통일당입니다.

남북교류에 반대하고 승공통일을 주장하면서 국내정치에 있어서 개혁을 강조했지요.

이런점에서 통념상 혁신당과는 거리가 먼 우파보수 정당입니다.

세번째 흐름은 중도혁신계의 통일사회당입니다. 7.29총선이후 사회대중당이 분열되면서 사회대중당 간판을 그대로 지킨 김달호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간부는 서상일, 윤길중, 조현식, 정호암, 저까지 해도 사회혁신당의 고정훈과 한완균, 한국사회당의 김성수 이렇게 구별해서 1961년 1월 22일 만들었죠. 이 통일사회당이 발족한 3개월 뒤인 4월 3일 서상일은 당수자리인 정치위원장자리를 후보인 저에게 물려줬지요. 다음에는 주로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의 제2공화정 수립의 핵심운동을 살피는데 제 활동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혁신운동의 두 기둥이었던 사회대중당하고 통일사회당은 똑같은 민주사회주의를 내세웠으니까 이동화선생님의 노선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선생님이 속한 통일사회당은 민주사회주의론이 훨씬 더 우파적이고 서유럽쪽인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이 어떤 이론적 입장에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화: 제 생각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글은 사상계에 기고한 한국적 사회주의의 길, 험난한 과거를 더듬고 미래를 전진한다인데

362 혁신계의 통일논쟁

그 상편은 1960년 11월에, 중편은 61년 1월에 각각 발표되었는데 하편은 결국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건전한 사상의 소유자고 근대 한민족 역사를 제대로 옳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동조한 측면은 전혀 없지요. 오히려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대한민국의 삶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발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현희 : 그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동화 : 근대적인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혁신적 정치운동은 처음에는 민족독립운동이죠. 다음에는 민족독립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의 결합물입니다. 항일독립투쟁의 기간은 좌파 우파가 항일 민족해방이라는 그런 과제때문에 단결했지요. 그래서 통일정선당으로서 신간회가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민족유일당 여운형의 전국동맹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선생님의 통일사회당은 비록 국제연합을 통한 국제적보장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전제했다고 해도 비현실적인 어떤 영세중립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이동화 : 저와 통일사회당 간부들은 소련의 공산주의 수정주의화,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어요. 소련이 자유주의화 민주주의화 방향으로 나가고 또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본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그 물결이 북한에, 또 김일성이 쫓겨난 뒤에 북한에 밀려들면 북한의 폐쇄적 독재체제도 불가피하게 자유화, 민주화 적어도 사회민주주의화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산권 일방이,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변하면 대한민국도 민주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돼서 결국 남북한이 같은 지점으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에 동서진영의 수렴과 남북한의 수렴속에 영세 중립화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일종의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은 특히 북한에 관한 한 잘못이 아니겠나 보겠어요. 그 뒤에 북한에 전개과정에서 보듯이 북한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기는 커녕 오히려 김일성의 유일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가 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남무력 폭력노선을 더욱 굳혀 나갔기 때문인데 이러한 오늘날의 추세를 볼것 같으면 지금 소련, 동구권, 중공이 우리 한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의 통일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대사연구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관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선생님은 1959년 4월 동국대학교 도서관장에 취임하시고, 1960년 4.19 직후에 동국대학교 교수에 취임하셨습니다. 같은 해 10월 31일 사상계 기자 유순덕여사와 결혼을 하시고, 1960년 6월 17일 사회대중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참가하시면서 총무위원과 기획위원장을 맡으시고 뒤에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십니다.

7.29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했지만 낙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61년 1월 21일 통일사회당 창당선언에 참여를 하시고, 2월 21일 당헌 제정, 4월 3일 당대표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때 혁신계 전면 엄단에 따라서 62년 4월 27일 혁명재판소 상소실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64년 8월 26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다음해 12월 24일 잔형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70년 4월 29일 통일사회당 당수격인 당위원장에 피선됐지만 취임을 거부하고, 72년 1월 18일 대중당 최고

위원의 권한대행을 하시며, 73년 6월 20 일에는 대중당을 자진 해산 합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 14 일에는 민족통일 촉진회 창립에 참여 하시면서 1972년 2월 25 일 민주통일촉진회가 공식 결정된 후 최고 위원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1월 27 일 민주회복 국민선언대회의 선언문에 서명하고 대회에 참석했었고, 1979년 5월 3 일 발트하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1년 1월 20 일 민주사회당 창당을 도와서 당고문이 되고 제 1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서 물러나시게 되었습니다.

81년 3월 5 일 독립동지지도위원으로 선출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83년 7월 21 일 민주사회주의 연구회를 창립해서 의장에 선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4년 7월 21 일에서 22 일 민주사회주의 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으로 한·일 민주사회 연구회의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시고, 86년 5월 30 일 여운형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로서 몽양탄신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3, 24 일 한·일 민주사회연구회의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88년 11월 현재 만 81세를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 안신규 (安新奎)

1. 생년월일 : 1919.12.3
2. 출 생 지 : 평북 박천군
3. 주요경력 :
 - 신의주 평안중학교 졸업 ('38)
 - 신양시 북농전문학교 졸업 ('42)
 - 북경 청아학원 졸업 ('43)
 - 해병대 사령부 사무관 ('52 ~ '56)
 - 민족일보사 창립, 폐간 ('61)
 - 민족일보사건으로 복역 ('61 ~ '70)
 - 민족통일촉진회 운영위원·감사역 ('73 ~ '85)
 - 한국기민당 수석부총재 ('81)

이현희 : 안선생님, 오늘 바쁘시고 또 많은 옥고를 치르면서 불편하시는데도 저희 현대사를 쓰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매우 보람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족일보 하면 4.19와 함께 5.16 직전까지 혼란한 시기에 창간해서 간행이 됐던 신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자금에 대한 출처문제 의혹도 있었던것 같고 또 지상논쟁을 통한 통일문제도 취급하는등 여러가지로 그때 논의가 많이 있었던걸로 봅니다.

우리 현대사를 서술해 나가는데 민족일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민족일보 관계에 제일 핵심되는 분이 누군가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서 그 주역을 만나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마침 안준표선생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오늘 민족일보의 감사로 핵심인물인 안신규선생님을 뵈게 되고 또 제가 자택을 방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일보를 창간하게 될 때에 선생님은 핵심 인물중의 한분이었겠죠?

안신규 : 네. 핵심인물이라고 까지는 쑥쓰러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민족일보를 내 자신이 직접 기획을 세워 가지고 창간했죠. 우리들 입장에서 일간신문사를 하나 창립한다는 것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신문을 경영해 보거나 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가 자금문제가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배경문제도 있었죠. 더욱 정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설정된 목적을 위해서 언론기관이라고 그럴까 신문사를 만든다고 하긴 하지만 신문사를 창립한다는게 가장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임을 실감했습니다. 처음부터 최소한도로 기획을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현희 : 그러니까 그때가 1960년 4.19 직후가 되겠죠?

안신규 : 네. 4.19 후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그럴까 진보적인 정치를 내세워서 혁신세력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동지 중에서 여러분이 혁신계로 출마를 했었죠. 그러나 당선된 사람은 불과 두서너명 밖에 없었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윤길중 같은 이 등 극히 적은 수였기에 아주 비관적인 결과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소위 “혁신”이라는 지도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우리 혁신이란 말이 공산주의적인 혹은 심지어 용공적인 그러한 정치이념의 정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킬까 골몰했죠. 그런 불신감이 뿌리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했죠. 우리들이 결국 혁신계에서 혁신적인 이념을 가지고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는 뜻이, 목적이 무엇이며 뭐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국민들앞

에 알려 준다는 홍보를 위해 신문같은 것이 필요하겠다해서 창립하게 되었죠.

이현희 : 창립할때에 안선생을 비롯해서 어떤분들이 같이 의논을 하시게 됐나요 ?

안신규 : 예, 신문사를 창립할 때는 내 사무실에서 일단 기본적인 요건, 신문사를 창립하는데 있어서의 자금문제, 인사문제, 조직적인 문제등 대충 제가 기본적인 것은 초안을 잡아 그걸 가지고 의논했죠. 처음에는 우리가 민족일보라고 한게 아니고 대중일보로 하기로 했었어요. 윤길중위원하고 나하고 그때 함께 대중일보로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혁신계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한30명 그때 그렇게 민족일보로 하자 했죠. 그때 태화관에 모여서 저희들이 민족일보라는 신문을 우리 혁신계의 사업에 대한 것을 일반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인식시켜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제기했죠.

그 자리에서는 신문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급진적인 논조인가, 아니면 김일성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문인가 했으나 역시 한국은 한국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나가보겠다 했죠. 그 물음이 한국의 입장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규정하는 목표였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신문이름이 어떤것이 좋겠냐 해서 신문이름이 몇가지 대체로 나왔습니다. 몇가지 이름이 나온 가운데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남북한 합친 민족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식의 토의가 있었죠. 거기에 모인 30명의 인사들이 전부다 박수로서 찬성하여 민족일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나하고 윤길중위원하고 얘기했던 대중일보가 나왔죠. 대중일보는 알고 보니 해방후에 그런 신문이 나온일이 있

었습니다. 그때 모이기 전에 민족일보로 신문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일본에서 서울에 나와 가지고 총선거때 경남 청송에서 출마했던 조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현희 : 민족일보의 사장을 하셨죠?

안신규 : 창립때부터 사장님이 됐죠. 사장이 된데에는 그때 사정상이면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역시 윤길중씨가 있었죠.

이현희 : 송지영 선생님이도 있지 않습니까?

안신규 : 송지영씨도, 우리 민족일보의 처음 출발 당시에 중요한, 결정적인 의사를 표명했죠. 그때 그대로 동의해준 사람이 불과 4~5명밖에 안됩니다.

이현희 : 그분들이 핵심인물이죠?

안신규 : 그렇죠. 조용수, 윤길중, 송지영, 안신규. 물론 이종률씨라고 있어요. 부산대학의 정치학교수를 지낸 분인데, 외곽선에서 있는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지요. “내조국 내산하”라는 책을 내고 6.25때 평양까지 가서 김일성에게 동족상잔의 쓰라린 전쟁을 지양해야 된다고 호소하던 박지목씨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훌륭한 분이죠.

신문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조직하는데 그때 발기인들 다 있었지만 발기인이 해준 그대로…… 그때는 법적 중역들의 이름은 취체역으로, 일제때 용어 그대로니까, 취체역이 지금은 이사로 되어 있지만요. 그때는 일제때 만들었던 그 이름 그대로 취체역인데 조용수, 윤길중, 고종욱 또 사회당의 당수도 들어있었어요.

이현희 : 이동화씨도 있었지요?

안신규 : 이동화 선생은 안들어 갔죠. 물론 제가 발기인의 한사람

이었지만 저는 그 주식회사 민족일보의 감사였죠. 군재(軍裁)때도 가장 문제가 된것이 실질적으로 민족일보를 운영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형집행을 당해야 되죠. 나를 사형 처분하지 않고 조용수를 사형 집행한 것은 우선 정치 재판이기 때문이죠. 조용수는 사장으로 있었죠. 실질적으로 민족일보에 대한 책임이 안신규 한데 있다손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내가 감사니까 또 우리 조용수 동지는 사장으로서는 대학을 비롯해서 지방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하는 등등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치였죠. 나는 감사로서 순전히 사무실에 앉아서 운영에만 전담을 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자기들이 이어 가지고 조용수 동지를 사형집행을 하고 나하고 얼마전 작고한 송지영씨는 살려두었어요.

왜 제가 실질적으로 민족일보에 대한 전체적 책임이 있느냐 하면 그 자료가 지금 법원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일보 정관에 있습니다. 그 정관에 한 조목이 붙어 있습니다. 상임 감사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신문발행 및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상사나 회사에서도 다 있는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서도 틀림없이 모든것을 안신규가 책임지고 지휘하고 다해 왔는데, 특별히 볼것 같으면 정관에 말입니다. 상임 감사가 어떤 위치냐? 원래 아시다시피 상사나 회사의 조직이란 것이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인 이사진들이 집행하는 것을 그 후에 감사들이 전부 감사해야 되어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의 예입니다.

이현희 : 감사의 위치가 다른 회사의 감사와 달리 특별한 위치겠지요 ?

안신규 : 정관상 볼것 같으면 감사가 일차 책임을 지게 되어있었지요. 내가 승인을 하지 못하며는 신문을 발행 못하게끔 되어 있

370 혁신계의 통일논쟁

었죠. 모든 간부 중역은 물론이고, 나는 실질 모든 직책에서 자금, 인사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나한테 와서 내가 결재를 해줘야 만 되죠. 결재서류도 과장, 부장, 국장 거쳐서 사장실로 와서 결재한다 하더라도 결재된 서류가 다시 나한테 와서 내가 최후로 결재해야만 지면을 배꾸었죠.

조용수사장 결재된 것 가지고는 지면은 안되죠. 그때 재판때 나 이로 봐서 조용수 사장하고 나하고는 꼭 12년 차이가 있었고, 또 그만큼 나는 사회경험도 많고, 국내 정치사 중에도 어느정도 잘 알고 있는 형편이죠. 나를 중요시도 했을 뿐더러 실질 그러한 정관에다 조목을 집어넣고, 신문사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오해를 했죠.

이현희 : 그 조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모양이군요?

안신규 : 물론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남조선 간첩사건이라고 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와 일본으로 건너간 이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일보에 지금 관계하고 있는데, 이영근은 간첩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영근을 몇번 만난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양심적으로 언제나 생각하는데 민족일보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나는 정말 손을 들죠. 나한테 책임이 있는거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하죠.

이현희 : 그럼 그 조직이라든가, 제일교포 문제라든가, 그런것으로 해서 상당히 오해를 받으신 것 같네요?

안신규 : 이영근이 간첩죄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와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이영근을 몇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일본가는데는 정치적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타고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죠. 내가 선원증을 내 가지고 일본에 가서 만났습니다.

우리 혁신계가 민족일보를 하니까 이것이 결국 김일성측하고 동조해서 신문을 낸 것이다 라고 몰았죠.

이현희 : 그러면 그당시 민족일보를 경영하는데는 자금이 꽤 필요할텐데요.

자금조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신규 : 조용수 동지가 청송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출마 할때에 많이 가지고 나왔던 자금이 그때 돈으로 약 한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투입하였죠.

그 다음에 조용수 동지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민간계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출마를 했지만, 내가 국내에서 신문을 만들기로 했다 하니까 일본에 연락을 해서 자금을 조금 가져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신문사를 내면서 지방에 각 지국을 전부 설치해 가지고, 혁신적인 정치노선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상당액 투자했죠. 그걸 가지고 사무실도 만들고 준비를 했죠.

이현희 : 그때 민족일보 사무실이 정동, 예전의 희망사 출판사 그 자리에 있었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4.19 때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죠. 민족일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안신규 : 지금 생각해 보니 상당한 자금을 그때 내가 거둬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내가 민족일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었죠. 그때 조총련계 자금이 아니냐 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죠.

이현희 : 그런 혐의는 분명하게 없었죠? 이런것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현대사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안신규 : 혁명재판에서요, 사형을 언도 받았는데 왜 사형을 언도했느냐 하면, 우리가 용공적인 통일을 주장했다 해서 사형을 언도했죠. 당시 우리의 판결문에 보면 알수 있어요. 돈이 조총련계에서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자금을 조련계에서 얼마를 갖다가 신문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텐데 그런 말이 일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일보의 사옥이라든가, 여러가지 운영기구들, 차량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한 재산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압수해서 국가가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일체 그런게 없죠.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는 부정이라는 것이 재판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죠.

이현희 : 판결문에 전혀 안 나왔나요?

안신규 : 없죠. 전혀 없죠.

우리 정동의 사옥을 보게 되면 희망사에서 지은 사옥이 그때 몇 천만원 호가 했죠. 우리 사옥을 중앙정보부 부지로 썼거든요. 우리를 다 구속한뒤 그 자리에서 차량도 책상도 그대로 그들이 사용했죠.

이현희 : 그냥 그대로 다 인수한 셈이네요?

다 내쫓아 버리고 자동적으로 국가환수해서 국가 재산화 한 것인가 보죠?

안신규 :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에서 부정재산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압수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절차도 없이 중앙정보부에서 자기네들 걸로 썼죠. 자기네들이 다 착복을 하고 집기와 차량들 전부다 팔아서 자기네들 다 써 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 나오고 나서 재산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나 아직도 지금 재판부에 계류중입니다.

이현희 : 아직도 계류중입니까? 그게 1961 년도인데.

안신규 : 무서운 일입니다.

이현희 : 정치재판이고 무슨 재판이고, 그때만 해도 꽤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법도 무시하고, 힘있는 사람 위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가요?

안신규 : 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느낀 것이 일제때도 나는 군대를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정, 군인들이 정치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아주 혐오감이랄까.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군대란 것이 특수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속에서, 군대만이 가지는 특수한 법을 가지고 운영되어 나가는 그 세계에서 자라난 사람들에 의해 정치를 하려니까 국민들을 마치 사병들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취급하는, 참 위험한 겁니다. 나하고 조용수하고 싶은 고문을 당할때가 생각납니다. 고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고문이라는 것이 취조할때 자기네들이 쓰라고 한 것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쓰지 않던가, 어떻든 자기네들이 취조하는데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취조하는 사람들이 고문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걸 그것이 아니었어요. 새벽 정각 1 시입니다. 그때 우리가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었죠. 나하고 조용수를 불러내요. 그래서 나가보니 밖에 까만 지프차가 있는데 거기에 태우면서 동시에 안대를 가립니다. 유치장에 있을때 물론 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죠. 수갑을 찬채 끌려 나가서 10 분인지 20 분인지 30 분인지 시간을 알수 없죠. 끌려간 곳이 지하실인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간첩들을 취급하는 남산의 간첩 취급하는 데예요. 거기에 우리를 끌고 들어갔는데 그안에 들어가서는 안대를 벗기죠. 어쨌든 한니까.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방이 이만한 방과 또 옆에 방이 몇개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방에 끌려 들어가고

조용수는 옆방에로 분리해서 가운데 칸막이는 뭐냐하면 나무판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중간에 30축인가 10축쯤 되는 희미한 전등에 무슨 장치를 해 놔는데 수갑을 차고 들어가서 앉히고 양쪽 다리에다 포승을 하고 이쪽 수갑을 찬대를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벽에 장치가 되어 있는 보턴을 누르면 웬 소리와 함께, 내가 그때 90kg이 넘는 중량급 이었거든요, 매달려 올라 갔어요. 그럼 천장에 올라가니 벌써 그때부터 짹 조이고 숨이차서 악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양쪽을 다 그렇게 해 놓고는 아마 20세쯤 되는 해군 작업복 입은 애들이 2명씩 들어 오는데 그놈들한테서 술냄새가 확 풍겨요. 그 들어온 아이들이 내가 사람 죽는다고 악 소리 치는데도, 어둡기도 하지만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들어오면서 매달려 있는 걸 모르니까 자기 인솔 책임자한테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고요. 손가락으로 매달려 있는 쪽으로 가리키니까, 밑에서 보면 손 발이 묶여 있으니 허리를 칠수 밖에요. 허리를 이렇게 치니……

그런데 그것을 꼭 9일간 계속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죽어 갈것 같으면 보턴을 눌러서 내려서 다시 차에 실고 유치장에 우릴 넣으면 사람들이 저를 똥통 옆에다가 놓았죠. 그래 9일동안 그런 고문을 당하다가 왜 중지 되었느냐면 상부에서는 민족일보에 대한 조서를 빨리 작성해서 보내야 되겠는데—안신규, 조용수가 가장 중심인물이었죠— 이 사람들한테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 둘다 반 죽어서 쓰러져 있으니 어떻게 조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상부에서 독촉이 심하고 하니까 고문을 중지해야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고문한 사람이 어느 소속의 사람인지 모르고 단지 내가 알때는 그것이 간첩 취급하는 부서라는 걸 알았죠. 신문이 배달되는데 그 신문의 영수증을 힐끗

보니까 무슨 회사라고 되어 있었죠. 그 급사 아이가 북에서 온 사람들을 조사하는데라 해서 알게 됐죠. 그래 가지고 간신히 9일만에 조서를 작성하고, 그런식으로……

이현희 : 그러면 체포 당하신게 5.16 직후 인가요?

안신규 : 5.18 일이죠. 우리가 신문을 5월 18일 아침까지 썼으니까요. 18일날 민족일보 사옥으로 육군 중위가 왔어요.

이현희 : 그럼 사옥내에서 모두 체포, 연행당한 겁니까?

안신규 : 그렇죠. 나하고, 조용수, 그리고 편집국장 양수정, 상무로 있던 정상도와 그의 부장급들도 많이들 연행됐죠. 그때 부장급들은 다 석방해주고 편집국장, 중역들만 일단 구속했다가 편집국장 양수정만 재판받고 취조를 당했죠.

이현희 : 사설쓰는 논설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안신규 : 논설위원들은 지금은 학교에서 다들 정년퇴직 했습니다. 조동필 고대교수, 또 이건호 이대교수, 고정훈도 얼마전에 돌아가셨죠. 또 김철이라고 있어요. 사회당의 당수를 했던 김철 등등 해서, 지금은 죽은 서울 시립대학의 이상두 교수, 이 사람이 윤길중의 사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논설위원은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이현희 :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썼는데 그때에 안선생님이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족일보의 통일논쟁 같은게 꽤 활발했던 걸로 보거든요. 아시는대로 그때 민족일보의 통일관 이랄까 통일방법론 이런 것들은 논설위원들이 썼겠지만 하여튼 민족일보 자체의 어떤 사시(社是)라 할까 그런 깊은 뜻도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논의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평화통일주의로 나갔겠죠?

안신규 : 지금 내가 그때 당시 주장했던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일보의 그것을 동아일보에서 전질을 다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것데요.

이현희 : 민족일보에 대한 무슨 유인물로 나온 누가 쓴 글 같은 것 있을까요?

민족일보에 대해서 잡지에 낳다던가 ……

안신규 : 잡지에 나온 것이 동아일보 기자가 재판 기록만 가지고 소개한 것 뿐이죠. 별로 우리 민족일보에 대해서 파헤쳐서 모아 놓은게 없는데 특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한테 몇사람이 이 민족일보를 주제로 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고록 식으로 해서 내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죠. 특히 조선일보의 조덕송위원과 나오는 옛날부터 가깝게 지내왔죠. 조덕송이 민족일보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서 수차 권고했는데 내가 건강도 나쁘고 머리의 기억만 가지고는 자칫하면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일피일 끌어도다가 이번에 내가 이렇게 결심한 것도 이교수님 지금 말씀하신것 때문에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민족일보의 역사를 한번 상세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희 : 그렇죠.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신규 : 우리가 논설위원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때 물론 경영자측의 우리들 의견하고 논설위원들 하교의 의견이 합치될때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의견이 엇갈릴때도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야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데 저쪽은 완전히 그때는 공산주의 체제였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한발 전진해서 적어도 사회주의 정도 선까지는 나가야만 서로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했죠. 말로만 평화

적인 통일 통일하지,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나 조용수나 우리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논설위원들은 역시 나름대로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희망, 기대, 당위성을 인식시키는데로 일단은 이끌어 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남쪽에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부가 수립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너무 그 시기가 빠르다는 반론도 있었어요. 그런걸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고정훈입니다.

그 다음엔 그때만 해도 우리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6.25를 치르고 나서 어려울 때였죠.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이 아주 심화될대로 심화된 상황이었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래야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상태는 더욱 비참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부유층 이라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그리고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그만큼 상태가 달라졌죠. 그때는 부유층 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류층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를 가지고 부유층이라 그랬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빈곤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상태란 문전걸식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층에 대해서 용기를 줘야 되고 힘이 되어주려고 했어요. 모두가 어려웠으니까. 우리 민족일보가 용기를 주는 신문,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북이 통일이 됨으로써 이 가난을 면할수 있다고 하는걸 설득하는 신문이 되고자 했어요. 예를들어 지금은 죽은 서울 시립대학에 있던 이상두 교수같은 사람은 논설위원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 인신매매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때만 해도 사창가라는 것

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상두 교수로 하여금 사창가 실적을 적나라하게 쓰라고 했지요.

그때 비용을 내가 결제해서 준거니까 말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설위원들이 쓴 사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민들의 생활상을 상세히 파헤치게 해서 구빈책(救貧策)을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희 : 작고한 이상두 교수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많이 썼겠네요?

안신규 : 많이 썼고 실제 우리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려운 생활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실제 사창가에 돈을 가지고 갔죠. 아가씨들한테 돈을 주면서 한시간당 얼마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부모가 있느냐 하는 그 실태조사를 상세히 했습니다. 내 기억에 한 20일 매일 돈을 가지고 나가서 취재를 하고 신문에 내보내고는 이런 비참한 사회현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장했죠. 그때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산다, 전쟁을 하면 우리민족이 삼천리 강산에서 멸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조국강토가 소련땅이 될지 중공땅이 될지도 다시 일본놈이 점령하게 될것인지 미국의 것이 될것인지 모른다, 전혀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곡히 주장을 했죠. 물론 그때 당시 각 신문들도 통일에 대한 사설을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군사재판 받을 때에도 우리측 민족일보 담당했던 변호사들로 하여금 다른 신문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논의 사설같은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때 군정에서 쿠데타에 성공했던 박정권은, 언론계에서는 민족일보를 대표적으로 장악을 해야만 된다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은

말뿐이었죠. 세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이 사람들이 사형언도를 받았죠.

이현희 :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용수 사장만 사형을 집행한 셈이군요?

안신규 : 예. 나중에 나와서 들은 말을 빌면 그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을 구성 조직해서 운영했는데 거기서 자유당때 소위 부정선거법들, 정치깡패들, 또 혁신계, 밀수범, 경제범들 중에서 누구를 사형시키면 좋겠느냐 하니까 아마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자기네들이 투표라고 할까 뭔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사분과위원장이 일일이 신상보고를 했지요. 안신규, 송지영, 조용수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민족일보는 '언론기관이지만서도 실제 조용수는 젊은 사람이고 국내 사정도 잘 알지 못하고 하지만 실제 사장으로서 대외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고 신문사의 사장으로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재판이니까 역시 정치적인 비중으로 보서는 조용수가 안신규보다 월등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고 송지영과 안신규는 사형은 면했지요.

이현희 : 그때 송지영 선생은 주필이었습니까?

안신규 : 실제 신문사의 필진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신문사 사옥을 송지영씨가 소개를 해주었거든요. 그런것이 또 편집부국장으로 오소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같은 사람을 소개를 해서 편집부국장으로 두는 등 그러니까 신문사의 창립에서부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준 사람이라고 해서 혐의를 받았지요.

이현희 : 그래서 또 사형이 언도된거군요. 그러면 송지영 선생은 실질적으로 민족일보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정통하게 모르고 있었겠군요.

안신규 : 간여하지 않았지요.

이현희 : 그래 민족일보의 통일논의에 대해서 국민들 반응은 어떤지 알수 있었습니까?

안신규 : 지구촌 통해서 우리 민족일보가 주장하는 통일노선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집계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중에서는 물론 학술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통일노선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그때만 해도 자유당 때부터 소위 평화통일을 주장할 것 같으면 용공성을 가진 통일방법이라고 그래서 처단을 했거든요. 진보당의 조봉암선생같은 사람도 모두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집행을 한 것은 이승만 박사하고 대통령선거때 그런 정치적인 미묘한 관계도 있지만, 평화통일을 주장한 정당이라고 해서 진보당이 문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주 타부시 되어 있던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일보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통일을 주장하니까 반응이 좋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시내에 가두 판매 부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이 역시 동아일보 였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민족일보가 나오고 나서는 가판부수가 우리 민족일보 부수가 제일 많을 뿐더러 또 빨리 팔리는 속도가 민족일보가 제일 먼저였지요.

이현희 : 예. 그때 국민들이 민족일보의 통일논의, 통일방법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었고, 호기심도 물론 작용했지마는, 그런게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안신규 : 우리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또한 우리가 행복되게 살아가갈수 있는 길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이 안되면 우리민족은 지구상에서 멸족을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조국 금수강산은 폐허가 되고 우리 강토는 어느 강대국의 영토가 될

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북에서는 이렇게 공산주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돈, 사촌끼리 말이 되듯이 아무리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적대시하는 체제가 아니냐? 그리고 저쪽 지금 북에서는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동족상잔의 6.25 전쟁 같은 것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민족은 파멸 쪽으로 가는 거니까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이런 빈곤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층에서는 그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이현희 : 그런데 이북에서는 민족일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외신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어떤 반응같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까?

안신규 : 알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자들을 진실로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뜻이 있는 지가 의심스러워요. 그것은 무슨 소린가하면 평양방송이나 이북에서 나오는 노동신문이다 하는 것에서는 한국 국내 사정을 소개하는 기사를 쓸 때 민족일보를 자꾸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정부를 비롯해서 일반사람들은 저 민족일보가 용공적인 성격을 가진 신문이 아닌가 하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평양에서 자꾸 민족일보 기자위원, 보도위원을 들먹이는 겁니다. 물론 자기네가 원용할 재료는 없지 않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내가 설명한 이상두 교수하고 사창가의 그런 사회 참상을 소개한 기사들, 이 신문이 가거든요. 그것을 볼것 같으면 남한은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옥이라고 얼마든지 국제적으로 자기네 선전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습시다만, 그때만 해도 민족일보 민족일보 그러니 여기서 정보기관 같은데서 보면 신문에 나와, 방송에 나와, 그러면 민

죽일보가 뒷전에서 김일성측에서 자금이 나오거나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서 자금이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결국 직접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는 차원높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의심을 할수 있는 것이죠. 5.16이 일어났을 때는 마침 우리를 탄압하는 좋은 자료가 되었겠지요.

이현희 : 구실이되지요. 이적행위라든가 용공좌경이라든가 하니깐 오히려 거기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지요?

안신규 : 5월 1일이 세계적인 노동절이라고 베이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승만 박사 정부에서 5월 10일로 베이데이를 고쳤지요. 5월 10일날을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일보 습격을 해왔습니다. 제일진이 구두땀이 아이들, 거지들, 일당 800원 점심값 해서 주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우리 민족일보 앞에 그렇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설치느냐하면 “빨갱이 신문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벌써 그런 정보를 다 듣고 우리 사진기자로 하여금 주변의 높은 빌딩의 옥상에 가서 현장의 사진을 찍도록 해서 숨겨놓고 나머지 급사이하 전원다 퇴근시키고 회사를 비워놓고 심지어 조용수 사장이하 전원이 다 정문에 서서 딱 지켜봤지요. 그러자 나를 돌팔매질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 30분씩 떠들고 난 뒤 가요. 그다음 제 2진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상이군인들을 트럭으로 세대나 실어서 그 중에서 특히 휠체어타고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공산당 신문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이, 내가 할수 없어서 시경에다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시경에서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출동하지 않다가 요청을 하자 최루탄을 발사할 수 있는 20명쯤 일개 소대가 와서 지켜서 봐주고, 세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희 : 상당히 많이 수난을 당했군요.

안신규 :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일보사에 대해서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일보의 노선과 신문이 주장하는 것이 용공적이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가끔 많았습니다. 전화오고 편지오고 하는 예가. 민족일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민족일보의 사설이나 기사를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민족일보의 사설 기사내용은 다 보지도 않고 한장쯤 보고 나선 그것 가지고 우리 민족일보의 성격을 용공적이다, 친공적이다,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유언비어의 효과라고 할까? 그것이 겁이 나는 것이 말이지요. 그 말들이 자꾸 흘러 나가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공산주의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사이엔가 극렬적인 공산주의자가 되고, 민족일보가 아니고 그야 말로 평양에서 발행되는 노동신문같은 것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그런 신문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론의 위력인데 그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물론, 첫째는 역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고 또 지금은 언론기관들이 많이 저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자체 보호를 할수 있는 역량도 생겼고 그런데 그때만해도 그렇지 못할 때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현희 : 감사합니다. 민족일보사의 창립배경과 통일논쟁에 관해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상세히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준표 (安俊杓)

1. 생년월일 : 1927.4.21
2. 출 생 지 : 함경남도 북청
3. 주요경력 :
 - 만주 심양법정대 졸업 ('44)
 - 월남 ('45)
 - 진보당 중앙상무위원 ('56)
 - 신민당 정책연구실장 ('71)

이현희 :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보당에 대해서 얼마간의 자료가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현대사일수록 자료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줄거리라든가 정책이념의 근본적인 내용을 안다는게 대단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와 함께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역사적 사실을 직접 증언해 주시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사실에 접근하고자 오늘 안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출생지는 어디십니까?

안준표 :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이현희 : 그리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안준표 : 1927년 4월 21일입니다.

이현희 : 월남하신 것은 8.15 직후 입니까?

안준표 : 예. 12월달이지요.

이현희 : 진보당이 조직된 것이 1956년 11월 10일이죠?

안준표 : 예.

이현희 : 진보당이 조직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대로 1956년 전후라면 자유당 집권시절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계실텐데 그때 진보당은 대단히 혁신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다 하는게 그 당시의 일반인들의 생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자유당의 통일정책도 매우 경직되어 있었던 상태이죠. 그런 시기에 진보당을 조직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배경 등을 말씀해 주셔야 진보당의 면모가 잘 알려지지 않겠나 생각되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표 : 진보당의 창당이 1956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국내외적으로 몇가지 정세상의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당시 정권을 담당한 이승만 대통령정권이 정권의 말기현상을 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정권은 이승만의 개인권위와 남북한 관계의 긴장을 이용 국민을 탄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주적 자각과 권위의 실추로 정상적인 통치방법으로는 정권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승만정권은 여러가지 불법, 탈법의 변칙적 수단을 동원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4사5입」 개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헌법의 파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4사5입 개헌으로 이승만정권은 두가지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첫째는 반 이승만정권 연합세력의 구축이요, 둘째로는 민심의 결정적인 이탈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이승만정권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권력과 민심의 악순환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하에서 국민들이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조봉암선생을 위시한 혁신계 인사들도 반독재 민주투쟁을 위해 재야 보수세력과의

연합전선에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없이 혁신계 인사들의 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독재 전선을 양분시켜 보수세력 스스로가 민주투쟁에서의 한계를 들어냈습니다. 당시 죽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팽이를 끌고라도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민주투쟁 운동에서 배제된 혁신계 인사들은 일부 자유주의적 보수계 인사들과 합작, 새로운 정치공간을 찾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진것이 진보당 창당입니다.

둘째로는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의 허구성과 한계입니다. 이승만정권은 남북한이 전쟁에 돌입하게되면 일거에 북한을 무력통일시킬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당시 국무장관 신성모(申性模)같은 자는 만약 무력북진의 기회가 주어지면 해주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평양에서 들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6.25때 인민군의 남침을 받자 단 사흘만에 수도 서울이 무혈점령을 당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북진통일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차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동기간의 전쟁에 양측에 외국군까지 어울려 이 좁은 강토를 불바다 피바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루면서도 양측의 전선이 해방후의 38선으로 교착 휴전협정이 성립된 것만 보더라도 북진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내용으로는 계속 무력과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남북한 미국·중국이 대좌한 「제네바」국제회담에서는 한국통일에 관한 14개 조항같은 평화적, 정치적 통일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정권도 국제대세에 역행할수 없어 제안한 북진통일정책의 한계요 그 양면성입니다. 당시 휴전협정은 체결되었으나 남북한의 존립과 긴장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준전시상황하에서 또는 국민피해의식에서 또다시 북진통일, 다시 말하면 전쟁수단을 통한 통일은 대다수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태와 국민연원이 진보당으로 하여금 평화통일을 주장케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소련정권의 권력내부의 변화입니다. 「스탈린」은 한국동란에 깊이 개입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미·소간의 냉전상황을 이용하여 세계적 규모로 무력과 혁명수단을 번갈아 동원하면서 혹은 직접개입으로 혹은 대리전쟁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한국전쟁도 이러한 「스탈린」의 세계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던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시초프」가 반스탈린의 명분으로 권좌에 등장함으로써 소련의 대외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스탈린」시대에는 자본주의 진영과의 공존은 불가능하며 이에따라 전쟁도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스탈린」과는 달리 자본주의진영과의 전쟁은 피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평화공존과 전쟁가피정책을 주장하였으므로 세계 냉전상황에 한가닥의 난류가 흘렀습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북한정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영향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대남무력도발의 기회감소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상 말한것은 진보당 창당을 애워싼 일반정세의 배경을 말한 것이고 진보당 창당의 더 구체적 동기는 당시 우리나라는 집권자유당과 한민당으로 부터 이어온 보수야당이 정치를 양점(兩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양당은 수구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반동성이 강한 정치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민주주의, 통일문제, 일반국민대중의 권익대변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더욱 노동자, 농민, 진보적 인테리, 중소기업자, 제계층을 대변할 혁신정당의 출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혁신 보수 양

당체제가 우리 국정에 맞는 정당체제로 생각하였습니다.

이현희 : 네. 그러면 죽산 조봉암 선생을 처음 안선생님이 만나게 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또 진보당 조직이 1956년 11월 10일이라고 하셨죠?

안준표 : 56년 2월경에 만났을 것입니다.

이현희 : 그 당시에 죽산은 무슨 정당활동을 했었나요?

안준표 : 그때 가칭 진보당의 준비기구가 창설돼 있었으므로 죽산(竹山)도 정치지도자의 한분으로 준비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현희 : 준비위원회 같은것이 구성된 것은 언제 입니까?

안준표 : 1956년 3월 31일입니다. 그전에 내가 만날때에는 특별한 기구형태가 되어있지 않고 삼삼오오 사람들만 모여 협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현희 : 그당시 준비기구에는 어떤분들이 있었습니까?

안준표 : 조봉암(曹奉岩), 서상일(徐相日), 박기출(朴己出), 윤길중(尹吉重), 김기철(金基喆), 이명하(李明河), 조규희(曹圭熙) 등 각계 각층에서 참여하였지만 주로 김규식 박사를 모시던 중도우파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현희 : 그러면 역시 우사 김규식 선생의 지지자들이라 할까요?

안준표 : 우사 김규식 박사 개인을 지지하였다기보다 중도우파노선을 지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정치행적에 특색이 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반공운동을 하다가 혹은 투옥 혹은 탄압과 감시를 피해 월남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함경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이현희 :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씨는 경기도 강화도 출신인데요?

안준표 : 지연관계는 없죠. 하지만 함경도사람 아닌 분들이 죽산한테 “여보시오, 당신은 경기도 사람인데 왜 주위에 전부 함경도 내기들만 있느냐?” 그러니까 죽산이 “아 여보시오, 다른 사람은 하

자고 해도 안하고 겁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을 마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 한 적도 있지요.

이현희 : 하여튼 요즘의 정치가들이 지역, 파벌문제를 조성했지 과거 정치인들은 그런것 다 초월한 대범한 정치가들로서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인맥이나 지맥을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준표 : 지역적인 편향이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원칙론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당성(黨性)과 능력에 따라 책임을 맡겼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면 당시 진보당에는 원내의원 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비화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보당 간부들중에 함경도 사람이 많으므로 어떤분이 죽산에 향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죽산 말씀이 다른사람들은 함께 하자고 하여도 기피하는데 그들은 이 어려운 투쟁에서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나서니 그들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 하고 도리어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이현희 : 요즘 새로 일어나는 정당을 보면 지연관계, 인맥, 학벌, 문벌들로 잘 뭉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진보당은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정책의 결정 이념을 가지고 나와야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준표 : 현재 우리 사회내부를 보면 지연, 학연 인연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사회인만큼 이러한 현상이 전혀 없을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실정을 보면 대단한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민주주의를 하자면 우선 공동체 내부가 통합되고 동질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사회는 「모자이크」사회입니다. 서

로 다른 가닥과 토막을 억지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고 통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통합할수 있는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이념정당이 출현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봉건적인 유습이라 할수 있는 정당정치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이 보수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현희 : 우리 먼저 키우자, 우리 입장을 키우고 또 장래의 어떤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고 하자는 것인데 요즘 보면 몇몇 당들은 지역당이라 하는 인상이 농후하거든요. 또 무슨 문벌당이다, 무슨 학벌을 중심으로 한 사람끼리 모였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절대로 못받는거죠.

안준표 : 현재의 정치지도자란 사람이 있는 한 지역감정이나 지역정당의 성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각기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지금까지 개인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정당체질에서 과감히 탈피 당내를 민주화 함으로서 세대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현희 :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우선 당내의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당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준표 : 정치문화나 정치풍토가 일조일석에 바꾸어 지겠습니까? 시간을 요하겠지요.

이현희 : 그 다음은 진보당이 조직된 시기와 중요한 쉼터를 나타낸다면, 강령이 되겠다고 하겠지요? 조직시기와 강령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기억하시겠지요?

안준표 : 앞서 말씀대로 진보당의 조직시기는 1956년 11월 10일입니다. 강령은 5개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항목에서는

좌우익의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배격하고 혁신과 개혁의 책임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경제항목에서는 혼합경제를 바탕으로 수탈없는 경제 즉 분배의 정의와 공정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의 국가보장제를 강령에 삽입하였고 통일은 평화통일로 하되 민주세력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때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색적인 것은 원자력 평화이용 문제가 강령조항에 있습니다. 그 한조항만 그대로 옮겨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혁명이 재래할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하여 사상과 제도의 선구적 창조로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달성에 기한다』 그것만 보더라도 진보당은 낡은 이념적인 교조에 억매인 정당이 아닙니다. 역사의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 그리고 다무성을 보고 출발한 정당입니다.

이현희 : 말하자면 요즘 많이 주장되는 분배의 정의 그것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은데요.

안준표 : 그렇습니다. 사조적(思潮的)으로 보면 오늘날의 서구형(西歐型) 민주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피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혁명수단이 아니라 민주적인 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 보겠다는데 있었습니다.

이현희 : 강령속에 통일정책을 나타낸 것은 어땠습니까?

안준표 : 진보당의 강령조항중에서 가장 특정할 것이 평화통일조항입니다. 이 통일주장 때문에 국민간에는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정치집단간에는 질시, 모함, 음모의 대상도 되었고 탄압의 구실 그리고 끝내는 당수 죽산 조봉암선생도 잃게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진보당의 통일조항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우방과 진밀히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이 조항이 문제의 진보당사건의 발단이요, 정치수난의 조항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뜯어보아도 문제될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승만정권의 무력복진통일과 대립된 평화통일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현희 : 그리고 그 당시에 요즘같이 구체적으로 상호 지도자의 교류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비 정치적인 것부터 교류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까?

안준표 : 그 시기는 통일문제가 아직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평화통일이란 통일자체도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도 아닙니다. 평화적 통일방법속에는 여러가지 평화적 방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이란 무력통일에 대립 대칭되는 통일방법의 대강이요 총칭입니다. 진보당내에서도 김기철 같은 분의 다년간의 통일연구의 결정으로 자기 사안(私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정책으로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약해 말하면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이 「제네바」 국제회담에서 제안한 통일에 관한 14개조 제안을 전향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진보당이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해 당책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죽산 조봉암 선생의 논문속에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글을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겠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벌써 무력에 의한 통일이란 길은 앞서도 말했지만 막힌지가 오래다. 남은 길이라고는 정치적, 평화적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치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역시 국가존망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현 정부의 시책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안을 경솔히 발표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런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안도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유엔」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가지 통일안도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첫째, 「유엔」감시하의 북한만의 선거안, 둘째로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서 연립정부안으로 남북 양국회에 의한 전국위원회안이 있으며, 셋째로는 중립화에 의한 방안, 넷째로는 국가연합에 의한 방안, 그리고 다섯째로는 「유엔」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의 방안등이 있다. 그런데 첫째안은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안이고, 둘째안은 북한정권이 낸 안이며, 셋째 넷째안은 중립국측으로부터 나온 안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안이 누누히 말해온 바와같이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안인 것이다. 그런즉 우리들 입장에서 볼때는 둘째 넷째안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하는데서 부터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전혀 상대할수 없는 안인 것이고, 또 셋째안도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기는 해야 하되 민주적 승리를 염원하기 때문에 관념적 유희를 일삼을 수 없으니 그 역시 문제할 것이 못된다. 그럼 첫째안은 어떠한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마땅히 「유엔」을 향해서 싸울수 있는 안이기도 하다. 「유엔」감시하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유엔」의 승인을 얻어 합법정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유엔」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북한에도 선거를 실시시켜서 우리 국회에 남은 백석의 의석을 채우게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 안은 북한이나 소련이 반대할 뿐만아니라 하나의 통일방안으로는 너무 편협한 것이라 인정되어 「유엔」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호응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나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북한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가정할때 북한의 실정으로 보아 완전히 자유분위기가 조성될수 없으리라고 볼때 선거결과는 북한정권의 대표자만이 선출될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될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공산당원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국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백명의 공산당원들이 밀어 닥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때 북한만의 선거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수 없지 않는가? 그보다는 차라리 진정한 민주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선거하는 경우라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이북에서도 민주주의자 다수가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될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 공산당 백명을 국회에 갖다 놓는 것 보다는 옳은 일일 것이며 또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고도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섯째안 즉 「유엔」결의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동일한 시간에 선거가 실시된다는 것은 좀 불유쾌하기는 하지만 기왕에도 「유엔」감시하에서 몇번씩이나 선거를 해왔으니 또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나쁠것도 없을것 같다. 나는 거듭 말하거니와 이것이 중대한 국가적인 외교문제이니 만큼 현 정부의 주장과 전면 충돌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나라에 해를 끼칠까 저어해서 현 행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이외의 구체적인 안을 공열하기를 사양하기로 하겠다. 이것이 국민으로서의 도리요 정치적인 상식으로 믿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 대한민국안에 있어서의 모든 민주주의진영 정치가들이 이 통일문제에 대한 통일안의 계획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성 통일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쟁취하자.』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쓰신 글입니다. 당시 포악한 독재권력하에서 여간한 용기가 없으면 발표못할 글이죠. 여기서의 통일방안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동시 총선입니다. 축산은 남북한의 자유 분위기만 보장이 되면 선거를 통해서도 북한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이 깔려있고 자유 총선거라야 남북한 대중의 자유의사가 반영이된 실질

적인 통일중앙정부를 세울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죽산은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파당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시했으며 통일문제의 초당적인 대처를 위해 연합전선 또는 범국민적 기구의 설치도 역설하였습니다.

더욱 죽산의 정치적 도량은 그렇게 감시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통일문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자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가진 정부를 배제하고서는 심정적인 통일론에 빠진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이교수께서 남북한교류의 구체적인 구상이 있었는가고 물으셨는데 그 시기에는 통일에 대한 기본 틀이 쟁점이 되었지 교류와 같은 하위정책은 뒷전에 밀렸습니다.

이현희 : 사실 그런 얘기가 오히려 오늘 현실에서는 매우 뒤떨어진거죠.

안준표 : 요즘의 통일논쟁을 보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자고 경쟁하고 있는 판국이니. 그러나 아무리 민족공동체란 대의 명분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자제와 절도는 있었어야 합니다. 통일문제는 남녀관계의 짝사랑 처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희 :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이 더 된 그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구적인 것입니다. 몇십년을 앞을 내다 보고서 결정한 그런 정책인데 느끼기에는 정책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때 그사람들이, 집권층들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수준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준표 :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지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과 방법이 있다면 민족통일을 위해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야 합니다. 역사는 어느시대나 선구자의 역할과 희생으로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죽산이 감상적인 통

일론자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분의 투쟁역사나 오랜 정치생활을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이현희 : 그 조직은 1956년 11월 몇일이죠?

안준표 : 11월 10일 창당대회가 열렸지요.

이현희 :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안준표 : 시 공관에서 했죠.

이현희 : 시 공관이면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그 자리인가요?

안준표 : 아니죠. 명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현희 : 그전에 국립극장인 명동. 그때 몇명쯤 모였었습니까?

안준표 : 한 900여명 가까이.

이현희 : 그러시면 그 다음으로는 진보당 조직인데 조직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인사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조직은 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했겠죠?

안준표 : 조봉암, 서상일, 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고정훈, 김기철, 이명하, 조규희 등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현희 : 모두 혁신계 인물로 쟁쟁한 분들입니다.

안준표 : 중간노선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중간노선이라도 중간 우파에 속한 분들이죠.

이현희 : 그때 이동화씨는?

안준표 : 이동화 선생은 직접 관여는 안하고 진보당의 정강정책을 그 양반이 기초를 했죠.

이현희 : 송남현씨도 우파계 인물이죠?

안준표 : 송남현씨도 직접 정당에 참여는 안했죠.

이현희 : 참여는 안 하셨군요. 그때 안준표 선생님도 조직에 크게 역할을 하신것 같은데.

안준표 : 아닙니다. 당시는 30세전의 젊은 청년때라 역할을 하였

으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겠습니까? 그저 말석에서 학생과 정책문제에 미력을 다했습니다.

이현희 : 9백명 내지 천명이 모였다면 대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직의 구조와 부서는 어떠했습니까?

위원장제입니까? 당수제입니까?

안준표 : 관료적인 냄새가 덜한 위원장제 였으며 부서로는 위원장, 두사람의 부위원장, 간사장, 부간사장, 간사, 부간사제로 하였습니다. 부서로는 당무부, 조직부, 선전부, 농민부, 노동부, 사회부, 교양부등이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기구가 있었으나 그것은 생략하고 다른 정당과 다른 것은 통일연구위원회가 창설되어 당내에서 주요기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현희 : 지방 시도 당부같은 것이 있었겠죠?

안준표 : 대개 있었죠.

이현희 : 얼마나 됐습니까?

안준표 : 각도마다 대개 다 있었죠.

정식으로 발족 못하고 준비 추진기구로 있었죠.

이현희 : 그때가 3대 대통령선거 시절 아닙니까?

1956년 5월, 3대 대통령선거를 했는데 그때 위원장 조봉암선생이 출마를 했었죠. 결당하기 전에 출마했는데 그당시 제가 듣기에는 예상외의 많은 표를 얻었다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준표 : 제 3대 대통령선거에는 축산이 많은 표를 받았고 이승만은 불법 탈법의 부정행위로 당선을 조작하였습니다.

이현희 : 요즘 일부에서 지나치게 공산권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 같은데요.

안준표 : 준비없이 파속한 북방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실체는 움직이

지 않고 분위기만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소련아카데미에 한국문제만을 연구하는 사람이 수백명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련 정부의 외무부, 정보기관, 언론기관까지 합치면 상당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대화교류를 멋지게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소련행 「티켓」을 따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방정책의 기본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념과 현실정책간에는 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구상은 좋으나 현실정책에서 실패한 실패를 소련을 상대한 다른나라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들뜬 분위기를 가라 앉혀야 합니다.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자제와 절도있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현희 : 그것을 보면 참 진보당의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진보당의 죽산은 소련을 어떻게 생각했죠? 그리고 소련을 많이 왕래도 했죠?

안준표 : 특별히 그문제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사건때 일입니다.

「헝가리」사태는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어떻게하여 실패하는가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산 말씀이 반소련만이 아니라 반공까지 주장하면 소련군의 군사개입의 구실을 줄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여기서 소련의 상주권이 흔들리게 되면 소련권은 건잡을수 없는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현희 : 진보당 사건을 용공조작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나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판결할 만한 법관들이 없었나요?

안준표 : 독재체제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 뿐입니다. 더욱 진보당사건은 예민한 통일문제와 조작된 간첩사건까지 겹쳐 있었습니

다. 여간한 용기가 없으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심재판장 유병진(柳秉震) 부장판사가 통일정책 간첩관련을 면죄하고 무기 불법소지로 5년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용공판사로 몰려서 피신생활을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이현희 : 그때 난입한 사람들이 반공청년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완전히 사법이라는 것이 권력의 시녀이고 독립성이 없었죠?

우리가 삼권분립했지만 말만 삼권분립이고.

안준표 : 가인이 있을때, 김병로 있을때는 어느정도 독립성이 있었죠. 그후에는……

이현희 : 자유당때에는 조용순씨도 대법원장이고 그런데 그때인지 모르지만 용공판사라고 모두 성토를 하고 그랬었지요.

안준표 : 그래서 저는 늘 이런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래 해방전의 친일과 문제부터 잘못 걸어왔지만 역사에는 중간정리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중간정리를 했으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고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정치인 그 세력이 해방 40년을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도를 백번 고쳐봐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사람이 그사람이니 안돼죠.

이현희 : 요즘 문제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공과를 따지고 넘어가야 잘못된 사람은 또 반성하면서 나가지 두리몽실하게 5에서 6으로 7, 8 공화국으로 가면서 또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면 뭐가 발전이 있어요?

안준표 : 나라가 잘될려면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이 된 나라이지만 역사

400 혁신계의 통일논쟁

의 준엄한 중간청산이 없었습니다. 일제때 친일행위를 하면서 잘살고 출세하던 사람들이 해방후에도 그랬고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래가지고 나라의 정기나 정통이 서겠어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현희 : 안선생님 선대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안준표 : 선친은 안효진(安孝鎭)이고 숙부는 안세진(安世鎭)입니다. 두분 다 독립운동을 하고 옥고도 겪었는데 숙부는 장기복역을 하였고 반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훈장을 준다는 것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 독립운동의 공훈제도 운영이 엉터리고 공훈대상도 정치적 장난이 많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정부의 눈밖에 나서 제외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소앙 선생같은 분입니다. 자진 월북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 갔는데 이북에 갔다하여 수십년동안 공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제는 받았습시다만.

이현희 : 이번의 심사는 새로이 한답시다.

이제는 이런 화해무드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과거의 현격한 공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식, 조소앙 이런 분들은 여론에 의해서 곧 훈장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안준표 : 조소앙선생같은 분은 자진 월북한 것도 아니고 강제 납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쪽에서 순항인가 거기에다 애국자 묘지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해외교포들까지 우리 과거의 애국자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앉아 있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생각을 해요.

요전에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선생님 이쪽보다 저쪽이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성이 뭐가 있냐 하니까 저쪽은 독립운동을 훨씬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많이 한것은 뭐냐, 그러니 독립운동 실지로 많이 했다 이거죠. 내 그래서 그놈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래 네말이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과거에 일제말부터 보면 저쪽 사람들 고생한것도 많기도 하다, 그러면 전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김일성이 어느정도 대표할 수 있고 연안파 박헌영의 남로파도 소련파도 다 숙청하고 자신의 파만 가지고 한것 아니냐, 그래 이것이 전체 공산주의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정통성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르지 않느냐고 했죠.

이현희 : 요즘 학생들이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준표 : 저는 솔직한 말로 정치운동하느라고 했지만 그래서래 사회주의 공부를 한 40년 해 보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쪽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조금 안다고도 생각하는데 요즘 학생들 하는것을 보면 엉뚱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이론공부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우선 전술서적 같은 것 몇줄 봐가지고 내가 다 아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현희 : 몇가지 이렇게 표면적인 것 그것가지고 기본이 안잡힌 상태인데, 그러니까 엉뚱한 이론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준표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현희 : 진보당에 관련된 분들 과거에 안선생님하고 같이 정당하던 분들 요즘은 진보당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안준표 : 그런것 없습니다. 안하고 지금 축산기념사업회 같은것..... 1989년이 3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보니까 시골서 한 3백명

가까이 올라왔고 또 화환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금년이 29주기이고 명년이 30주기인데 30주기를 조금 성대하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일부에서는 우리끼리만 하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했어요.

이현희 : 한번 재평가를 하셔야지요. 우선 사면복권이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훈을 풀어드려야 되지. 아까 제가 들었듯이 간첩혐의가 씌워졌고 그랬던가요?

안준표 : 그렇죠. 간첩죄지요.

이현희 : 간첩죄여서 내란죄가 되나요? 그때 죄명이 뭐였습니까?

안준표 : 간첩죄죠.

이현희 : 사형이라는 것은 가장 극형이 아닙니까?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재판 아닙니까?

안준표 : 정치재판이지요. 전무후무한 어거지 재판입니다. 미리 사형이라는 결과를 예정해 놓고 이에 맞춘 재판이니까요.

이현희 : 정적 제거 케이스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안준표 : 일례로 5·16 이후에 조용수라고 민족일보 사장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이가 33살인가 돼요. 그사람은 일본에서 민단의 청년부장이 돼 복송을 할때 청년들을 데리고 길에 드러누워 반대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여기와서 민족일보라는 것, 즉 혁신계 대변적 비슷한 것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람이 조총련으로 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정치세계란 비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재권력하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진보당사건이래 진보당 관계인사들은 30년 동안이나 횡포한 독재권력의 희생물이 되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할때면 용공분자로 몰아부쳤고 정변기가 되면 옥에 가두어 넣었으며 그

것도 모자라 사회안정법이란 소급입법을 만들어 묶어 놓았습니다. 독재권력이 이처럼 터무니 없는 사상조작을 하니 사회적으로도 무슨 불은 사상의 보균자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평생을 정치수난을 당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노선배들은 저세상에 가신분도 많고…… 이 인생의 보상을 누가 하여야 합니까?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할수 있습니다. 기히 우리들은 암흑한 역사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 즉 인권과 법치가 보장되는 건전한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현희 : 그때 민족일보 사건도 컸죠?

안준표 : 컸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예요.

이현희 : 그 민족일보 사건에 선생님이 관련이 되셨습니까?

안준표 : 난 관련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의 정치재물로 만들었어요.

이현희 : 대략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기탄없이 해답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진보당 관계의 자료가 없는, 있어도 정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속에서 여기에 핵심적으로 관련을 맺으셨던 안준표선생님의 증언이 우리 현대사를 기술하는데 사실접근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사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올바르게 정통적으로 기술해 놓는 현대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큰 토픽중심의 말하자면 핵심인사, 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분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아마 좀더 정확한 자료를 대담을 통해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404 혁신계의 통일논쟁

안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바로잡는데 크게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6. 반공청년단과 통일논의

< 증 언 자 >

◦ 신 도 환

◇ 신도환(辛道煥)

1. 생년월일 : 1922.5.25
2. 출 생 지 : 대구시
3. 주요경력 :
 - 대구 계성학교 졸업 ('40)
 - 일본 명치대 법과 졸업 ('43)
 - 일본 동경대 법과 4년수료 ('54)
 - 미국 콜롬비아대 3년수학 ('57)
 - 4,8,9,10,12대 국회의원 (5선)
 - 대한체육회장 서리 ('59 ~ '60)
 - 한국반공청년단 총본부 단장 ('59)
 - 한국신문 윤리위원 ('71 ~ '79)
 - 신민당 사무총장 ('74)
 - 신민당 최고위원 ('75)
 - 대한유도회장 ('75 ~ '79)
 - 독립기념관 이사 ('86)
 - 신한민주당 총재 ('88)

이현희 : 신민당 총재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신 신도환의원님을 모시고 반공 청년단 관계를 비롯한 우리 현대사에 관계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의원님, 공사간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현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원님은 제가 사학도로서 알기에는 반공청년단을 결성해서 반공운동을 하시고 그 이후 30여년 동안 의정단상에서 선량으로 많

408 반공청년단과 통일논의

은 활약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원님께서 반공청년단을 결성하기 까지의 과정을 출발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도환 : 이제 반공청년단 문제는 지나간 일이지만 저와 관계되는 얘기이니까. 반공청년단 관계를 말하겠는데 사실은 반공청년단 초대 단장은 과거에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영국에 사시는 김용우씨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초대단장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는 김용우씨가 단장할 때는 반공청년단의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직함으로 반공청년단에 관여를 했습니다. 또 그 관여를 하는 동기는 내가 생각할 때 한 8년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동경대학에서 4년동안 공부를 하고 고국에 돌아올 무렵에 이 박사께서 YMCA 100주년기념 파티 대회에서, 그것이 1955년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라고 해서 고인이 되신 신흥우박사님은 서울에서 바로 나오시고 나는 동경에서 바로 가서 거기서 만나 뵈 일이 있습니다. 그후에 한 2주일간 회의를 마치고 신흥우박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바로 본국으로 가시고 나만 거기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본부의 연락이 있어서 나는 남아 있다가 그때 한 일주일후에 그 당시에는 물론 파리에 있는 총영사관의 총영사한테로 가서 구라파 근처의 서클운동,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서클운동이 뭔지 총무 자신도 모르고 나도 그것을 전부다 연구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총영사의 주문이 왔는데 자기도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들이 궁리한 끝에 단체, 이런 서클운동이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 보자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달 가량 영국, 독일, 이태리 등 구라파를 돌았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같은데 독일에 가서, 과거에 히틀러가 있을때 말하자면 유켄트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를 볼수 있느냐고 내무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면 서류를 많이 줍니다. 그

것을 받아오는 것이예요. 또 이태리에 가서 뭇솔리니가 하던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것은 웃도리 입은 청년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직한 그런 서류, 하여튼 영국에 가서는 또 YMCA 관계 그런 서류를 모아 가지고 실제로는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 서클운동이 청년단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대 단장을 김용우씨가 했는데 제가 58년 2월달에 본국에 돌아와서 그해 5월달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돕고 그렇게 된 거지요.

이현희 : 초선에는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셨지요?

신도환 : 예. 대구 갑구입니다. 대구 제일지구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었지요. 소선거제였는데.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난뒤에 반공청년단을 김용우씨가 하는데 전국적인 조직이 되지를 않아. 내용을 전혀 몰랐지요. 왜 안되는지를 몰랐지요. 그러다 김용우씨가 어떻게 되서 그만두고 공석이 되어 있었어요. 공석이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 시경국장이었던가? 이강학씨가 나한테 와서 “구라파도 가고 했는데 구라파는 왜 갔습니까?” 그래서 “YMCA 100주년이 되어서 갔는데 나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청년운동 관계때문에 안갔습니까?” 해서 “청년운동이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무슨 청년운동한다고 내가 갈턱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틀림없이 그랬지 싶은데” 합디다.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하러 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젊은사람중에 나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왜그러냐 하니까 그때 서대문에서, 그때 서대문하면 이기봉 의장택이 아닙니까? 시경에다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젊은 사람중에 청년문제 관계를 연

구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 다음 다음날 아침에 또 왔어요. “아무리 해도 선생님이 그런것을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니까 세번째 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청년운동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동경대학에서도 국제법 관계를 연구했다고 했죠. 그리고 서클운동때문에 내가 다른데를 돌아다니는적이 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집을 대구에다 갖다 놔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서 나도 잘 모르고 서류만 갖다 놔는데 그것이 과거에 못술리니, 히틀러, 그리고 스위스의 민병대의 서류를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고 돌아가고 난뒤에 그 다음에 서대문의 이기봉씨 댁에 갔단 말이지요. 그 전에는 난 무소속이라 인사만 했지 잘모르죠. 처음에는 이기봉 의장님댁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인사를 간다고 해서 갔다가 문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현희 : 초대위원이 몇대입니까?

신도환 : 4 대지요. 1958년도 5월 2일날이 4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처음에 가서는 면회도 못하고 돌아왔지요. 문앞에서 안 열어주어서 었지요.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가니까 청년 김용우 단장이 그때 당시에 자유당하고 사이가 나빠서 후임을 구할려고 하는데 청년문제 관계로 젊은 사람중에 구라파를 다니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한다고 했죠. 그러는데 암만해도 신의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줄 모르겠다고 했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라고 하니 그때는 이승만 박사

님이 젊은 사람중에 청년운동 관계로 공부를 한 그 사람을 갖다가 쓰는데 안 좋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찾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는데 적당한 인물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가 그해 8월 17일이지요.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대의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임단장을 선출한다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때 나를 후임단장으로 추대를 했던 말이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한국청년단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행선지를 꼭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알려 놓으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와서 지금 그곳으로 가니까 좀 계시라고 그래서 있으니까 단장으로 추대됐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들어가니까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취임사를 하라고 하는데 취임사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책상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취임을 하고 단장이 됐는데 그 단장이 되고 그 이튿날 새벽 일찍 이 박사님을 만났지요. 그때 말씀이……

이현희 : 그때 이박사님 처음 만나는 겁니까?

신도환 : 아니지요. 내가 공부하러 가고 그러는 것이 이박사님이 저를 보내서 갔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점만 말하면 지금 자유당이 백성들한테 많이 신용이 없어. 그러니 청년단의 일할 사람들 시킬때 자유당 사람들은 넣지 마라.” 그 말씀이죠. 둘째는 “청년단하려면 돈이 들텐데 그 돈드는 것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획은 얼마든지 잘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런 말은 안하는게 좋다”고 하고 말씀을 했죠. 이기봉 의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라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후보 명단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경찰도 나하고는 이야기를 할 때 대표를 찍어서 올리는 것으로 제일 후보가 전부 자유당사람들이었죠. 바로 이쪽 사람들이예요. 처음에 먼저 자유당 사람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보고 친야 쪽에 가까운 사람, 안그래도 정없다고 해도 자유당 간부된 사람은 안 넣었습니다. 내가 안넣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데서는 박동근이라고 저 쪽계통에서 전향한 사람이거든요. 또 총본부 단장은 내가 단장이죠. 부단장은 배중호라고 일본 와세다 대학 나온 축구선수인데 해방후에 들어와 가지고 전국준비위원회다, 혹은 남로당계통을 했다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수석 부단장으로 하는데 내가 임명을 하고 그랬죠. 그대로 조련계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하는데 청년단이 앞장섰다 하지마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군산, 목포하고 마산의 단장하고가 선거 도중에 구속이 되었어요. 반공청년단장이 자유당을 비난한다고 구속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홍진기씨인데 홍진기씨한테 석방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위에 까지 말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거중에 나온 일이 있어요. 3.15 선거 중에 전국을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혼자서 돌아다니는데 다니는 곳마다 연설이 뭔가 하면 이 선거에 간여를 하지 마라. 그것도 나 혼자서 마음대로 그러는게 아니고 이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청년단은 남북통일하고 참 반공청년단이 할일이 있을 때가 있을 테니까 이번 선거같은데 잘못 나서가지고 청년단이 움직이면 안된다, 그러니 그것을 명심해서 단원들한테 꼭 내가 말한대로 잘 알려주라, 그래서 그때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내가 서류를 내 봤습니다만, 내가 내린 비밀공문에는 청년단 단원들은 절대로 간여해서 안된다 하는 것이 자유당 3.15

선거였어요.

그런 증거들을 들면서 심지어 검사가 그 때도 청년단에서 내가 강연한 녹음테이프가 나와서 그 녹음을 직접 들어봤는데 저것은 신도환이 목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재판부에서 검사가 인정했죠. 대통령선거는 정당에서 하는 것이지 청년단은 절대 간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국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지요, 신도환이가 정계에 들어가 정치는 제대로 못했지마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선거에 신도환이가 혼자 그런말을 했다고 그러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생각은 이박사님의 생각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오늘날 내가 살아 남아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4.19 후였죠. 4.19 그 무렵에 자유당의 정무위원회에서 고대 습격사건이랑 3.15 부정선거를 한것을 신도환이가 했다해서 신도환을 원흉으로 몰아 넣은게 자유당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내가 정리를 할려고 보니까 자유당에서 결의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현희 :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이자리에서 이것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신도환 : 예.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에 있는 선배들이 그 당시에 나한테 이랬구나 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4.19가 나가지고 다섯번은 더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자유당 시절 국회의원, 대통령선거하는데 회의에 한번도 참석해 본 일도 없어요. 내가 참석을 해야 부정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참석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고대 습격사건도 처음에는 신문에 이름 한번 안 비쳤는데 나중에 자유당 정무회의 한 후부터 신도환이 신문에 나타났어요. 또 검찰에서도 신도환이가 간여를 했다. 그리고 신도환이가 지금 인천항으로 도주를 했다 했죠. 그래서 내 스스로 신문보고 13호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신도환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신도환이 본인이나고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는 내 발로 가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잘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좀 나오면 좋겠다 해서 내가 나가서 반공청년단 관계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쨌서 이런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화랑동지회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반공 청년단장이 명령을 해서 그리 됐다고 거짓으로 말한겁니다. 나는 그당시에는 화랑동지회가 무엇인지 그것도 몰랐죠.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래서 종로 4가에서 고대 학생들을 습격한 사건도 나의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질을 시켜달라 하니까, 대질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임화수, 유지광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대질을 했죠.

이현희 : 유지광이나 임화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었지요?

신도환 : 유지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또 임화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오전에 내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온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유지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몰랐고 자기네끼리 온 사람중에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때 아침에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동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나는 너무 상상 밖이어서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낮에는 내버려 두고 밤에만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참 다행으로 풀려졌다고 하면서 나가고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 할려고 한다고 해요. 사실 이튿날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

명령은 경무대 광영주 경무관이 임화수한테 해가지고, 임화수가 유지광이한테 하는 이런 계통으로 해서 고대 습격사건이 성립됐다, 또 고대 습격사건은 오전 10시에 벌써 했다는 겁니다. 나하고 만나가지고 동원을 시켰다 하는것은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가지고 그것을 봐가면서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가 만나야 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그 검사가 하는 말이 사실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명령이 반공청년단을 구속시키라고 하니 도리가 없소, 다른거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미국에다 돈을 도피해 났다 스위스에다 돈을 도피해 났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여하튼 그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죠.

이현희 : 그것은 무슨 제보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루머를 가지고……

신도환 : 루머지요. 심지어 부산 보세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전부 신도환이가 갖다 실어 놓은 물건이니 그것을 조사하라고 해서 며칠 또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공청년단에 나간 돈을 횡령했다고 그랬는데, 통장에 나간 '돈 다 있고 남은 돈 다 있고 횡령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지금 있다고 그러면 방법이 이것 밖에 없는데 신문을 좀 보시요, 라고 하면서 이왕 들어가 있는게 편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죄도 없는 사람 형무소에 들어 간다고 편하냐고 했지요. 그러다가 오전 2시나 3시쯤 되어가지고 자기하고 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구속된 사유를 보면, 돈 700만원 횡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가 이야기 한 것이 “돈 천만원만 해먹었다고 하세요.”

“무엇으로 썼다고 하느냐?” “그냥 빼내서 가용으로 썼다하면 될 것 아니요.” 그때만 해도 순진하기도 순진하지만 몇번 형무소에서 매일 저녁 같이 그렇게 하니까 검사도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물건사는데 흥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보고 무슨 국회의원 청년단장한 사람이 어린애 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내가 혼자 느끼고 판단한게 있어서 “정 그렇다고 그러면 500 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 “500 만원은 너무 작다”고 그래요. “정 그렇다고 그러면 절반 딱 잘라가지고 750 만원 합시다.” 그래 내 생각에 “여보시오. 700 만원이면 700 만원이고 800 만원이면 800 만원이지 750 만원이 우습지 않소?” 그래서 “그럼 700 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700 만원 횡령했다고 그러고 구속영장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10일 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유병진이 면회를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와 나는 어떤 관계나 하면, 그가 조봉암사건을 언도하는 재판의 재판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빨갱이로 몰려 있을때는 내가 사보이호텔에 나혼자 있을때 나한테 피신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나하고는 또 학교의 동기동창이 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조봉암사건을 판결하는데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게 없느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조봉암이 그럴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적 있어요. 그러니 내가 4.19 후에 그런일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하니까 자기가 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가 절대 안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고 했어요. 구속한 3일후에 좀 먼 검사가 한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면서 들어와 있소?” 사실 전의 검사하고 한 말이 있으니까 공판때에도 들이 한말은 지

켜야 된다 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래서 “횡령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말 횡령 했소?” “무엇을 했소?” 그래서 말 한대로 “술먹고 가용에 쓰고 했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조사를 합시다.” 그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만들면서 자기가 나중에도 담배를 내 놓으면서 세상에 이래도 되겠느냐고 자기 혼자 말로 그러고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반공청년단에서 돈을 무슨 단장이 횡령해 먹었다고, 그것을 가용해 썼다 해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분말이 그렇디다.

이현희 : 그것 자체도 횡령죄로 성립이 될수 없다는 거지요.

신도환 :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내서 내 구속영장을 멘 검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여보, 당신 나하고 약속이 안틀리냐?” “무슨 약속이 틀립니까?” 그랬더니 “나하고 말할때는 공판장에 가서도 둘이 이야기 한것을 지키자고 했는데 어제 다른 검사가 와서 조사할때와 말이 안틀리느냐” 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조서 한번 보라고 하면서 “조서한 것은 말한 그대로 내가 700만원 횡령을 해가지고 가용에 쓰고 술먹고 했는데, 그대로 다 말했는데, 여보시오, 당신 조서도 안보고 무슨 그런말을 하느냐?” 고 하니까, 그가 “조서에 그렇게 말했느냐?” 고 해요. 그래서 “여보시오, 조서도 안보고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한테 조사한 검사가 가서 서로 둘이 구두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검사가 조서는 보지않고 왔어요.

그렇게 시일이 흘러 내일이 20일인데 마지막 19일이 되어서 그날 아침에도 그 유병진 변호사가 나한테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성립이 안된다. 기소가 되지 않으니 내일 되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나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말

입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조사도 몇번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도 아무 소식이 없고 말이지요. 그렇게 20일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20일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변호사가 와 가지고 기소 됐다고 그러디다. 그러나 10월 8일 그때에 언도하는데 내가 무죄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논고할 때 신도환이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장관목을 띠었다 붙였다 하고 말이지 제 2인자라고 검사 논고할때 그러디다.

“이승만이가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신도환이를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해외에 8년동안 나가서 부정선거 연구를 하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청년단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의 앞잡이로 했다. 그러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엄벌에 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7년인가, 사형인가 구형을 했습니다. 그때 그날 같이 나와 있던 자유당에 있던 선배들, 서울시장도 같이 재판받고 구형하고 난뒤에 최후 진술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됐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혼란하고 정변이 일어 나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후 진술할 말이 없다고 내가 진술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최후 진술에는 직접 사건에 관계없는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나와서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첫째로 재판에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말을 하라고 해서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유병진 변호사하고는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유병진 변호사는 기억을 할지 몰라도 재판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창시절에 저도 법학도인데 형법 교수인 사카모도 교수의 말씀이, -일본에서 심판관으로서서는 훌륭한 심판관이 죽을때 유언을 하는데, 죽으면서 사위도 판사인데 딸을 보고 하는 말이 ‘남편이 출근할때 절대로 너

는 불쾌한 얼굴을 하지 말고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해줘라. 내가 오늘 죽으면서 꼭 내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잘못 났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한 심판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젊었을 때 강도인가 그에게 1년 6개월을 간밤에 판결문에 형까지 써 놔는데 출근할 때 어머니하고 입씨름을 한 후에 재판석에 앉아 가지고서도 그 생각만 나고 그랬는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언도를 하고 말았다. 내가 그동안에 몇 십년 동안 심판을 하면서 그것이 언제나 마음에 걸렸다. 내가 지금 임종인 이 순간까지도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니 너는 그런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딸은 남편이 남을 심판하는, 형을 주는 사람인데 언제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아내가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 했는데, 오늘 재판장님 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온갖 소리 다하고 지금 신문 보지는 못하지만 들어봐도 혼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관은 법대로 꼭 해주기를 바라고 재판장님도 꼭 이 재판이, 이 결론을 언도할 때에 제가 아까 사카모토 교수가 말을 한 그 심판관처럼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심판관이 안 되기를 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판장한테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환이 무슨 고대 습격사건이다, 무슨 부정선거다, 이것은 내가 지금 이자리에서 변명을 하고 어찌고 하기 이전에 이미 다아실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240만 청년의 단장으로서 그 책임은 대통령 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기봉 의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환 단장이 잘못 이끌었으니 학생들이 죽었다는 그 댓가로서 너는 사형에 처한다하는 그 언도로 고쳐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살려는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자유당 선배들이 나보고 무슨 그따위 말이 있느냐고 해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전부 비겁하게 굴지 않느냐, 이박사 연로해가지고 뒤에서 장면씨한테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따위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했지요. 그런데 막상 언도할 때 보니까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는데 전부 사형, 무기, 혹은 15년, 10년하고 하는데 이상하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신도환하는데 보니까 판결문에 나왔지만, 판결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되어 있는 판 사람들이 말했던 것하고 상치가 되니까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는 무죄를 언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안 나왔습니까?

이현희 :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신도환 : 너무 뜻밖이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다시 국회에 전부 다 뛰어들어 가 가지고 2월 8일날 재판언도 한것 다 무효라고 했죠. 그뒤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 소급법이에요. 재판한 신도환이 무죄됐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가장 오점을 남긴 소급법입니다.

이현희 : 다시 문제 일으켜가지고 소급법에서 다시 재판한 거지요.

신도환 : 예. 그때 나는 피해버리고 없었죠. 5.16 나가지고 다시 혁명재판소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지요. 그런데 전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형 구형을 해가지고 언도를 20년을 했죠. 판사람 다 보내면서 홍경희씨하고 글자 한자 안틀리는 같은 조문인데 불과 1,2,3년만에 다 내보내고 자유당에 있을때 들어간 사람중에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있었지요. 그러니까 20년 언도 받아가지고 만8년 10개월 산 셈이지요. 그래 나와서 다시 정계로 활동한다고 한데 요즘 이런 상태를 보면 지난날 생각해서 하고 싶

은 말도 많지만, 그러한 쓰라린 체험을 하고 내 나름대로 정치를 하면서도, 또 이 정치풍토라고 하는 것이, 이번 13대 가서도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될것은 내가 예측을 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왔습시다마는 사실 반공청년단이, 알고 있겠지만 신문지상에 난 반공청년단이 그런 나쁜 단체는 절대로 아니었지요. 나는 전국에 다니면서도 우리 청년단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전국적으로 쥐잡는 것을 지시하고, 전 농촌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코스모스씨를 배부 해준게 반공청년단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년단이 할수 있는 것은 남북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일을 해야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모범되고 그사람 말이면 모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돼라고 했죠.

이현희 :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반공청년단이면 모두 부정선거 같은 이런 사건에 활용된 걸로 그 당시에 신문에도 그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청년단의 최고 책임자 단장인 신도환하면 그사람은: 그런 부정한 일을 하는데 피수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 전해지고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해주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도환 : 실제로 신문지상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도환이가 그렇게 나빴으면 형무소에 들어 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대구 시민들이 나를 국회의원 시키고, 그후로 야당에 들어가 가지고 5선 의원하고 신민당에 가서도 자유당하고 정 반대 정당인데 거기에 무슨 사무총장을 한다, 최고 위원을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사실로 국민들이 그렇게 반공청년단 나쁘다고 했다고 하면..... 시간이 흘러 보니까 반공청년단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교수 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하는것이죠. 그때 재판장이 장준택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죄 언도를 했을때 그 다음날 신문에 보면 그당시 조재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분이 재판장한테 재판을 무죄로 하고, 이런 재판장이 있을수 있느냐고 할때 지상으로 토론한게 있어요. 그때 장준택 재판장이 정 그러면 지금 법 조문으로서는 도저히 유죄를 때릴 수는 없으니 먼저 법을 고쳐라고 지상토론에서 그렇게 나올 정도였죠.

이현희 : 현직 변호사시지요? 장준택이라는 분이.

신도환 : 예. 그분한테 그런 사회에서, 그리고 반공청년단장이 그랬는데 어떻게 무죄를 때릴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알것입니다.

이현희 : 똑같은 법조문인데 소급법 가지고서는 사형 구형, 20년언도 그래가지고 감형,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8년 10개월을 완전히 옥고를 치루신 셈이네요.

신도환 : 그리고 같은 재판에서 같은 조문이면 무기보다는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기형이었는데도 무기가 다 나오고 난 뒤에도 혼자 놔 두었다고 하니까 말할 것이 없지요.

이현희 : 이런 것은 말하자면 사법재판이 아니죠. 선생님은 정치재판에서 희생이 된 그런 셈이군요.

신도환 : 이런 희생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는데요.

이현희 : 글썽 말입니다. 하여튼 반공청년단 문제는 단장이셨으니까 가장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서 역사에도 그렇고 일반인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같은 것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7. 7·4 남북공동성명과 통일논의

<증 언 자>

- 이후락 ○ 서대숙
- 신영석

◇ 이후락(李厚洛)

1. 생년월일 : 1924.2.23
2. 출생지 : 경남 울산
3. 주요경력 :
 - 미국병참학교 고군반 수료 ('52)
 - 국학대 법과 졸업 ('55)
 - 육본 병참감 ('54)
 - 육군소장 예편 ('61)
 - 대통령 비서실장 ('63 ~ '69)
 - 주 일본대사 ('70)
 - 중앙정보부장 ('70 ~ '73)
 -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72 ~ '73)
 - 10대 국회의원 ('79)

이현희 :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16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은 전쟁으로 얼룩졌던 이 한반도에 남북간의 대화의 가교를 처음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지금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당시 남북공동성명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했던 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여영무 연구위원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로서 벌써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후락 : 감회야 특히 나지요.

지금 16년째 된다고 하셨는데 실은 이것이 17년째 되는 겁니

다. 남북대화를 갖고 얘기한다면 제가 70년도 말에 소위 그때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전방사태를 세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매우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고 일촉즉발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로 다시 제엄사태에 들어갈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박대통령에게 이렇듯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지 그러지 않고 도저히 오리무중인 이 상태로 그냥 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혼자 힘으로 해 봐라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8월 5일 경입니다. 박대통령에게, 1971년 8월 5일 박대통령께 건의하기를 이번에 우리 적십자로 하여금 북한에서 우리의 제의를 도저히 수락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완전히 인도적인 문제 즉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북에서도 도저히 수락하지 않고는 못견딜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했더니 대통령께서 좋다 하시면서 그러면 최두선 총재에게 가서 의견을 물어보라 해서 정릉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좋습니다 하시면서 이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느냐 하시길래 대통령께서도 결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2일날 적십자회담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북측도 수락을 했고 그렇게 적십자회담을 하다가 북진하고 난 직후에 정치적인 접촉이 서서히 추진이 됐지요. 결국 1972년 5월 2일 내가 평양가서 5일까지 평양에서 김영주와 회담하고 또 김일성과도 2차례 회담을 하고 거기서 7.4 공동성명의 가능성이……

이현희 : 7.4 공동성명이 남한과 북한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도 평가할만 하지만 그때 국제정세를 볼때는 닉슨이 2월에 중공을 가가지고 모택동, 주은래와 회담을 하고 2월 27일에 상해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5월에는 소련을 찾아가서 브레즈네프하고 회담을 하

고 쏘트협정을 하고 여러가지의 평화공존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구체적인 노력이라 할까 그런것도 크게 평가할 만한 국제적인 정치기류인데 이런 데탕트 기류를 타고 남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싸인, 어떤 회담을 해 보라, 또 북에 대해서는 중공이 혹시 북한의 김일성을 어떻게 중용을 해서 남한하고 대화를 해보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후락 : 예. 어쨌든간에 7.4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통일의 3원칙,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통일한다,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사상이나 체제·이념·사회제도를 초월해서 민족적 대동단결을 한다,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목표를 내세웠어요.

원칙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았고, 남북한에 있어서는 1950년 6.25가 난 이후에 22년만에 최초로 남북당국자가 만나서 우리 통일문제라든가 민족문제에 대해서 합의문서를 가지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할만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 7.4 공동성명 그 내용 자체는 앞으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느 개인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아주 민족적인 숙원이 담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주동적으로 걸어갔고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조류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혹은 강대국의 권고에 의해서 한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의 독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현희 : 그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72년 봄이면 김일성이 환갑을 맞지 않습니까? 환갑잔치를 서

울에서 하겠다고 떠들어 대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김일성은 서울에서 환갑잔치를 치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대화의 길을 트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이후락 : 예. 맞습니다. 대화의 길을 트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지상명제 중의 하나지만 통일보다도 먼저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공존으로써 상호 남북한의 교류도 하고 따라서 이해도 하고 서로 알자 이것이었어요. 남은 북을 알고, 북은 남을 알고 그러한 뜻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조금씩 남은 북을 들여다 보았고 북은 남을 들여다 보았고 또 급한일이 있으면 어떤 신호를 어떻게 반응이 와서 어떻게 대화가 된다 하는 것을 감을 잡았고 하지만 그때는 속수무책, 혹은 어디에다가 손을 대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지요. 여하튼 지금 남북대화가 막혔다 안막혔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길을 텃다는 것은, 또 길을 트는 지혜가 많이 발달했다 하는것은 국가 백년대계, 소위 통일이라는 명제를 봐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희 : 남북한 공동성명의 특징이 이 시점에서 눈을 뜨는 것은 재야에서도 그렇고 지금 통일논의가 활발한 이 시점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또 사상과 이념제도를 초월해서 민족적으로 단결을 해야된다, 이런 것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그때 16년전 이지만 상당히 앞서 내다 보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수 있는데 그런 대동단결과 사상·이념을 초월, 그런 정신이 오늘 이 시점에서 16년을 지낸 88년 7월 이시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반영이 돼야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서 느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후락 : 그때 통일의 3원칙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이죠.

그리고 외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세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그 주체적인 생각을 달리하는 힘을 우리가 외세라고 그러면 되죠.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이 물러가야만 통일이 된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말하는 외세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한가지 예를 들죠.

내가 김일성을 만났을 때 5월 4일날 새벽 1시 반이니까 따지자면 정확히 5월 5일입니다.

김일성의 첫마디가 나에게 묻는 것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미제국주의 군대를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도 할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질문을 하니깐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누구요? 수상이 6.25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들 왜 물러갔던 미군이 다시 오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전쟁 걱정하지않고 물러갈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알아듣고는 그대로 허허허 웃었습니다. 바로 김일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화든 무슨 부분을 이용하든 어떤 묘안을 이용하든 궁극적인 것은 외세라는 주체적인 감각의 용어를 써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본전략이니까 그것은 할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무력통일한다면 이념과 체제를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 자료를 말씀드리지요.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난뒤에 박대통령께서 천안에서 연설을 하시다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서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1차 남북조절위원회를 여니까 제일 먼저 북한측의 제일성이 왜 우리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통일을 한다 해 놓고 왜 박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로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쁘냐, 우리가 민주통일한다는것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투표방식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으니까 자기 정치이념으로써 당연히 희망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로써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정치소신을 피력한 것이고 정치적인 이념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나쁘냐, 다만 아무리 그렇게 말씀했던들 나중에 투표할 때에 대통령으로 공산주의를 투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대통령의 희망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염원이 아니겠는가,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말한것이 뭐가 나쁘냐, 또 북쪽에서는 김일성수상은 공산주의로 황제시하는 것이 그분 뿐이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바랄수는 없습니다. 바라면 안된다. 오히려 똑똑한 자기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방식으로써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것이 우리의 공동성명의 주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현희 : 그러면 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에 대해서 문장은 같지만 남북이 서로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후락 :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세의 간섭을 배

제한다는 문제는 오히려 같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만 깨지지 않고 자리를 같이 해서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할 기초만 계속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꼭 이말은 이런 식이다 하는 사전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현희 : 그럼 당시 북한측 공동위원장이 김영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남북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회담할 때는 박성철 당시 부수상이던가요? 그때 김영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락 : 그때 내가 보기에 김영주가 왔다 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내가 두번 만나보고 김일성이가 김영주 대신에 박성철이를 지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습니다.

이현희 :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것은 무력을 배제한다든지 자주통일을 한다든지 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남북한 군사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이산가족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합의문서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당시에는 남북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단한 충격이라든가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말미에 당시 문서를 보도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은 남북한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약속으로 국민앞에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을 그것은 무슨 조약형식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국제법적으로 보면 하나의 북한이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조약이나 협정, 또는 그렇다면 이것을 지킬 이유가 있는데 북한의 김영주가 83년 8월 28일이던가요? 그때 일방적으로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때 기억으로는 김대중 납치사건, 이런 것을 인권문제라 그래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파피를 해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 남한쪽에서도 어떤 문제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것이 파기되어

가지고 연속이 되어서 통일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원인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박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유신하는데 이용했다, 우리 남북교류나 통일문제를 얘기한다 하면서 이것은 통일문제를 당시 정부가 독점해 가지고 민주적인 요소를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또 한가지 김대중 납치사건 이것이 남북한 7.4 공동성명이 구체화 되고 연결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할때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으면 그런 것쯤 듣고 싶군요.

이후락 : 글썬요. 문제는 상당히 정치부분도 포함되어었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 듣더라도 정직하게 이야기 해 놓는 것이 역사에서 남을 것이고 어차피 역사도 밝혀질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10월유신하기 위해서 남북회담 했다 하는데 순서가 다릅니다.

실제 남북회담은 전쟁의 위험을 예방하고 통일을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출발을 해 보자 했고, 그러다 대화를 해 보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된다, 우리도 대통령이 1년을 하고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과 같이 오래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체제를 과시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되겠구나 했죠. 그러한 대화의 모순때문에 10월 17일 10월유신이 발생됐죠.

이현희 : 사실은 처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상당히 깜짝 놀랐었죠. 그다음 조절위원회가 열렸죠. 듣건대 관문점에서 취재를 하는데 북측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방제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측 기자들이 연방제를 주장하길래 그럼 연방제를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냐, 연방국가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은 박정희대통

령이고, 그때는 김일성이 수상이었으니까 수상은 김일성이 수상이고 그러자는 것이냐, 그런식의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 후에 북한쪽에서는 주석으로 바뀌었죠. 체제도 바뀌고. 또 여기서도 바뀌고 그래서 아마 일부 학자들이라든가 해외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북한측이 이미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파괴하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그 후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후락 : 전적으로 대화가 중단된 것은 김일성이 일차적 책임이고 이차적인 책임은 여기서 말씀드린 우리 자체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쪽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여하튼 김일성 전략은 일단 대화를 해 보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든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중단한다 하는 것이 그사람들의 기본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많은 대화문제에 대해서 군과 정부가 예전같이 많이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간의 자유스러운 그 교류통일은 못하지만 통일한다는 그러한 남북교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왜 안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회담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김일성이 반대해서 안되었는데 그 망상적인 그것이 쫓잡이지만 마치 정부가 잘못해서 회담이 안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거든요. 차라리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김일성에게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한다면 훨씬 더 북한에서 반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나도 많이 해 봤지마는 북한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국내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화가 잘되려면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해서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없이 완전히 민주주의의 제도를 굳히고 그리고 우리의 국력을 강화해 나가면 남북대화는 자동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이현희 : 요새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처음에 시작한다는 것이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그런 속담이 있는데 처음에 북한측하고 우리측하고 대화를 할때 대화의 문을 열때 그 쪽에서 사람이 가면 그런 사람 올일이 없다, 잡아둔다든지 해치다든지, 또 저쪽에서 오면 같은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의 불신이 됩니다.

믿을수 없으면 대화가 안됩니다.

처음에 철벽같은 휴전선을 어떻게 넘어가고 오가고 할수 있었는지 양 쌍방에서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신변보호라든가 어떻게 해서 말의 토를 뚫는지 그게 아직 공개된게 없어요.

이후락 : 주로 적십자회담을 할때에 이쪽 심부름은 정보쪽에서 했죠. 북쪽에서는 김일성의 심복이 했었죠. 사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가서 김영주하고 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그쪽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영주 노동당 조직부장과 제3국이나 또는 김부장 원하는 곳에서 회담을 갖고 싶다, 이렇게 운을 띄웠더니 저쪽에서 대답이 오기를 좋다, 그러면 제3국에 잘 필요가 있느냐, 평양이나 함흥에서 하자,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거기서 자신을 얻었죠. 우리같은면 평양이나 서울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야만 상식인데 평양이나 함흥에서 만나자 하는 것을 보고 가망성이 있다, 북한하고 얘기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안됩니다. 즉시 좋다, 그럼 내가 평양에 가마. 저쪽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가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깊이 생각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이지요. 난 그때는 남북대화를 열어보자 하는데 대해서 사실 힘도 없었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은 박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갔다 안 돌아오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내무부장관한테 이런 저런 지시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 어른이 더 신경썼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도 사람인 이상 갈때는 괜찮았는데 돌아와서 판문점을 뒤돌아 보았을때

이현희 : 70년도 초에 공동성명을 통해서 대화의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대화 1기라고 그러고 84년 후 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렸었죠.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있었고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서 있었던 것은 2기라고 보는데 그 북한측이 70년대초 또는 80년대에 들어서 대화에 응했던 저의는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락 : 북한도 자기위주로 남쪽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남쪽의 속셈과 남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관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때 내가 김일성이 만나고 느낀 것은 사람이니까 다 오해가 있었더군요. 김일성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해요. 김일성이 『부장선생, 나는 박대통령이 미 정치안이나 일본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북쪽에 쳐들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상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상, 그건 잘못 보았소, 박대통령이란 분은 전쟁할 필요가 있으면 미국사람이 아무리 전쟁하지 못하게 한다해도 그분은 할 사람이고 전쟁해서 안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바가. 있으면 미국사람이 전쟁한다고 해도 전쟁 안할 사람입니다. 그분은 누구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그럴분이 아닙니다』 했더니 『그렇다면 나는 안심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점에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묻지도 않는 1. 21 김신조사태를 얘기하면서 『1월21일 청와대 습격한 것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도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입니다. 사과를 합니다.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놈들이 스스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다 책임을 지워서 파면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6.25전쟁도 자기는 실제로 말이에요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일종의 사과조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일성에도 우리가 항상 북쪽에서 쳐내려 오지 않느냐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에도 남쪽에서 혹시 박대통령이 쳐 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현희 : 전에 남북문제를 다루었던 입장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후락 : 글썄요. 앞으로의 전망은 김일성의 속셈은 뻔합니다. 김일성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있어 미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남반부에서 자체 혁명군이 일어나서 적화통일 하는것, 이것이 그 사람의 기본노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내에서 부분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부 계층에서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마 북한의 김일성이는 속으로 남반부 혁명전략이 성공돼 가고 있구나,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오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적게 주느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한 관계도 결국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력통일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힘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좋은 조건이 오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지혜와 힘을 우리 역시 자체의 힘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느냐, 힘이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북한도 우리가 잘살고 경제적으로 발전된다고 하면 좀처럼 망동을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림픽을 성

공적으로 치루고 나면 나는 통일을 앞둔 우리나라의 사정은 월등히 남쪽을 위해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희 : 북한측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우리측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후락 : 그때 나는 남북대화하면서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뭐냐하면 남북대화라 하는 것은 평화의 실마리가 되고 통일의 실마리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북대화는 그 진행방식이 조금만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느껴요. 더군다나 남북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회담하다 보면 서로 습관이 다르고, 사람들의 말이 수단인데 그 말에 의해서 감정이 자극되고 말한마디 잘못 했다가는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에서 무슨일이 생기고, 잘못하다가는 회담이 오히려 불행의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항상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회담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평화의 씨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씨도 된다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제가 많이 좋아졌고 남북간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남한이 발달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회담할 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제 잘 산다해도 앞보는 눈치가 있을 때에는 회담분위기가 굉장히 미묘해 지지 않겠는가, 지금 하고있는 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일부 양보한 유연성을 발휘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잘 산다고 교만하다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희 :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오늘로서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명내용은 누구도 또 어느 개인도 어느 단체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욱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38 · 7·4 남북공동성명과 통일논의

아울러 오늘 7.4 남북공동성명 16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측이 다시금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줄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랜시간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락 : 고맙습니다.

◇ 서대숙(徐大肅)

1. 생년월일 : 1930.5.20
2. 출 생 지 : 만주 용정
3. 주요경력 :
 -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졸업 - 정치학박사('64)
 - 미국 휴스턴대 교수('65 ~ '70)
 - 미국 하와이대 교수겸 한국연구소장('71 ~ 현)
 - 북한 왕래('75 ~ '76)

이현희 : 서대숙 박사와의 인터뷰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실상과 정책에 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에 북한문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또 방문도 하셨고, 그리고 또 중공이나 미국을 수시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누구보다도 더 현장감과 함께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시리라고 보는데, 최근에 소련의 북한정책, 그런걸 요약해서 말씀해주시죠.

서대숙 : 아주 최근래에 와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1985년, 86년, 87년 이때쯤해서 저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밀착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대한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기술도입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중공에서 기술도입을 얻을 수 없고, 중공이 거의 미국하고 관계가 진전되고, 또 중공이 한국하고도 관계가 점점 두터워지기 때문에 소련의 도움을 받지 않을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련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제적인 도움과 군사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도

움이라는 것은 지금 소련의 기술자들이 이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작년에만 해도, 그러니까 1986년 이북의 댐 건설등 여러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요.

이현희 : 군사분야 뿐만 아니군요?

서대숙 : 군사분야 뿐만 아니죠. 여러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소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련의 도움을 받고있는 이북의 경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제3차 7개년계획을 시작했는데, 제2차 7개년계획을 84년에 끝내고 85년 한해는 아무런 계획도 안했어요.

이현희 : 다른 무슨 계획없이 그냥 지냈어요?

서대숙 : 이북 건국 이래 처음 경제계획없이 1985년을 지낸 것 뿐만 아니라, 1986년도 경제계획없이 지냈어요. 그리고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1987년,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이북사람들이 소련사람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타협을 한후 어느정도 경제원조를 받을 각오를 하고 경제계획을 발족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소련쪽 문헌을 봐도 요즘 소련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북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데 대해 굉장히 애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련도 경제적인 면에서 이북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한국과 중공과의 관계,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한국이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을 여기서 했잖아요. 아시안게임을 했을때 중국이 여기 와가지고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갔죠. 그렇게 했을때 폐막식때 보면 1990년에는 북경에서 만나자, 뭐 이래가지고 호돌이하고 팬더곰하고 같이 띄워놓고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걸 보면 이북이 아시안게임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과거에는 올림픽게임도 가지말라는 태세였는데 중국은 안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올림픽게임에 틀림없이 참

여한다 …….

이현희 : 공식선언을 한 것 같아요.

서대숙 : 그런면에 있어서 제가 이북사람이라도 좀 기분이 나쁠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사이가 한국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북하고 소련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기술도입 같은 것은 중국보다 소련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하고 이북하고 소련, 세 나라 사이에 결국은 근래에 와서 작년, 재작년, 특히 85년, 86년 이때에 이북하고 소련하고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군사적으로도 이북이 중국에서 군사원조를 받는 것보다 소련에서 군사원조를 많이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련이 그렇게 도와주면, 이북이 소련에 뭘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련의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월남, 베트남 갈때 옛날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떠나고 우리나라 동해, 일본해쪽 「쓰시마」해협을 통해서 월남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북상공을 통해서 황해쪽으로 빠져서 내려가요. 거기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한테 좋지않고, 또 하나는 소련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비행시간과 연료같은 것을 절약할 수 있죠.

이현희 : 중공쪽에선 상당히 신경을 쓰죠?

서대숙 : 그렇지만 중공에서 지금 그런것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중공의 경제계획같은걸 못하고 있을순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면에서 소련하고 이북하고의 관계가 점점 밀착해지지 않느냐. 지난번 여기 팀스피리트한다는 것에서 처음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소련 해군하고 이북 해군하고 동해안에서 같이 연습을 한다는거죠.

이현희 : 그것은 North-Korea의 팀스피리트같은 것과 비슷한

거죠?

서대숙: 대한민국에선 옛날 립시장군이 그 얘길 했잖아요?

그런걸 하고 있다고요.

이현희: 이번에 서박사님이 최근에 여기 나와서 발표하신 위성국화 문제데, 그 위성국화 문제는 북한의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소련의 어떤 능동적인 걸까요?

서대숙: 소련의 능동적인거지요. 이북사람이건 이남사람이건 어느나라의 위성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한건 아니고, 제가 발표한 이북의 위성국화는 무슨 얘긴가하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어떻게 소련사람들이 이북에 공산정권을 세워서 소련사람들이 주둔하지 않고도 공산국가가 40년 계속해서 완강한 공산국가로 발전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에서 소련이 어떻게 이북을 공산화했느냐? 그런것을 연구하는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면에서 소련사람들이 이북에 들어와 공산정권을 세웠을 때, 그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나 얘길하는 것에서, 아마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기나라 국경에 접경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두만강쪽으로 접경하고 있는데, 함경북도와 「블라디보스톡」쪽으로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13마일이예요. 소련국경하고 접경한 나라가 소련의 비친선국가가 돼선 안된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가까운 친선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소련의 적대국이 소련국경에 접하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사람들이 이북에 들어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을때, 그 만든 국가가 궁극적으로 소련하고 친한 정권이 서도록 하는 것이 소련의 제일 목적이예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사람들을 군사해제하고, 북한을 친소국가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세웠냐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소련이 북한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

고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걸 다 세워서 들어왔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그것은 미국이 이남을 주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세울때 또는 이남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때 자기들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소련사람들이나 이북사람들이 미국을 욕하는 것처럼 무슨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들어와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미국사람들이 나간후 한국이 반공국가로 나서는 그러한 것들을 했다고 생각을 안해요.

미국사람들도 그렇고 소련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을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던거예요. 우리나라의 혁명운동이 어떤지도 잘 몰랐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지도 몰랐어요. 소련사람도 몰랐고 미국사람도 몰랐어요. 소련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때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소련사람들이 공산국가를 세운 방식이 동구라파에 공산국가를 세운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동구권쪽에 공산국가 세운것과 비슷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뭐가 있는가 하면, 동구라파 나라의 공산지도자들은 세계 2차대전때 소련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 거기다 공산국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박헌영이 같은 사람이 소련에 알려져 있었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소련사람들이 김일성을 데려다가 시켜가지고 했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엔 김일성하고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엔 이북에 5도행정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만식하고 했다고요. 조만식씨라는 사람은 민족주의자이고 기독교 장로라고요. 그런데 소련사람들이 들

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깐 이 사람이 말을 안듣는단 말이예요. 요즘 소련에서 나온 책같은걸 보면 자기들이 조선을 어떻게 해방했느냐는 책이 있어요. 소련사람들이 만들어 낸 책인데, 요즘 김일성이가 하도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까 소련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한다구요. 그 얘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제급의식이 빈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련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제급의식을 망각하고 우리의 정책을 반대해서 그렇게 했다. 신탁통치 반대하는데서 조만식씨가 제거당했단 말이예요. 1945년 12월까지 조만식씨가 소련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다가 반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쫓고 김일성을 완전히 내세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김일성을 자세히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것도 아니예요.

이현희 : 8·15 전부터 밀착됐다가, 정책을 지시했던 것은 없었죠?

서대숙 : 그런것은 없었어요.

이현희 : 조만식을 연금시키면서 김일성을 부각시킨거죠?

서대숙 : 물론 김일성을 부각시킨 것이 조만식씨를 제거한 다음에 부각시켰다고 꼬집어서 얘기할 순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1945년 10월 14일쯤에 벌써 이북에서 김일성 환영대회를 한다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김일성 환영대회가 아니예요. 소련사람들이 이북점령한 이후에 한국의 혁명투사들을 환영하는데서 김일성을 소개하는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라는 것이 그래요. 어떻게 소련사람들이 우리나라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혁명투사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만 김일성이가 그때 들어왔을 때 왜 김일성을 선택했느냐? 그러면 소련의 목적이 뭐냐? 한국에서는 공부할 때, 김일성을 앞잡이로 세워 소련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할려고 그랬다는 것 아니예요. 물론 소련사람들 입장에선 자

기네들 말 잘듣는 사람으로 할려는게 목적 아니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소련사람들 말을 잘 들은 것 뿐만 아니라 소련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구요.

이현희 : 조만식하고도 비교가 되고, 아주 쓸만하다는 거죠?

서대숙 :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만주에서 데리고 들어온 빨치산들이 이북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군사안보, 철도경비대라든가 이걸 전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행동한 걸로 봐서, 저는 지금 조금도 소련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이런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이사람을 시켜 자기들의 「소비에트화」하는 한개의 도구로 썼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람이 지금같이 될 줄은 소련사람들도 몰랐다고 생각되요.

이현희 : 거물이 되고, 유일사상으로 40년이나 통치하는 것도……

서대숙 : 그렇죠. 그런걸 그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요. 또 한가지 이유는 이북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대개 다 우리나라의 혁명가들이 서울로 왔어요. 공산당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간에 다 서울로 들어왔다구요. 예를 들어서 박헌영마저도 광주 벽돌공장에서 일하다 서울에 들어와서 매일 「하지」중장하고만 만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왜 이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북한에 소련의 붉은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 왜 미국인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공산당이, 옛날 1930년대의 소련을 보고 다들 무산자, 노동자, 농민의 조국이다 하는 사람들의 군대가 지금 이북에 들어와 있는데, 이북에 들어가질 않고 서울에서만 야단하느냐?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이북에는 김일성이만 남아 있었고, 연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소위 연안파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절반은 서울에 들어오고, 절반은 이북에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군대는 연안파의 약

산 김운봉씨의 소위 의열단이라는 군대는 대개 다 만주에서 국공전쟁,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의 전쟁에 참전을 해 주었어요. 공산주의 쪽으로. 그러니까 무정이라든가 이상종이라든가 박일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만주에서 중국공산당 밑에서 장개석이 군대하고 싸우고 있었다구요. 그동안에 김일성이는 이북에 들어와서 자기 정권을 수립하고 자립세력을 구축했죠. 그리고 그사람들이 만주에서 장개석 세력을 쫓아내고 들어왔을 때는 벌써 늦은거죠. 또 그사람들이 군인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북의 공산화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대개 그런점에서 불수가 있고, 또 공산화하는데 시책, 정책같은 것은 동구라파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노동당 같은 것도 이것이 대중당이라고, 지금 공산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걸 보면 공산당이라는건 옛날부터 「엘리트」당 아니예요? 내가 공산당원이다 하면 공산당원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당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만드는, 오늘날 봐도 이북이 세상에서 가장 공산당원이 많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이북에 공산당원 숫자가 300 만명쯤 되는데, 2,000 만 인구의 300 만이라는 것은 17%정도로 많대구요. 예를 들어 소련공산당은 인구비례로 4%밖에 안된대구요. 중국도 4%밖에 안되구요.

이현희 : 북한의 경우는 엄청나네요?

서대숙 : 엄청나지요. 동구라파의 루마니아는 11% 내지 12% 라구요. 이게 대중당이라구요. 체코슬로바키아도 10%정도 되니까, 소련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울때 대중당을 세웠지요. 이건 김일성이가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때 벌써 이북에는 노동당을 세워가지, 공산당을 세우면 안된다, 이렇게 아니라구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전문정책으로 그런 것이라 할수 있죠.

이현희 : 그럼 김일성의 경우에는 동구쪽보다 훨씬 잘 했네요.

서대숙 : 잘 했지요. 소련사람들이 하라는대로 했다고요.

이현희 : 아주 충실한 충복이라 하겠지요?

서대숙 : 그뿐만 아니라 소위 이북에서 말하는 민주개혁이라는 것이 여기와서 토지개혁, 남녀평등권, 여러가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아마 김일성이가 지금 다 자기가 했다 그러지만 그런것은 공산국가를 수립하는 한개의 준비사업, 이런것인데 이런것을 김일성이가 다 알아 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2학년 중퇴한 사람이 어디서 그런 토지개혁같은 것과 남녀평등권 같은 것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현희 : 그렇죠. 귀국했을 때가 30대 초반이니까.

서대숙 : 설흔세살이예요. 1912년 생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 했느냐면 그게 아니고, 또 소련사람들이 그런것을 이북에서만 한게 아니예요. 폴란드에서도 그랬다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이웃나라의 대중당 이름이 노동당이예요 이름도 똑 같아요. 그래서 이북에서 공산당하고 신민당하고 합당하는 것도 소련사람들이 시켜서 한거지 김일성이가 먹어치운게 아니라구요.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 김일성을 나쁘게 얘길하려고 김일성이가 독재해 가지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경향으로 생각하는데……

이현희 :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대숙 : 그게 아니예요. 우리가 진실 그대로 보고 얘길 한다면 김일성이 그사람이 한게 아니예요. 소련사람들이 해 준거라구요. 소련사람들이 시켜서 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련에서 나온책을 보면 누가 그걸 시켰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알아요. 소련의 알렉산드로 맛데이비치 나키 대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북에서

민정장관을 했어요. 그사람 밑에서 김일성이가 다 한거라구요. 그러니까 지난 10년동안에 소련에서 나온책을 보면, 소련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한다구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북의 공산화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것은 신민당과 공산당을 합당시키고, 민주청년 동맹하고 공산청년 동맹을 합당시키는 것은 소련사람들이 시켜서 김일성이가 했는데, 조선공산당 사람들은 그걸 아주 이상하게 봤다구요. 공산당하고 민주청년 동맹하고 왜 그걸 합치느냐? 이런건 좋지않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옛날 공산당원들 생각이요, 김일성이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소련사람들이 그렇게 하라하면 두말 않고 했다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공산화를 했다하는 얘기에요.

이현희 : 지금 서박사님 얘길 들으니깐 아주 명확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책이나 그런걸로 아는 것은 김일성이가 모두 독창적으로 독재체제를 굳힌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했군요?

서대숙 : 김일성이도 인간이에요. 이사람이 중학교 2학년때 중퇴를 했는데, 혁명사업에 나서가지고. 그사람이 앉아서 책을 읽은것도 아니고 총을 가지고 10몇년동안 일본사람들하고 싸운 사람인데, 이북에 들어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같은 것을 자기 머리로 생각해 내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사람들이 시켜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련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소련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예요. 우리나라의 공산당들, 예를 들어서 오기섭이나 정태식이나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북에 올라가서 소련사람들의 말을 안듣고, 소위 프롤레타리아 무산혁명을 했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본다구요. 소련사람들한테는 그게 귀찮다구요.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라면 하지 될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것이지요.

이현희 : 그저 지시한 대로만 따르라, 그런 모양이지요.

서대숙 : 그래서 지금 소련에서 나온 책같은 것을 보면 자기들이 이북 점령하는데 오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 소련의 「스티코프」 대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이북을 점령해서 전부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스탈린」한테 명령을 받은 날이 1945년 6월 하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연해주 쪽으로 왔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소련의 생명을 많이 희생시키지 않고 북한 해방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사람한테는 공산화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쟁을 해야될지 모를때라구요. 일본사람을 쫓아내고, 해방시킨다는게 「스티코프」대장의 목적이었고, 그 밑에 정무장교들 「레베데오」장군이라든가 「로마네크」장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북을 우리가 해방한다면 공산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했다고요. 그러다 모스크바에 가서 「레베데오」장군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했다 하는것을 얘기한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체신, 누구는 교통, 누구는 사법, 누구는 정보, 거기에 민정하는 사람이 「이비노프」대령이라는 사람인데, 그사람 밑에서 김일성이가 굉장히 오래 노력을 했어요.

이현희 : 아주 총복노릇을 하면서 저쪽사람들 마음에 쏙 들었네요.

서대숙 : 그 「이비노프」대령이 김일성보다 나이가 여덟살이 더 많아요.

이현희 : 그당시에 40대 초반쯤 됐겠군요 ?

서대숙 : 그렇죠. 그리고 : 이북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 다음에 소련군대가 철수한다구요. 그런데 그 철수했을때 이사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스티코프」라는 장군이 이북의 대사

로 남아있을 때 이사람이 대사의 고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비노프」대령이 한국전쟁 때 죽어요. 평양에서 죽는다구요. 미국 비행기 폭탄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사람한테 많이 의존해가지고 이북을 공산화 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북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놈이 이승만을 미국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식으로 했다는 것은 여기서 그걸 믿을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구요. 사실 이승만박사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미국 주둔군 「하지」중장 하교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건 여기있는 사람들도 대개 다 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사람들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도 이북을 공부할 때는 그냥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소련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안봐요. 김일성이가 들어와 소련사람의 말을 잘 듣기 시작했을 때, 김일성이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능력과 그사람의 노력과 이런것을 통해서, 소련사람들의 말을 듣는 반면 자기의 정치기반을 닦고, 그래서 자기의 정적을 전부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독재자가 됐다고 봐요.

이현희 :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자기의 충복들만 놔두고 저항하는 세력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 다 숙청을 했죠. 그렇게 구축해 나갔는데, 지금 김일성체제가 그대로 김정일체제로 연결이 됐죠. 그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혐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소련이나 중공은 그걸 적극 지원하는 겁니까? 어때요?

서대숙 : 난 거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세습체제 한다는 것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김일성자신도 옛날에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다구요. 가족주의하면 안된다고 자신이 여러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자기 아들에게 뭘 시켜준다든가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다구요.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쫓가지고, 남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소련에 가서 인가를 받고,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고 한다는 것은 믿질 않아요. 왜 안믿느냐하면 소련이 반대하면 어떡할거요? 또 중국이 싫다고 하면 김일성이가 안할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모택동이 임표를 지명했을때, 모택동이 임표를 지명했다 그래서 중국이 안한다든가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게 아니라구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그렇게 내세웠을때, 그것을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계하는 그런 공산국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자꾸만 욕을 하는 방향으로만 나가는데 그건 나빠요. 소련에서 무슨 허가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안된단 말이에요. 인가가 나아지 되고 안나면 안되고 그런게 없어요.

이현희 : 자기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군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소련방문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대숙 : 아니, 소련 방문한건 남한에서 소련에게 인가받으러 갔다고 얘기한 것이지요.

이현희 :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대숙 : 그런것은 없고……

이현희 :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따져 봅시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마르크스의」나 「레닌주의」나 이런데서 공산국가의 후계자는 어떻게 택해야 「마르크스의」다 하는게 없어요. 「마르크스」가 쓴 여러 책 중에도 공산주의 후계는 이렇게 해야된다는게 없다가구요.

서대숙 : 예를 들어서 혁명중앙위원회에서 그 다음 후계자를 택해야된다 하는게 없고, 또 「레닌」이 공산조직체제라든가 이런것에 제일 중요한 얘길 많이 했는데, 거기에도 계속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후계자를 어떻게 택해야 한다는게 없더군요. 「레닌」자신만해도 자기가 후계자로 「레온트라스키」 이런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구요. 그러나 「트라스키」는 「스탈린」한테 쫓겨났었고 레닌은 스탈린이 한다고 생각을 안했죠. 스탈린만 해도 자기가 굉장히 오래 그걸 해가지고 자기 후임으로 몰로토프니 가가노비치니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됐어요? 몰가니니해서 형편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뒤 쪽 내려오는 후루시초프같은 사람은 스탈린을 격하시키는 비판운동도 일으키고 하니깐 이북에서도 김정일을 택한것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요. 한국에서 이북을 연구한다든가 할 때, 먼저 어떡하면 우리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하시킬까 그런데 치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현희 : 자꾸 악의로만 하고 나쁘게 해서……

서대숙 :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할수가 없다는 그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일성이 김정일을 택한 이유는, 이제 자기의 빨치산 체제의 지도자로 자기를 대체한다면 자기 세대에 자기를 대체할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책같은 사람은 한국전쟁때 죽었고, 최용건, 최현이도 죽었고, 아무튼 자기 심복들, 군사에 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숙청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사람들은 죽어나갔다 이거예요.

이현희 : 동지나 추종세력들이 숙청당하고 다 이제 정리가 된 셈이죠?

서대숙 :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라는게 몇명 안돼요. 박성철, 임춘추, 오진우, 이런 정도이죠. 그런데 오진우만 해도 김일성보다 나이가 두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후계자로 했다가, 인명은 재천이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계를 해 줘봐야 그사

람이 얼마나 더 가겠는가? 또 김일성이 자기세대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그들보다 오래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쪽에서 하지않고 자기 아들세대에 내려 왔으니 많이 내려왔죠.

이현희 : 30여년 내려온 셈이지요?

서대숙 : 42년생이니까 30년 내려온 셈이지요. 그렇게 젊은 사람한테 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그 세대에서 해나가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빨치산 친구들의 아들들을 김정일에게 묶어 세워, 내 아들을 지지해라, 이래서 지금 이북의 권력층이 빨치산 투사들의 아들이 김정일을 둘러쌌습니다. 예를 들어 이북의 총리 강성산이 같은 사람이죠.

이현희 : 김정일 세대의 위성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대숙 : 글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극렬같은 사람이 오중극이란 사람의 아들이예요. 오중극이는 옛날에 김일성하고 만주에서 빨치산하다가 죽었어요. 오극렬이가 그사람의 아들이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어렸을 적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같이 키웠는데, 그사람이 지금 이북의 총참모장이죠. 그리고 강성산이만 해도 강건의 아들이라고요. 강건이가 누구냐면 김일성이 빨치산시절 조선위원장을 할때 군대를 몰고 서울에 들어온 사람이예요.

이현희 : 말하자면 빨치산 2세로 넘어간 셈인가요?

서대숙 : 2세로 넘어간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김책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북 군대의 꽤 높은 지위에 있을 것으로 봐요.

이현희 : 군요직을 차지하고, 김정일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세력으로 있군요?

서대숙 : 그러니까 혹시 김정일이 이걸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북에서 김일성의 빨치산 전통을 무시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이 없어도 등소평이가 암만 나와서 모택동의 사상이 좋다 나쁘다 애길해도 중공의 장정, 국민당하고 싸울때 장정한것 이런것을 무시 못하는거와 마찬가지로요. 지난번에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해서 오극렬이나 오진우가 써서 그랬다는게, 저같은 사람한테는 믿을수가 없는것이, 그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빨치산 전통을 무시하곤 지금 이북 현재의 상황에선 정권을 못 잡아요.

이현희 :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정권을 못 잡을까요?

서대숙 : 그러니까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아도 빨치산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진 못 한다구요. 왜냐면 오극렬의 아버지도 빨치산 운동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 서로 싸워서 오극렬이가 된다, 누가 된다, 그런건 있을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극렬이가 김일성이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빨치산을 같이 했다는 것은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격하운동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스탈린같이 완전한 격하운동은 없다는 거죠. 모택동 비슷하게 김일성이가 혁명은 잘했지만 경제발전은 잘못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실패한 것중에 우리나라를 통일 못한건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사람의 반일운동이라든가, 항일운동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김일성을 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현희 : 서박사님, 그전에 김일성 사망설이 나왔을 때 회의를 가지셨겠네요?

서대숙 : 네, 저는 안 믿었어요. 저는 그때 안믿는다고 애길 했었어요. 그것은 남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에요. 이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걸 믿을수가 없죠.

이현희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같은 것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전문가나 학자들이 잘 이해를 안하는 것 같아요.

서대숙 : 이해를 안한다는 것보다도 저도 여기만큼 못지않게 반공을 하지만 이사람들을 그냥 나쁘다, 이북사람들을 그냥 나쁜놈이라고 계속해서 이북의 악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곤 이북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현희 : 반공을 할려면 할수록 적을 더 알아야 하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 가지곤 접근방법이 안되지 않겠어요?

서대숙 : 도둑놈이 나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이현희 : 그런데 여기 어떤 전문가라는 분들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 때부터 역사를 날조했기 때문에 다른데로 넘어가면 민중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근대사에 대한 왜곡이 탄로나고 세계적으로 그것이 노출되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아들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또 그리 넘어갈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무슨 세미나 같은데서 제가 한번 들었어요.

서대숙 : 그런것은 사실 우리가 언급할만한 가치조차 없는 얘기고, 김일성의 자기조상 12대로 올라가서 보면 그사람들이 전라도에서 평양으로 올라간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물론 믿지않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자신도 자기가 효도한다든가, 유교사상 밑에서 한다는 것에서 저는 회의감을 느낀다구요. 왜냐면 김일성이 자신은 지금 이북에서 40여년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웬만큼은 영웅이 된 사람이예요. 그렇지만 그사람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사람들이 한것만큼 기여한 사람은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다 했다고요.

이현희 : 그러니까 독립투사는 없는 것이죠.

서대숙 : 그렇죠.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서만호」가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났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자기 아버지 김형직이도 숭실중학교 나온 사람이고, 숭실중학교는 「미션」학교라구요. 그렇게 비공산적인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라도 이렇게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된다 하는 것이 더 진실성이 있는 얘데요. 김일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아들 이외에 자기한테 호도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탑같은 것도 세우고, 개선문도 만들어주고 말이예요. 나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다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현희 : 공적을 철저하게 내세우고 선양하는 그런 주의로 나가는 모양이죠?

서대숙 : 그것이 김정일 후계를 설명하는데, 신빙성이 있는 얘데요.

이현희 : 그런면에선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사실접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반공이 아니고 승공이 못된단 말씀이예요. 서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몰랐던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북한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대숙 : 미국이 이북하고 무엇을 할려고 할때 자기들이 결국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익되는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지요. 미국정부의 지도자들이 북한하고 국교개설이나 이북에서 하자는 것을 해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 즉, 국익을 앞세우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북이 미국한테 쫓겨서 미국에 유익될만한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가 있다면 이남을 협박하지 않는것, 「테러」같은것 안하

는것, 그것 밖에 없어요.

이현희 : 경제적인 이득은 취할게 없겠죠 ?

서대숙 : 아니예요. 뭐가 있어요? 이북에서 예를 들어 우라늄이 난다든가, 플라톱이 난다든가, 이북 광산에서 세계에서 나지 않는 것이 나는데, 미국 핵무기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내일이라도 국교를 맺는다 이거예요. 사상이란걸 중요시 하지 않고, 미국이 그만큼 「플래그매틱」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후진국가나 미국전체, 미국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하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40년 동안 키워온 남한이 싫어한다 말이에요. 남한은 자기들이 노력과 돈도 많이 썼고, 이걸 굉장히 오래 키워왔는데 그사람들이 싫어한다는데 왜 그걸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한다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이북하고 미국하고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미국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이북에는 없다는 거죠. 요즘와서 미국의 「시거」장관이 지난 3월부터 미국외교관이 이북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길해도 괜찮다, 이런 얘길 한다든가 이북이 올림픽에 참가하면 미국선수들을 평양에 보내겠다, 그런얘기 같은것은 무슨말인가 하면 이제는 미국이 이북한테 원하는게 하나 있다구요. 자기들이 필요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하면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할텐데 「테러」좀 하지말아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북한테 「테러」하면 우리도 곤란하고, 너희들도 곤란하고, 한국도 곤란하니까 「테러」좀 하지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평양에서 4종목을 했을때 미국이 이북에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올림픽을 하면 자기들이 간다는 이야기는 너희들도 들어와서 하고 우리도 참가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호전적으로 갈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것 같아요.

이현희 : 다른 무슨 변화에 대한 싸인, 그런건 없겠죠?

서대숙 : 그리고 이북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제일 큰 변수는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해달라면 해 주는거고, 한국에서 하지말라면 안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요. 일본은 달라요. 일본국익에 뭐가 있느냐? 만약에 이북하고 뭘 한다면 일본엔 지금 조총련이 있고, 이북에서 돈취가지고 사들이면 자기들이 싸고 가깝게 할수 있고요.

이현희 :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소위 등거리외교하고……

서대숙 :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북하고 일본하고 국교가 개설됐을 때 국교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조총련계통의 한국사람들 다 이북에 데려가라, 그래서 조선사람 인구의 1/3 이 줄어드니까 일본에는 굉장히 이득되는 일이 아니예요? 미국에는 그런건 없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북하고의 관계에 다른점이라는 것은 그런면에 있어서 다르게 있죠.

이현희 : 일본이 지금 의식적으로 가까워지려는게 아닌가 싶어요.

서대숙 :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대교체되기 전에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김일성 자신이 항일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본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일본 공산당이나 그밖의 사람들이 이북하고 노선을 같이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예요.

이현희 : 김정일의 일본관은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곤 다르죠?

서대숙 : 물론 다르죠. 김정일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한 국가, 이런것으로 보지 김일성이가 일본을 본 것처럼 옛날 나를 죽일려고 따라 다닌 놈들이라고는 보지 않죠.

이현희 : 고정관념같은 것은 완화됐겠죠?

서대숙 : 기술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김일성은 너

희놈들 것 안먹어도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현희: 김정일은 근대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박사님, 70년대초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정부쪽보다 주민들 생활이 위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선 어땠었나 하는 겁니다.

서대숙: 이북의 경제는 제가 이북에 갔을 때는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별로 지금과 관계가 없지만 북한의 경제가 한국경제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현희: 저희도 TV 화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대숙: 사실 비근한 예로 옷에 물감들인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수해당했을 때 내려온 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사실 마포사는 사람이 그 천 가지고 옷 해입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이현희: 쌀은 먹었을지 몰라도……

서대숙: 그래도 북한이 이남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있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고, 지금의 북한체제로는 도저히 경쟁을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체제인데, 저는 이북사람이나 이남사람이나 우리 다 조선사람, 한국사람 이런걸로 해서, 머릿도 그사람들이 우리만큼 좋고, 우리만큼 근면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일단 체제가 조금 바뀌어지게 되면 한국만큼 빨리 발전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이현희: 그대신 군사나 이런면은 상당히 이쪽보다 앞선걸로 돼있는게 아닙니까?

서대숙: 그건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미국에 있는 학자들까지도 거기엔 동의를 안합니다. 왜 동의를 안하느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무리한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방력, 군사력이라는 것은 그나라의 모든 힘의 결산이에요. 모든 힘을 다 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력,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미국이 그만큼 경제적, 기술적으로 앞섰고, 이제 우주전쟁하는 것까지 만드는데 그만큼 미국의 두뇌가 앞섰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력얘긴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북한테는 경제적으로 우세하고 이북이 떨어졌다고 하지요. 국방력이라는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무기를 살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인구가 모자라요? 이북보다 우리 인구가 배라구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도 이북의 젊은청년 보다 두배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도 두배나 많고요.

이현희 : 우리가 비록 외채국이지만요.

서대숙 : 외채, 그건 상관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돈 빌리는건 돈빚진 사람이 더 빨리 빌릴수 있다구요. 한국은 지금 국제시장에 나가 돈을 빌릴려고 하면 다 빌려줘요. 이북이 돈을 빌릴려면 빌려줄 사람이 없다구요. 그러한 면에서 보나, 인구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그렇다고 우리나라 군사훈련 시키는 것이 이북보다 못하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는 군인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또 과거에 군인이 18년했고, 또 지금 7년하고, 모두 25년동안 군인이 대통령을 했다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사훈련이 이북보다 못하다는 얘기에요? 어떤면에서 이북이 이남보다 군인이 더 강하다는 얘길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남의 군대자세가 이북보다 훨씬 강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 한국전쟁하고 달라요. 옛날 한국전쟁 때는 우리 이승만박사 나이가 일흔다섯살 때예요. 이 일흔다섯살의 총도 한번 못썩본 할아버지가 서른 세살난 빨치산, 그런 30대의 빨치산한테 가만히 앉아있다가 두드려 맞았다구요. 그렇지만 지금은 문제가 달라요. 지금은 김일성이 일흔다섯살 이라구요. 김정일은 총도 한번 못썩본 놈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두환대통령이나 박정희대통령은 직업군인들이예요.

배운게 종소는 것 밖에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와서 우리한테 이북이 이남보다 군인이 강하다는 얘기를 해 봐야 저는 안믿어요. 저는 이남이 이북보다 훨씬 강하다고 봐요.

이현희 : 저희가 이제 말씀드니까 이해가 되는데, 소위 김일성의 유일사상으로 뭉쳐있는 전위부대 핵심이 군대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때에 이쪽하고……

서대숙 : 그러면 옛날 「나치」시대나 일본사람들 보세요. 일본사람들의 군인정신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인데, 사실 미국은 안그래요. 미국사람들은 돈을 줘야 싸운다구요. 그런데 미국사람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렇게 정신력 하나만 가지고 되는데 아니예요. 저는 이북의 군대가 이남 군대보다 강하다, 이북이 쳐내려 온다는 걸 매일 얘기하는 이유는, 남한의 군인정치를 전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사실 국력이라든가 군사력에는 이북이 못당해요.

이현희 : 그동안 박정희대통령 말기에 이런 징후가 나타났어요. 이게 다 정권연장용, 안보용으로 위기의식을 넣은게 아니냐? 그게 나쁜거죠. 그건 오히려 강인해질 정신을 약화시킨 결과밖에 안되니까, 그 엄청난 죄값을 무얼로 갚느냐는게 참 문젠니다.

서대숙 : 그걸 이북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남에는 군인이 정치를 하는 나라고, 미군이 지금 와있고, 미군이 남한땅에 4만인가 여기 앉아있고, 또 국제관계만 해도 이북은 지금 소련하고 중공하고 사이가 나빠 서로 말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남한을 봐요. 남한하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고, 남한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고,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현희 : 미국, 중공하고도 좋아지고요.

서대숙 : 그렇죠.

이현희 : 또 우리 한국하고 중공하고도 좋아지고. 아마 우리하곤 이북하고 소련하고만 잘 안되는 셈인데……

서대숙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통일, 평화통일 그런 소리 하지말고, 만약에 정말 이북군대가 형편없이 됐을 때, 우리가 소련사람들하곤 싸움 안한다는 건 확실하고, 미국사람 내보내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남이 유도해서 통일을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현희 : 통일뒤의 전망인데 이쪽 체제, 저쪽 체제는 화합이 안되는 거니까, 그럴때 이질체제속에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건 이대로 해가지곤 안되는게 아닙니까? 요즘 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은 저쪽으로 기준을 잡든 이쪽으로 기준을 잡든 통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서대숙 : 저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통일되면 안됩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예요. 제가 이북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현희 : 고향이 어디신데요?

서대숙 : 저는 함경도예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거기 앉아있지 왜 나왔겠어요?

이현희 : 유일체제가 상당히 심화되어가는 상황속에서……

서대숙 : 사실 저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중의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이북을 쳐서 이북을 지울수 있고, 소련사람들이 만나오고 중국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다, 그리고 미국사람이 나가고 대한민국 국군이 압록강에 섰을 때 소련사람들이나 중국사람들이 쳐들어 오느냐, 혹은 대한민국 국군이 두만강에 서 있을때 소련사람들이 쳐들어오느냐, 그것이 안들어 온다는 것이 되고 이북의 경제가 형편없이 되면 남한이 이북을 통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공산주의자기 때문에 여기서 못살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살

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안되는 얘기를 자꾸만 평화통일하자는데 평화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농담으로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농담이에요. 만약에 김일성이 “김정일 내 아들이 후계자인데 너무 욕심이 많아 글렀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대중이가 아주 뭐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김대중이가 이복에 와서 내 후계자를 해라, 그리고 이남에서 김영삼씨가 대통령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평화적으로 통일이 힘들다구요. 김대중씨하고 김영삼씨하고 지금 같은 당 안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현희 : 네. 잘 안맞아요.

서대숙 : 그런데 김대중씨나 김영삼씨가 한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가 그걸 내 놓겠어요? 하물며 저쪽은 공산당들이고 이쪽은 아닌데 자기들이 나라를, 조국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이현희 : 서박사님, 평양엔 얼마나 계셨어요?

서대숙 : 열닷새 있었어요.

이현희 : 그럼 평양에만 묵으셨어요? 아니면 다른곳에라도……

서대숙 : 3·8선까지 왔었어요.

이현희 : 그랬어요? 그리고 고향엔 가 보셨는지요?

서대숙 : 함경도 고향엔 아무도 없어요.

이현희 : 거기 기억이 남니까? 그럼 어디 함흥이에요?

서대숙 : 아뇨. 저는 회령인데요. 저는 만주에서 나서 자란 사람인데 우리 선친 고향이 회령이니까. 우리는 기독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이현희 : 월남하신 것은 언제쯤이죠?

서대숙 : 46년이에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계통이라 공산체제 밑에선 못살아요.

이현희 : 그럼 신의주엔 가보셨어요?

서대숙 : 아니예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타고 평양에 들어갔다
가, 황해도 신천까지 와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진남포쪽으로도 가봤
고. 북쪽으로도 올라가봤는데……

이현희 :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버려둬요?

서대숙 : 아니예요. 그사람들이 다 스케줄을 짜가지고 움직였어요.

이현희 : 인공사진으로 찍은 이북사진을 설명하는데, 신악지대에 색
깔이 노랗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북한 산림이 황폐
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대숙 :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반공교육을 유치하게 한다는 거
지요. 사실 여기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신문 마음대로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 봐야 노동신문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안
돼요. 그렇게 읽기가 힘들어요. 귀절마다 우리 위대한 수령, 뭐 이
렇게 나오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걸 공부하는 사람이 아
니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현희 : 그런데 3·8선까지 스케줄에 짜 있었나보죠?

서대숙 : 네. 그때 내려와가지고 황해도 신천에 들렀지요.

이현희 : 군사시설은 못보게 하지 않아요?

서대숙 : 아니, 군사시설 같은건 전 군사전문가가 아니니까 봐도 모
르죠. 어떤 비행기를 보고 그 성능이 어떠냐? 어디에 군인이 몇
명 있느냐? 이런건 단편적으로 제가 본다 해도 모르죠. 여기서도 마
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수원쯤 내려가는 동안에 거기에 무슨 한
국부대가 있다고, 370 부대가 있다고 해도 아! 거기에 국군이 있
구나 생각을 하지, 이나라의 1군단의 배치가 어떻게 돼있고 이런
건 모른다구요.

이현희 : 평양시내를 화면으로 본 것은 아주 한적하게 보이던데 그

전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서대숙 :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정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평양시의 인구가 100 만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1,200 만쯤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도시죠. 여기 이런걸 보다가 이북의 그런걸 보면 한적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환경, 이런것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봐요. 공산국가라는 것은 발전계획도 중앙집권의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평양을 발전시킨 것만은 확실해요. 평양에 좋은 건물도 많이 들어섰고……

이현희 : 거기서 고층아파트가 이쪽보다 먼저 세워졌다면서요? 지하철은 물론 거기가 먼저 왜 있는거구요?

서대숙 : 지하철은 그사람들이 소련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하철이 반공호 비슷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깊어요.

이현희 : 70 m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대숙 : 모스크바와 비슷하게 왜있어요. 이북사람들이 땅굴은 잘 판다구요.

이현희 : 동구권도 지하철이 대개가 그래요?

서대숙 : 아니에요. 동구권은 안그래요. 소련만 그래요.

이현희 :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소련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나봐요. 6·25 때 남침도 소련의 지령이라는거죠?

서대숙 : 그런데 그런것은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현희 : 김학준이라든가 이런분들?

서대숙 : 그런데 그것은 먼저번 학회할 때도 김교수가 국내정치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전쟁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고 한마디 했는데,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런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거고, 물론 갈등은 있었지만 한국전쟁할 때는 그사람들이 통

합을 해가지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전쟁을 했겠지요.

이현희 : 무기같은 것은 전부 소련제를 가져왔던게 아닙니까?

서대숙 : 물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련이 지원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소련이 시켜서 했다는 얘긴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문제를—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나빠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하곤 견해가 다르실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도 미국하고 소련하고 만나서, 외국사람들끼리 우리를 분단시켜 왜 고생을 시켰냐고 대개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것은 초보적인 견해고,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을 한 우리의 선친들이 독립운동에 성공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왜 양단이 됩니까? 불란서가 양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개선다할 때도 왜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사같은 분들이 남한 단독정부를 세웠어요. 소련사람이나 미국사람이나 다 한국에 와서 군사정권을 장악했을때 북한사람이나 한국사람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나라를 분단 안하고 단독정부를 세우지 않는다고 버텼더라면 어떡할거요? 강제로 시킬거요? 그런데 김구선생 같은 분 예를 들면 자기는 이승만박사가 남한에 단독정부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4월에 이북에서 남북협상 연석회의하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자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승만박사하고 김구하교의 사이가 나빴죠. 저는 김구선생이 이북까지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런것으로는 안봐요. 김구선생이야 평생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위해 산 사람인데 그사람이 지금 와서 대통령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해방 후의 역사를 봐서 이승만박사가 독립협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자기가 죽기전에 나라를 통일시켜서 통일국가의 대통령을 한번 해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승만박사가 대통령하는게 우리나라

의 분단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장하다고 그사람 하나 대통령 시킬려고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우고 한 것은 좋지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외국사람한테만 욕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못하게 많다 이거지요.

이현희 : 예, 직접 저희는 가보질 못한데가 돼서 여쭙보고 싶은게 많은데 오늘 그만큼 해주신 것으로도 제가 느꼈던것 하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좀 알려지고 우리 커나가는 학생들이 편견 아니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험하신 분으로 또 학문하시는 분으로 뿌리있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니까 반공교육상으로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신영석(申榮錫)

1. 생년월일 : 1937.9.15
2. 출생지 : 서울
3. 주요경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국토통일원 상임 연구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평화문제연구소장

이현희 :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7년도의 남북한 문제의 전망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석 : 예. 금년(1987) 들어 남북간에는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초 술츠 미국무장관의 북경 방문을 비롯, 미·소 외무차관회담에서 북한에게 남북대화재개 및 88 서울올림픽 협조를 두 중주국가에게 종용을 요구한 점이라든가 또는 지난 3월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및 8월의 남북한 외무장관 회담제의, 그리고 7월 로잔스에서 있었던 제4차 남북체육회담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주요 계기를 마련코저 하는 남(南)의 의지였으나 북은 하나같이 거부함으로써 소기의 뜻을 달성치 못했고, 로잔스의 체육회담 마저도 별 성과 없이 끝났지요. 북한은 금년들어 “정치군사회담”이니 “군축회담” “3국외무장관회담”(韓, 美, 北) 운운하고 있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김일성이 진심으로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일말의 양심이나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비현실적인 제의보다 현실적

인 대화 재개라든가, 대남모략중상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북쪽소리를 들으면 모든 선전매체들을 총동원, 대남중상 선전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무슨 군축이니 정치군사 회담이니 하는 따위의 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과연 평양의 속셈은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한반도문제 해결은 무력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 즉 대화로써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두 사회를 개방하고, 단절된 모든 대화 통로를 재개하여 성실하고도 의지있는 검허한 자세로 대화를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이현희: 그들이 내건 군축회담제의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신영석: 예, 얼마전 서울을 방문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전부 소장이었던 「케너드 힌트」경은 88서울올림픽은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남북한은 군축협상에 앞서 신뢰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축협상 제안은 기술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군축협상에 앞서 “북한사회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한반도가 분리돼 있고, 팽팽한 긴장대치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군축이 필요한 지역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제의는 기술상의 장애를 덜어놓고 정치적 선전만을 노리는 제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상 장애란 몇 가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명한 답이 나오죠. 첫째, 병력의 동등한 감축은 이미 군사적 측면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 북한이 계속 그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병력감축은 그를 검증(檢證)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병력은 유사시 쉽게 증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제안이라 함은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중·소가 참가하여 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경우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한국이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속 폐쇄 독재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올림픽, 민주화 등으로 국제적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평화추구라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욕심에서 비현실적인 군축협상을 운위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소의 개방정책과 함께 북한도 “이성적(理性的)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측 제안의 실질적인 의도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미군기지 철폐에 있는데, 이는 소련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대 아시아 정책”과 궤(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한국을 포함, 전 아시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정치적으로 아시아를 그들의 영향권에 두고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봅니다.

이현희 : 예측 불허의 인물인 김일성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영석 : 예,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공산권내에서도 가장 혹독한 폐쇄사회”로, 김일성을 “예측불허의 인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독재 조직사회를 1인 지배로 40여년간 군림해온 김일성의 언행이 보편적인 상식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반인간적인데서 나온 평가입니다. 6.25 남침전쟁,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땅굴굴착, 아웅산만행, 사망유포사기극 등 그의 전과는 수 많은 사례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가간의 신뢰나 인간적 신의를 상실한 북한이 무슨 제의를 한들 누가 믿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제의들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사고 냉대를 받는 것

은 무엇때문일까요? 최근 북한이 제의한 “군축”이니 “정치군사 회담”이니 하는 등의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수차례 동원해 온 정치 선전공세 소재를 일부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군축제의만 보더라도 6.25 남침전쟁이후 1954년 6월 북한 외상 남일(南日)이 남북 감군안을 들고 나온 이래 김일성의 광복 15주년(60년) 기념연설 및 73년에는 남북조절위 대표연설에서 병력의 10만선 축소주장을 늘어났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김일성의 감군주장을 믿지 않으려는 것은 신뢰성의 타락에 기인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제의는 의구심과 경계심만 고조시켜주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평양이 서울을 향해 미소작전을 펼 때마다 장막뒤전에서 예리한 칼날을 준비해 왔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의 일대전기로 인식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 놓고,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온 행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제3국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동시에 아웅산 만행을 저지른 그들의 이중성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 금년들어 내놓은 무슨 회담, 무슨 협상언위하는 것은 대남전략수행 수단으로 연결하려는 점은 속셈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의 파고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 사회적인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된 선진국이 출현될 때, 체제 경쟁이나 국력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강박감이 이런 제의의 배경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4.19 직후의 혼란기를 틈타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놓았고, 10.26의 정치 혼동기에는 남북총리회담 등을 제기해오는 기민성을 보였습니다. 북

한의 이런 행위가 우리의 대북경제심 이완과 좌경세력에 의한 국론분열을 노렸던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현희 :이제는 진정한 남북간의 평화정책을 정착시킬 때라고 믿는데 신소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신영석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그들의 어떤 제의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양당국이 진심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 우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모든 남북대화의 창구를 재개시켜야 합니다.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기존대화를 재개하는 데에 성실한 자세와 성의를 보일 때, 그들의 진의를 알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양측이 진정 “정치군사회담”이나 “군축회담”을 원한다면, 다국적 회담 보다는 우리가 제의한 「남북최고당국자 회담」에 응하여 거기서부터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1978년 중동평화에서 보면 이집트, 이스라엘의 화해는 미국이 중재한 「캄프데이비드」회담에 앞서 양국 수뇌들이 자기 상대방 수도를 방문하여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족끼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이외에 누구 얘기를 듣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이 “군축회담”제의가 진심이라면 남북한 군사균형에 맞게 스스로 군사력 수준을 먼저 줄이고, 소위 주력부대와 화력의 공격형 전진배치를 후방으로 이동배치시켜 놓고, 해야 합니다. 62년부터 “전인민의 무장화”등 소위 4대군사노선을 추진해 온 북한은 한국에 비해 병력면에서 1.3배, 장비면에서 2-3배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력과 화력의 45%~65%를 휴전선 근처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목하 한반

도는 휴전 34년을 경과한 지금, 막대한 병력과 고성능화력이 배치된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호전성에 기인한 것임을 세계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 내부에는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해 놓고,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제동키 위한 수단으로 그런 제의를 한다면 누가 응하겠습니까. “분란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90년대 남북군사력 우열 변화”를 예견한 교육지책에서 이런 제의들을 내놓은 것이라면 먼저 민족이 부강하게 살자는 남북경제회담을 재개하여 한국의 자본과 산업기술을 지원받아 공동번영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현희 : 미국은 북한측과 제반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신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영석 : 예, 말씀드리죠. 미국은 긴장완화, 평화정책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북한측과 제한된 범위의 직접교역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중공을 통해 이미 북한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3일,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이같이 전했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했으며 한국정부는 논평을 거부했지만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남북 긴장완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의약품·식량 등 제한된 범위의 “인도적 교역(Humanitarian Trade)”을 추구하여 보다 깊이 있는 평화정착 노력을 전개하기로 미국정부가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러한 미국정부의 방침은 해외주재 미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들과 접촉하는 것을 최근 허용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같은 정책결정을 한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고, 지난 3월 「슐츠」국무장관이 중공

을 방문했을 때 중공을 통해 평양에 전달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스 레드먼」미국무성대변인은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직접대화와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공은 북한측의 코트에 넘어가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고도 지난 4월 3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한 인도적 교역제한은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실현될 경우, 남북한 관계의 위치와 모습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정세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입장은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의 전반적 긴장완화를 위해서 경직된 북한을 우선 폐쇄상태에서 개방과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어 보려는 노력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속셈과 자세입니다. 그들은 남북대화에 관한 정책이나, 올림픽에 참가할 것인가의 여부나,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고차적인 대남정책을 전제로 하여 방향을 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난날의 미국과 북한교섭 예를 보더라도, 엉뚱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 외교질서를 구뫼발로 짓밟아버리는 것이 그들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70년대초 북한과의 제한된 범위내 비공식 인적교류를 허용한 바 있었죠.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분야에서도 교류를 추진, 지난 79년~81년 사이 약 31만달러의 교역량도 기록했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중에 북한이 신청한 8백만달러의 유엔개발계획(UNDP)기금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83년 10월, 버마 랑군 암살 폭발사건을 계기로 인적, 물적교류를 전면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인도적 교역”제의가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완화를 가져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중공 관계나 한·소련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

이라는 집단이 너무나 종잡을 수 없는 반평화적, 불외교적 행동패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인도적 교역” 방침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직결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이제 자국이익에 부합된다고 다들 이해일치를 하고 있다고 본데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초 「슐츠」미국무장관이 중공을 방문했을때 중공 외교당국에 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를 비롯하여 대미관계의 개선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종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3월 6일 미국의 「아마코스트」국무차관의 소련 방문을 보면 미·소 외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외무차관 접촉에서도 한반도 긴장해소책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희 : 사실상 북한의 속셈이 미지수인데요. 어떻습니까?

신영석 : 예, 그렇죠. 특히 미국은 중·소 양국 당국자로 하여금 북한에게 남북대화를 비롯한 대남관계의 개선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중공 당 대외연락부장 주량(朱良)이 「슐츠」의 북경방문 직후 평양나들이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련 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도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한반도의 긴장지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련측의 입장을 김일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88서울올림픽을 하나의 계기로 잡아 고질적인 한반도 긴장지속 상황을 현상변동시켜 보려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중공은 매우 능동적으로 미국의 방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이니셔티브」는 중공의 당면한 국가 시책방향과도 같은 선상일 것입니다. 제한된 민주화, 개방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중공입니다. 소련의 입장도

50대의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브레즈네프」시대적인 “네오스탈린주의”를 청산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지난 3월 16일 「아마코스트」미국무차관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소련측은 북한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줄이고 북한이 남북대화재개에 응하며,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중용해줄 것과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등 일련의 한반도 긴장해소책을 거론했을때,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노선과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소련동향을 보면 미-소, 일-소, 중-소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그들의 침체된 경제사정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련의 입장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같은 방향의 외교적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관계 완화책이 나온 시점에서 본다면 남북 분단과 6.25전쟁 이후 최초로 미·중·소 세나라가 북한집단의 모험주의를 견제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함에 있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색다른 현상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종전의 입장과 달리 대북한 관계에서,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대화재개 등을 요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에 대해 북한이 어떤 속셈으로 임할지는 속단할 수 없죠.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책으로 주변 국가들이 제시하는 권고들을 북측이 결코 전면 거부하지는 못하리라 기대됩니다. 미국이 울들어 북한측과 제한된 교역을 재개하려고 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우리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러한 대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방한했던 「시거」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통해, 대북한 외교

접촉완화 및 “인도적 교역” 실시방안 등을 우리측에 제시한바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방안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미·북한간 교역에 상응하는 한·중공간 및 한·소련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미국측은 이에 대해 확신을 한바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즉 미·북한 관계증진과 한국과 중·소의관계개선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미국의 대북한관계 개선이 추진돼야 함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지켜져 오고 있고, 미국은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만의 하나라도 우리와의 사전 협의 없는 미국의 대북접촉이나 협상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한·미관계의 중대변화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측의 대북한 “인도적 교역” 제안의도가 북한측의 경직된 대남 노선 현상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서 88올림픽 때까지만이라도 북한집단의 무모한 행동을 견제하자는데 있다고 볼 때 시도는 값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교역시도는 주변 4강의 한반도 교차승인 전단계의 진전으로도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더욱 뜻깊은 사태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의 이런 동향들이 바람직하게 발전되어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고, 결국 보다 항구적인 평화장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희 :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유익한 말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신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獨立 · 統一運動 史料集(Ⅱ)

1989년 11월 28일 인쇄

1989년 12월 5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 4 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7호

인쇄소 : 양 동 문 화 사
